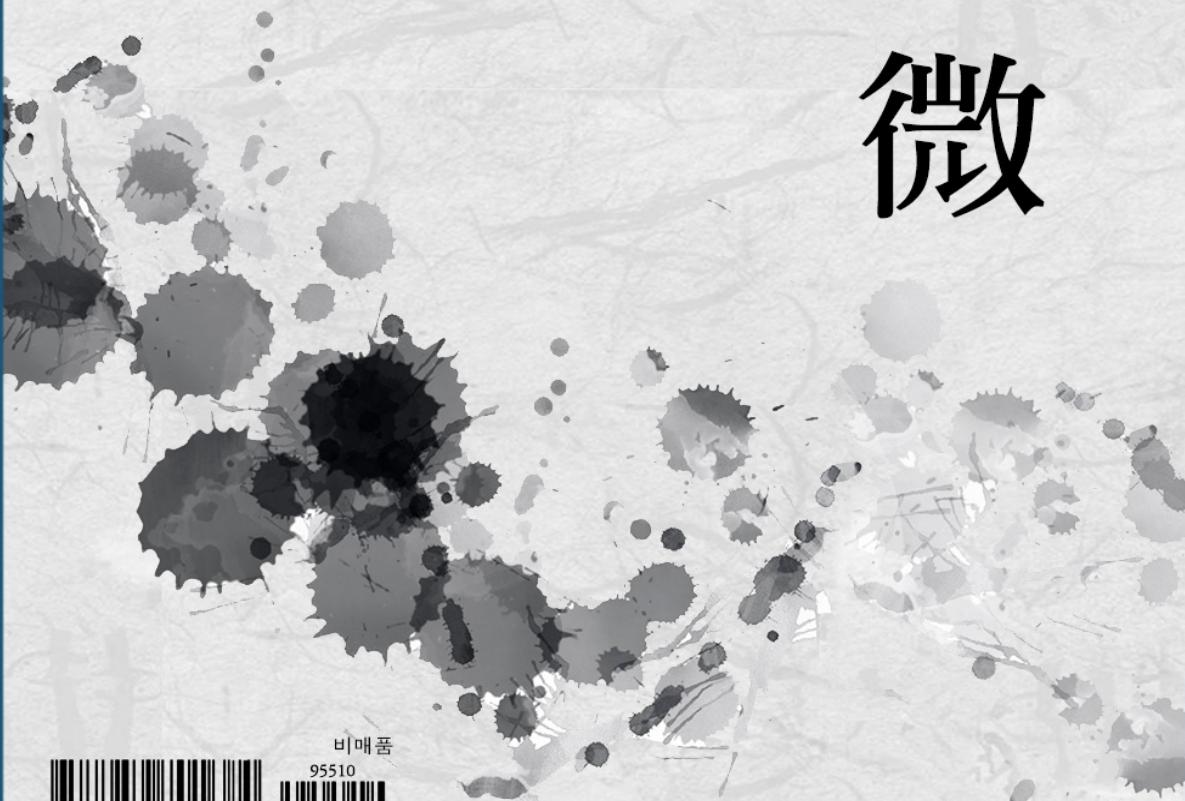


국역

銀海精微

저자 미상  
국역 김혜일  
김종현  
박수현  
해제 김혜일



비매품

95510



9 788959 701667 (EPUB)  
9 788959 702305 (MOBI)  
9 788959 702299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은해정미 권지상 銀海精微卷之上

서문 序	1.1
오륜팔각총론 五輪八廓總論	1.2
오륜지도 五輪之圖	1.3
오륜도식 五輪圖式	1.4
팔각도식 八廓圖式	1.5
팔각지도 八廓之圖	1.6
눈구석에서 핏발이 눈알로 뻗은 것 大眥 赤脈傳睛	1.7
눈초리에서 핏발이 눈알로 뻗는 것 小眥 赤脈傳睛	1.8
군살이 눈알을 덮는 것 筼 肉攀睛	1.9
닭의 벗이나 조갯살 같은 군살 雞 冠蜺 肉	1.10
눈꺼풀이 달라붙는 것 兩瞼粘睛	1.11
눈곱이 끈끈하고 진한 것 眇 淚粘濃	1.12
눈곱을 깨끗이 하는 법 眇 淚淨明	1.13
파리 날개 같은 검은 무늬가 보이는 것 蟻翅黑花	1.14
눈이 어둡고 꽂 같은 무늬가 보이는 것 目暗生花	1.15
열이 극심하고 눈곱이 생기는 것 熱極眴 睛	1.16
눈꺼풀이 풀로 붙인 듯 엉겨 붙는 것 胞肉膠凝	1.17
눈꺼풀에 부스럼이 생기는 것 胞肉生瘡	1.18

---

아랫눈꺼풀에 졸쌀 같은 것이 돋아나는 것 瞼生風粟	1.19
유행병으로 눈이 붉게 되는 것 天行赤眼	1.20
큰 병을 앓은 후에 예가 생기는 것 大患後生翳	1.21
갑자기 눈이 붉어지고 예가 생기는 것 暴露赤眼生翳	1.22
갑자기 풍열이 침범한 눈병 暴風客熱	1.23
귀신 들린 듯이 아픈 것 痛如神祟	1.24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것 痛如針刺	1.25
상한으로 열병을 앓은 후의 외장 傷寒熱病後外障	1.26
풍으로 당겨 눈꺼풀이 뒤집히는 것 風牽出瞼	1.27
풍으로 당겨 비뚤어지는 것 風牽喎斜	1.28
물건에 부딪쳐 다친 경우 被物撞破	1.29
부딪치거나 찔려서 예 가 생긴 것 撞刺生翳	1.30
피가 동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血灌瞳人	1.31
핏빛 예장이 눈알을 뒤덮는 것 血翳包睛	1.32
눈꺼풀에 다래끼가 생기는 것 瞼生偷針	1.33
검은자위에 구슬 모양의 예가 생김 黑翳如珠	1.34
게눈과 같이 되면서 아픈 것 蟹睛疼痛	1.35
검은자위가 소라처럼 뾰족하게 솟은 것 螺旋尖起	1.36
눈동자가 도드라져 튀어나온 것 突起睛高	1.37
눈꺼풀과 눈알이 굳어지는 것 硬瞼硬睛	1.38
하얗게 파인 모양이 물고기 비늘 같은 것 白陷魚鱗	1.39
꽃잎 모양의 예가 생겨 하얗게 파인 것 花翳白陷	1.40
새우 살처럼 속이 비치는 예 冰蝦翳深	1.41

---

옥색의 예가 눈을 덮어씌운 것 玉翳 浮瞞	1.42
예막이 수륜에 들어간 것 膜入水輪	1.43
풍륜에 예가 깊게 박힌 것 風輪釘翳	1.44
누런 예막이 아래로 드리운 것 黃膜下垂	1.45
붉은 예막이 아래로 드리운 것 赤膜下垂	1.46
위쪽과 아래쪽으로 생기는 예막 逆順生翳	1.47
눈이 짓무르고 농혈이 나오는 것 漏眼膿血	1.48
티끌이 눈에 들어간 것 飛塵入眼	1.49
속눈썹이 말려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拳毛倒睫	1.50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것 充風淚出	1.51
간이 풍사를 맞아 열이 쌓인 것 肝風積熱	1.52
앉았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어른거리는 것 坐起生花	1.53
저녁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黃昏不見	1.54
동공이 말라 오그라드는 것 瞳人乾缺	1.55
가려움이 심하여 참을 수 없는 것 癢 極難忍	1.56
눈에 바람이 들면 가려운 것 眼內風癢	1.57
발을 드리운 모양의 예막 垂簾翳	1.58
송골매의 눈처럼 되고 눈알을 굴리지 못하는 것 鶲 眼凝睛	1.59
눈동자가 퍼지는 것 輻軸 展開	1.60
소아의 눈병에 황인과 동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 小兒通睛	1.61
소아의 두진 小兒疹痘	1.62
소아의 눈에 예가 생긴 것 小兒眼生翳	1.63
두진이 눈에 들어간 것 痘疹入眼	1.64

소아 야맹증 小兒雀目	1.65
태중에서 풍을 받아 눈이 붉게 짓무르는 것 胎風赤爛	1.66
소아가 감증으로 눈을 상한 것 小兒疳傷	1.67
눈시울이 붉게 짓무르는 것 風弦赤眼	1.68
간풍으로 눈이 어둡고 아픈 것 肝風目暗疼痛	1.69
바람을 맞으면 시린 눈물을 흘리는 것 迎風洒淚症	1.70

## 은해정미 권지하 銀海精微卷之下

붉은 예장이 노을처럼 보이는 것 紅霞映日	2.1
이른 새벽에 눈이 아픈 것 早晨疼痛	2.2
오후에 눈이 아픈 것 午後疼痛	2.3
통증이 극렬하고 오한이 심한 것 痛極增寒	2.4
눈꺼풀에 어혈이 있는 것 瞳停瘀血	2.5
눈이 붉지 않으면서 아픈 것 不赤而痛	2.6
눈이 붉으면서 아프지는 않은 것 赤而不痛	2.7
왼쪽 눈이 붉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 左赤傳右	2.8
오른쪽 눈이 붉다가 왼쪽으로 옮기는 것 右赤傳左	2.9
눈꺼풀이 복숭아처럼 부어오른 것 胞腫如桃	2.10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 것 視物不眞	2.11
처녀의 월경이 거슬러서 눈병이 생긴 것 室女逆經	2.12
월경을 할 때 눈이 깔끄럽고 아픈 것 血室澀痛	2.13
흰자위가 누렇거나 붉게 된 것 白睛黃赤	2.14

---

눈병을 앓으면서 두통이 있는 것 患眼頭痛	2.15
멀리는 볼 수 있는데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 眼能遠視不能近視	2.16
소아의 감병으로 눈이 상한 것을 치료함 治小兒疳傷	2.17
안과상용처방 眼科常用處方	2.18
주경보신명목환 駐景補聰明目丸	2.18.1
구고탕 救苦湯	2.18.2
결명자산 決明子散	2.18.3
눈이 붉어진 모든 경우에 붙이는 처방 貼諸般赤眼	2.18.4
청량소독고 清涼消毒膏	2.18.5
경험세안산 經驗洗眼散	2.18.6
세안탕포산 洗眼湯泡散	2.18.7
주전산 酒煎散	2.18.8
주조산 酒調散	2.18.9
대황당귀산 大黃當歸散	2.18.10
가미탕포산 加味湯泡散	2.18.11
눈물이 나오는 3가지 병증 三淚	2.18.12
천궁환 川芎丸	2.18.13
가감주경환 加減駐景丸	2.18.14
발운산 撥雲散	2.18.15
사담산 瀉膽散	2.18.16
천문동음자 天門冬飲子	2.18.17
덧붙이는 처방 補言方	2.18.18
또 다른 처방 又方	2.18.19

---

---

눈을 씻는 처방인 척풍산 滌風散	2.18.20
소아의 두창이 눈에 들어간 것 小兒斑瘡入眼	2.18.21
눈이 벌겋게 부은 것을 치료함 治眼赤腫	2.18.22
소아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치료함 治小兒眼不開	2.18.23
또 다른 처방 又方	2.18.24
치료에, 오래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씻는 처방 治爛弦風不問遠年近日洗藥	
전염성 열안을 치료함 治時行熱眼	2.18.26 2.18.25
눈과 머리가 아플 때 쓰는 소풍산 眼目頭痛消風散	2.18.27
냉안에 쓰는 점안약 點藥, 冷眼用	2.18.28
눈이 갑자기 붉게 되는 것 暴赤眼	2.18.29
오장요론 五臟要論	2.19
증을 살펴 효험을 얻는 구결 審症應驗口訣	2.20
증에 따른 비결 審症秘論	2.21
눈의 경맥이 서로 전한 병증을 변별하는 논설 辨眼經脈交傳病症論	2.22
집게를 사용하는 법 用夾法	2.23
금침으로 눈을 열어주는 법 開金針法	2.24
관음주 觀音呪	2.25
안과에서 약을 쓰는 차례와 법도 眼科用藥次第法	2.26
금침안과경험방약시괄 金針眼科經驗方藥詩括	2.27
단약의 배합에 대하여 丹藥和論	2.28
단약을 만들 때의 긴요한 법도 合丹日切要法	2.29
모든 눈병을 치료하는 일체의 점안고약 治諸眼一切點眼膏藥	2.30
약성론 藥性論	2.31

---

---

## 해제·출판

해제	3.1
출판사항	3.2

---

## 1.1. 序 | 서문

### 1.1.1. 銀海精微序<sup>1</sup> | 은해정미서

夫眼者，乃五臟之精華，如日月麗天，昭明而不可掩者也。其首尾赤屬心，其滿眼白睛屬肺，其烏睛圓大屬肝，其上下肉胞屬脾，而中間一點黑瞳如漆者，腎實主之，是隨五臟各有症應。然論其所主，則瞳子之關係重焉，何以言之。目者肝之外候也。肝取木，腎取水，水能生木，子肝母腎，焉有子母而能相離者哉。故肝腎之氣充則精彩光明，肝腎之氣乏則昏朦眩暈。烏輪赤暈，刺痛浮腫<sup>2</sup>，此肝熱也。眼生清淚，枯黃繞睛，此肝虛也。瞳人開大，淡白偏斜，此腎虛也。瞳人焦小，或帶微黃，此腎熱也。一虛一實，以此驗之。

무릇 눈이란 바로 오장(五臟)의 정화(精華)이니,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있어서 환하고 밝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앞머리와 끄트머리가 붉은 것은 심(心)에 속하고, 눈에 가득한 흰자위는 폐(肺)에 속하며, 검은자위가 둥글고 큰 것은 간(肝)에 속하고, 위아래의 살로 된 꺼풀은 비(脾)에 속하며, 중간의 한 점 검은 동공이 옻칠과 같은 것은 신(腎)이 실로 이것을 주관하여, 여기에는 오장을 따라 각각 상응하는 병증이 있다. 그런데 그 주관하는 바를 논하자면 동공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 왜 그런가? 눈은 간(肝)의 징후가 밖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간은 목(木)을 취하고 신(腎)은 수(水)를 취하는데 수는 능히 목을 생(生)하니, 자식은 간이요 어미는 신이라, 어찌 자식과 어미가 서로 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간과 신의 기운이 충만하면 눈에 생기가 있어 빛나고 밝으며, 간과 신의 기운이 부족하면 어둡고 흐리며 어지럽다. 검은자위에 붉은 테 가 둘리고 찌르는 듯 아프며 붓는 것은 간열(肝熱)이다. 맑은 눈물이 나오고 누런빛이 눈알을 두르면 이는 간허(肝虛)이다. 동공이 열려 커지고 희끄무레하며 한쪽으로 쓸리는 것은 신허(腎虛)이다. 동공이 오그라들고 혹 누르스름한 색을 띠면 이는 신열(腎熱)이다. 하나하나 허(虛)하고 실(實)한 것을 이로써 징험할 수 있다.

然人肝腎之氣相依而行,孰知心者神之舍,又所以爲肝腎之副焉.所謂一而二,二而一者也.何則,心主血,肝藏血,血能生熱,凡熱衝發於眼,皆當清心涼肝,又不可固執其水生木之說.特眼者,輕膜裏水,照徹四方,溯源返本,非天一之水,又果孰爲主宰乎.

그러나 사람의 간과 신의 기운이 서로 의지하여 운행하는데, 심(心)은 신(神)이 머무는 곳으로서 또 간과 신에 버금가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이른바 하나 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은 혈(血)을 주관하고 간은 혈을 갈무리하는데 혈은 능히 열이 생기게 하니, 무릇 눈에서 갑자기 열이 나면 모두 청심양간(淸心涼肝)해야 하고, 그 수생목(水生木)의 이론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눈은 얕은 막이 물을 싸고 있어 온통 투명하게 비치니, 근원으로 거슬러 가보면 천일(天一)의 수(水)가 아니고서야 과연 또 누가 주재(主宰)가 되겠는가?

折而論之, 則拘急牽腮, 瞳青胞白, 癢而清淚, 不赤不痛, 是謂之風眼. 烏輪突起, 胞硬紅腫, 眇淚濕漿, 裏熱刺痛, 是謂熱眼. 眼昏而淚, 胞腫而軟, 上壅朦朧, 酸澀微赤, 是謂之氣眼. 其或風與熱並, 則癢而浮赤, 風與氣搏, 則癢澀昏沈. 血熱交聚, 故生淫膚<sup>3</sup> 栗肉<sup>4</sup> 紅縷<sup>5</sup> 偷針<sup>6</sup> 之類. 氣血不至, 故有渺視<sup>7</sup> 胞垂<sup>8</sup> 雀目<sup>9</sup> 盲障<sup>10</sup> 之形. 淡紫而隱紅者爲虛熱, 鮮紅而蠹赤者爲實熱. 兩脣呈露, 生齶肉者, 此心熱血旺, 白膜紅膜如傘紙者, 此氣滯血凝. 熱症瞳人肉壅, 白睛帶濕, 色浮而赤者也, 冷症瞳人青綠, 白睛枯槁, 氣沈而濁也. 眼熱經久, 復有風冷所乘則赤爛, 眼中不赤, 但爲痰飲所注則作痛. 肝氣不順而挾熱, 所以羞明, 熱氣蓄聚傷胞, 所以胞合. 此外症之大概.

결단하여 논하자면, 땅기고 오그라들면서 동공이 푸르고 눈꺼풀이 희며, 가렵고 맑은 눈물이 나면서 붉지도 아프지도 않은 것을 풍안(風眼)이라 한다. 검은 자위가 솟아오르고, 눈꺼풀이 단단하고 붉게 부으며, 눈곱과 눈물로 눅진거리고 속에 열이 있어 찌르는 듯 아프면 이것을 열안(熱眼)이라 한다. 눈이 어두우면서 눈물이 나고, 눈꺼풀은 부었으나 무르며 위에서 막아 흐릿하고, 시큰하고 깔깔하면서 불그스름한 것을 기안(氣眼)이라 한다. 혹 풍(風)이 열(熱)과 겹치

면 가려우면서 붓고 붉어지며, 풍이 기(氣)와 부딪치면 가렵고 깔깔하면서 어둡고 침침하다. 혈(血)과 열(熱)이 함께 모여들어서 음부(淫膚), 속육(粟肉), 혼루(紅縷), 투침(偷針) 등이 생기고, 기혈(氣血)이 이르지 못하여 묘시(渺視), 포수(胞垂), 작목(雀目), 맹장(盲障) 등이 나타난다. 얇은 자줏빛이나 은은한 붉은색은 허열(虛熱)이고, 선홍색이나 황적색이면 실열(實熱)이다. 양 눈초리가 드러나고 군살이 생기면 이는 심열(心熱)에 혈(血)이 왕성한 것이고, 희거나 붉은 막이 기름종이 같으면 이는 기체(氣滯)로 혈(血)이 엉긴 것이다. 열증(熱症)은 동공이 살로 막히고 흰자위는 습기를 띠며 색이 떠있으면서 붉은 것이고, 냉증(冷症)은 동공이 청색이나 녹색이고 흰자위는 말라붙으며 기운이 가라앉고 탁한 것이다. 눈의 열(熱)이 오래된 데다 또 풍랭(風冷)이 침입하면 붉게 짓무르는데, 눈 속은 붉지 않고 단지 담음(痰飲)이 흘러 들어가면 통증이 나타난다. 간기(肝氣)가 불순(不順)한데다 열(熱)을 끼므로 눈이 부시고, 열기(熱氣)가 모여들어 눈꺼풀을 상하므로 눈을 뜨지 못한다. 이것이 외증(外症)의 큰 줄거리이다.

然而五臟不可闕一，脾與肺獨無預，何也。曰白睛帶赤，或紅筋者，其熱在肺，上胞下瞼<sup>11</sup>，或目唇間如疥點者，其熱在脾。脾主味也，五味之秀養諸中則精神發於外，肺主氣也，水火升降，榮衛流轉，非氣孰能使之。前所以五臟各有症應，於此又可推矣。雖然眼之爲患，多生於熱，其間用藥，大抵以清心涼肝，調血順氣爲先。有如腎家惡燥，設遇虛症，亦不過以當歸地黃輩潤養之，輕用溫藥不可也。況乎肺能發燥，肝亦好潤，古方率用杏仁乾柿 餡糖砂蜜爲佐，果非潤溢之意乎。

그러나 오장(五臟)은 하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비(脾)와 폐(肺)는 유독 관여함이 없으니 어째서인가? 흰자위가 붉은색을 띠거나 핏발이 돋는 경우 그 열(熱)은 폐에 있고, 윗눈꺼풀이나 아랫눈꺼풀, 혹은 그 맞닿는 곳에 옴 같은 것이 돋았으면 그 열은 비(脾)에 있다. 비는 미(味)를 주관하니, 오미(五味)의 빼어난 것을 속에서 기르면 정신(精神)이 밖으로 발현되고, 폐는 기(氣)를 주관하니, 수화(水火)가 승강(升降)하고 영위(榮衛)가 유전(流轉)하는 것을 기(氣)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앞에서 오장(五臟)에 각각 증상이 있어

응한다 한 것을 여기에서 또 추단할 수 있다. 비록 그렇지만 눈의 질환은 열(熱)에서 생기는 것이 많고, 여기에 약을 쓸 때는 대체로 청심량간(淸心涼肝)하여 조혈순기(調血順氣)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이를테면 신(腎)은 조(燥)를 꺼리니, 설령 허증(虛證)을 만나더라도 역시 당귀(當歸), 지황(地黃) 등으로 윤양(潤養)할 뿐이요, 경솔히 덥히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더구나 폐는 능히 조(燥)를 발생시키고 간 역시 윤(潤)을 좋아하니, 고방(古方)에 모두 행인(杏仁), 건시(乾柿), 이당(飴糖), 사밀(砂蜜)을 좌약(佐藥)으로 쓴 것은 과연 적셔서 넘치게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至於退翳一節, 尤關利害, 凡翳起於肺, 肺家受熱, 輕則朦朧, 重則生翳. 如珍珠如碎米者易散, 翳狀如梅花者難消. 雖翳自熱生, 然治法先退翳而後退熱者, 謂熱極生翳. 若先去赤熱, 則血爲之冰而翳不能去矣. 其有赤眼, 凉藥與之過多, 又且滌之以水, 不反掌而水凝矣. 眼特一團水, 且水性清澄, 尤不可拘拘於點洗. 喜怒失節, 嗜欲無度, 窮役眼力, 泣涕過多, 凌寒衝風, 當暑月日, 不避煙火, 飲啖熱多, 此皆患生於臟腑者也.

예장(翳障)을 없애는 문제로 말하자면 더욱 이해(利害)가 걸려 있으니, 무릇 예(翳)는 폐(肺)에서 일어나는데, 폐가 열을 받은 것이 가벼우면 눈이 흐릿해지고 중하면 예(翳)가 생긴다. 진주나 싸라기 같은 것은 쉽게 흘어지지만, 예장의 모양이 매화 같은 것은 없애기가 어렵다. 비록 예장이 열(熱)에서 생기지만, 치법이 퇴예(退翳)를 먼저 하고 퇴열(退熱)을 나중에 하는 것은 열이 극에 달해서 예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먼저 적열(赤熱)을 제거한다면 그 때문에 혈(血)이 얼어붙어 예가 제거되지 않는다. 적안(赤眼)의 경우에 서늘한 약을 지나치게 투여하고 또 물로 씻어내면 순식간에 수(水)가 응결된다. 눈은 다만 한 덩어리의 수(水)인데, 또 수의 성질은 맑고 깨끗한 것이니 더욱이 약물을 넣거나 씻는 데에 얹매여서는 안 된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한없이 즐기며, 눈의 힘이 다 소모되도록 쓰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며, 추위에 노

출되고 바람을 맞거나 더운 계절에 햇빛을 받고, 연기와 불을 피하지 않으며, 열이 많은 음식을 마시고 먹으니, 이는 모두 질환이 장부(臟腑)에서 생기는 것이다.

專事點洗可乎哉. 有能靜坐澄神, 愛護目力, 放懷息慮, 心逸目休<sup>12</sup>, 調和飲食以養之, 斟酌藥餌以平之, 明察秋毫, 斷可必矣<sup>13</sup>.

점안하고 씻는 것만을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만약 능히 고요히 앉아 정신을 맑게 하고 눈의 힘을 아껴 보호하며, 잡념과 고민을 없애 마음이 느긋하고 눈이 쉬도록 하며, 음식을 조화롭게 하여 섭양하고 약이(藥餌)를 적절히 하여 평안하게 한다면, 가느다란 터럭까지도 뚜렷이 볼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

### 1.1.2. 銀海精微引 | 은해정미인

銀海精微二卷, 未知何人氏所撰著. 蓋余生而目善病, 昔直掖垣<sup>14</sup>, 余同寅友李沖涵<sup>15</sup>公出以示余曰, 基幾有當於目病方技乎. 余檢閱, 見其圖像立論及答問宗旨, 偶一分晰明盡, 若嘗飲上池<sup>16</sup>所視見者. 取名銀海本之道藏<sup>17</sup>, 其爲方書, 信乎精矣微矣. 數年宦游所至, 每攜之笥中, 茲承乏河朔, 因檄所屬付剞劂, 蓋不欲秘之自私也. 雖然方亦未可盡拘泥也. 脈症有陰陽表裏虛實之異, 斟酌損益存乎其人, 不然拘泥古法而不通變, 則是編也眞古人糟粕耳. 至易簡妙方, 則古宋陽里子所授, 魯東門伯所修, 六物不俟外假<sup>18</sup> 而自稱絕技, 又是書所不載也<sup>19</sup>.

『銀海精微』라는 책은 어디의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나는 나면서부터 눈병을 잘 앓았는데, 예전에 액원(掖垣)에서 근무할 때 동료인 이충함(李沖涵) 공이 이 책을 꺼내어 보여주며 말하기를 “그대의 눈병에 알맞은 처방이 있을까요?” 하였다. 내가 살펴보니 그 그림이나 논한 것, 문답의 취지가 모두 하나하나 뚜렷하고 명백하여 상지(上池)의 물을 마신 듯 환히 알게 되는 바가 있었다. ‘은해(銀海)’라는 이름은 도가(道家)의 책에서 따온 것이며, 방서(方書)로서의 내용도 이름처럼 참으로 정미(精微)하다. 여러 해 동안 벼슬살이로 가게 되는 곳마다 항상 상자에 담아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하삭(河朔)에 부임하

여서는 부하 관리들에게 맡겨 판각(板刻)하도록 하니, 독차지하여 숨겨두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방(方)은 또한 거기에만 얹매여서는 안 된다. 맥증(脈證)에 음양(陰陽), 표리(表裏), 허실(虛實)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아리고 감하여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옛 방법에 얹매여 변통(變通) 할 줄을 모른다면 이 책은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에 불과하게 된다. 쉽고 간단한 묘방(妙方)으로 말하자면 옛날 송(宋)나라 양리자(陽里子)가 전해주고 노(魯)나라 동문백(東門伯)이 수양한 바로서, 여섯 재료는 밖에서 빌려올 것도 없이 그대로 절기(絕技)라 하기에 걸맞은데, 또한 이 책에는 실려 있지 않은 바이다.

賜進士第中憲大夫河南等處提刑按察司副使奉敕 兵巡河北道前吏科左給事中北海  
齊一經<sup>20</sup>書

사진사제(賜進士第) 중헌대부(中憲大夫) 하남등처제형안찰사부사(河南等處提刑按察司副使) 봉직병순하북도(奉敕 兵巡河北道) 전이과좌급사중(前吏科左給事中) 북해(北海) 제일경(齊一經)이 쓰다

### 1.1.3. 唐眞人孫思邈進眼藥表<sup>21</sup> | 당나라 진인 손사막이 안약을 바치는 표문

貞觀<sup>22</sup>十年二月十八日相州安陽縣尉崔科<sup>23</sup>蘇門<sup>24</sup>集仙洞右臣<sup>25</sup>

정관(貞觀) 10년 2월 18일, 상주(相州) 안양현위(安陽縣尉) 최과(崔科), 소문산(蘇門山) 집선동(集仙洞) 우신(右臣)

世之最貴者, 莫過於人, 人中最貴者, 莫過於眼. 眼者, 五臟之精華, 一身之珍寶, 能觀萬物, 照耀無窮, 膠潔如珠, 包涵於天地, 內應於肝膽, 外應於睛瞳. 眼雖屬於竅門, 乃歸腎而爲主. 腎屬北方壬癸水, 心屬南方丙丁火, 心腎不安則水火交戰. 水火交戰相克, 衆聚血氣而停留, 膽碎肝虛, 原是眼中受病. 尺雖療眼<sup>26</sup>, 先須補腎, 後乃修肝. 肝是腎之苗, 腎乃肝之主. 修肝則神魂安定, 補腎則精魄流通, 魂魄既然安定, 眼中

自然明眞. 喻以種菜而修根, 根壯土培則枝葉方榮, 根損土衰則枝葉焦枯. 何獨謂腎, 黑睛屬腎, 腎虛則腦枯, 淚道於肝, 肝風則冷淚出, 白仁屬肺, 肺熱則赤脈通睛,  
上胞上瞼<sup>27</sup>屬脾胃, 脾胃風則胬肉壅, 茶肉壅則赤腫, 赤乃屬心, 心熱則視物不准.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로 사람보다 더한 것이 없고, 사람에게 가장 귀하기로는 눈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눈은 오장(五臟)의 정화(精華)이자 한 몸의 보배로서, 온갖 것을 다 보고 한없이 환하게 빛나며 깨끗하기가 구슬과 같아 천지(天地)의 이치를 담았으니, 안에서 응하는 것이 간담(肝膽)이고 밖에서 응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눈은 비록 밖과 통하는 구멍의 하나이지만, 신(腎)에 귀속되어 주인으로 삼습니다. 신은 북방(北方)의 임계수(壬癸水)에 속하고 심(心)은 남방(南方)의 병정화(丙丁火)에 속하여, 심신(心腎)이 안정되지 못하면 수(水)와 화(火)가 서로 싸웁니다. 수와 화가 서로 싸우고 제약하면 혈기(血氣)가 모여들어 정체되며, 담(膽)과 간(肝)이 허약해져 이 때문에 눈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비록 눈을 치료한다지만 먼저 신(腎)을 보하고 난 다음에 간(肝)을 다스려야 합니다. 간은 신에서 자라나온 썩과 같고, 신은 간의 주인입니다. 간을 다스리면 신흔(神魂)이 안정되고 신을 보하면 정백(精魄)이 유통되며, 혼과 백이 이미 안정되고 나면 눈이 자연히 밝게 됩니다. 채소를 심고 뿌리를 돌보는 데에 비유하자면, 뿌리가 튼튼하고 흙이 두둑하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며, 뿌리가 손상되고 흙이 빈약하면 가지와 잎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유독 신(腎)만을 말하겠습니까? 검은자위는 신(腎)에 속하여 신이 허하면 뇌(腦)가 마르고, 눈물길은 간(肝)에 통하여 간이 풍(風)을 받으면 때 없이 눈물이 나오며, 흰자위는 폐(肺)에 속하니 폐에 열이 있으면 핏발이 눈알로 뻣으며, 눈꺼풀과 눈시울은 비위(脾胃)에 속하니 비위가 풍(風)을 받으면 군살이 잡히고, 군살이 잡히면 벌겋게 붓는데, 붉은색은 심(心)에 속하니 심에 열이 있으면 사물을 보는 것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眼有五輪, 外應五彩, 脾肝心腎肺, 又屬五行, 五行者, 金木水火土也, 五輪者, 精血膜氣水. 勿信愚醫妄行鉤割, 切要精尋方論, 藥物精細. 大人者或尋思苦用精神, 小兒者胎中受熱或積, 好食五辛蟹魚酢豬肉醋蒜, 受食貪欲, 或瞻星視日, 近火衝煙,

或精枯不睡, 思慮, 家筵無歇, 致使三焦壅熱, 遂乃迎風淚出, 睹物煙生, 觀空中如霜色之形, 觀太陽如水裏. 蓋腎臟虛憊, 夜夢鬼交, 眼前常見黑花繚繞, 看物依稀, 遂留方於左右<sup>28</sup>. 如此動靜, 並是損目之根本, 日近月遠, 或成大患. 少年不問道理, 恣意隨心酒飽, 房事不節, 或冬用近火, 夏月耽涼, 坐臥當風, 不能回護, 貪淫樂欲, 忌系抱形, 或身貴家豐, 當年壯勝, 酒色異常, 難進損之, 方永犯氣衰, 至於祈神禱鬼, 積苦其形, 其病或疾.

눈에는 오륜(五輪)이 있어 밖으로 다섯 빛깔에 응하고, 비(脾), 간(肝), 심(心), 신(腎), 폐(肺)는 또 오행(五行)에 속하는데, 오행은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이고 오륜(五輪)은 정(精), 혈(血), 막(膜), 기(氣), 수(水)입니다. 어리석은 의사들이 함부로 긁고 째는 것을 믿지 말고 반드시 방론(方論)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 약을 쓰는 것이 빈틈없어야 합니다. 어른의 경우 혹 깊이 생각하느라 정신을 혹사하고 소아의 경우 태중(胎中)에서 열을 받거나 식적(食積)이 있으며, 매운 채소, 계나 생선, 삭힌 음식, 돼지고기, 시고 매운 양념 등을 잘 먹거나 탐욕스레 많이 먹으며, 별을 바라보고 해를 쳐다보거나, 불을 가까이하고 연기를 쐬거나, 정(精)이 고갈되도록 잠을 자지 않거나, 생각이 많고 집안에 연회가 끊이지 않으니, 삼초(三焦)에 열이 꽉 차게 되어 마침내 바람을 받으면 눈물이 나오고 사물이 부옇게 보이며 공중에 아른아른한 형체가 있는 것 같고, 밝은 핫빛을 보는데도 물속과 같습니다. 대개 신장(腎臟)이 허약하면 꿈속에서 귀신과 교접하고 눈앞에 늘 거무스름한 것이 어른거리며 사물을 보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눈을 손상시키는 근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병을 이루기도 합니다. 젊은이가 도리를 따지지 않아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배불리 먹으며 방사(房事)를 절제할 줄 모르거나, 혹 겨울에 불을 가까이하고 여름에 시원한 것을 탐하며, 쉬고 잠잘 때 바람을 맞아 몸을 돌볼 줄 모르며, 방탕함에 탐닉하여 욕심껏 즐기고 몸을 단련하기는 싫어하며, 혹여 신분이 귀하고 집안이 부유한데 장성(壯盛)한 시절에 주색(酒色)이 정도를 넘

으면 절제하라고 진언하기도 어려워 장차 기(氣)가 영영 쇠약해지게 되니, 신령에게 기도하고 귀신에게 비는 지경에 이르러 오래도록 육신을 괴롭게 하면 결국 고질병이 됩니다.

今乃按其本草主治處世之方, 此乃補腎安神. 久服則搜風明目, 補暖除邪, 但依此方修合藥餌, 克日管愈, 不問老少男女, 服無妨. 臣驗實爲至奇辦物精專, 伏惟陛下永施. 冒瀆聖聰, 臣下情無任惶恐之至, 謹表以聞.

이에 본초(本草)의 주치(主治)에 따라서 처방을 만들었사오니, 이는 신(腎)을 보하고 신(神)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오래 복용하면 풍(風)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하며, 보하고 덥히면서 사기(邪氣)를 제거하니, 단지 이 처방에 의지하여 약이(藥餌)를 알맞게 조절한다면 날을 기약하여 치유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신(臣)이 징험한바 참으로 지극히 기이하며 병을 주관함이 정밀하고 전일(專一)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陛下)께서 길이 베푸소서. 성충(聖聰)을 모독하게 되어 신(臣)의 마음에 황공함이 지극하여 감당할 수 없사오나, 삼가 표(表)를 올려 아뢰옵나이다.

---

<sup>1</sup> : 銀海精微序 : 이 서문의 내용은 楊士瀛의 『仁齋直指』에 수록된 「眼目方論」과 거의 같다. 다만 글자의出入이 조금 있고, 『仁齋直指』는 끝에 “속담에 눈은 약을 넣지 않으면 상하지 않고 귀는 후비지 않으면 귀먹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경계로 삼으라[諺曰眼不點不害, 耳不幹不聾, 請以爲戒]”는 한 문장이 더 있다. 또한 『景岳全書』에도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출전서명은 나와 있지 않고 ‘楊仁齋曰’이라고만 하였으며, 마지막 문장이 없어 「銀海精微序」와 일치한다. 또 明代에 袁學淵이 편찬한 『祕傳眼科七十二症全書』에는 이 글이 ‘田仁齋銀海精微論’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역시 『仁齋直指』의 마지막 문장은 없다.

<sup>2</sup> : 浮腫 : 『仁齋直指』에 ‘浮漿’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의 증상으로 볼 때 ‘浮漿(물기 가 어림)’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린다. 또한 이와 같은 구절이 뒤에 나오는 본문 중에 보이는데, 역시 ‘浮漿’으로 되어 있다.

3. 淫膚 : 문드려진 살이나 군살 등을 말한다. ↵
4. 粟肉 : 좁쌀처럼 오톨도톨하게 생긴 군살. ↵
5. 紅縷 : 실오라기처럼 얹힌 실핏줄이 드러나 보이는 것. ↵
6. 偷針 : 다래끼. ↵
7. 渺視 : ‘眇 視’의 잘못으로 보인다. ‘眇 視’는 애꾸눈이라는 뜻이며, ‘眇 目’이라고도 한다. ↵
8. 胞垂 : 눈꺼풀이 늘어지는 것. ↵
9. 雀目 : 야맹증. ↵
10. 盲障 : 빛을 완전히 가리는 驪 障. ↵
11. 上胞下瞼 : 대개 ‘胞’와 ‘瞼’을 구별하지 않고 눈꺼풀의 의미로 쓰거나, ‘胞’는 눈꺼풀을, ‘瞼’은 속눈썹이 난 부위인 눈시울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本書에서 ‘胞’는 위쪽의 눈꺼풀을, ‘瞼’은 눈의 아래쪽 껌풀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구분할 때 ‘胞’는 胃의 영역이고 ‘瞼’은 脾의 영역이다. 본문 첫머리의 「五輪圖式」과 「八廓圖式」 그림에 명시되어 있다. ↵
12. 心逸目休 : (集成) 江本에는 ‘寡慮養神’으로 되어 있다. ↵
13. 斷可必矣 : (集成) 鼎本에는 이 뒤에 ‘唐孫眞人原著’ 6자가 더 있다. ↵
14. 披垣 : 원래 皇宮의 담장을 뜻하는데, 唐나라 때는 門下省과 中書省을 이렇게 불렀고 후세에도 그와 유사한 중앙 부서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
15. 李沖涵 : (集成) 江本에는 ‘李沖和’로 되어 있다. ↵
16. 上池 : 上池水. 초목에 맷힌 이슬을 말하는데, 여기서 ‘상지수를 마신 듯하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환히 깨뚫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 장상군(長桑君)이 편작(扁鵲)에게 약을 꺼내어 주면서 “이 약을 상

지(上池)의 물로 마시면 30일 만에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리라.” 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

17. 取名銀海本之道藏 : ‘銀海’가 道家의 용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四庫全書의 『銀海精微、提要』에 설명이 나와 있다. “舊本에 唐나라 孫思邈이 편찬했다고 되어 있으나, 唐·宋藝文志에 모두 著錄되어 있지 않고 孫思邈 本傳에도 이 책이 있다는 말은 없다. ‘銀海’라 한 것은 아마도 눈이 銀海라는 뜻을 취한 것인데, 蘇軾의 「雪詩」에 「凍合玉樓寒起粟, 光搖銀海眩生花」라는 구절에 대하여 『瀛奎律髓』에서는 王安石의 견해를 인용하여 ‘道家의 책에서 어깨를 玉樓라 하고 눈을 銀海라 한다’고 했다.(후략)” ↪

18. 古宋陽里子所授, 魯東門伯所修, 六物不俟外假 : 晉나라 사람 張湛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晉書』에 실려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范寧이 일찍이 目痛을 앓아 中書侍郎인 張湛에게 가서 처방을 구하자 장담이 그에게 농담으로 말하기를, ‘옛 처방을 宋나라 陽里子가 약간 그 술법을 배워서 魯나라 東門伯에게 전해주었고, 魯東門伯이 左丘明에게 전해주어 마침내 대대로 전해져왔습니다. 漢나라의 杜子夏와 鄭康成, 魏나라의 高堂隆, 晉나라의 左太沖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들이 눈병을 앓다가 이 처방을 얻었는데, 독서를 적게 하는 것이 첫째요,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둘째요, 내면을 관조하는 데 몰두함이 셋째요, 바깥에 신경 쓰기는 간략히 함이 넷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다섯째요,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여섯째입니다. 이 여섯 약재(六物)를 神火로써 달이고 氣의 체로 걸러서 가슴속에 7일간 묵힌 다음 方寸에 넣습니다. 한동안 수양하면 가깝게는 자기의 속눈썹을 셀 수 있고 멀게는 채찍 끝의 가는 가닥을 볼 수 있으며, 오래도록 계속 복용하면 담장 너머까지 꿰뚫어보게 되어, 단지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는 간단한 양생의 이치를 약재와 그 조제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方寸이란 心을 가리키니, 여섯 가지 양생법이 몸에 배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말이다. ↪

19. 又是書所不載也 : 이 책에 실려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下卷의 「眼科常用

處方」중 地黃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다. 地黃丸이나 그 뒤의 菊花散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

20. 齊一經 : 明代 後期의 官員 중에 齊一經이라는 사람이 있으나, 정확한 生卒年은 알려져 있지 않고 동일인으로 확증할 길이 없다. ↵

21. 唐真人孫思邈進眼藥表 : (集成) 이 表文은 원서에 없는데, 明나라 嘉靖 연간의 光啓堂本에 의거하여 補入하였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는 本書 첫머리의 「序」, 「引」, 「表」가 모두 없고 「五輪八廓總論」으로 시작된다. ↵

22. 貞觀 : 唐太宗 李世民의 年號. ↵

23. 相州安陽縣尉崔科 : 唐太宗이 眼病을 앓을 때 孫思邈이 崔科를 통하여 眼藥과 進眼藥表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史籍에서 명백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

24. 蘇門 : 蘇門山. 河南省 安陽市 부근 五岩山의 古稱이다. 五岩山의 藥王洞이 孫思邈의 은거지라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孫思邈이 만년에 은거한 곳은 陝西省 銅川市 耀州區 부근의 五台山으로 알려져 있다. ↵

25. 右臣 : ‘臣’과 같이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讀書叢說』에 “民居左, 養民當以仁也. 臣居右, 臣所守者義也. 事居前, 理事尙明也. 物在後, 不以物爲先也.”라 하였다. ↵

26. 尺雖療眼 : ‘尺’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又’의 形誤가 아닌지 의심된다. ↵

27. 上胞上瞼 : ‘上胞下瞼’의 잘못으로 보인다. ↵

28. 遂留方於左右 : 이 구절은 文義가 뚜렷하지 않다. ‘方’이 ‘妨’의 誤記일 가능성도 있으나, 억측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남겨두기로 한다. ↵



## 1.2. 五輪八廓總論 | 오륜팔각총론

人有兩眼，猶如天地之有兩曜。視萬物，察纖毫，何所不至。日月有一時之晦者，風雲雷雨之所致也，眼之失明者，四氣七情之所害也。大抵目爲五臟之精華，一身之要系，故五臟分五輪，八卦名八廓。五輪，肝屬木曰風輪，在眼爲鳥睛，心屬火曰血輪，在眼爲二眴，脾屬土曰肉輪，在眼爲上下胞瞼，肺屬金曰氣輪，在眼爲白仁，腎屬水曰水輪，在眼爲瞳人。至若八廓無位有名，大腸之腑爲天廓，脾胃之腑爲地廓，命門之腑爲火廓，腎之腑爲水廓，肝之腑爲風廓，小腸之腑爲雷廓，膽之腑爲山廓，膀胱之腑爲澤廓，斯爲眼目之根本，而又借血爲之胞絡。

사람에게 두 눈이 있는 것은 세상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온갖 물건을 다 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살피니, 어디엔들 이르지 못하겠는가. 해와 달이 잠시 어두워질 때가 있는 것은 풍운(風雲)과 뇌우(雷雨) 때문이고, 눈이 밝음을 잃는 것은 사기(四氣)와 칠정(七情)이 해쳐서이다. 무릇 눈이란 오장(五臟)의 정화(精華)이고 온몸의 긴요한 실마리이니, 오장을 오륜(五輪)에 분속(分屬)하고 팔괘(八卦)로써 팔각(八廓)을 명명한다. 오륜은, 간(肝)은 목(木)에 속하니 풍륜(風輪)이며 눈에서는 검은자위이고, 심(心)은 화(火)에 속하니 혈륜(血輪)이며 눈에서는 눈구석과 눈초리이고, 비(脾)는 토(土)에 속하니 육륜(肉輪)이며 눈에서는 위아래 눈꺼풀이고, 폐(肺)는 금(金)에 속하니 기륜(氣輪)이며 눈에서는 흰자위이고, 신(腎)은 수(水)에 속하니 수륜(水輪)이며 눈에서는 동공이다. 팔각(八廓)의 경우 위치는 없고 이름만 있어, 대장(大腸)의 부(腑)가 천각(天廓)이요, 비위(脾胃)의 부가 지각(地廓)이요, 명문(命門)의 부가 화각(火廓)이요, 신(腎)의 부가 수각(水廓)이요, 간(肝)의 부가 풍각(風廓)이요, 소장(小腸)의 부가 뇌각(雷廓)이요, 담(膽)의 부가 산각(山廓)이요, 방광(膀胱)의 부가 택각(澤廓)이니, 이것이 눈의 근본이며 또 혈(血)을 빌어 그 안포(眼胞)의 낙맥(絡脈)이 된다.

或蘊積風熱, 或七情之氣, 鬱結不散, 上攻眼目, 各隨五臟所屬而見. 或腫而痛, 眇澀多淚, 或生障昏暗失明, 其症七十有二. 治之須究其源, 因風則散之, 热則清涼之, 氣結則調順之, 切不可輕用針刀鉤割. 偶得其愈, 出乎僥幸, 或有誤而爲者, 則必爲終身之患也. 又不宜通用涼藥, 恐冰其血, 凝而不流, 亦成痼疾. 用藥當量人之老少, 氣體之虛實. 又有腎虛者, 亦令人眼目無光, 或生冷翳, 宜補暖下元, 滋補腎水. 北方患者, 多是日冒風沙, 夜臥熱炕, 二氣交蒸, 故使之用涼藥, 北方之人故與南方之人用藥有不同也. 瘡痘之後, 毒氣鬱結於肝而氣不能瀉, 攻發於眼目, 傷於瞳人者, 素無治法也.

혹 풍열(風熱)이 쌓이거나 칠정(七情)의 기(氣)가 맺혀서 흩어지지 않으면 위로 눈을 공격하여 각각 오장(五臟)의 속하는 바를 따라서 나타난다. 혹은 붓거나 아프고, 눈이 부시거나 깔깔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며, 혹은 예장(翳障)이 생겨 눈이 어둡거나 전혀 보지 못하기도 하여, 그 증상이 72가지이다. 치료는 모름지기 그 근원을 탐구해야 하니, 풍(風)으로 인한 것이라면 흘고, 열(熱)이면 식히며, 기(氣)가 맺혔으면 고르고 순조롭게 하되, 결코 함부로 침이나 칼로 긁고 째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낫는다 할지라도 요행히 된 것이고, 혹시라도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평생의 우환이 된다. 또 량약(涼藥)을 통용(通用)해서는 안 되니, 그 혈(血)을 얼어붙게 하여 엉겨서 흐르지 못하면 또한 고질(痼疾)이 될까 두렵다. 약을 쓸 때는 마땅히 환자의 노소(老少)와 몸의 허실(虛實)을 해아려야 한다. 또 신허(腎虛)의 경우에도 눈에 정광(精光)이 없어지고 혹 냉예(冷翳)가 발생하는데, 마땅히 하원(下元)을 보(補)하고 덥히며 신수(腎水)를 자보(滋補)해야 한다. 북방(北方)의 환자들은 흔히 낮에는 바람과 모래를 무릅쓰고 밤에는 뜨거운 구들에 누워 두 기(氣)가 서로 찌므로 이때는 량약(涼藥)을 쓰니, 북방의 사람은 본래 남방의 사람과 약을 쓰는 데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두진(痘疹)을 앓은 후에 독기(毒氣)가 간(肝)에 울결(鬱結)되어 기(氣)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에서 터져 나와 동공을 상한 경우에는 본래 치법이 없다.



### 1.3. 五輪之圖 | 오륜지도

眼中赤脈血輪心, 黑睛屬腎水輪深, 白睛屬肺氣輪應, 肝主風輪位亦輪, 更有肉輪脾  
臟應, 兩臉屬脾胞胃侵<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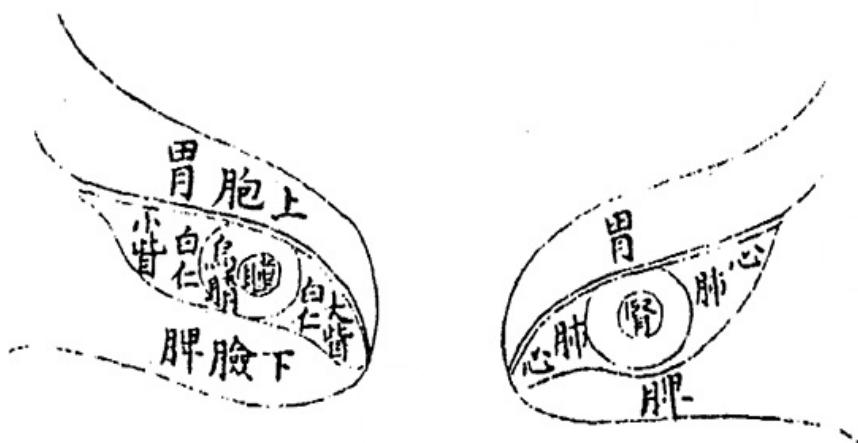
눈 속의 붉은 혈맥(血脈)은 혈륜(血輪)이니 심(心)이요, 검은 동공은 신(腎)에  
속하니 수륜(水輪)이 깊고, 흰자위는 폐(肺)에 속하여 기륜(氣輪)에 응하며, 간  
(肝)은 풍륜(風輪)을 주관하는데 그 위치도 바퀴와 같고, 또 육륜(肉輪)이 있어  
비장(脾臟)에 응하며, 아랫눈꺼풀은 비(脾)에 속하고 윗눈꺼풀은 위(胃)에 가  
깝다.

---

<sup>29</sup>. **兩臉屬脾胞胃侵** : 대개 ‘胞’와 ‘瞼’을 구별하지 않고 눈꺼풀의 의미로 쓰거  
나, ‘胞’는 눈꺼풀을, ‘瞼’은 속눈썹이 난 부위인 눈시울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本書에서는 ‘上胞下瞼’이라 하여 ‘胞’는 위쪽의 눈꺼풀을,  
‘瞼’은 눈의 아래쪽 꺼풀을 가리킨다. ↪

1.4. 五輪圖式 | 오륜도식

# 式 圖 輪 五



大眥 赤者, 心之實也.

눈구석이 붉은 것은 심(心)이 실(實)한 것이다.

大小眥 爲血輪, 屬心火.

눈구석과 눈초리는 혈륜(血輪)이니 심화(心火)에 속한다.

黑睛爲風輪, 屬肝木.

검은자위는 풍륜(風輪)이니 간목(肝木)에 속한다.

瞳人爲水輪, 屬腎水.

동공은 수륜(水輪)이니 신수(腎水)에 속한다.

白仁爲氣輪, 屬肺金.

흰자위는 기륜(氣輪)이니 폐금(肺金)에 속한다.

上下胞臉爲肉輪, 屬脾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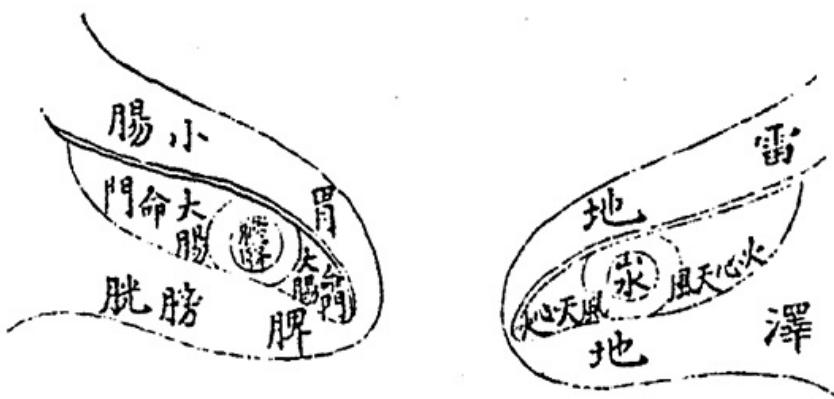
위아래 눈꺼풀은 육륜(肉輪)이니 비토(脾土)에 속한다.

小眞 赤者, 心之虛也.

눈초리가 붉은 것은 심(心)이 허(虛)한 것이다.

### 1.5. 八廓圖式 | 팔각도식

## 式 圖 廓 八



天廓屬大腸, 傳送, 肺金, 乾卦.

천곽(天廓)은 대장(大腸)에 속하니, 전송(傳送)을 담당하고 폐금(肺金)과 관련되며 건괘(乾卦)에 해당한다.

火廓屬心, 抱陽, 命門經, 離卦.

화곽(火廓)은 심(心)에 속하되 양(陽)을 품는 명문경(命門經)과 관련되며, 리괘(離卦)에 해당한다.

地廓屬脾胃, 水穀之海, 坤卦.

지곽(地廓)은 비위(脾胃)에 속하니, 수곡지해(水穀之海)이며 곤괘(坤卦)에 해당한다.

水廓屬腎經, 會陰, 坎卦.

수곽(水廓)은 신경(腎經)에 속하니, 음(陰)을 회집(會集)하며 감괘(坎卦)에 해당한다.

山廓屬膽經, 清淨, 艮卦.

산각(山廓)은 담경(膽經)에 속하니, 청정(清淨)하며 간괘(艮卦)에 해당한다.

風廓屬肝經, 養化, 巽卦.

풍각(風廓)은 간경(肝經)에 속하니, 기르고 화생(化生)하며 손괘(巽卦)에 해당한다.

雷廓屬心, 小腸經, 關泉, 震卦.

뇌각(雷廓)은 심(心)에 속하되 소장경(小腸經)과 관련되니, 수액대사에 관여하고 진괘(震卦)에 해당한다.

澤廓屬膀胱經, 津液, 兌卦.

택각(澤廓)은 방광경(膀胱經)에 속하니, 진액(津液)을 저장하며 태괘(兌卦)에 해당한다.

## 1.6. 八廓之圖 | 팔곽지도

### 1.6.1. 肝爲養化之廓 | 간(肝)은 양화곽(養化廓)이다

腎與眼疾豈無由, 酒色過時更惜憂. 莫道睛光無大故, 看看膜障裏 雙眸.

신(腎)이 눈병과 어찌 관계가 없으랴, 주색(酒色)이 지나쳐도 병고(病苦)가 생긴다. 눈빛은 별 일 없다 하지 말고, 막(膜)이나 예장(翳 障)이 두 눈을 싸고 있는지 자세히 보라.

### 1.6.2. 膽爲清淨之廓 | 담(膽)은 청정곽(清淨廓)이다

視物依稀似霧中, 時時手拭兩睛瞳, 要知冷淚頻頻出, 此是肝虛膽氣攻.

사물을 보는 것이 희미하고 안개 속 같아 눈 손으로 두 눈을 훔치며, 냉루(冷淚)가 자주 나오면 이는 간(肝)이 허(虛)한데 담기(膽氣)가 공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1.6.3. 膀胱津液之廓 | 방광(膀胱)은 진액곽(津液廓)이다

膀胱屬水腎爲夫, 冷淚相形本臟虛. 赤脈縱橫輪廓內, 不逢妙手豈能蘇.

방광(膀胱)은 수(水)에 속하여 신(腎)과 짹이 되니, 냉루(冷淚)는 본장(本藏)이 허한 것을 나타낸다. 핏발이 윤곽(輪廓) 안에 마구 얹혀있다면 뛰어난 의사를 만나지 않고서야 어찌 소생할 수 있으랴.

### 1.6.4. 胃名水穀之廓 | 위(胃)는 수곡곽(水穀廓)이다

飲食相干在胃中, 更加積熱兩相攻, 臉胞漸腫生睛赤, 不解中宮熱不通.

마시고 먹은 것이 위(胃) 속을 어지럽히고, 게다가 열(熱)이 쌓여 두 가지가 서로 공격하면 눈꺼풀이 점점 붓고 눈알에 핏발이 서니, 중궁(中宮)의 열(熱)을 풀지 않고서는 통하지 못한다.

#### 1.6.5. 命門抱陽之廓 | 명문(命門)은 포양곽(抱陽廓)이다

內抱眞陽是命門, 眼前花發色紛紛, 不能補腎調肝氣, 睛腫縱橫似有根.

안으로 진양(眞陽)을 품은 것이 명문(命門)이니, 눈앞에 꽃이 피어 갖가지 색이 어지러운데 신(腎)을 보(補)하고 간기(肝氣)를 다스리지 못하면 눈이 온통 부어 뿌리가 있는 것과 같으리라.

#### 1.6.6. 大腸傳送之廓 | 대장(大腸)은 전송곽(傳送廓)이다

傳送原因是本經, 肺家壅滯熱相侵, 只宣大腸依次第, 閉澁之時醫患睛.

전송(傳送)의 근본은 본경(本經)이므로, 폐(肺)가雍체(壅滯)되었는데 열(熱)이 침범하면 다만 대장(大腸)을 선통(宣通)시키되 차례에 따라 하니, 폐삽(閉澁)된 때에 아픈 눈을 치료한다.

#### 1.6.7. 小腸關泉之廓 | 소장(小腸)은 관천곽(關泉廓)이다

小腸腑屬關泉廓, 受病先從心裏傳, 兩脣 皆赤生癢痛, 但調經脈自然痊.

소장부(小腸腑)는 관천곽(關泉廓)에 속하는데, 병을 받으면 먼저 심(心) 속으로부터 전해져 두 눈초리가 모두 붉어지며 가렵고 아프니, 단지 경맥(經脈)을 고르게 하면 자연히 낫는다.

#### 1.6.8. 腎屬會陰之廓 | 신(腎)은 회음곽(會陰廓)이다

視物如看霜霧多, 抬頭畏日事如何, 急宜補腎禁房室, 免使昏矇不得過.

사물을 보는 것이 자욱한 서리나 안개를 보는 것 같고 머리를 들면 햇빛이 두려우니 어찌할까, 급히 신(腎)을 보(補)하고 방사(房事)를 금한다면 혼몽(昏矇)은 면하여 죄를 얻지 않으리라.

#### 1.6.8.1. 六腑 | 육부

三焦, 膽, 胃, 大腸, 小腸, 膀胱.

삼초,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 1.6.8.2. 五臟 | 오장

心肝脾肺腎. 心屬火, 肝屬木, 脾屬土, 肺屬金, 腎屬水.

심, 간, 비, 폐, 신. 심(心)은 화(火)에 속하고, 간(肝)은 목(木)에 속하며, 비(脾)는 토(土)에 속하고, 폐(肺)는 금(金)에 속하며, 신(腎)은 수(水)에 속한다.

#### 1.6.8.3. 五行生克 | 오행생극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금(金)은 수(水)를 생(生)하고, 수는 목(木)을 생하며, 목은 화(火)를 생하고, 화는 토(土)를 생하며, 토는 금을 생한다. 금은 목을 극(克)하고, 목은 토를 극하며,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며, 화는 금을 극한다.

#### 1.6.8.4. 五臟表裏 | 오장표리

心與小腸爲表裏, 肝與膽爲表裏, 脾與胃爲表裏, 肺與大腸爲表裏, 腎與膀胱爲表裏,  
三焦與命門爲表裏. 一說命門與心胞絡爲表裏.

심(心)과 소장(小腸)이 표리(表裏)가 되고, 간(肝)과 담(膽)이 표리가 되며, 비(脾)와 위(胃)가 표리가 되고, 신(腎)과 방광(膀胱)이 표리가 되며, 삼초(三焦)와 명문(命門)이 표리가 된다. 일설에는 명문과 심포락(心包絡)이 표리가 된다

고 한다.

#### 1.6.8.5. 三陰三陽經 | 삼음삼양경

心是手少陰經, 小腸是手太陽經, 腎是足少陰經, 膀胱是足太陽經, 肺是手太陰經, 大腸是手陽明經, 脾是足太陰經, 胃是足陽明經, 肝是足厥陰經, 膽是足少陽經, 三焦是手少陽經, 命門是手厥陰經, 此是三陰三陽也.

심(心)은 수소음경(手少陰經)이고, 소장(小腸)은 수태양경(手太陽經)이며, 신(腎)은 족소음경(足少陰經)이고, 방광(膀胱)은 족태양경(足太陽經)이며, 폐(肺)는 수태음경(手太陰經)이고, 대장(大腸)은 수양명경(手陽明經)이며, 비(脾)는 족태음경(足太陰經)이고, 위(胃)는 족양명경이며, 간(肝)은 족궐음경(足厥陰經)이고, 담(膽)은 족소양경(足少陽經)이며, 삼초(三焦)는 수소양경(手少陽經)이며, 명문(命門)은 수궐음경(手厥陰經)이니, 이것이 삼음삼양(三陰三陽)이다.

#### 1.6.8.6. 七情 | 칠정

喜怒憂思悲恐驚. 喜傷心其氣散, 怒傷肝其氣緊, 憂傷肺其氣聚, 思傷脾其氣結, 悲傷心胞其氣急, 恐傷腎其氣怯, 驚傷膽其氣亂, 此乃七情是也.

기쁨, 노여움, 근심, 사려, 슬픔, 두려움, 놀람. 희(喜)는 심(心)을 상하니 그 기(氣)가 흩어지고, 노(怒)는 간(肝)을 상하니 그 기가 긴장되며, 우(憂)는 폐(肺)를 상하니 그 기가 모이고, 사(思)는 비(脾)를 상하니 그 기가 맺히며, 비(悲)는 심포(心包)를 상하니 그 기가 급(急)해지고, 공(恐)은 신(腎)을 상하니 그 기가 겁약(怯弱)해지며, 경(驚)은 담(膽)을 상하니 그 기가 어지러워지니, 이것이 바로 칠정(七情)이다.

汗乃心之液, 淚乃肝之液, 涕乃脾之液, 唾乃肺之液, 精乃腎之液, 此五臟之液是也.

땀은 심(心)의 액(液)이고, 눈물은 간(肝)의 액이며, 맑은 침은 비(脾)의 액이고, 끈끈한 침은 폐(肺)의 액이며, 정(精)은 신(腎)의 액이니, 이것이 오장(五臟)의 액이다.

苦入心經, 酸入肝經, 甘入脾經, 辛入肺經, 鹹入腎經.

쓴맛은 심경(心經)으로 들어가고, 신맛은 간경(肝經)으로 들어가며, 단맛은 비경(脾經)으로 들어가고, 매운맛은 폐경(肺經)으로 들어가며, 짠맛은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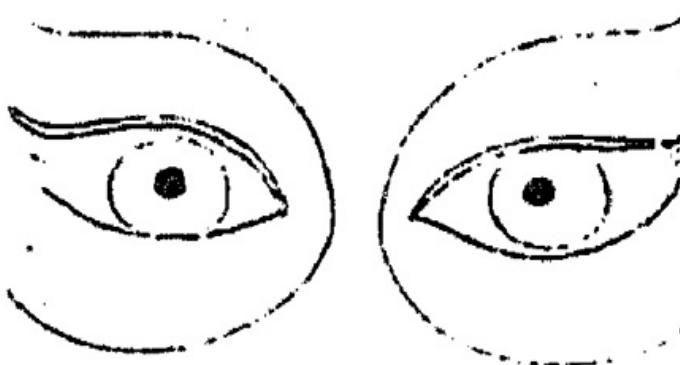
#### 1.6.8.7. 四氣 | 사기

酒色財氣, 風寒暑濕, 過度成病.

술을 즐기고 호색하며 재물을 탐하고 객기를 부리는 것, 혹은 풍한서습(風寒暑濕)이니, 과도하면 병을 이룬다.

1.7. 大眥 赤脈傳睛 | 눈구석에서 핏발이 눈알로 뻗음

# 睛傳脉赤眥大



赤脈傳睛之症，起於大眥者心之實也，此心邪之侵肝也。心屬火主血，肝屬木主筋，筋得血灌引漸至黑睛，蔓延瞳人，甚則看物如同隔絹，是三焦相火炎上。或勞心事太過，或夜觀書史，或能飲酒，及好食五辛<sup>30</sup>，煎炒熱物。法宜瀉火退熱，老少不同治。日積月累，筋脈大者，宜用小鋒針<sup>31</sup>挑斷，毒血流出，赤脈斷矣。若是乍發赤脈，不用針挑發，點以陰二陽四藥<sup>32</sup>，服以四順八正<sup>33</sup>當歸散涼肝之劑，其病無不蘇矣。又有暴橫之人，赤脈灌睛者，此生相也，非比前症治之。

핏발이 눈알로 뻗는 증상이 눈구석에서 일어난 경우는 심(心)이 실(實)한 것이니, 이는 심사(心邪)가 간(肝)을 침범한 것이다. 심은 화(火)에 속하고 혈(血)을 주관하며, 간은 목(木)에 속하고 근(筋)을 주관하는데, 근에 혈이 흘러들어 점점 검은자위에 이르러서 동공에 만연하고, 심하면 사물을 보는 것이 명주형겁을 통해 보는 듯하니, 이는 삼초(三焦)의 상화(相火)가 타오르는 것이다. 마음을 너무 졸였거나 밤에 책을 많이 보아서, 혹은 술을 잘 마셔서, 매운 것이나 지지고 볶아 성질이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어서 생긴다. 치법은 마땅히 화(火)를 사(瀉)하고 열(熱)을 물리치되, 노인과 젊은이는 똑같이 치료하지 않는다. 며칠이나 몇 달이 되어 핏발의 줄기가 큰 경우는 마땅히 작은 봉침(鋒針)으로 도려내고 끓어서 독혈(毒血)이 흘러나오면 핏발이 없어진다. 만약 잠깐 핏발이 돋았다면 침으로 도려내지 말고,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4로 배합한 약을 눈에 넣고 사순산(四順散), 팔정산(八正散), 당귀산(當歸散) 등 냉간(涼肝)하는 처방을 복용하면 그 병이 낫지 않음이 없다. 또 사납고 무도한 사람으로서 핏발이 눈알에 뻗치는 자가 있는데, 이는 타고난 바탕이니 앞의 증상에 견주어 치료할 것이 아니다.

問曰, 人之患目大眥 赤脈傳睛, 大眥 常壅澀, 看物不準者何也. 答曰, 乃心經之實熱, 況心或因思慮勞神, 或飲食太過, 致使三焦發熱, 心火愈熾, 故目常赤也. 治之雖攻少陰經, 心胞<sup>34</sup> 陽火廓, 先服三黃丸瀉其心火, 次以洗心散去其病, 肝連丸常鎮三黃丸, 點用清源散<sup>35</sup>, 服用清心利小腸經, 降火爲主, 用八正散.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눈구석에서 핏발이 눈알로 뻗어 눈구석이 늘막하고 깔끄러우며 사물을 보는 것이 똑바르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바로 심경(心經)의 실열(實熱)인데, 더구나 심(心)이 생각이 많아 정신이 피로한 것이나 음식이 지나친 것으로 인하여 삼초(三焦)에서 열이 나도록 하게 되면 심화(心火)가 더욱 치성(熾盛)하므로 눈이 항상 붉은 것이다. 치료는 비록 소음경(少陰經)을 공격해야 하지만 심(心)은 양(陽)을 품고 있는 화각(火廓)이니, 먼저 삼황환(三黃丸)을 복용하여 그 심화를 사(瀉)한 다음 세심산(洗心散)으로 그 병을 제거하며, 간련환(肝連丸)으로 삼황환의 약효를 진정

시키고, 점안약(點眼藥)으로는 청원산(淸源散)을 쓰며, 내복약(內服藥)으로는 청심(淸心)하고 소장경(小腸經)을 원활하게 하여 강화(降火)하는 것을 주로 하니 팔정산(八正散)을 쓴다.”

### 1.7.1. 八正散 | 팔정산

大黃 瞽麥 木通 桃子 滑石 甘草 蒿蓄 車前子

대황, 구맥, 목통, 치자, 활석, 감초, 편축, 차전자.

上各等分爲末, 每服五錢, 水一鐘煎, 或入竹葉燈心蔥頭, 食後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매번 5돈을 물 1사발에 달이는데, 죽엽이나 등심, 총백을 넣기도 하며, 식후에 복용한다.

### 1.7.2. 導赤散 | 도적산

木通 甘草 桃子 黃柏 生地黃 知母

목통, 감초, 치자, 황백, 생지황, 지모.

上每服細末四五錢, 水一鐘, 入竹葉燈心草同煎, 食後服.

이상의 약재를 매번 고운 가루 4~5돈씩 물 1사발에 죽엽과 등심초를 넣고 함께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 1.7.3. 七寶洗心散 | 칠보세심산

當歸 赤芍 大黃《各一兩》麻黃《二兩》荊芥《五分》黃連《一兩》桃子

당귀, 적작약, 대황《각 1냥》마황《2냥》형개《5푼》황련《1냥》치자.

上爲末, 每服三四錢, 水煎食後服.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4돈씩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1.7.4. 三黃丸 | 삼황환

黃連 黃芩《各一兩》大黃《三兩, 酒浸過炒》

황련, 황금《각 1냥》대황《3냥, 술에 담갔다가 볶은 것》.

上爲末, 煉蜜爲丸, 如桐子大, 每服三十丸, 熱水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빚고, 매번 30환씩 뜨거운 물에 삼킨다.

#### 1.7.5. 肝連丸 | 간련환

白羊子肝一付, 勿令下水, 以線結定總筋, 吊起高處, 濾乾血水, 輕輕刮去外膜, 可將肝置於平木板上, 以竹刀割下肝粉, 筋膜不用, 肝粉和爲丸. 每服五十丸, 茶送下.

흰 새끼양의 간 한 덩이를 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 근맥(筋脈) 다발을 실로 묶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 핏물을 빼고 외막(外膜)을 살살 벗겨낸 다음, 평평한 나무 판자에 간을 올려놓고 대나무 칼로 퍼석한 살을 발라내어, 근막(筋膜)은 쓰지 않고 살만 반죽해서 환(丸)을 빚는다. 매번 50환씩 찻물로 삼킨다.

30. 五辛 : 다섯 가지의 매운 채소 즉 마늘, 파, 부추, 염교(혹은 겨자), 생강을 이르는 말. ↪

31. 鋒針 : 끝이 모난 뿔 모양으로 된 침. 대개 긁어내거나 瘀血하는 데에 쓰인다. ↪

32. 陰二陽四藥 : 陰丹과 陽丹을 2:4의 비율로 섞은 약이라는 말로, 음단과 양단의 조제법 및 단약의 배합법은 本書 뒷부분의 「丹藥和論」과 「合丹日切要」

法」에 나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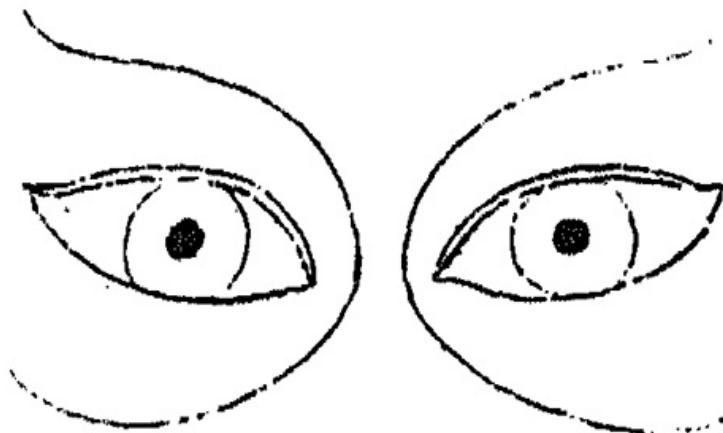
33. 正 : (集成) 鼎本에는 ‘逆’으로 되어 있다. [←](#)

34. 胞 : 문맥상 ‘抱’가 되어야 한다. 앞의 「八廓圖式」에서 ‘火廓屬心, 抱陽, 命門經, 離卦’라 하였다. [←](#)

35. 清源散 :本書에 ‘清源散’이 보이지 않고 다른 醫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本書에서 點眼하는 처방으로 자주 언급되는 清涼散일 가능성 있다. [←](#)

1.8. 小眡 赤脈傳睛 | 눈초리에서 핏발이 눈알로 뻣는 것

# 睛傳脉赤眡小



小眡 赤脈傳睛者，心之虛也，與大眡 不同，治法分二症治之。五臟之主，六腑之宗，且屬南方，候陽象德之君。火生土，火乃土之母，脾土實則心火虛矣。治先瀉其脾土之實，後補其心之虛。多因夜近燈火，勞傷心經，致使心虛氣弱，血運不行，積在小眡之間。故引此二者，以爲後之學人識。然此症宜吃藥，不必挑剪。

눈초리에서 핏발이 눈알로 뻣는 것은 심(心)이 허(虛)한 것이니 눈구석의 경우와 같지 않고, 치법도 두 증(症)을 구분하여 치료한다. 오장(五臟)의 군주(君主)이고 육부(六腑)의 종주(宗主)인데 또 남방(南方)에 속하니, 양(陽)을 본받아 덕(德)을 드러내는 군주이다. 화(火)는 토(土)를 생(生)하므로 화는 토의 어

미이니, 비토(脾土)가 실(實)하면 심화(心火)가 허(虛)해진다. 치료는 먼저 그 비토가 실한 것을 사(瀉)하고 다음으로 심이 허한 것을 보(補)한다. 대개 밤에 등불을 가까이 하거나 과로로 심경(心經)을 상함으로 인하여 심이 허하고 기(氣)가 약해져서 혈(血)이 잘 운행되지 못하므로 눈초리 부위에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들어서 후학(後學)을 위해 기록해둔다. 그러나 이 증상은 마땅히 약을 먹을 것이지, 도려내고 자를 필요가 없다.

### 1.8.1. 瀉肝散 | 사간산

桔梗 黃芩 大黃 芒硝 桔子 車前子

길경, 황금, 대황, 망초, 치자, 차전자.

### 1.8.2. 九仙散 | 구선산

黃芩 荊芥 甘草 赤芍藥 菊花 川芎 當歸 木通 白芷

황금, 형개, 감초, 적작약, 국화, 천궁, 당귀, 목통, 백지.

上等分, 為末, 每服三錢, 用水煎, 食後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을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 1.8.3. 駐景丸 | 주경환

治心腎俱虛, 血氣不足, 下元衰憊, 服.

심신(心腎)이 모두 허(虛)하여 혈기(血氣)가 부족하며 하원(下元)이 허약할 때 복용한다.

楮實《微妙》枸杞子 五味子 人參《各一兩》熟地《酒浸, 焙乾, 二兩》乳香《一兩, 製過》肉蓯 蓉《酒浸, 焙乾, 四兩》川椒《去目炒乾, 一兩》菟 緩子《淘淨去沙土, 酒浸三宿, 蒸過焙乾, 四兩》一方加當歸

저실《살짝 볶은 것》구기자, 오미자, 인삼《각 1냥》숙지황《술에 담갔다 약한 불에 말린 것 2냥》유향《1냥, 법제한 것》육종용《술에 담갔다 약한 불에 말린 것 4냥》천초《알맹이를 빼고 볶아 말린 것 1냥》토사자《물에 일어 모래를 제거하고 술에 3일간 담갔다가 찐 다음 불에 말린 것 4냥》. 당귀를 넣기도 한다.

上爲末, 煉蜜爲丸, 梧桐子大, 每服三十丸, 空心鹽湯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빚어서, 매번 30환 씩 빈 속에 소금 끓인 물로 삼킨다.

#### 1.8.4. 补勞人參丸 | 보로인삼환

治心神恍惚.

심신(心神)이 아찔하고 어지러운 것을 치료한다.

人參 白茯苓 白附子 繢斷 遠志 菊花 甘草

인삼, 백복령, 백부자, 속단, 원지, 국화, 감초.

上爲末, 煉蜜爲丸, 彈子大, 每服一丸, 細嚼, 食後桔梗湯下, 日三次.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탄환 크기의 환을 빚어서, 매번 1환씩 하루 세 번 식후에 잘게 씹어서 도라지 달인 물로 넘긴다.

#### 1.8.5. 补虛人參丸 | 보허인삼환

茯苓 人參 繢斷 遠志《各一兩》白附子《三錢》甘草 白僵 蟲《各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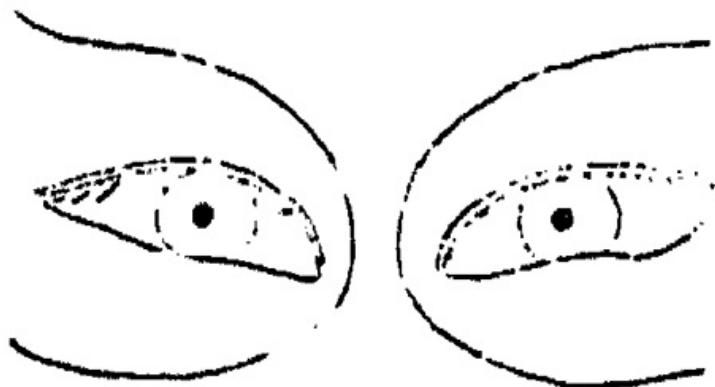
복령, 인삼, 속단, 원지《각 1냥》백부자《3돈》감초, 백강감《각 5돈》.

上爲末, 煉蜜爲丸, 如彈子大, 每服一丸, 細嚼, 桔梗湯送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탄환 크기의 환을 빚어서, 매번 1환씩 잘게 씹어 도라지 달인 물로 넘긴다.

1.9. 等 肉攀睛 | 군살이 눈알을 덮는 것

# 睛 攀 肉 努



等 肉攀睛者，與大眥 赤脈之症同。然此症者，脾胃熱毒，脾受肝邪，多是七情鬱結之人。或夜思尋，家筵無歇，或飲酒樂欲，致使三焦壅熱，或肥壯之人，血滯於大眥。等 肉發端之時多癢，因乎擦摩，等 肉漸漸生侵黑睛。日積月累者為實，乍發乍痛者為虛。治法，實者小鉤為鉤，鉤起剪斷些寬，三五日剪痕收滿，方可點陰二陽四藥，吹點，餘翳漸清，避風忌口，齋戒可也。若乍發不宜鉤剪，宜服藥，點以淡丹藥可也。三焦心火俱炎，亦能生此疾，治之須鉤割後，宜服瀉脾除熱飲。

노육반정(痢 肉攀睛)은 눈구석에서 핏발이 돋는 병증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위(脾胃)의 열독(熱毒)인데 비(脾)가 간(肝)의 사기(邪氣)를 받은 것으로, 칠정(七情)이 울결(鬱結)된 사람에게 많다. 혹 밤중에 생각에 잠기거나 집안에 연회가 끊이지 않거나 욕심대로 술을 즐겨 마셔서 삼초(三焦)에 열이 쌓인 경우, 혹은 비대하고 건강한 사람이 눈구석에 혈(血)이 응체(凝滯)되어 생긴다. 이 증상이 시작될 때는 많이 가려워 자꾸 비비기 때문에 군살이 점점 돋아나고 검은자위를 침범한다. 오래도록 계속되는 경우는 실(實)이고, 가끔 돋아나고 가끔 아픈 경우는 허(虛)이다. 치법은 실한 경우 작은 갈고리로 들어 올려 잘라 낸 채로 두었다가, 3~5일 후 자른 흔적이 아물고 나면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4로 섞은 약을 점안(點眼)할 수 있으니, 불어넣거나 점안하면 나머지 예(翳)가 점점 없어지는데, 바람을 피하고 음식을 주의하며 재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끔 발생한다면 잘라내지 말고 약을 복용하며, 묽게 만든 단약(丹藥)을 점안하는 것이 좋다. 삼초(三焦)와 심(心)의 화(火)가 함께 타올라도 이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치료는 갈고리로 끊어낸 후에 사비제열음(瀉脾除熱飲)을 복용해야 한다.

### 1.9.1. 瀉脾除熱飲 | 사비제열음

黃耆 防風 荊蔚子 桔梗 大黃 黃芩 黃連 車前子 芒硝《各一兩》

황기, 방풍, 충울자, 길경, 대황, 황금, 황련, 차전자, 망초《각 1냥》.

每服六錢, 水煎服.

매번 6돈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此症脾胃積熱, 相火胃火旺也. 若經久翳 <sup>36</sup>濃 施實烏睛者, 宜鉤剪, 剪訖, 次日用退翳 <sup>37</sup>卷雲散 調津液點之, 日一次, 三黃湯加寒劑. 常點用對交丹 <sup>38</sup>加清涼散. 若筋腫濃大者, 宜剪, 剪畢頭處用火烙之, 使其再不復生, 愈後仍用三黃丸收功, 鎮其上炎之火.

이 병증은 비위(脾胃)에 열이 쌓여, 상화(相火)인 위화(胃火)가 왕성한 것이다. 만약 오래되어 예(翳) 가 두텁고 검은자위를 가득 채운 경우는 갈고리로 잘라 내야 하고, 자르고 난 다음날부터 퇴예권운산(退翳 卷雲散)을 진액(津液)에 타서 하루에 한 번 점안하고, 삼황탕(三黃湯)에 찬 약을 가미하여 쓴다. 늘 점안하는 약으로는 대교단(對交丹)에 청량산(清涼散)을 가미하여 쓴다. 만약 근(筋)처럼 부어올라 두텁고 큰 경우에는 잘라내야 하고, 자르고 나서 끄트머리를 불로 지져서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하며, 아물고 나서는 또 삼황환(三黃丸)을 써서 마무리하여 그 타오르는 화(火)를 억제한다.

### 1.9.2. 三黃湯 | 삼황탕

治脾胃積熱, 致生此症, 宜服. 加芍藥宣連.

비위(脾胃)에 열이 쌓여 이 병증이 생긴 경우에 복용해야 한다. 작약과 선주황련(宣州黃連)을 가미한다.

黃連 黃芩 大黃《各一兩》

황련, 황금, 대황《각 1냥》.

若熱甚者, 脈洪盛者, 加黃柏石膏山梔子之類, 水煎, 食後溫服.

열이 심한 경우나 맥(脈)이 흥성(洪盛)한 경우에는 황백, 석고, 산치자 등을 가미하고, 물에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1.9.3. 金花丸 | 금화환

黃連 黃柏《各四兩》黃芩 人參《各三兩》桔梗《三兩半》半夏《二兩》梔子仁《二兩》

황련, 황백《각 4냥》황금, 인삼《각 3냥》길경《3냥반》반하《2냥》치자인《2냥》.

上爲末, 煉蜜爲丸, 梧桐子大. 每服五十丸, 茶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빚는다. 매번 50환  
씩 찻물로 삼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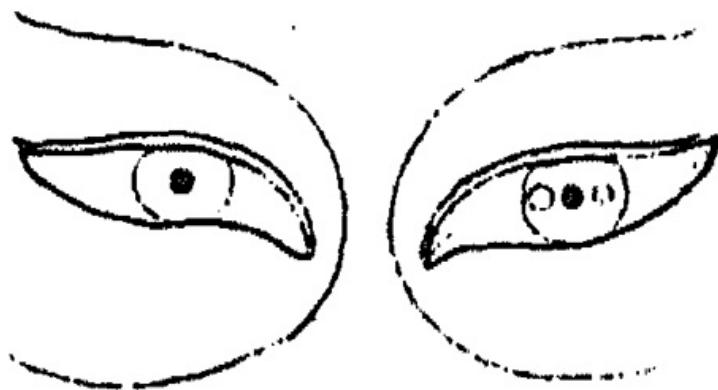
36. **濃** : 이 단락의 ‘濃’자가 四庫全書本에는 모두 ‘厚’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  
르면 文義가 보다 명확하다. [←](#)

37. **退翳 卷雲散** : 아래의 鷄冠蜆 肉 조에서도 이 처방을 쓴다고 하였지만, 처  
방 내용은 本書나 다른 醫書에서 찾아볼 수 없다. 下卷의 「修合陰丹法」에 나  
오는 卷雲丹 즉 陰丹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

38. **對交丹** : 陽丹과 陰丹을 1:1로 섞은 것을 말한다. [←](#)

1.10. 雞 冠 蜚 肉 | 닭의 벗이나 조갯살 같은 군살

# 肉 蜚 冠 雞



雞 冠 蜚 肉者，心之熱酒之毒也。脾胃壅滯，肝臟積熱，肉翳漸漸而長，侵至黑睛，發來高碩，形似雞 冠 蜚 肉壅蔽大，皆因相火胃火鬱結，致生紅肉，眵澀淚出。治法，初發之時，用小鋒針破，使惡血流出，以輸其肉，二三日又可針一次。又法可鼻孔內，剪竹葉卷作一小筒，彈進放血，或小鋒針亦可，右眼右孔，左眼左孔，服三黃加朴硝丸如彈子大，夜臥噙化，以沃上焦火。正謂揚湯止沸，莫如去薪息火。肉翳者可烙三五度，其效甚速。烙可用軟皮剪孔，濕按眼眶，烙則不傷四弦肉。有虛有實，虛切不可用剪，剪則流血汪汪，變爲利害<sup>39</sup>。或壅如桃李之狀，難治。

계관현육(雞 冠 蝦 肉)은 심(心)의 열이나 술의 독(毒)이다. 비위(脾胃)에 응체(壅滯)되고 간장(肝臟)에 열이 쌓여, 살로 된 예장(翳 障)이 점점 자라나서 검은자위까지 침범하니, 크고 높게 돋아나 모양이 닭의 벗이나 조갯살과 같으면서 가린 부위가 큰데, 모두 상화(相火)인 위화(胃火)가 울결(鬱結)되어서 붉은 살이 자라나고 모래처럼 깔깔하며 눈물이 나오게 된 것이다. 치법은 처음 발생했을 때에 작은 봉침(鋒鍼)으로 째어서 악혈(惡血)이 흘러나오고 군살이 오그라들도록 하며, 2~3일 후에 한 번 더 찔러도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맷잎을 오려서 작은 대롱 모양으로 말아 콧구멍 속에 넣고 통겨서 피를 내며, 작은 봉침을 써도 되는데, 오른쪽 눈이면 오른쪽 콧구멍, 왼쪽 눈이면 왼쪽 콧구멍에 하고, 삼황환(三黃丸)에 박초(朴硝)를 가미하여 탄환 크기로 빙은 것을 잠자리에 들 때 입에 머금고 녹여 먹어서 상초(上焦)의 화(火)를 끄니, 바로 펄펄 끓는 것을 그치게 하려면 땅나무를 빼내어 불을 끄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살로 된 예장(翳 障)은 3~5번 지져도 좋은데, 그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 지질 때는 부드러운 가죽을 오려 구멍을 내고 적셔서 눈언저리에 대고 지지면 주변의 살이 상하지 않는다. 허(虛)와 실(實)이 있는데, 허한 경우는 절대로 잘 라내서는 안 되니, 자르면 피가 마구 흘러나와 위급하게 될 수 있다. 혹 돋아난 것이 복숭아나 자두 모양인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問曰, 眼內生虛肉, 形似雞 冠 蝦 肉者何也. 脾胃受風熱, 火旺脾土燥熱也. 治法, 年少者只宜瀉脾胃本臟, 若脾胃衰不受寒涼者, 宜瀉子瀉母之法, 瀉本臟用三黃湯加寒涼劑, 瀉子用瀉肺湯, 瀉母用八正散瀉心湯主之, 點用清涼散加涼藥, 仍服三黃丸收功. 若積久大者亦宜剪, 剪後宜烙, 新發小者, 宜挑不用烙, 宜用退翳 卷雲散點之, 一二次.

묻기를, “눈 속에 무른 군살이 생겼는데 모양이 닭의 벗이나 조갯살과 같은 경우는 어째서인가?” “비위(脾胃)가 풍열(風熱)을 받아서, 화(火)가 왕성하여 비토(脾土)를 조열(燥熱)하게 한 것이다. 치법은, 젊은 사람으면 단지 비위의 본장(本臟)을 사(瀉)하고, 비위가 쇠약하여 한량(寒涼)한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식을 사(瀉)하거나 어미를 사하는 방법을 쓰니, 본장을 사할 때는 삼황탕

(三黃湯)에 한량한 약을 가미하여 쓰고, 자식을 사할 때는 사폐탕(瀉肺湯)을 쓰며, 어미를 사할 때는 팔정산(八正散), 사심탕(瀉心湯)으로 치료하고, 점안 약으로는 청량산(清涼散)에 서늘한 약재를 가미하여 쓴 다음 또 삼황환(三黃丸)을 복용하여 마무리한다. 만약 오래되고 큰 경우에는 또한 잘라낸 다음에 지져야 하고, 새로 생겨서 작은 경우에는 도려내되 지지지는 않으며 퇴예권운 산(退翳 卷雲散)을 한두 번 점안한다.”

### 1.10.1. 三黃丸, 八正散 | 삼황환, 팔정산

《二方前症條下》

《두 처방은 앞의 병증 조문에 있다》

### 1.10.2. 瀉肺湯 | 사폐탕

治肺經得脾熱, 白仁變生雞冠蜆肉, 宜服.

폐경(肺經)이 비(脾)의 열을 얻어 흰자위에 계관현육(鷄冠蜆肉)이 생겼을 때에 복용한다.

桑白皮《一兩, 去皮》地骨皮《一兩, 去骨<sup>40</sup>} 甘草《七錢》黃芩《一兩》桔梗《一兩》

상백피《1냥, 껍질을 제거한 것》지골피《1냥, 심을 제거한 것》감초《7돈》황금《1냥》길경《1냥》.

上爲末, 每服三四錢, 水煎食後服.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4돈씩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1.10.3. 瀉心湯 | 사심탕

治心熱傷脾土, 燥熱宜服.

심열(心熱)이 비토(脾土)를 상한 것을 치료하니, 비토가 조열(燥熱)한 경우 복용한다.

大黃 黃芩 桔梗 知母 黑參<sup>41</sup> 馬兜鈴 防風

대황, 황금, 길경, 지모, 흑삼, 마두령, 방풍.

上等分, 水煎食後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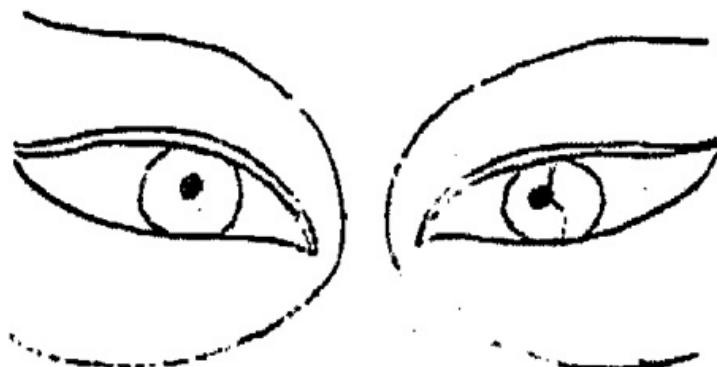
39. 利害 : ‘厲害’와 같은 말이니, 몹시 해롭다는 뜻이다. ↪

40. 骨 : [集成] : 鼎本에는 ‘土’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41. 黑參 : 『本草綱目』에 의하면 玄參과 같은 것이지만, 本書에는 ‘玄參’과 ‘黑參’이 모두 나오므로 다른 약재일 수 있겠다. 어떤 약재를 가리키는지 명백히 고증하기는 어려우나, 本書와 유사한 내용이 종종 보이는 『普濟方』에도 ‘玄參’과 ‘黑參’이 모두 나오며 ‘黑參’은 특히 眼科 처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약재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

1.11. 兩臉粘睛 | 눈꺼풀이 달라붙는 것

# 睛 粘 臉 兩



兩臉粘睛者，脾胃風虛冷弱，邪氣聚於臉，致胞臉風赤濕爛，肝膈虛熱眵粘四內眞，夜睡上下胞臉膠凝粘緊，血滯不散，久則漸生翳膜。治法，宜陰一陽三吹點。若發年久，眼皮漸長，雖不是拳毛倒睫<sup>42</sup>，亦可夾起眼皮，使露黑睛，消散血氣，瞼積有瘀血，可剗可洗，爛瘻者洗以碧天丹，每日侵晨用桑白皮入鹽熏洗，或大寒後不落桑葉名爲鐵扇子煎洗極妙。或菊花葉煎湯洗亦可。此乃發年久有此症，初發者無此病症耳。

양검점정(兩臉粘睛)은 비위(脾胃)에 풍(風)이 있고 허(虛)하여 차면서 약한 것  
이니, 사기(邪氣)가 눈꺼풀에 모여서 위아래 눈꺼풀이 붓고 붉으며 뉙진하게  
문드러지고, 간격(肝膈)의 허열(虛熱)로 눈곱이 눈구석과 눈초리에 엉겨 밤에

잘 때 위아래 눈꺼풀이 달라붙으며, 혈(血)이 응체(凝滯)되어 흘어지지 못하고 오래되면 점차 예막(翳 膜)이 생긴다. 치법은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1:3으로 섞어 불어넣거나 점안해야 한다. 발생한지가 오래되어 눈의 피부가 점점 늘어지면 비록 권모도첩(拳毛倒睫)은 아니지만 역시 눈의 피부를 집어 옮겨서 검은자위가 드러나도록 하여 혈기(血氣)를 흘고, 눈꺼풀에 어혈(瘀血)이 쌓여 있으면 살짝 찌르고 씻어내며, 짓무르고 가려우면 벽천단(碧天丹)으로 씻고 매일 동틀 무렵 상백피(桑白皮)에 소금을 넣어 끓인 물로 훈증하고 씻으며, 혹은 대한(大寒) 후에 떨어지지 않은 뽕잎을 ‘철선자(鐵扇子)’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인 물로 씻으면 아주 효과가 좋다. 또는 국화잎을 달여서 씻어도 좋다. 이는 발생한지 오래되어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니,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 증상이 없을 뿐이다.

問曰, 眼患年久兩臉粘, 而不開明者, 何也. 答曰, 脾胃受風冷所傷, 邪氣久積不散, 致血氣凝滯, 久注不開<sup>43</sup>, 時自眵 淚含糊. 治法, 年久宜當歸活血煎神清散主之, 近患蟬花散密蒙花散主之. 若經久不愈, 久注不開, 眼皮長者, 雖不是拳毛倒睫, 亦可夾起眼皮, 點用重藥<sup>44</sup>, 片腦不用.

묻기를, “눈병이 오래되었는데 두 눈꺼풀이 달라붙어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는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비위(脾胃)가 풍랭(風冷)에 손상된 것이니, 사기(邪氣)가 오래 쌓여서 흘어지지 않고 혈기(血氣)가 응체되므로 눈을 한참 감고 있으면 뜨지 못하고 때로 눈곱과 눈물이 저절로 풀처럼 엉긴다. 치법은 오래된 경우 당귀활혈전(當歸活血煎)과 신청산(神清散)으로 치료하고, 새로 생긴 병이면 선화산(蟬花散), 밀몽화산(密蒙花散)으로 치료한다. 만약 오래도록 낫지 않아서 눈을 한참 감고 있으면 뜨지 못하고 눈꺼풀이 늘어진 경우에는 비록 권모도첩(拳毛倒睫)이 아니라도 역시 눈꺼풀을 집어 옮겨 중약(重藥)을 점안하고, 편뇌(片腦)는 쓰지 않는다.

### 1.11.1. 久患虛冷 | 허랭(虛冷)을 오래 앓은 경우

### 1.11.1.1. 當歸活血煎 | 당귀활혈전

治風冷久積兩臉粘眼, 服之.

풍랭(風冷)이 오래 쌓여 위아래 눈꺼풀이 눈에 달라붙은 경우 복용한다.

當歸 黃耆 没藥 川芎《血氣旺者勿用》蒼朮 荊芥 薄荷 熟地黃 羌活 菊花 麻黃

당귀, 황기, 몰약, 천궁《혈기(血氣)가 왕성한 자에게는 쓰지 말라》창출, 형개, 박하, 숙지황, 강활, 국화, 마황.

上等分爲末, 煉蜜爲丸如彈子大. 每食後細嚼一丸, 清茶送下, 日進三次.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콜인 꿀로 탄환 크기의 환을 빚는다. 매번 식후에 1환씩을 잘게 씹어서 찻물로 삼키는데, 하루에 3번 복용한다.

### 1.11.2. 久受風邪 | 오래된 풍사(風邪)

#### 1.11.2.1. 神清散 | 신청산

治風毒傷胞臉, 眼生翳膜, 日漸細小, 服之.

풍독(風毒)이 눈꺼풀을 상하고 눈에 예막(翳膜)이 생겨 나날이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경우 복용한다.

川芎 薄荷 羌活 附米 蒜本 防風 荆芥 川烏 枳殼 石膏 白芷 甘草 細辛 麻黃《各等分》

천궁, 박하, 강활, 향부미, 고본, 방풍, 형개, 천오, 지각, 석고, 백지, 감초, 세신, 마황《같은 분량》.

上爲末, 每服三四錢, 食後清茶蔥白湯送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4돈을 식후에 찻물이나 대파 밑동 달인 물로 삼킨다.

### 1.11.3. 無疼痛時 | 통증이 없을 때

#### 1.11.3.1. 蟬花散 | 선화산

治肝經蘊積熱毒傷肝, 上攻於目, 赤腫多淚羞明, 一切風毒傷肝, 並皆治之.

간경(肝經)에 쌓인 열독(熱毒)이 간(肝)을 상하고 위로 눈을 공격하여 붉어지고 부으며 눈물이 많고 눈이 부신 경우, 일체의 풍독(風毒)이 간(肝)을 상한 경우를 모두 치료한다.

穀精草《去土》菊花 蟬蛻 羌活 甘草 蔓荊子 痰 薺 草決明 防風 川芎 桃子仁 密蒙花 黃芩 荊芥穗 木賊

곡정초《흙을 제거》국화, 선태, 강활, 감초, 만형자, 질려, 초결명, 방풍, 천궁, 치자인, 밀몽화, 황금, 형개수, 목적.

上各等分爲末. 每服二錢, 食後用清茶調服, 或荆芥湯調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든다. 매번 2돈을 식후에 찻물에 타서 복용하거나 형개(荆芥)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 1.11.4. 無痛有羞明時 | 통증은 없으나 눈이 부실 때

#### 1.11.4.1. 密蒙花散 | 밀몽화산

治眼羞明怕日, 肝膽虛損, 瞳人不清, 服之.

눈이 부셔 햇빛을 잘 보지 못한 것을 치료하니, 간담(肝膽)이 허손(虛損)되어 동공이 막지 못할 때 복용한다.

密蒙花 羌活 菊花 蔓荊子 青葙子 木賊 石決明 痰 薺 枸杞子

밀몽화, 강활, 국화, 만형자, 청상자, 목적, 석결명, 질려, 구기자.

上各等分爲末, 每服三錢, 食後清茶送下. 脾胃虛者, 加白朮五分.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을 식후에 찻물로 삼킨다. 비위(脾  
胃)가 허(虛)한 경우 백출(白朮) 5푼을 더 넣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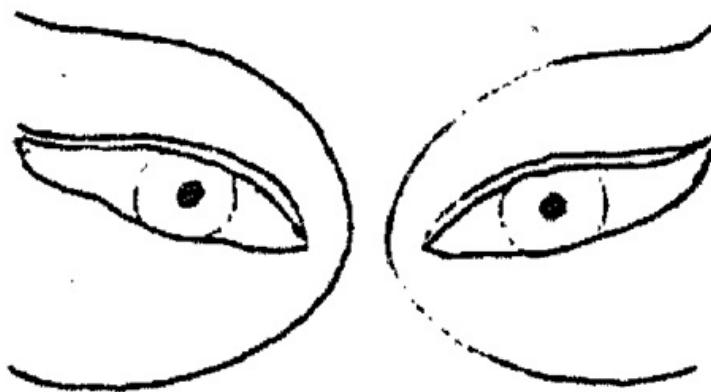
42. **拳毛倒睫** :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서 속눈썹이 눈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뒤에 해당 병증의 조문이 나온다. ↵

43. **久注不開** :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뒤에 나오는 「胞肉膠凝」에 ‘眼久注不  
開’라 하였으므로 ‘久注’가 邪氣의注入를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어떻게  
보아도 석연치 않은 점이 남지만, ‘注’가 ‘接觸’의 뜻으로 쓰이는 예가 있으므  
로 여기서는 눈을 오래 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44. **重藥** :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本書 뒷부분의 「用夾法」에 ‘用  
淡淡丹藥.....此眼縱有厚翳, 不可用重藥’이라 한 것으로 보아, 농도가 진한  
點眼藥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12. 眇 淚粘濃 | 눈곱이 끈끈하고 진한 것

濃 粘 淚 眇



問曰, 眇 淚粘濃出而不絕者, 何也. 答曰, 此肺之虛也. 肺受心火之邪熱所克, 金得心火而衰, 故眵 淚而不絕也. 宜先服艾煎丸以去肺與大腸經天廓之邪熱, 後用阿膠散而補之.

묻기를, “눈곱이 끈끈하게 나오며 그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이는 폐(肺)가 허(虛)한 것이다. 심화(心火)의 사열(邪熱)이 폐(肺)를 극(克)하여, 금(金)이 심화(心火)를 만나 쇠약해졌으므로 눈곱이 그치지 않는다. 먼저

애전환(艾煎丸)을 복용하여 폐경(肺經)과 대장경(大藏經)인 천곽(天廓)의 사열(邪熱)을 제거한 후에 아교산(阿膠散)을 써서 보(補)해야 한다.”

### 1.12.1. 艾煎丸 | 애전환

好艾葉《醋蒸焙乾》薄荷 當歸 地骨皮 晚 蟲沙《即 蟲屎》糯 米 秦艽 黃柏 桔梗  
45 紹黃

좋은 애엽《식초에 쪄서 약한 불로 말린 것》박하, 당귀, 지골피, 만잠사《즉 잠시(蠅屎)》나미, 진교, 황백, 길경, 황기.

上爲末, 煉蜜爲丸. 每服十五<sup>46</sup> 丸, 食後服, 桑白皮湯下, 或薄荷湯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줄인 꿀로 환을 빚는다. 매번 15환을 식후에 복용하는 데, 상백피(桑白皮) 또는 박하(薄荷) 달인 물로 삼킨다.

### 1.12.2. 阿膠散 | 아교산

阿膠《蛤粉炒, 一兩》鼠粘子《炒, 一兩》甘草《五錢》糯 米《一兩》馬兜鈴 款冬花 紫苑《各一兩》

아교《합분(蛤粉)을 넣고 볶은 것 1냥》서점자《볶은 것 1냥》감초《5돈》나미《1냥》마두령, 관동화, 자완《각 1냥》.

上爲末, 每服六錢, 水煎服.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6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sup>45</sup>. 紹黃 : 紹黃芪 즉 黃芪 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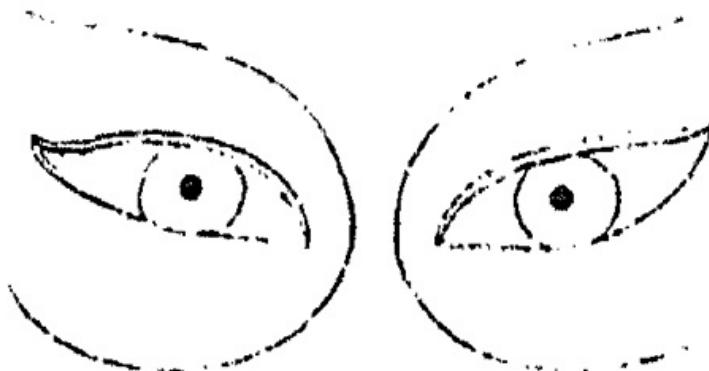
<sup>46</sup>. 十五 : [集成] 鼎本에는 ‘三十五’로 되어 있다. ↪

눈곱이 끈끈하고 진한 것 眇 淚粘濃

---

1.13. 眇淚淨明<sup>47</sup> | 눈곱을 깨끗이 하는 법

# 明 淨 淚 眇



問曰，人患眼白仁常淚，紅壅熱，眵淚出而不絕者何也。答曰，此肺之實熱也。肺屬金，金生水，金旺則水溢，淚本通肝，亦是肺之精華，肺經實熱故目眵淚出而不絕也。治之須用瀉肺湯，瀉肺經之實熱，後用省味金花丸治其肺火，則與大腸傳導流利，而天廓目經於度，無上炎之火，眵淚淨明矣。

문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흰자위에 항상 눈물이 어리고,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눈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이는 폐(肺)의 실열(實熱)이다. 폐는 금(金)에 속하고 금(金)은 수(水)를 생(生)하므로 금이

왕성하면 수가 넘치며, 눈물은 본래 간(肝)과 통하지만 역시 폐의 정화(精華)이니, 폐경(肺經)의 실열(實熱) 때문에 눈곱과 눈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치료는 모름지기 사폐탕(瀉肺湯)을 써서 폐경의 실열을 사(瀉)한 후에 생미금화환(省味金花丸)을 써서 폐화(肺火)를 다스리면 대장(大腸)과 더불어 전도(傳導)가 원활하게 되어, 눈의 천곽(天廓)이 정상으로 돌아가니, 타오르는 화(火)가 없으므로 눈곱이 깨끗하게 된다.”

### 1.13.1. 漉肺湯 | 사폐탕

地骨皮 大黃 芒硝 桔梗 甘草《各一兩》

지골피, 대황, 망초, 길경, 감초《각 1냥》.

上每服五錢, 水煎.

이상을 매번 5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13.2. 省味金花丸<sup>48</sup> | 생미금화환

川黃柏《二兩》黃芩 知母 桔梗 連翹《各一兩》地骨皮薄荷<sup>49</sup>《五錢》

천황백《2냥》황금, 지모, 길경, 연교《각 1냥》지골피, 박하《5돈》.

上煉蜜爲丸, 每服五十丸, 桑柏皮湯下, 或薄荷湯下.

이상의 약재를 졸인 꿀로 환을 빚어 매번 50환씩 상백피(桑白皮)나 박하(薄荷) 달인 물로 삼킨다.

<sup>47</sup>. 眇淚淨明 :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淨明’ 두 글자는 병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결과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다른 조의 경우 모두 痘名을 제목으로 한 것을 보면 訶傳의 가능성도 있다. ↪

48. 省味金花丸 : 金花丸에서 藥味를 덜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에 나온 金花丸과 비교해 보면 여러 藥味의出入이 있으나 특히 君藥 중 하나인 黃連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9. 薄荷 : (集成) 鼎本에는 이 다음에 ‘金紉’ 두 자가 더 있다. ←

1.15. 目暗生花<sup>51</sup> | 눈이 어둡고 꽃 같은 무늬가 보이는 것

# 花 生 暗 目



目暗生花不能久視者, 何也. 此乃腎之虛也. 眼雖屬於竅門, 乃歸腎而爲主<sup>52</sup>, 腎虛則眼昏, 或貪淫樂欲酒色過度, 使腎臟衰憊, 稟受天真不全, 精神短少, 致瞳人神水不清, 眼目無力, 故目生花, 不能久視. 治之須用還精補腎丸, 使陰水足, 無不還矣.

눈이 어두우며 아른거리는 무늬가 있어 오래 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신(腎)이 허(虛)한 것이다. 눈은 비록 밖과 통하는 구멍의 하나이지만 신(腎)에 귀속되어 주인으로 삼으므로 신허(腎虛)하면 눈이 어두워지니, 혹 욕망에 탐닉하고 주색(酒色)이 지나쳐서 신장(腎臟)을 쇠약하게 하여 타고난 천진(天真)이 보전되지 못하고 정신(精神)이 부족해지면 동공의 신수(神水)가 막

지 못하고 눈이 무력하므로 눈앞이 아른거리고 오래 보지 못한다. 치료는 모름  
지기 환정보신환(還精補腎丸)을 써서 음수(陰水)를 충족시키면 회복되지 않  
음이 없을 것이다.

### 1.15.1. 還精補腎丸 | 환정보신환

人參 白朮 茯苓 菖 藜 羌活 木賊 菊花 防風 甘草 川芎 山藥 肉蓴 蓉 密蒙花 青葙 子  
牛膝《各一兩》菟 絲子

인삼, 백출, 복령, 질려, 강활, 목적, 국화, 방풍, 감초, 천궁, 산약, 육종용, 밀몽  
화, 청상자, 우슬《각 1냥》토사자.

上爲細末, 煉蜜爲丸. 或煎服亦妙.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줄인 꿀로 환을 빚는다. 혹은 달여서 복용해도 효  
과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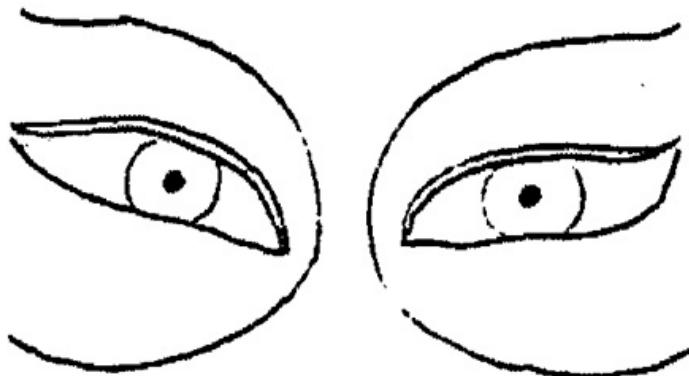
---

51. 目暗生花 : 四庫全書本에는 이 조의 그림 아래에 ‘與坐起生花不同’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坐起生花’는 앓아 있다가 일어날 때에 눈앞이 아른거리는  
것으로, 뒤에 해당 병증의 조문이 나온다. ↪

52. 眼雖屬於竅門, 乃歸腎而爲主 : 本書 서두의 「唐真人孫思邈進眼藥表」에  
같은 문장이 있다. ↪

1.16. 热極眵 睛 | 열(熱)이 극심하고 눈곱이 생기는 것

# 睛 眇 極 热



眼目熱極, 珠碜 淚出者也. 此陰陽不和, 五臟壅熱, 肝膈毒風上充, 忽然腫痛難忍, 五輪振起, 乃五臟熱極致使也. 宜服救睛散, 次用涼膈連翹散, 先點清涼散, 次用九一丹<sup>53</sup>.

눈에 열이 극심하며 눈알이 모래 끈 듯 깔깔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음양(陰陽)이 조화롭지 못하여 오장(五臟)에 열이 막혀있고 간격(肝膈)의 독 풍(毒風)이 위로 차올라 갑자기 붓고 아파 견딜 수 없으니, 바로 오장의 열이

지극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마땅히 구정산(救睛散)을 복용하고 다음으로 양격연교산(涼膈連翹散)을 쓰며, 점안약으로는 먼저 청량산(清涼散)을 쓰고 다음으로 구일단(九一丹)을 쓴다.

### 1.16.1. 救睛散 | 구정산

川芎 防風 羌活 甘草 木賊 石膏 薄荷 菊花 石決明

천궁, 방풍, 강활, 감초, 목적, 석고, 박하, 국화, 석결명.

上爲末, 每服三錢, 清茶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찻물로 삼킨다.

### 1.16.2. 凉膈連翹散 | 양격연교산

連翹 大黃 黃連《各二兩》薄荷 桔子 甘草 黃芩 朴硝《各一兩》

연교, 대황, 황련《각 2냥》박하, 치자, 감초, 황금, 박초《각 1냥》.

上, 水煎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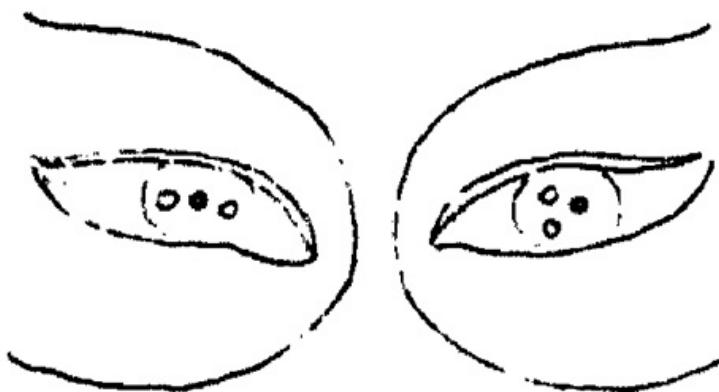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53. 九一丹 : 陽丹과 陰丹을 9:1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다. ↪

1.17. 胞肉膠凝 | 눈꺼풀이 풀로 붙인 듯 엉겨 붙는 것

# 凝 膠 肉 胞



胞肉膠凝與兩臉粘睛, 瞼之病, 此症, 胞之病<sup>54</sup> 瞼熱則眵 粘病之淺, 胞熱則膠粘病之深. 故分作兩症治之. 脾胃壅熱, 肝膈風充臉胞內, 蟲肉壅起, 爛濕眵 粘膠凝, 氣血壅滯, 不能疏散, 積之年久, 黑睛生翳, 朦昧不明, 瞽明怕日. 治法以陰二陽四吹點, 有瘀血可刷洗, 以桑白皮鐵扇子<sup>55</sup> 菊花當歸防風荊芥木賊薄荷鹽花<sup>56</sup> 之類. 胞肉積久堅硬厚實者, 番轉烙二三度, 而實其肉可也.

포육교응(胞肉膠凝)은 양검점정(兩臉粘睛)과 상당히 유사한데, 양검점정은 안검(眼瞼)의 병이고 이 병증은 안포(眼胞)의 병이다. 안검에 열이 있으면 눈곱이 끈적이니 병이 얕은 것이고, 안포에 열이 있으면 풀처럼 엉겨 붙으니 병이 깊은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병증으로 구분하여 치료한다. 비위(脾胃)에

열이 막혀있고 간격(肝膈)의 풍(風)이 눈꺼풀 속에 가득하면 군살이 차오르고 짓무르면서 눈곱이 끈끈하여 풀처럼 엉기며, 기혈(氣血)이 응체(壅滯)되어 오래도록 흘어지지 못한 채 해독게 되면 검은자위에 예장(翳障)이 생겨 흐릿하고 밝지 못하며 눈이 부셔 햇빛을 보지 못한다. 치법은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4의 비율로 섞어 불어넣으며, 어혈이 있으면 살짝 찌르고 씻어내는데, 상백피(桑白皮), 철선자(鐵扇子), 국화(菊花), 당귀(當歸), 방풍(防風), 형개(荊芥), 목적(木賊), 박하(薄荷), 염화(鹽花) 등을 쓴다. 오래되어 눈꺼풀이 딴딴하고 두꺼워진 경우에는 눈꺼풀을 뒤집어서 두세 번 지지고 기육(肌肉)을 견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問曰, 眼久注不開, 內生虛肉, 眇 淚膠凝者何也. 答曰, 胃中有伏熱鬱於內也. 治宜通脾瀉胃湯加寒劑, 降火涼血去風, 宜點堅藥<sup>57</sup>. 內肉結厚實者, 宜剗洗, 至肉平淨方止, 堅厚者亦烙無妨, 烙後清涼消毒膏敷之.

문기를, “눈을 한동안 감고 있으면 뜨지 못하고 속에 군살이 생기며 눈곱과 눈물이 풀처럼 엉기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위(胃) 속에 잠복한 열이 있어 속에 울결(鬱結)된 것이다. 치료는 마땅히 통비사위탕(通脾瀉胃湯)에 찬약을 더해 써서 강화(降火), 량혈(涼血), 거풍(去風)하고, 견약(堅藥)을 점안해야 한다. 속에서 살이 뭉쳐 딴딴하고 실한 경우에는 살짝 찌르고 씻어내는데 살이 평평하고 깨끗해질 때까지 하고, 딴딴하고 두꺼워진 경우 역시 지져도 무방하니, 지진 후에 청량소독고(清涼消毒膏)를 붙인다.”

### 1.17.1. 通脾瀉胃湯 | 통비사위탕

麥門冬 菖 蔚子 防風 大黃 知母 天門冬 黃芩

맥문동, 총울자, 방풍, 대황, 지모, 천문동, 황금.

熱甚者, 加黃柏石膏朴硝梔仁. 一方又加黑參.

열이 심한 경우 황백, 석고, 박초, 치자를 가미한다. 어떤 처방에는 또 흑삼을 더 넣는다.

上等分爲末, 每服五錢, 水煎食前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매번 5돈씩 물에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

54. **兩臉粘睛, 瞼之病, 此症, 胞之病** : 대개 ‘胞’와 ‘瞼’을 구별하지 않고 눈꺼풀의 의미로 쓰거나, ‘胞’는 눈꺼풀을, ‘瞼’은 속눈썹이 난 부위인 눈시울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本書에서는 ‘上胞下瞼’이라 하여 ‘胞’는 위쪽의 눈꺼풀을, ‘瞼’은 눈의 아래쪽 껌풀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구분할 때 ‘胞’는 胃의 영역이고 ‘瞼’은 脾의 영역이니, 앞의 「五輪圖式」과 「八廓圖式」의 그림에 명시되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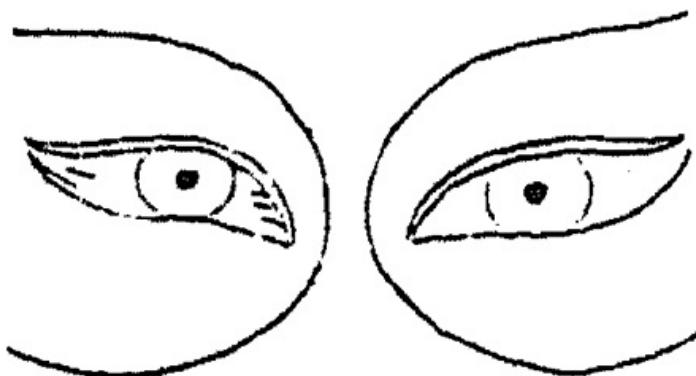
55. **鐵扇子** : 大寒이 지나고도 떨어지지 않은 뽕잎. ↪

56. **鹽花** : 소금의 결정을 말한다. ↪

57. **堅藥** :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데, 다른 곳의 예를 보면 ‘重藥’의 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

1.18. 胞肉生瘡 | 눈꺼풀에 부스럼이 생기는 것

# 胞 生 肉 瘡



胞肉生瘡，與胞肉膠凝瞼生風粟兩瞼粘睛四症大同小異，此皆上胞下瞼之病。然中間分析治法，各有輕重深淺，剗洗針烙不同。胞肉生瘡者，此脾胃熱毒，胞肉<sup>58</sup>疙瘩或風粟<sup>59</sup>變而爲瘡，血熱化膿，腐爛腥臊，流汁流膿，浸漬黑睛生翳，眼如朱砂之色。此症雖少，不可不知。治用陰二陽十藥，日月<sup>60</sup>桑白皮煎湯，入枯礬鹽化<sup>61</sup>，番轉眼皮，以鴿翎刷洗有瘡處，以血竭乳香沒藥輕粉彌陀僧<sup>62</sup>，或有瘡處烙二三下無妨。

포육생창(胞肉生瘡)은 포육교응(胞肉膠凝)，검생풍속(瞼生風粟)，양검점정(兩瞼粘睛)과 함께 네 증상이 대동소이하니, 이들은 모두 위나 아래 눈꺼풀의 병이다. 그러나 치법을 분석해 보면 각각 무겁거나 가볍고 깊거나 얕으며 찌르

고 씻거나 째고 지지는 차이가 있다. 포육생창은 비위(脾胃)의 열독(熱毒)이니, 눈꺼풀에 생긴 흘탑(疙瘩)이나 풍속(風粟)이 변하여 혈게 되고, 혈열(血熱)로 화농(化膿)하여 썩고 문드러지며 악취가 나고, 진물과 고름이 흘러서 검은자위를 적셔 예장(翳障)이 생기며, 눈이 주사(硃砂)와 같이 붉게 된다. 이 병증은 비록 적지만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치료는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10으로 배합한 약을 점안(點眼)한다. 상백피(桑白皮) 달인 물에 고반(枯礬)과 염화(鹽花)를 넣어서 눈꺼풀을 뒤집어 비둘기 깃으로 헌 부분을 닦고 씻는데 혈갈(血竭), 유향(乳香), 몰약(沒藥), 경분(輕粉), 밀타승(密陀僧)을 쓰고, 혹 헌 곳을 두세 차례 지져도 무방하다.

問曰, 胞肉生瘡, 犀澀 晴珠者何也. 答曰, 胃得心熱也. 治宜泄心火解胃熱, 用八正散  
三黃湯之類. 痛者用沒藥散, 有瘡處仍用剗洗, 點以清涼及重藥. 肉虛者宜烙, 外用  
清涼消毒膏敷之.

문기를, “눈꺼풀의 살에 부스럼이 생겨서 눈알까지 답답하고 깔깔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위(胃)가 심열(心熱)을 만난 것이다. 치료는 의당 심화(心火)를 빼내고 위열(胃熱)을 풀어야 하니 팔정산(八正散), 삼황탕(三黃湯) 등을 쓴다. 아픈 경우 몰약산(沒藥散)을 쓰고, 부스럼 있는 곳을 또 살짝 찌르고 씻으며, 청량산(清涼散) 및 중약(重藥)으로 점안한다. 살이 무른 경우에는 지져야 하고, 밖으로는 청량소독고(清涼消毒膏)를 붙인다.”

### 1.18.1. 八正散 | 팔정산

《在前大眥 赤脈條下》

《앞의 대자적맥전정(大眥 赤脈傳睛) 조에 있다》

### 1.18.2. 三黃湯 | 삼황탕

《在前努肉條下》

《앞의 노육반정(額 肉攀睛) 조에 있다》

### 1.18.3. 血滯痛甚服 | 혈(血)이 응체(凝滯)되어 통증이 심할 때 복용하는 처방

#### 1.18.3.1. 没藥散 | 물약산

治心脾胃得熱, 致胞肉生瘡, 宜服.

심(心)과 비위(脾胃)가 열을 만나 눈꺼풀에 부스럼이 생긴 경우에 복용한다.

大黃《多用》真血竭《破積血止痛去赤》沒藥《少》朴硝《多》

대황《많이 쓴다》진혈갈《적혈(積血)을 깨뜨리고 통증을 멎게 하며 붉은 것을  
가시게 한다》몰약《조금》박초《많이》.

上照多少加減爲末. 每服二三錢, 食後用清茶調下.

이상의 약재를 분량을 보아가며 가감하여 가루로 만든다. 매번 2~3돈씩 식후  
에 찻물에 타서 복용한다.

58. 痘瘍 : 작은 부스럼이 한 곳에 모여 나서 오톨도톨하게 된 것. ↪

59. 風粟 : 粟瘡, 즉 좁쌀 같은 丘疹을 말한다. ↪

60. 日月 : (集成) 鼎本에는 ‘點用’으로 되어 있고 앞 구절에 붙여 읽는다. (역  
주) ‘點用’으로 보는 것이 文義가 순조로우므로 이를 따른다. ↪

61. 鹽化 : 앞의 「胞肉膠凝」조를 보면 ‘鹽花’일 것으로 생각된다. ↪

62. 彌陀僧 : (集成) 鼎本에는 ‘密陀僧’으로 되어 있다. 이하도 같다. ↪



1.19. 瞼生風粟 | 아랫눈꺼풀에 졸쌀 같은 것이 돋아나는 것

# 粟 風 生 臉



瞼生風粟者，瞼間積血年久，致生風粟，與眵粘<sup>63</sup>症同，眵粘者無風粟，故又作一症。胞者上胞也，瞼者下瞼也。此脾胃壅熱，致令胞瞼之間，漸生風粟如米，甚如楊梅之狀，摩擦瞳人，黑睛有翳。治法，番轉瞼，風粟逐個用鋒針密針三五度，亦烙更妙。睛有翳者，用陰三陽五藥吹點，二三夜吹一次，忌口，動風動血之物莫吃可也。

검생풍속(瞼生風粟)은 안검(眼瞼) 부위에 혈(血)이 오래도록 적체되어 졸쌀 같은 것이 돋게 된 것인데, 치점(眵粘)과 같은 증이지만 치점에는 풍속(風粟)이 없으므로 별도의 병증으로 두었다. ‘포(胞)’는 윗눈꺼풀이고 ‘검(瞼)’은 아

랫눈꺼풀이다. 이는 비위(脾胃)에 열이 막혀있어서 안포와 안검 부위에 점점  
쌀알처럼 오톨도톨한 것이 생겨나며, 심하면 양매(楊梅) 같이 되어서 눈동자  
를 마찰하므로 검은자위에 예장(翳 障)이 생긴다. 치법은 안검을 뒤집어서 풍  
속(風粟)을 하나하나 봉침(鋒鍼)으로 촘촘하게 찌르기를 3~5번 하고, 또 지지  
면 더욱 효과가 좋다. 눈알에 예장이 있으면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3:5로  
배합한 약을 불어넣는데 2~3일 밤에 한 번씩 하며, 음식을 주의하여 풍(風)을  
일으키거나 혈(血)을 동요시키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問曰, 下瞼生風粟如楊梅之狀者何也. 答曰, 脾得邪熱, 血滯不行, 致生風粟. 紅蠹 不平, 宜剗洗, 脾熱用瀉脾湯, 久患宜烙, 點用清涼可也.

묻기를, “아랫눈꺼풀에 풍속(風粟)이 생겨 양매(楊梅)의 형상과 같은 것은 어  
째서인가?” 대답하기를, “비(脾)가 사열(邪熱)을 만나 혈(血)이 응체(凝滯)되  
어 흐르지 못하여 풍속을 발생시킨다. 붉거나 황적색으로 고르지 않으면 찌르  
고 씻어내며, 비열(脾熱)에는 사비탕(瀉脾湯)을 쓰고, 오래 앓은 경우 지져야  
하며, 청량산(清涼散)을 점안하는 것도 좋다.”

### 1.19.1. 瀉脾湯 | 사비탕

人參 黃芩 大黃 桔梗 白茯苓 芒硝 蕤 蔚子《二兩》白芍藥《一兩》黑參《兩半》細辛  
白芷《各一兩》

인삼, 황금, 대황, 길경, 백복령, 망초, 충울자《2냥》백작약《1냥》흑삼《1냥반》  
세신, 백지《각 1냥》.

上各等分加減. 每服四五錢, 水煎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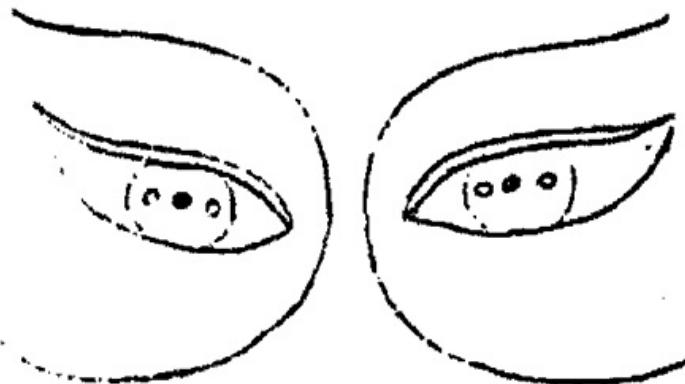
이상을 같은 분량씩 하거나 가감한다. 매번 4~5돈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63. 眇 粘 : 앞에 나온 ‘兩瞼粘睛’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1.20. 天行赤眼 | 유행병으로 눈이 붉게 되는 것

# 眼 赤 行 天



天行赤眼者，謂天地流行毒氣，能傳染於人。一人害眼傳於一家，不論大小皆傳一遍，是謂天行赤眼。腫痛沙澀難開，或五日而愈，此一候<sup>64</sup>之氣，其病安矣。治法，此症再不可刷洗，只用童子小便煎黃連露宿溫洗，日進五遍，以解惡毒之氣，更用胡宣二連，礬雄黃共研細，調薑汁點二目，通其惡淚，其痛立止。或酒調散服之二三貼無妨。此症只氣候瘴毒之染，雖腫痛之重，終不傷黑睛瞳人也。

천행적안(天行赤眼)이란 천지간에 흘러 다니는 독기(毒氣)로서 남에게 전염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눈병을 앓으면 한 집안에 전염되며 눈구석과 눈초리를 가리지 않고 온통 퍼지니, 이것을 천행적안이라고 한다. 붓고 아

프면서 모래처럼 깔깔하여 눈을 뜨기 어려운데, 혹 5일 만에 낫기도 하니, 이는 일후(一候)의 기(氣)가 지나가 그 병이 편안해진 것이다. 치법은, 이 병증은 절대 찌르고 씻어서는 안 되며, 단지 동자(童子)의 소변에 황련(黃連)을 달여서 하룻밤 밖에 두었다가 따뜻하게 하여 씻되 하루에 5차례씩 하여 악독(惡毒)의 기운을 해소하고, 다시 호황련(胡黃蓮)과 선주황련(宣州黃連), 백반(白礬), 응황(雄黃)을 함께 곱게 갈아 생강즙에 타서 눈구석과 눈초리에 점안하여 그 악루(惡淚)를 통하게 하면 통증이 곧 멎는다. 혹은 주조산(酒調散)을 2~3첩 복용 하여도 무방하다. 이 병증은 단지 기후(氣候)의 장독(瘴毒)이 전염된 것이니, 비록 붓고 아픈 것이 심하더라도 결국 검은자위나 동공을 상하지는 않는다.

問曰, 一人患眼, 傳於一家者何也. 答曰, 天時流行瘴毒之氣相染. 治宜解毒涼血清熱, 痛甚者, 服用洗肝散, 七寶洗心散. 點用清涼散加解毒. 但此症與內無損, 極甚者, 二七不療自愈, 切不可廁洗去血.

문기를, “한 사람이 눈을 앓는데 한 집안에 다 전해지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장독(瘴毒)의 기운이 전염된 것이다. 치료는 마땅히 해독(解毒), 량혈(涼血), 청열(清熱)해야 하는데, 통증이 심하면 세간산(洗肝散), 칠보세심산(七寶洗心散)을 복용한다. 점안약으로는 청량산(清涼散)에 해독하는 약재를 가미한다. 단, 이 병증은 내부의 손상과 무관하므로 극히 심한 경우도 14일 정도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나으니, 절대로 찌르고 씻는 방법으로 피를 내어서는 안 된다.”

### 1.20.1. 洗肝散 | 세간산

治暴發赤腫, 天行赤眼時常眼痛, 宜服.

갑자기 붉어지고 붓는 것을 치료하니, 천행적안(天行赤眼)으로 계속 눈이 아플 때에 복용한다.

大黃 桃子 防風 薄荷 川芎 當歸 羌活 甘草

대황, 치자, 방풍, 박하, 천궁, 당귀, 강활, 감초.

上一兩爲末, 食後熱水調二三錢服之.

이상의 약재 1냥을 가루로 만들어, 식후에 2~3돈을 뜨거운 물에 타서 복용한다.

### 1.20.2. 七寶洗心散 | 칠보세심산

《方在大眡 赤脈條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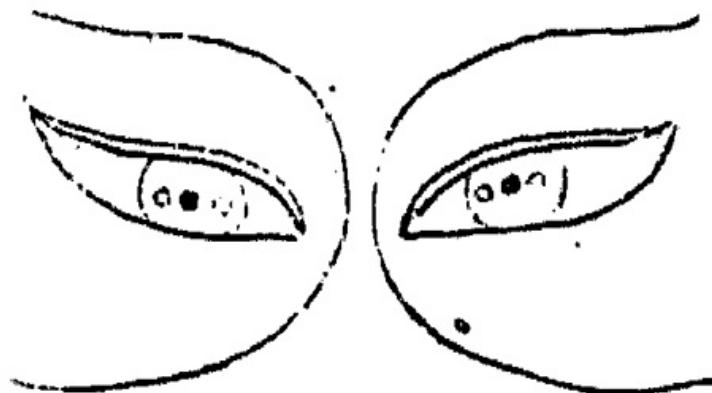
《처방은 앞의 대자적맥전정(大眡 赤脈傳睛) 조에 있다》

---

<sup>64</sup>. 一候 : 二十四節氣를 정할 때의 한 단위로 5일에 해당한다. 즉 黃道를 24등분하는 방법 외에 5일을 1候, 3候를 1氣, 1년을 24氣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때의 1候를 말한다. ↪

1.21. 大患後生翳 | 큰 병을 앓은 후에 예(翳)가 생기는 것

# 翳 生 後 患 大



大患後生翳者，與天行赤眼同一症也，何分兩症治之。天行赤眼只一候或七日愈矣，雖同，無生翳之患。大患者，初起陡然而起，腫痛發來甚重，沙澀難忍，增寒作熱，坐臥不安，或通夜行至達旦，羞明怕日，淚出如湯，鼻涕清流，兩眼腫起如桃，日夜呻吟，飲食無味，二七不愈，遂生翳如黃膿疥瘡，占在風輪，其腦牽痛。治宜用胡宣二連藥，照前研細調薑汁點，用苦桃葉側柏葉菊葉柳葉熏洗，服宜四順八正導赤散。雖療瘻可，赤昏昧三個月方得復舊，失於調治，喪明必矣。

대환후생예(大患後生翳)란 천행적안(天行赤眼)과 동일한 병증인데, 어째서 두 증으로 나누어 치료하는가? 천행적안은 단지 일후(一候; 5일)나 7일이 지나면 나오니, 증상은 비록 같지만 예(翳)가 생길 염려가 없다. 대환후생예는 초기부터 불쑥 솟아올라 붓고 아픈 것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며, 모래처럼 깔깔하여 참기 어렵고, 몹시 추우면서 열이 나 편안히 앓거나 눕지도 못하는 것이 밤새 계속되어 새벽에 이르기도 하며, 눈이 부셔 햇빛을 보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면 끓는 물 같으며 콧물이 줄줄 흐르고 두 눈이 복숭아처럼 부어올라, 밤낮으로 신음하고 음식의 맛도 모르며 14일이 지나도 낫지 않으니, 마침내 예(翳)가 생겨서 누렇게 짙은 옴처럼 되어 풍륜(風輪)에 자리를 잡아 머릿속까지 끌어당기듯 아프다. 치료는 마땅히 호황련(胡黃蓮)과 선주황련(宣州黃連) 두 약을 앞의 방법대로 곱게 갈아 생강즙에 타서 점안하며, 고도(苦桃)의 잎과 측백엽(側柏葉), 국화잎, 버들잎을 써서 훈증하고 씻으며, 사순탕(四順湯), 팔정산(八正散), 도적산(導赤散)을 복용한다. 비록 치료하여 낫더라도 붓고 혼미한 것은 3개월이 지나야만 예전대로 회복되니, 조리를 잘못하면 반드시 실명한다.

問曰, 天行赤眼後生白翳者何也. 答曰, 邪氣甚傷經絡也. 外邪甚則傷肝, 肝受傷則生翳. 治宜四順散細辛湯, 點用熊膽膏, 翳厚者用九一丹點.

묻기를, “천행적안(天行赤眼) 후에 흰색의 예(翳)가 생기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사기(邪氣)가 심하여 경락(經絡)을 상한 것이다. 외사(外邪)가 심하면 간(肝)을 상하고, 간이 손상되면 예(翳)가 생긴다. 치료는 사순산(四順散), 세신탕(細辛湯)을 복용하고 웅담고(熊膽膏)를 점안하며, 예가 두터운 경우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 1.21.1. 四順湯 | 사순탕

治經絡得熱, 大患後生翳, 宜服.

경락(經絡)이 열을 만난 것을 치료하니, 큰 병을 앓은 후 예(翳)가 생긴 경우에 복용한다.

### 大黃 當歸 甘草 赤芍藥

대황, 당귀, 감초, 적작약.

上各等分, 每服四五錢, 水煎食後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섞어 매번 4~5돈을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1.21.2. 細辛湯 | 세신탕

治風邪傷肝, 致眼生翳.

풍사(風邪)가 간(肝)을 상하여 눈에 예(翳)가 생긴 것을 치료한다.

茺蔚子 黑參 黃芩 桔梗 大黃 車前子 木通 生地黃 甘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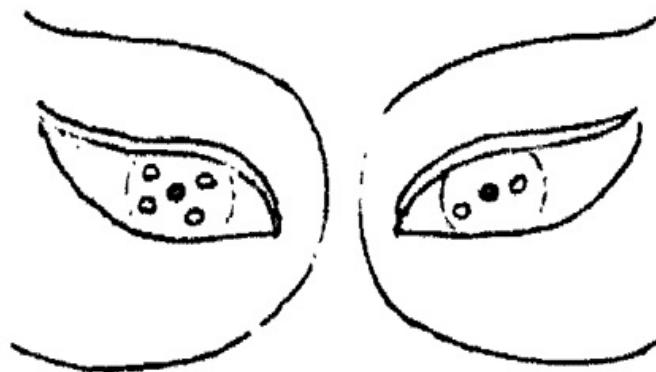
충울자, 흑삼, 황금, 길경, 대황, 차전자, 목통, 생지황, 감초.

上各等分, 水煎食後服.

이상의 약재 같은 분량씩을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1.22. 暴露赤眼生翳 | 갑자기 눈이 붉어지고 예(翳)가 생기는 것

# 翳 生 眼 赤 露 暴



暴露赤眼生翳者，與天行赤眼同理。天行赤眼者，能傳染於人，暴露赤眼但患於一人，而無傳染之症。天行者，雖痛腫而無翳，暴露者，痛而生翳，故此有別治法。即其所因，量其老少虛實，熱則清涼之，氣結則調順之。此眼縱有瘀血切不可廁洗，亦不可峻補，藥宜酒煎散發散，內有麻黃蒼朮，或大黃當歸散，疏通血氣，點以淡藥九一丹。如翳厚，珍珠散點之，洗以黃連當歸防風菊花側柏赤芍藥薄荷荊芥之類。

폭로적안생예(暴露赤眼生翳)는 천행적안(天行赤眼)과 병리가 같다. 천행적안은 남에게 전염이 되지만 폭로적안은 단지 한 사람만 앓고 전염되는 일은 없으며, 천행적안은 아프고 붓기는 해도 예(翳)는 없는데 폭로적안은 아프면서 예(翳)가 생기므로 여기에는 별도의 치법이 있다. 기인한 바를 살피고 노소(老

少)와 허실(虛實)을 해야려, 열(熱)이면 서늘하게 식히며 기(氣)가 맺혔으면 고르고 순조롭게 한다. 이 눈병은 비록 어혈(瘀血)이 있더라도 절대 찌르고 씻어서는 안 되며 준보(峻補)해서도 안 되니, 약은 마땅히 주전산(酒煎散)으로 발산시키되 마황(麻黃), 창출(蒼朾)을 넣고, 혹은 대황당귀산(大黃當歸散)으로 혈기(血氣)를 소통시키며, 묽게 만든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예(翳)가 두터운 경우 진주산(珍珠散)을 점안하고, 황련(黃連), 당귀(當歸), 방풍(防風), 측백엽(側柏葉), 적작약(赤芍藥), 박하(薄荷), 형개(荊芥) 등으로 씻는다.

### 1.22.1. 酒煎散 | 주전산

漢防己 防風 甘草 荆芥 當歸 赤芍藥 牛蒡子 乾菊花

한방기, 방풍, 감초, 형개, 당귀, 적작약, 우방자, 건국화.

上各等分, 酒煎食後溫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술에 달여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1.22.2. 大黃當歸散 | 대황당귀산

治眼壅腫, 瘀血凝滯不散, 攻發生翳 服.

눈이 부어오른 것을 치료하니, 어혈(瘀血)이 응체(凝滯)되어 흘어지지 않고 예(翳)를 발생시킨 경우에 복용한다.

當歸《酒浸, 二錢》菊花《三錢》大黃《酒蒸》黃芩《各一兩》紅花《炙用》蘇木 梔子  
《酒炒》木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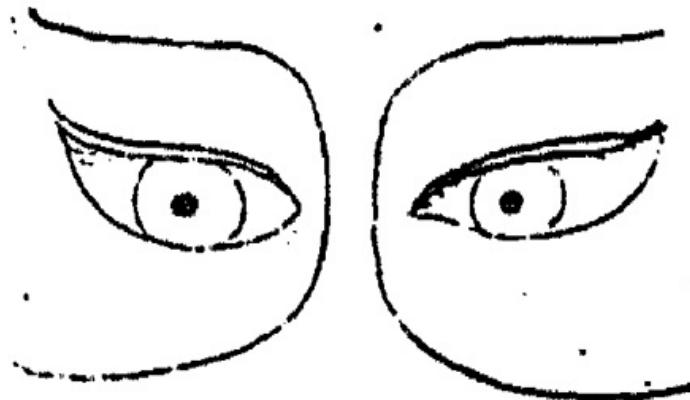
당귀《술에 담근 것 2돈》국화《3돈》대황《술에 찐 것》황금《각 1냥》홍화《구워서 쓴다》소목, 치자《술에 볶은 것》목적.

上水煎, 食後服.

| 이상을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1.23. 暴風客熱 | 갑자기 풍열(風熱)이 침범한 눈병

# 暴 風 客 热



暴風客熱，與暴露赤眼同也。暴露者，肝心二經病也，故赤而痛，致黑睛生翳，暴風客熱者，肝肺二經病，故白仁生虛翳，四圍壅繞，朝伏黑暗，凹入白仁，紅翳壅起，痛澀難開，故分暴露與暴風有別之症。暴者，乍也，驟也，陡然而起。治法疏通退熱，涼膈瀉肝增減酒調之劑，發散風熱。俗云熱眼忌酒，孰知酒能引血，藥無酒不能及於頭目也。此眼不可刷洗，不可點涼藥。暴客之邪來之速，去之亦速耳，非比五臟六腑蘊積發歇不時之症同，俗爲傷寒眼也。

폭풍객열(暴風客熱)은 폭로적안(暴露赤眼)과 같다. 폭로적안은 간경(肝經)과 심경(心經)의 병이므로 붉으면서 아프고 검은자위에 예(翳)가 생기게 하며, 폭풍객열은 간경과 폐경(肺經)의 병이므로 흰자위에 허예(虛翳)가 생겨 사방을 에워 두르며, 점차 색이 검어지면서 흰자위가 우뚝하게 파이고 붉은 예(翳)가 돋아 오르며 아프고 깔깔하여 눈을 뜨기 어려우니, 그래서 폭로와 폭풍을 나누어 별도의 병증으로 한다. ‘暴’이란 ‘갑자기’, ‘빠르다’의 뜻이니 불쑥 솟아 나는 것이다. 치법은 소통시켜 열을 물리쳐야 하는데, 양격산(涼膈散), 사간산(瀉肝散)이나 주조산(酒調散)을 가감한 처방 등을 써서 풍열(風熱)을 발산시킨다. 민간에서 열안(熱眼)에는 술을 꺼린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술이 혈(血)을 인도하니, 약에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와 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눈병은 찌르고 씹어서는 안 되며 냉약(涼藥)을 점안해서도 안 된다. 갑자기 침범한 사기(邪氣)는 오는 것이 빠른 만큼 가는 것도 빨라서, 오장육부(五臟六腑)에 쌓여 아무 때고 발작했다 그쳤다 하는 병증과는 비할 것이 아니니, 민간에서는 ‘상한안(傷寒眼)’이라고 한다.

問曰, 白仁壅起, 包小烏暗, 疼痛難開者何也. 此時肺經受毒風不散, 久則發熱攻入眼中, 致令白睛浮腫, 名曰暴風客熱. 宜服酒調散補肝湯, 用搜風煎洗服.

묻기를, “흰자위가 부어오르고 안포(眼胞) 조금 검어지며 아파서 눈을 뜨기 힘든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계절에 따라 폐경(肺經)이 독풍(毒風)을 받은 것 이 흩어지지 않고 오래되면 열이 발생하여 눈 속으로 침입하여 흰자위가 붓게 만드는 것이니, 이름을 ‘폭풍객열(暴風客熱)’이라고 한다. 마땅히 주조산(酒調散), 보간탕(補肝湯)을 복용해야 하며, 수풍산(搜風散)을 달여서 씻는다.”

### 1.23.1. 瀉肝散 | 사간산

治眼發歇不時.

눈병이 아무 때고 발작했다 그쳤다 하는 것을 치료한다.

羌活 黃芩 黑參《各兩半》桔梗 大黃 芒硝 地骨皮《各一兩》

강활, 황금, 흑삼《각 1냥반》길경, 대황, 망초, 지골피《각 1냥》.

上每服六錢, 水煎服.

이상을 매번 6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23.2. 补肝湯 | 보간탕

蒿本《一兩》白芷 車前子 石決明 天麻 赤芍藥 防風 細辛《各一兩》

고본《1냥》백지, 차전자, 석결명, 천마, 적작약, 방풍, 세신《각 1냥》.

上每服二錢, 水湯<sup>65</sup>調下.

이상을 매번 2돈씩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 1.23.3. 搜風散 | 수풍산

洗眼, 治眼中有黑花.

눈을 씻어서 눈 속에 검은 무늬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陳皮 秦艽 防風 細辛《各一兩》黃連 木香《各五錢》

진피, 진교, 방풍, 세신《각 1냥》황련, 목향《각 5돈》.

上爲末, 水一鐘浸一宿去渣, 入龍腦一錢, 蜜四兩浸, 火熬成膏點之. 不用蜜, 煎湯熏亦可. 又以當歸活血煎主之, 腫痛甚亦用雙解散酒調散發表之, 點用重藥加薑粉, 以辛散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 1사발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찌꺼기를 버리고, 용뇌 1돈을 넣고 꿀 4냥에 담가 불에 졸여서 고(膏)를 만들어 눈에 넣는다. 꿀을 쓰지 않고 달여서 김을 씌어도 좋다. 또 당귀활혈전(當歸活血煎)으로 치료하

고, 붓고 아픈 것이 심하면 또한 쌍해산(雙解散), 주조산(酒調散)을 써서 표사(表邪)를 발산하며, 점안약으로는 중약(重藥)에 생강가루를 더하여 신미(辛味)로 흘는다.

#### 1.23.4. 雙解散 | 쌍해산

防風 川芎 歸尾 赤芍藥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 黃芩 桔梗 石膏 滑石 荆芥 甘草  
山梔 白朮《實者去之》

방풍, 천궁, 당귀미, 적작약, 대황, 마황, 박하, 연교, 망초, 황금, 길경, 석고, 활석, 형개, 감초, 산치자, 백출《실(實)한 경우에는 뺀다》.

上等分, 水煎食後溫服. 如暴發加蔥三根.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갑자기 발생한 경우 대파 세 뿌리를 더한다.

#### 1.23.5. 風甚眼痛 | 풍(風)이 심하여 눈이 아픈 경우

##### 1.23.5.1. 桑螵蛸 酒調散 | 상표초주조산

治眼紅腫, 有血翳 壓腫, 服之.

눈이 붉고 붓는 것을 치료하니, 혈예(血翳) 가 있어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 복용 한다.

當歸 甘草 大黃 赤芍藥 菊花 蒼朮 桑螵蛸 羌活 麻黃 芫蔚子

당귀, 감초, 대황, 적작약, 국화, 창출, 상표초, 강활, 마황, 충울자.

上各等分, 用水煎, 食後加酒溫服. 如熱甚, 加大黃朴硝. 或爲末溫服, 酒調服三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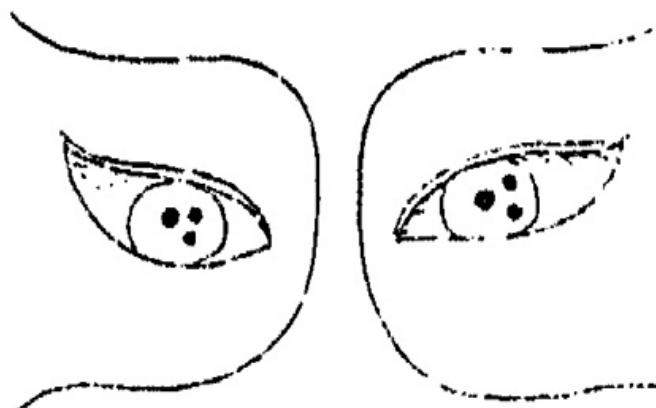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서, 식후에 술을 넣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열이 심하면 대황(大黃), 박초(朴硝)를 더한다. 혹은 가루로 만들어 따뜻하게 복용 하니, 3돈을 술에 타서 복용한다.

---

65. 水湯 :〔集成〕鼎本에는 ‘米湯’으로 되어 있다. 〔역주〕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米湯은 승능을 말한다. ↪

1.24. 痛如神祟 | 귀신 들린 듯이 아픈 것

# 祟 神 如 痛



痛如神祟，舊無根基，只依痛甚怪異，或日痛而夜愈，或夜痛而日愈，如艾之灸，針之刺，忽來忽往，無蹤無跡，號曰痛如神祟。豈有神祟爲禍而害眼，孰知陰陽偏勝，動靜氣血攻擊使然。亦有信巫之地，因所禱厭痕作福而愈者有之，孰知病勢將除，偶因而愈，曰神祟眼，非也。治法，痛時只將艾薑熨之，服酒煎散一二貼住痛，點以時藥，洗以歸尾白芷防風芍藥川芎生地黃止痛散血可也。

통여신수(痛如神祟)는 이전에 연유가 없는데 그저 아픈 것이 매우 괴이하여, 혹은 낮에 아프다가 밤에 낫고 혹은 밤에 아프다가 낮에 나으며, 쑥뜸으로 지지는 것 같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것이 훌연 왔다가 훌연 가서 종적이 없으므

로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하였다. 어찌 귀신 들린 탓으로 눈을 해쳤을 리가 있겠는가? 사실은 음양(陰陽)이 치우쳐 왕성하여 기혈(氣血)을 동요시켜 공격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무당을 믿는 곳에서는 화(禍)를 피하고 복(福)을 짓는 기도를 하여 나은 경우도 있다지만, 사실은 병세가 나으려는 참이었는데 우연히 그때 나은 것이니, 귀신 들린 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치법은 아플 때에 다만 쑥과 대파로 찜질하고 주전산(酒煎散) 1~2첩을 복용하여 통증을 진정시키고, 때에 맞는 약을 점안하며, 당귀미(當歸尾), 백지(白芷), 방풍(防風), 작약(芍藥), 천궁(川芎), 생지황(生地黃)으로 씻어 통증을 멎게 하고 혈(血)을 흘리는 것이 좋다.

問曰, 眼內不紅不赤不腫, 乍痛如神祟 者何也. 答曰, 陰陽升降不和, 氣血偏勝, 相攻使然. 或有血虛者下午痛, 或有氣旺太甚者上晝痛. 下晝痛者宜服助陽和血湯, 上晝痛者宜服酒調洗肝散明目流氣飲, 點清涼之藥. 又有一樣眼, 時時痛如針刺, 此是新血與舊血相攻擊, 治法亦同.

묻기를, “눈이 붉어지지도 않고 붓지도 않은데 갑자기 아파서 귀신 들린 듯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음양(陰陽)의 승강(升降)이 조화롭지 못하면 기혈(氣血)이 치우쳐 왕성하므로 서로 공격하여 그렇게 된다. 혹 혈허(血虛)한 자는 오후에 아프고, 기(氣)가 지나치게 왕성한 자는 오전에 아프다. 오후에 아픈 경우는 조양화혈탕(助陽和血湯)을 복용해야 하고, 오전에 아픈 경우는 주조세간산(酒調洗肝散),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을 복용하며, 청량산(清涼散) 등의 약을 점안한다. 또 어떤 눈병은 늘 아픈 것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데, 이는 새로운 혈(血)과 오래된 어혈(瘀血)이 서로 공격하는 것으로 치법은 역시 같다.”

### 1.24.1. 血氣虛服 | 혈기(血氣)가 허(虛)할 때 복용하는 처방

#### 1.24.1.1. 助陽和血湯 | 조양화혈탕

治血氣不調, 如神祟, 痛如針刺, 服之.

혈기(血氣)가 고르지 못한 것을 치료하니, 귀신 들린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듯  
이 아플 때에 복용한다.

蔓荊子《三分》香白芷《三分》柴胡 黃耆 升麻《各四分》炙甘草 當歸身《酒浸》防風  
《各五分》

만형자《3푼》향백지《3푼》시호, 황기, 승마《각 4푼》자감초, 당귀신《술에 담  
근 것》방풍《각 5푼》.

上作一帖, 水一鐘半, 煎八分溫服. 臨避風處睡可也. 又並 渣服.

이상을 1첩으로 하여 물 1.5사발에 달여 8/10으로 줄어들면 따뜻하게 복용한  
다.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서 자는 것이 좋다. 또는 건더기까지 다 먹기도 한다.

#### 1.24.2. 热氣攻痛 | 열기(熱氣)가 공격하여 아픈 경우

##### 1.24.2.1. 酒調洗肝散 | 주조세간산

治眼熱氣上攻無時, 黑睛痛者服之.

눈병에 열기(熱氣)가 아무 때나 치고 올라오는 것을 치료하니, 검은자위가 아  
프면 복용한다.

黑參 大黃 桔梗 知母 朴硝 柏子 黃芩

흑삼, 대황, 길경, 지모, 박초, 치자, 황금.

熱甚者, 加生地歸尾之類.

열이 심하면 생지황(生地黃), 당귀미(當歸尾) 등을 가미한다.

上爲末, 每服二三錢, 溫酒調下, 日服二次.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3돈씩 따뜻한 술에 타서 하루 2번 복용한다.

### 1.24.3. 热氣鬱結 | 열기(熱氣)가 울결(鬱結)된 경우

#### 1.24.3.1. 明目流氣飲 | 명목유기음

治氣鬱, 眼目赤腫, 服之.

기(氣)가 울체(鬱滯)된 것을 치료하니, 눈이 붉고 부으면 복용한다.

菊花 細辛 大黃 牛蒡子 川芎 蕺 蓼 荊芥 玄參 甘草 蔓荊子 防風 桐子 黃芩 木賊 蒼朮 草決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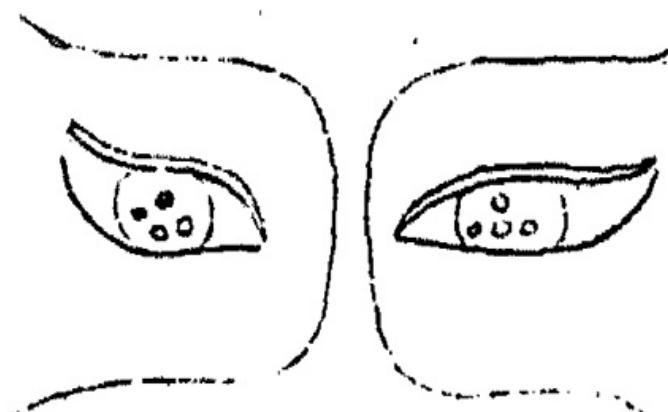
국화, 세신, 대황, 우방자, 천궁, 질려, 헝개, 현삼, 감초, 만헝자, 방풍, 치자, 황금, 목적, 창출, 초결명.

上各等分, 水煎食後服.

이상의 약재 같은 분량씩을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1.25. 痛如針刺 |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것

# 刺 針 如 痛



眼痛如針刺者，即 是神祟 症中，如艾之灸如針之刺痛同。然此症皆因心臟潛伏熱毒，風壅在於膈間，目眩頭痛，眼系常急，欲臥<sup>66</sup>澀痛，淚出難開，時時如針刺相似。急服瀉心湯八正散之劑，口噙水嚥以雄黃散正其頭，點以時藥消散血氣，洗以側柏葉防風荊芥薄荷黃連生地黃之類。黑睛有星如釘之釘，凹進痛如針刺，點以淡藥可也。

통여침자(痛如針刺)는 통여신수(痛如神祟)의 증상 중에 쑥뜸으로 지지는 듯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같다. 그러나 이 병증은 모두 심장(心臟)에 잠복한 열독(熱毒) 때문이니, 풍(風)이 격(膈) 사이에 막혀 있어서 눈이 아찔하고 머리가 아프며 눈의 근맥(筋脈)이 항상 땅기고, 자려고 하면 깔깔하고 아프며,

눈물이 나와 눈을 뜨기 어렵고, 눌 아픈 것이 바늘로 찌르는 것과 비슷하다. 급히 사심탕(瀉心湯), 팔정산(八正散) 등을 복용하며, 입에 물을 머금고서 코로 응황산(雄黃散)을 들이마셔 머리의 증상을 바로잡고, 때에 맞는 점안약을 써서 혈기(血氣)를 흘으며, 측백엽(側柏葉), 방풍(防風), 형개(荊芥), 박하(薄荷), 황련(黃連), 생지황(生地黃) 등의 약재로 씻는다. 검은자위에 별 같은 점이 못이 박힌 듯 보이고, 파여 들어가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면 묽게 만든 약을 점안하는 것이 좋다.

### 1.25.1. 濉心湯 | 사심탕

《方在前雞 冠蜺 肉症內》

《처방은 앞의 계관현육(鷄冠蜺 肉) 조에 있다》

### 1.25.2. 八正湯<sup>67</sup> | 팔정탕

《方在前胞肉生瘡症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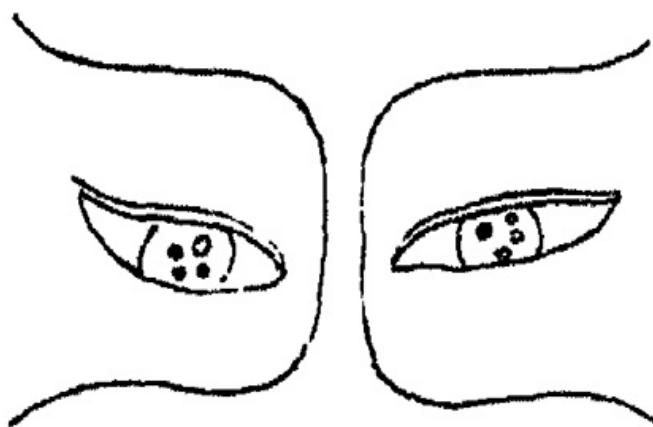
《처방은 앞의 포육생창(胞肉生瘡) 조에 있다》

<sup>66</sup>. 欲臥 :〔集成〕鼎本에는 ‘夜臥’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sup>67</sup>. 八正湯 :「胞肉生瘡」조에 ‘八正散’으로 되어 있고, 처방은 「大眞 赤脈傳睛」조에 있다고 하였다. ↪

1.26. 傷寒熱病後外障 | 상한(傷寒)으로 열병(熱病)을 앓은 후의 외장(外障)

# 障外後病 熱寒傷



傷寒熱病外障者，蓋由大病新瘥 出早，形骸羸瘦，臟腑未實，氣血尚虛，陰陽偏勝未復，縱口多毒，五辛油膩 煎炒，一切熱物之類，蓄積諸毒，衆聚停留於內，熱邪必表於外，攻衝於眼。眼者五臟六腑之精華，其症各現於五輪。此症發時赤腫淚出痛澀難開，瞳人闊大黑花撩亂，不能遠視，此血虛也。治法點以時藥，洗以散風前症活血之藥。不宜刷洗，只平補臟腑，損其有餘，益其不足，是爲活法也。宜忌三兩月可也。

상한열병외장(傷寒熱病外障)은 대개 큰 병이 막 나았을 때 너무 일찍 활동을 하여 몸이 쇠약하고 장부(臟腑)가 실(實)해지지 않으며, 기혈(氣血)이 아직 허(虛)하고 음양(陰陽)이 치우친 것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입맛대로 독한 음식, 오신(五辛)과 기름지게 튀기고 볶은 것 등 일체의 열이 생기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온갖 독이 쌓여서 속에 모여 머무르니, 열사(熱邪)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서 눈을 공격하게 된다. 눈은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정화(精華)이니, 그 병

증이 각각 오륜(五輪)에 나타난다. 이 병증이 일어날 때는 붉어지고 부으며 눈물이 나오면서 아프고 깔깔하여 눈을 뜨기 어렵고, 동공이 열려 커지며 검은 무늬가 어지러이 보이고 먼 곳을 보지 못하니, 이는 혈허(血虛)이다. 치법은 때에 맞는 약을 점안하고, 눈을 씻어 풍(風)을 흘으며, 앞에 나온 병증 조문의 활혈(活血)하는 약을 쓴다. 찌르고 씻어내서는 안 되고, 단지 장부(臟腑)를 평보(平補)하며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더해 주니, 이것이 활법(活法)이다. 2~3개월 동안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問曰, 兩目或發腫痛者何也. 答曰, 氣血不足, 虛陽攻上故也. 此症縱有疼痛, 切不可服瀉藥涼藥, 只宜和解之. 痛腫甚者, 明目細辛湯熊膽丸地黃湯之類, 點三七丹<sup>68</sup>, 腦射不用, 又不可刷洗.

묻기를, “두 눈에 혹 붓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기혈(氣血)이 부족하여 허양(虛陽)이 상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 병증은 비록 통통이 있더라도 절대 사(瀉)하는 약이나 식히는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고, 단지 화해(和解)시켜야 한다. 아프고 붓는 것이 심한 경우 명목세신탕(明目細辛湯), 응담환(熊膽丸), 지황탕(地黃湯) 등을 쓰고, 삼칠단(三七丹)을 점안하되 편뇌(片腦)와 사향(麝香)은 쓰지 않으며, 또 찌르고 씻는 방법도 써서는 안 된다.”

### 1.26.1. 風熱作痛 | 풍열(風熱)로 아픈 경우

#### 1.26.1.1. 明目細辛湯 | 명목세신탕

治熱病後患腫痛, 大便結, 瞑明服.

열병(熱病) 후에 눈이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하니, 대변이 굳어지고 눈이 부시면 복용한다.

生地黃 川芎 蔓荊子 歸尾 白茯苓 薤本 荊芥 麻黃根 防風 羌活 川椒 細辛 密蒙花

생지황, 천궁, 만형자, 당귀미, 백복령, 고본, 형개, 마황근, 방풍, 강활, 천초, 세신, 밀몽화.

上各等分, 食後溫服, 日一次.

이상의 약재 같은 분량씩을 식후에 따뜻하게 하루 한 번 복용한다.

### 1.26.1.2. 熊膽丸 | 웅담환

治肝膽得熱火邪爲病, 用清熱解毒.

간담(肝膽)이 열을 만나 화사(火邪)로 병이 생긴 것을 치료하니,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데에 쓴다.

熊膽《一個》石決明 車前子 澤瀉 細辛《各一兩》乾地黃 菖蔚子 牛膽《一個》龍膽草

웅담《1개》석결명, 차전자, 택사, 세신《각 1냥》건지황, 충울자, 우담《1개》용담초.

上爲細末, 煉蜜丸, 如梧桐子大. 每服四十九丸, 食後溫酒送下.

이상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빚는다. 매번 49환씩을 식후에 데운 술로 삼킨다.

### 1.26.1.3. 地黃湯 | 지황탕

治眼久病昏澀, 因發而久不愈, 宜服.

눈병을 오래 앓아 침침하고 깔깔한 것을 치료하니, 발생한지 오래 되어도 낫지 않는 경우 복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防風 羌活 人參 白茯苓 當歸 熟地黃 黃連 黃芩

방풍, 강활, 인삼, 백茯령, 당귀, 숙지황, 황련, 황금.

上各等分, 水煎溫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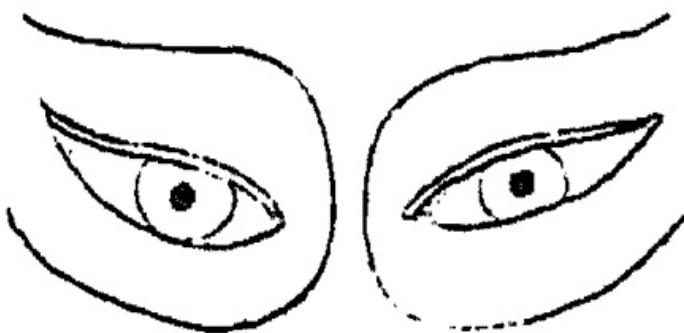
| 이상의 약재 같은 분량씩을 물에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

| 68. 三七丹 : 陽丹과 陰丹을 3:7의 비율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 ↪

1.27. 風牽出瞼 | 풍(風)으로 당겨 눈꺼풀이 뒤집히는 것

# 臉 出 牽 風



風牽出瞼者，脾胃受風，壅毒出胞瞼之間，瞼受風而皮緊，脾受風則肉壅，此皮緊肉壅，風牽出瞼，淚出汪汪，無分四季。此土陷不能堤水也，水漬於瞼，濕爛之狀。治法，先用摩風膏刮散脾<sup>69</sup>外風邪，塗以白斂膏消散風毒，翻轉瞼皮，烙三五度無妨。此症一年半載易治，若年久肉堅難治。若眼有紅筋，貫上黑睛，有翳有膜，吹以丹藥。癢塌洗以碧天丹。此症大抵眼弦之病也，此症大風癥>广+免>之人，面部所牽多受此病症，難以調治，故名風牽出瞼。

풍견출검(風牽出瞼)은 비위(脾胃)가 풍(風)을 받아 정체된 독기(毒氣)가 눈꺼풀 부위로 나온 것이니, 눈꺼풀이 풍을 받으므로 피부가 오그라들고, 비(脾)가 풍을 받으면 살이 불룩해지며, 이처럼 피부는 오그라들고 살은 불룩하면 눈꺼

풀이 밖으로 뒤집혀서 눈물이 마구 흐르는데 사계절의 구별이 없다. 이는 흙이 무너져 물을 막지 못하는 것이니, 물이 눈꺼풀을 적셔 눌진하고 짓무른 상태가 된다. 치법은 먼저 마풍고(摩風膏)로 마찰하여 피부 바깥의 풍사(風邪)를 흘고, 백렴고(白斂膏)를 발라 풍독(風毒)을 없애며, 눈꺼풀을 뒤집어서 3~5번 지져도 무방하다. 이 병증은 1년이나 반년이 되었으면 치료하기 쉽고, 만약 해묵어서 살이 단단하면 난치이다. 눈에 붉은 핏발이 서서 검은자위를 관통하며 예(翳)가 있고 막(膜)이 있으면 단약(丹藥)을 불어넣고, 가렵고 문드러졌으면 벽천단(碧天丹)으로 씻는다. 이 병증은 대체로 눈시울 가장자리의 병인데, 문동 병을 앓는 사람의 얼굴이 당겨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조치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이름을 풍견출검이라고 한다.

問曰, 下瞼翻出久不收, 淚出汪汪者何也. 答曰, 脾經受風邪所傷, 致土壤不能堤水也. 治法, 肉堅厚者用火烙三五度, 至皮轉爲度, 服用夜光柳紅丸, 外用摩風膏摩擦之, 點用重藥, 少加涼<sup>70</sup>.

묻기를, “아랫눈꺼풀이 밖으로 뒤집혀서 오래도록 거두어지지 않으며 눈물이 마구 흐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비경(脾經)이 풍사(風邪)를 받아 상하여, 흙이 물을 막지 못하게 된 것이다. 치법은 살이 단단하고 두터운 경우 불로 3~5차례 지져서 눈꺼풀이 되돌아올 때까지 하고, 야광유홍환(夜光柳紅丸)을 복용하며, 외부는 마풍고(摩風膏)로 마찰하고, 중약(重藥)을 점안하며 서늘하게 하는 약을 소량 가미한다.”

### 1.27.1. 夜光柳紅丸 | 야광유홍환

治風邪傷胞瞼, 致風牽出瞼不收, 宜服.

풍사(風邪)가 눈꺼풀을 상한 것을 치료하니, 풍견출검(風牽出瞼)이 되어 거두어지지 않으면 복용한다.

人參 川芎 荊芥 白芷 川烏《火煅》南星 石膏《各二兩》石決明 草烏《去火溫炮, 少用》蒿本 雄黃 細辛 當歸 蒲黃 蒼朮《浸炒》防風 薄荷 藿香 全蠍《各二兩》何首烏《一兩》羌活《三兩》甘松《二兩》

인삼, 천궁, 형개, 백지, 천오《잿불에 묻어 구운 것》남성, 석고《각 2냥》석결명, 초오《불을 빼고 남은 열기로 구운 것, 소량 사용》고본, 응황, 세신, 당귀, 포황, 창출《적셔서 볶은 것》방풍, 박하, 꽈향, 전갈《각 2냥》하수오《1냥》강활《3냥》감송향《2냥》.

上爲末, 煉蜜爲丸. 每服三十丸, 茶清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에 환을 빚는다. 매번 30환씩 찻물로 삼킨다.

### 1.27.2. 摩風膏 | 마풍고

治胞臉受風, 或疼痛, 諸痛處可摩可貼.

눈꺼풀이 풍(風)을 받아 혹 아픈 것을 치료하니, 모든 아픈 곳에 문지르고 붙일 수 있다.

木香 當歸 白芷 防風 細辛 蒿本 黑附子 沒藥 骨碎補《各一兩》川烏 赤芍藥 肉桂《各一兩》豬脂牛酥<sup>71</sup> 鵝脂《各四兩》

목향, 당귀, 백지, 방풍, 세신, 고본, 혹부자, 몰약, 골쇄보《각 1냥》천오, 적작약, 육계《각 1냥》돼지기름, 우수, 거위기름《각 4냥》.

上爲末, 香油八兩, 浸一日, 次一日沙鍋內熬, 入牛酥 鵝脂同熬成. 以手摩擦按有瘡處, 或半身不遂, 用砂弓<sup>72</sup>刮之, 使風氣散去.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참기름 8냥에 하루 담갔다가 다음 하루 동안 자기 솔에 넣어 졸인 다음, 우수와 거위기름을 넣고 함께 졸여서 완성한다. 손으로 환부에 문지르고 주무르며, 혹은 반신불수(半身不遂)에 사궁(砂弓)으로 비벼서 풍기(風氣)가 흘어지도록 한다.

69. 脾 : [集成] 鼎本에는 ‘皮’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이를 따르면 文義가 보다 명확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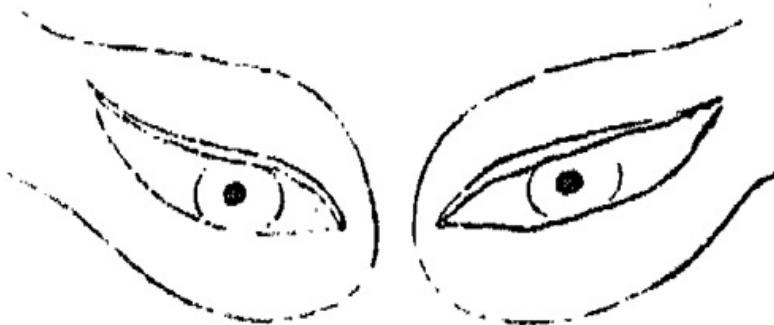
70. 少加涼 : 앞뒤의 예를 살펴보면 清涼散을 배합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

71. 牛酥 : 우유를 정제하여 만든 크림 상태의 약물. ↵

72. 砂弓 :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현대의 괈사(刮痧)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도자기 재질의 도구로 추측된다. ↵

1.28. 風牽喝 斜 | 풍(風)으로 당겨 비뚤어지는 것

# 斜 喝 牽 風



風牽喝 斜者，雖與風牽出臉同，喝 斜者脾胃虛，房事不節，脾胃有毒，夜臥多痰，或醉飽坐臥當風貪涼，左右忽受風牽喝 斜。眼內赤癢 時時顫動，其眼血絲四起，瞳人不開大，視物蒙蒙，甚至半身不遂。治法，急用摩風膏擦摩面部，更以砂弓刮所患風一邊，手臂通刮，或通身亦可刮，一日一遍。用大磁器青碗搗碎入磁石多寡搜麵糊爲餅，烘熱貼面對鼻一邊，右喝 貼左，左喝 貼右。貼至捲 口眼正，其藥取起，又可灸頰車耳門穴，開口取之，太陽人中承漿，喝 左灸右，喝 右灸左。近患者易治，若年久難治。

풍견와사(風牽喎 斜)는 비록 풍견출검(風牽出臉)과 비슷하지만, 와사는 비위(脾胃)가 허(虛)한 것이니, 방사(房事)를 절제하지 않으면 비위에 독(毒)이 있어 잠잘 때 담(痰)이 많이 생기는데, 혹 취하고 배부른 채 자거나 시원한 것을 탐하여 바람을 쏘이면 좌우가 갑자기 풍(風)을 받아 당겨져서 비뚤어진다. 눈 속이 붉고 가려우며 눈 떨리고, 실핏줄이 사방에 돋으며 동공이 크게 열리지 못하여 사물을 보는 것이 흐릿하며, 심하면 반신불수(半身不遂)에 이른다. 치법은 급히 마풍고(摩風膏)로 얼굴을 마찰하고 다시 사궁(砂弓)으로 풍(風)을 앓는 쪽을 긁는데, 팔을 다 긁거나 온몸을 다 긁을 수도 있으며 하루에 한 차례 한다. 큰 청자(青磁) 그릇을 부순 다음 자석을 적당량 넣고 밀가루풀에 섞어 떡처럼 만들어서 뜨겁게 데운 것을 코를 기준으로 얼굴의 한쪽에 붙이는데, 오른쪽으로 비뚤어졌으면 왼쪽에, 왼쪽으로 비뚤어졌으면 오른쪽에 붙인다. 붙인 것이 말라서 갈라지고 눈이 바르게 되면 그 약을 떼어내고 다시 뜰을 뜨는데, 협거(頰車)와 이문(耳門)은 입을 벌리고 취혈(取穴)하며 태양(太陽), 인중(人中), 승장(承漿)에도 뜰을 뜨되 왼쪽으로 비뚤어졌으면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비뚤어졌으면 왼쪽에 뜰을 뜯다. 새로 생긴 병은 쉽게 치료되고, 해묵은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問曰, 目睛斜視倒目者何也. 答曰, 肝經受風邪所牽, 使其筋緩縮不利. 治法, 宜灸火發散風邪, 以加全蠍 白附子南星半夏夜光柳紅丸, 外用摩風膏, 導引發散, 目睛必轉.

묻기를, “눈알이 비뚤어져 보이고 기울어진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경(肝經)이 풍사(風邪)를 받아 당겨져서 근(筋)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법은 마땅히 뜰을 떠서 풍사를 흩어야 하며, 전갈(全蠍), 백부자(白附子), 남성(南星), 반하(半夏)를 가미하여 야광유홍환(夜光柳紅丸)을 쓰고, 밖으로는 마풍고(摩風膏)를 써서 도인(導引)하고 발산시키면 눈알이 반드시 돌아온다.”

### 1.28.1. 炙火穴 | 뜸뜨는 혈(穴)

太陽 頰車 耳門 聽會 耳尖 風池《各一穴》

태양, 협거, 이문, 청회, 이첨, 풍지《각 1혈》.

### 1.28.2. 夜光柳紅丸 | 야광유홍환

《方在前篇\*針\*[<sup>73</sup>]症內》

《처방은 앞의 병증 조문에 나왔다》

### 1.28.3. 摩風膏 | 마풍고

《方亦在前症內》

《처방은 역시 앞의 병증 조문에 나왔다》

---

73. 針 : [集成] 鼎本에는 ‘斜’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는 이 글자가

없다. 夜光柳紅丸 처방은 바로 앞의 風牽出臉 조에 나온다. ↪

1.29. 被物撞破 | 물건에 부딪쳐 다친 경우

# 破 撞 物 被



被物撞破者, 並無所患, 而所因者三, 此外因也. 全然無事, 誤被物撞破, 或打撲或跌著或撞破傷胞臉也, 積血紫青. 撞破白仁, 外控硬殼, 此不能爲害, 惟撞破三風輪, 血灌<sup>74</sup>瞳人, 五並輪混雜, 最爲利害之症也.

피물당파(被物撞破)는 앓던 바가 전혀 없으니, 병인(病因)의 세 종류 중에서 이는 외인(外因)이다. 전혀 병이 없었는데 잘못하여 물건에 맞아 다친 것으로, 혹은 부딪치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혹은 맞아서 눈꺼풀을 다친 것이니 혈(血)이 쌓여 자줏빛이나 푸른빛이 된다. 흰자위를 다치면 바깥에서 단단한 껍질을

쳤으므로 이는 해가 될 수 없고, 단지 맞아 다친 것 중에 세 가지 즉 풍륜(風輪)을 다친 경우, 혈관동인(血灌瞳人), 오륜(五輪)이 뒤섞인 경우는 아주 위험한 병증이다.

痛惡瞳忍澀 難開, 治法服以酒調散, 煎 以蔥艾. 或專以生地黃搗爛作餅 烘熱貼, 一日一換, 以散其血, 如無生地黃用芙蓉葉, 無葉用根, 去泥粗皮, 用白皮搗爛烘熱貼亦可. 若眼眶 青黑, 搗生蘿卜護貼. 切宜將息避風忌口, 動風動血之物, 諸般母肉莫吃. 新撞者易治, 若撞久血凝不散, 無痛者難治也.

통증이 심하고 눈동자가 깔깔하여 눈을 뜨기 어려우니, 치법은 주조산(酒調散)을 복용하고 대파와 쑥으로 찜질한다. 혹은 오로지 생지황(生地黃)을 짓찧어 떡처럼 만들어서 뜨겁게 데워 붙이고 하루 한 번 갈아주어 그 혈(血)을 흘고, 만약 생지황이 없으면 부용(芙蓉)의 잎을 쓰며, 잎이 없으면 뿌리를 쓰는데, 진흙과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흰 껍질을 짓찧어 뜨겁게 해서 붙여도 좋다. 만약 눈자위가 겉푸르면 생 무를 찧어서 붙여 감싸준다. 절대로 안정하고 바람을 피하며 음식을 주의해야 하니, 풍(風)을 일으키거나 혈(血)을 동요시키는 음식, 모든 암컷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새로 다친 경우는 치료하기 쉽고, 맞은 지 오래 되었는데 피가 엉겨 흘어지지 않으면서 통증이 없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問曰, 並 無所患, 誤被物撞破, 或生翳 者何也. 答曰, 外傷也, 與內無損. 治法, 初起者宜散血爲主, 痛甚者沒藥散止之, 若至血散變生白翳, 為不治之症也.

묻기를, “전혀 앓은 일이 없는데 잘못하여 물건에 맞아 다쳐서 혹 예(翳)가 생기는 경우는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외상(外傷)이니, 내부와는 관계가 없다. 치법은 초기에는 마땅히 혈(血)을 흘는 것을 주로 하고 통증이 심하면 몰약산(沒藥散)으로 멎게 하며, 만약 혈(血)이 흘어지고서 변하여 백예(白翳)가 생겼다면 치료할 수 없는 병증이다.”

### 1.29.1. 沒藥散 | 몰약산

《方在前胞肉生瘡內》

《처방은 앞의 포육생창(胞肉生瘡) 조에 있다》

---

74. 灌 :〔集成〕鼎本에는 ‘漱’로 되어 있다. ↵

1.30. 撞刺生翳 | 부딪치거나 찔려서 예(翳)가 생긴 것

# 翳 生 刺 撞



被物撞刺生翳者，與撞破一理，然刺被竹木簽刺，痕傷受血灌溉，遂生血翳，穢澀淚出，紅筋滿目，此症外傷，與患眼生翳不同。患眼者，五臟六腑之毒發出，爲有根病也，刺傷者，外傷與內無預。治法，與同症同寬，一七之後，痕變成翳，可用輕丹少少吹點。忌淫欲嗔怒，避風將息，失於調治，潰痛發腫，傷於風輪，釀成大患，或至瞎，進無治法也。

맞거나 찔려서 예(翳)가 생긴 경우는 피물당파(被物撞破)와 이치가 똑같은데, 대나무나 나무의 부스러기,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난 곳에 피가 흘러들어가 마침내 혈예(血翳)가 생겨서 모래처럼 깔깔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핏줄이 눈에 가득하니, 이는 외상(外傷)이므로 눈병을 앓아 예(翳)가 생긴 것과는 같지 않다. 눈병의 경우는 오장육부(五臟六腑)의 병독(病毒)이 드러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증상에 따라 조치하다가 7일이 지나서 상처가 변하여 예(翳)를 이루면 가벼운 단약(丹藥)을 조금씩 불어넣어 점안한다. 음욕과 분노를 삼가고 바람을 피하여 휴식해야 하니, 조리를 잘못하면 짓무르고 아프며 종창이 생기고 풍륜(風輪)을 상하여 큰 병을 이루거나 혹 눈이 멀기도 하여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된다.

1.31. 血灌瞳人 | 피가 동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人 瞳 灌 血



血灌瞳人者，因毒血灌入金井瞳人水內也。猶如水流入井中之狀，清濁相混，時痛澀，紅光滿目，視物蒙蒙，如隔絹看物，若煙霧中然，先患一隻，後乃相牽俱損。此症有三。肝症血熱，日積月累，灌入瞳人，血凝入水，此關乎肝腎二經病也，此血難退。撞破之血鮮而熱，灌雖甚，退之速。又有開金針失手，撥着白仁<sup>75</sup>，亦有瘀血灌入瞳人。舉此三症，治法頗同，亦用大黃當歸散沒藥散墜翳明目丸。前被物刺波<sup>76</sup>及撞刺生翳，並血灌瞳人，皆可服前藥三料，其效甚大。或生地黃芙蓉根搗爛每貼三症，通呼用之，或蔥艾熨亦可。或可方而或可圓，活法而行，不可拘執其方焉而獲功哉。

혈관동인(血灌瞳人)은 독혈(毒血)이 우물인 동공의 수(水)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물이 우물 속에 흘러들어가는 모양처럼 맑고 탁한 것이 서로 섞이니, 때로 아프고 깔깔하며 붉은 빛이 눈에 가득하고 사물을 보는 것이 흐리멍덩하여 명주형겁을 통해 보는 것 같고 연기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한쪽만 앓다가 나중에는 서로 끌어당겨 모두 손상된다. 이 병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간(肝)의 병증에 혈열(血熱)이 오래되어 동공에 흘러들어가는 경우 혈(血)이 엉겨서 수(水)에 들어가니 이는 간경(肝經)과 신경(腎經)에 관련된 병이며 이때의 피는 없애기가 어렵다. 맞아서 다쳤을 때의 피는 신선하고 뜨거우니, 흘러들어가는 것이 심하더라도 빨리 없앨 수 있다. 또 개금침법(開金針法)을 시행하다 실수하여 흰자위를 긁은 경우 역시 어혈(瘀血)이 동공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치법은 거의 같아, 역시 대황당귀산(大黃當歸散), 몰약산(沒藥散), 추예명목환(墜翳 明目丸)을 쓴다. 앞의 피물당파(被物撞破) 및 당자생예(撞刺生翳) 그리고 혈관동인에 모두 이 세 처방을 복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아주 크다. 혹은 생지황(生地黃)과 부용(芙蓉)의 뿌리를 짓찧어 이 세 병증에 다 붙여서 통용할 수 있으며, 혹은 대파와 쑥으로 찜질을 해도 역시 좋다. 모나게 해도 되고 둥글게 해도 되니, 응용하여 시행할 일이지 반드시 한 것만을 고집하다가 일을 망쳐서는 안 되겠다.

問曰，人患眼目無內患，忽因物刺著胞瞼睛珠，血積不散，或瘀血灌入瞳人，或用針誤損惡腫痛難忍，或因惡拳打著睛珠脫出一二分者，將何治法。答曰，打傷之時，搗爛生地黃敷之以散其血，先服止痛末藥散<sup>77</sup>，後服墜翳明目丸。若因傷風服除風湯。若打著睛珠流出者，以手掌心搽進珠，亦以生地黃敷之，若無生地黃，用乾地黃酒浸濕搗爛亦可，服止痛沒藥散。

묻기를, “눈병을 앓는데, 내부에는 질환이 없으면서 갑자기 물건에 눈꺼풀이나 눈알을 찔려서 혈(血)이 쌓여 흘어지지 않고 혹 어혈(瘀血)이 동공으로 흘러들어가거나, 혹은 바늘로 악종(惡腫)을 잘못 빼서 아파 견딜 수 없거나, 혹은 주먹에 맞아 눈알이 1~2푼쯤 빠져나온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대답하기를, “맞아서 다쳤을 때에는 생지황(生地黃)을 짓찧어 붙여서 그 혈(血)

을 흘고, 먼저 지통몰약산(止痛沒藥散)을 복용한 후에 추예명목환(塗翳明目丸)을 복용한다. 만약 그 상태에서 바람에 상하였으면 제풍탕(除風湯)을 복용한다. 맞아서 눈알이 빠져나온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눈알을 밀어 넣고 역시 생지황을 붙이는데, 생지황이 없으면 건지황(乾地黃)을 술에 담가 적셔서 짓찧어도 좋으며, 지통몰약산을 복용한다.”

### 1.31.1. 沒藥散 | 몰약산

沒藥 血竭 大黃 朴硝

몰약, 혈갈, 대황, 박초.

上爲末, 每服二錢, 酒調下, 茶下亦可.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 술에 타서 마시며, 찻물로 삼켜도 된다.

### 1.31.2. 塗翳 明目丸 | 추예명목환

石決明 川芎 五味子 知母 山藥《各兩》人參 細辛

석결명, 천궁, 오미자, 지모, 산약《각 1냥》인삼, 세신.

上爲末, 煉蜜爲丸, 清茶送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환을 빚어서 찻물로 삼킨다.

### 1.31.3. 除風湯 | 제풍탕

防風 車前子 蒜本 五味子 細辛 川芎 桔梗

방풍, 차전자, 고본, 오미자, 세신, 천궁, 길경.

上每服三錢, 白湯送下, 或水煎服.

이상을 매번 3돈씩 끓인 맹물로 삼키거나 물에 달여 복용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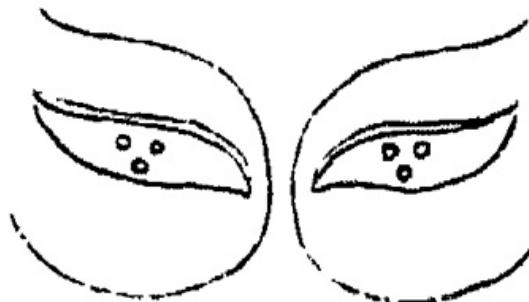
75. 白仁 :〔集成〕鼎本에는 ‘黃仁’으로 되어 있다. ↪

76. 波 :〔集成〕鼎本에는 ‘破’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文義로 보아 ‘破’가 옳다. ↪

77. 止痛末藥散 : 四庫全書本도 이와 같으나, 이 절 말미의 ‘服止痛沒藥散’을 보면 ‘末’은 ‘沒’의 잘못이다. 또 本書와 다른 醫書에서 이 처방을 찾을 수 없는데,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没藥散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1.32. 血翳 包睛 | 핏빛 예장(翳障)이 눈알을 뒤덮는 것

# 睛 包 翳 血



問曰，人之患血翳 遮兩睛者何也。答曰，皆因心經發熱，肝臟虛勞，受邪熱，致令眼中赤澀，腫痛淚出，漸有赤脈通睛，常時舉發，久則發筋結厚，遮滿烏睛，如赤肉之相，故名曰血翳 包睛。宜服瀉心湯，次以修肝活血湯。

문기를, “눈병에 핏빛 예장이 생겨 두 눈알을 가리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모두 심경(心經)에 열이 발생하고 간장(肝臟)이 허로(虛勞)하여 사열(邪熱)을 받아서 눈 속이 붉고 깔깔하며 붓고 아프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니, 점점 핏발이 눈알에 퍼져나가 늘 드러나 있고, 오래되면 핏줄이 불거져 나와 두텁게 엉기며 검은자위를 온통 가려서 붉은 살점의 모양과 같으므로 이름을 ‘혈예포정(血翳 包睛)’이라 한다. 사심탕(瀉心湯)을 복용한 다음 수간활혈탕(修肝活血湯)을 써야 한다.”

### 1.32.1. 瀉心湯 | 사심탕

黃連 黃芩 大黃 連翹 荊芥 赤芍藥 車前子 薄荷 菊花《各一兩》

황련, 황금, 대황, 연교, 형개, 적작약, 차전자, 박하, 국화《각 1냥》.

上咬 咀, 每服四五錢, 水煎溫服.

이상의 약재를 썰어서 매번 4~5돈씩 물에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 1.32.2. 修肝活血湯 | 수간활혈탕

當歸 生地黃 赤芍《各兩半》 川芎 羌活《各七錢》 黃耆 防風 黃連 大黃 薄荷 連翹 菊花 白蒺藜《各一兩》

당귀, 생지황, 적작약《각 1냥 반》 천궁, 강활《각 7돈》 황기, 방풍, 황련, 대황, 박하, 연교, 국화, 백질려《각 1냥》.

上每服四五錢, 水煎, 入酒二盞, 溫服.

이상을 매번 4~5돈씩 물에 달이고 술 2잔을 넣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問曰, 血翳 包睛者何也. 答曰, 心熱血旺也. 此病初患易治, 若至血散盡難消. 痛時用破血紅花散當歸龍膽湯, 點用清涼散.

묻기를, “혈예포정(血翳 包睛)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심열(心熱)이 있고 혈(血)이 왕성한 것이다. 이 병은 처음 앓을 때는 치료하기 쉬우나 혈(血)이 완전히 퍼지고 나서는 없애기가 어렵다. 아플 때 파혈홍화산(破血紅花散)과 당귀용담탕(當歸龍膽湯)을 쓰고, 청량산(清涼散)을 점안한다.”

### 1.32.3. 當歸龍膽湯 | 당귀용담탕

防風 石膏 柴胡 羌活 五味子 升麻 甘草 黃連《酒洗》黃芩《酒洗》黃耆 黃柏《酒洗》  
當歸 龍膽草 赤芍藥《各五錢》

방풍, 석고, 시호, 강활, 오미자, 승마, 감초, 황련《술로 씻은 것》황금《술로 씻은 것》황기, 황백《술로 씻은 것》당귀, 용담초, 적작약《각 5돈》.

上咬咀, 每服五錢, 水煎至二碗, 去渣, 入酒少許. 臨臥熱服, 忌言語.

이상의 약재를 썰어 매번 5돈씩을 물에 달여 두 사발로 줄어들면 찌꺼기를 버리고 술을 약간 넣는다. 잠자리에 들 때 뜨겁게 복용하고, 말을 삼간다.

#### 1.32.4. 破血紅花散 | 파혈홍화산

當歸梢 川芎 赤芍藥 枳殼 蘇葉 連翹 黃連 黃耆 桃子 大黃 蘇木 紅花 白芷 薄荷 升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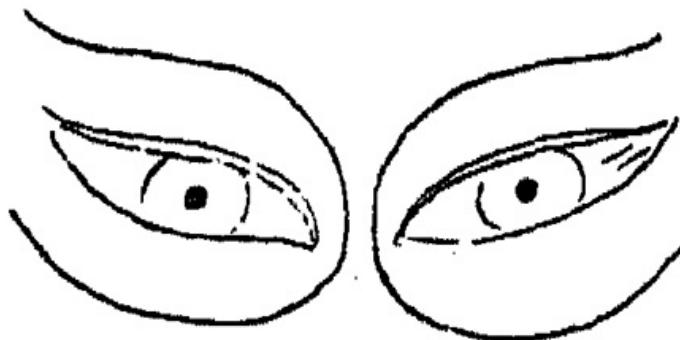
당귀초, 천궁, 적작약, 지각, 소엽, 연교, 황련, 황기, 치자, 대황, 소목, 흥화, 백지, 박하, 승마.

上各等分, 水煎, 加酒三盞, 溫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이고 술 3잔을 더하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1.33. 瞳生偷針 | 눈꺼풀에 다래끼가 생기는 것

# 針 偷 生 臉



問曰，人之患目瞼生小癧，俗名偷針者何也。答曰，陽明胃經之熱毒也，或因食壅熱之物，或飲食太過，使胃經上充於眼目，故瞼眴之間時發瘡毒，俗名偷針。此症番轉瞼皮，廁洗瘀血，點用清涼散。先宜服退赤散，後用通精散瀉脾飲。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아 눈꺼풀에 작은 뾰루지가 생기는데 민간에서 투침(偷鍼)이라 부르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양명위경(陽明胃經)의 열독이니, 혹은 열이 쌓이게 하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위경(胃經)이 위로 눈을 공격하므로 눈꺼풀과 눈초리 부위에 때로 창독(瘡毒)이

발생하는데, 세간에서 부르는 이름이 투침(偷鍼)이다. 이 병증은 눈꺼풀을 뒤집어서 찔러 어혈(瘀血)을 씻어내야 하고, 청량산(淸涼散)을 점안한다. 먼저 퇴적산(退赤散)을 복용하고 나중에 통정산(通精散), 사비음(瀉脾飲)을 쓴다.”

### 1.33.1. 退赤散 | 퇴적산

黃芩 黃連 白芷 當歸 赤芍藥 桀子 桑白皮 木通 桔梗 連翹

황금, 황련, 백지, 당귀, 적작약, 치자, 상백피, 목통, 길경, 연교.

每服水煎, 食後服.

복용할 때마다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1.33.2. 通精散 | 통정산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芒硝 荨 藜 石膏 黃芩 甘草 桔梗 牙硝 黃連 羌活 滑石  
荊芥

방풍, 천궁, 당귀, 적작약, 대황, 망초, 질려, 석고, 황금, 감초, 길경, 아초, 황련,  
강활, 활석, 형가.

上用薑三片, 食後服.

이상의 약재에 생강 3쪽을 넣어 식후에 복용한다.

### 1.33.3. 瀉脾飲 | 사비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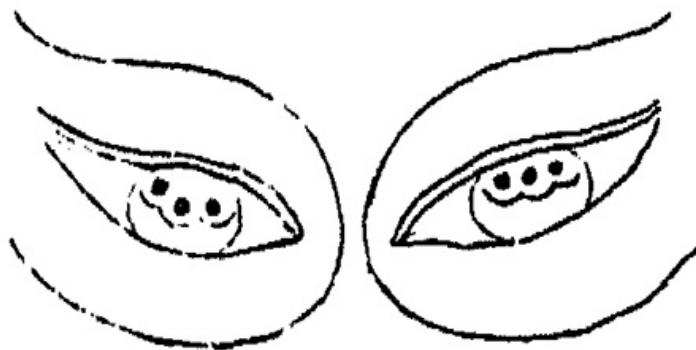
茺蔚子 防風 黃芩 玄參 桀子 石膏 大黃《炙》知母 黃柏

충울자, 방풍, 황금, 현삼, 치자, 석고, 대황《구운 것》지모, 황백.



1.34. 黑翳 如珠 | 검은자위에 구슬 모양의 예(翳)가 생김

珠 如 翳 黑



黑翳 如珠者，腎肝俱勞，七情鬱結之人，毒氣斯攻充，熱極淚出，難開疼痛，甚至水輪突起。黑翳，如豆如珠，大小不定，擰起眼胞，矇澀礙人眼睛，難以運動，寢食不安，先患一隻，後乃相牽俱損。治法用小鋒針逐個橫穿破，其黑翳中有惡水流出即平。勢若拾芥，瞬息痊安，眼即能開，設若不諳此療，服涼劑點涼藥，靡有其功。小兒如此患者多是疳眼<sup>78</sup>，其翳起來或如小香菰<sup>79</sup>之狀，不宜針。其治法載小兒疳眼條下<sup>80</sup>，其針破翳根處，宜淡丹藥吹點，消磨翳根。

흑예여주(黑翳 如珠)는 간신(肝腎)이 모두 고단하고 칠정(七情)이 울결된 사람을 독기가 공격하는 것이니, 열이 심하면 눈물이 나오고, 눈 뜨기가 힘들면서 아프며, 심하면 수륜(水輪)이 돌출된다. 흑예(黑翳)는 콩이나 구슬 같은데 크

기는 일정하지 않고, 눈꺼풀이 단단하게 부어오르고, 모래가 낀 듯 깔끄러워 눈을 움직이기 어렵고, 먹고 자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니, 처음에는 한쪽 눈만 앓다가 나중에는 양쪽이 연관되어 모두 손상된다. 치료는 작은 봉침(鋒鍼)으로 하나하나 횡으로 뚫어서 터뜨리는데, 그 흙예에서 악수(惡水)가 나오면 가라앉는다. 병세가 간단하면 금세 나아져 눈을 곧 뜰 수 있는데, 만약 이 요법을 거치지 않으면 성질이 서늘한 처방을 먹거나 서늘한 약을 점안해도 효과가 없다. 소아가 이러한 병을 앓는 경우는 감안(疳眼)이 많은데 그 예(翳)가 일어나는 것이 혹 작은 표고버섯의 모양과 같으면 침(鍼)을 써서는 안 된다. 그 치료법은 소아감상(小兒疳傷) 조에 실려 있으니, 침으로 예(翳)의 뿌리가 있는 곳을 터뜨리고 물게 만든 단약(丹藥)을 눈에 불어 넣거나 발라서 예의 뿌리를 없앤다.

問曰, 風輪生翳, 如珠, 如蠅頭, 如蟹眼者, 何也. 答曰, 肝腎二經風熱氣鬱也. 治法, 久積黑翳 高者, 宜挑破珠頭. 痊者宜撥雲湯, 明目細辛湯主之, 热甚者, 當歸龍膽湯主之, 點用二八丹<sup>81</sup>調乳汁用. 未成此症, 以暴發推之.

문기를, “풍륜(風輪)에 예(翳)가 생긴 것이 구슬과 같거나, 파리의 대가리 같거나, 게의 눈과 같은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간경(肝經)과 신경(腎經)에 풍열(風熱)의 기(氣)가 울체된 것이다. 치료는 오래되어 흙예(黑翳)가 솟아나온 경우는 구슬의 꼴대기를 따서 터뜨려야 한다. 통증이 있는 경우는 발운탕(撥雲湯), 명목세신탕(明目細辛湯)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열이 심한 경우는 당귀용담탕(當歸龍膽湯)으로 치료하고 이팔단(二八丹)을 젖에 타서 점안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급성눈병의 예에 따라 치료한다.”

### 1.34.1. 撥雲湯 | 발운탕

治眼黑翳 如珠, 蟹睛疼痛, 風氣傷肝腎二經, 宜服之.

흑예여주(黑翳 如珠)와 해정동통(蟹睛疼痛)을 치료하니, 풍기(風氣)가 간신(肝腎)의 두 경맥(經脈)을 상한 경우 복용하기에 적합하다.

黃耆《蜜炙》細辛 生薑 干葛 川芎《熱者除之》柴胡 荊芥 薤本 甘草 升麻 當歸 知母  
羌活 防風 黃柏

황기《꿀을 발라 구운 것》세신, 생강, 건갈, 천궁《열이 있는 사람은 뺀다》시호,  
형개, 고본, 감초, 승마, 당귀, 지모, 강활, 방풍, 황백.

上爲末, 每服六七錢, 水煎服.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6~7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34.2. 明目細辛湯 | 명목세신탕

《方在傷寒熱病後症內》

《처방은 상한열병후외장(傷寒熱病後外障) 조에 있다》

### 1.34.3. 當歸龍膽湯 | 당귀용담탕

《方在前血翳 包睛症內》

《처방은 앞의 혈예포정(血翳 包睛) 조에 있다》

78. 痞眼 : 痞疾에 생기는 눈병. 「小兒疳傷」조에 자세히 나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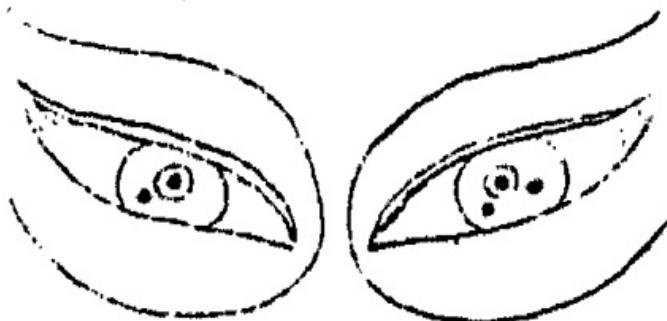
79. 香菰 : 『中药別名速查大辭典』(李順保 编, 学苑出版社, 1997)에 의하면  
香菰, 香菇, 香蕈 은 모두 같은 말로, 표고버섯을 가리킨다. ↪

80. 其治法載小兒疳眼條下 : 해당 조의 제목은 ‘小兒疳傷’으로 되어 있다. ↪

81. 二八丹 : 陽丹과 陰丹을 2:8로 배합한 약이다. ←

1.35. 蟹睛疼痛 | 게눈과 같이 되면서 아픈 것

# 痛 疼 睛 蟹



蟹睛疼痛者，如黑翳 同症，起於瞳人，肝腎之病焉，其翳 如豆如珠。蟹睛者，其翳 起占瞳人，翳 根小而苗大。此乃臟膈之病，膈中壅毒，臟氣伏熱，赤澀 淚出，疼痛難開，羞明怕 日，其翳 發起，尖高如蟹睛一般形狀。治法與前症同，用小鋒針針出惡水，流盡即 平，次點以淡淡丹藥，消其翳 根。其服藥不同前症，宜用瀉肝補腎之劑服之，空心服補腎之藥，飯後服瀉肝散。

해정동통(蟹睛疼痛)은 흑예(黑翳)와 같은 병증으로 눈동자에 돋아나는 것이니, 간신(肝腎)의 병이며 그 예(翳)가 콩이나 구슬과 같다. 해정(蟹睛)은 그 예가 눈동자에서 돋아나는데, 예장의 뿌리는 작고 돋아난 부분은 크다. 이는 장격(臟膈)의 병이니, 격중(膈中)에 독이 들어차고 장기(臟氣)에 열이 잡복하여

눈이 붉고 깔끄럽고 눈물이 나며, 아파서 눈을 뜨기 힘들고, 눈이 부셔서 해를 피하게 되고, 그 예가 돋아난 것은 끝부분이 높아 게눈과 똑같은 모양이다. 치법은 앞의 병증과 같으니, 작은 봉침(鋒鍼)으로 찔러서 악수(惡水)를 나오게 하는데 흘러나오는 것이 다하면 가라앉으며, 다음으로 묽게 만든 단약(丹藥)을 눈에 넣어 예장(翳 障)의 뿌리를 제거한다. 복용하는 약은 앞의 병증과 같지 않은데, 마땅히 간(肝)을 사(瀉)하고 신(腎)을 보(補)하는 처방을 복용하니, 공복에는 보신산(補腎散)을 복용하고 식후에는 사간산(瀉肝散)을 복용한다.

### 1.35.1. 瀉肝散<sup>82</sup> | 사간산

#### 1.35.1.1. 补腎散 | 보신산

蟬蛻 防風 痰 藜《炒》當歸 密蒙花 木賊 川芎 菊花 荊芥 茯苓 石決明《煅 過》枸杞子  
知母 黃柏 青鹽<sup>83</sup>

선태, 방풍, 질려《볶은 것》당귀, 밀몽화, 목적, 천궁, 국화, 형개, 복령, 석결명  
《불에 달군 것》구기자, 지모, 황백, 청영.

上各等分, 水煎空心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서 공복에 복용한다.

82. 瀉肝散 : 방제의 구성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本書 중에는 「小眡 赤脈傳睛」, 「暴風客熱」, 「花翳 白陷」, 「玉翳 浮滿」과 「眼科常用處方」 등에 瀉肝散이 나오는데, 구성이 각각 달라 어느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83. 青鹽 : 戎鹽 즉 岩鹽이다. ↪

게눈과 같이 되면서 아픈 것 蟹睛疼痛

---

1.36. 螺旋尖起 | 검은자위가 소라처럼 뾰족하게 솟은 것

# 起 尖 螺 旋



旋螺尖起者，熱積於肝，毒壅於膈門，充攻睛珠，疼痛，中央瞳人漸變青白色，忽然凸起。血絲纏繞，此乃是膜入水輪。二家並熱，旋起尖來，狀若螺尾，遂號旋螺尖起症。治法，宜陰二陽四丹吹點，或調鱠魚<sup>84</sup>血點尖處。若年久，須有鋒針對瞳人中央，針入半分，放出惡水，此乃取平之，就紙封將息，避風忌口，十數日可也。服用雙解散，鬱金酒調散。

선라첨기(旋螺尖起)는 열이 간(肝)에 쌓이고 독이 격문(膈門)에 들어차서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니, 통증이 있고 중앙의 동공부위가 점차 청백색으로 변하다가 갑자기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실핏줄이 얹혀있으면 이것은 막입수륜(膜入水輪)이다. 풍륜(風輪)과 수륜(水輪)에 모두 열이 있는 것인데, 나선형으

로 뾰족하게 돋아나서 형상이 소라의 끝과 같으므로 이를 선라첨기증(旋螺尖起症)이라 부른다. 치법은 마땅히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4로 배합한 약을 눈에 불어 넣거나 바르며, 혹은 선어(鱠魚)의 피에 타서 첨부에 바른다. 만약 병을 앓은 지 오래되었으면 봉침(鋒鍼)을 동공의 중앙에 대고 반 푼 정도를 찔러서 악수(惡水)를 빼내며, 이렇게 해서 가라앉하고 종이로 봉하여 쉬도록 하니, 바람을 피하고 음식을 주의하여 십여 일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쌍해산(雙解散)과 울금주조산(鬱金酒調散)을 복용한다.

### 1.36.1. 鬱金酒調散 | 울금주조산

黃芩 鬱金 大黃 防風 桔子 當歸 川芎 赤芍藥 龍膽草

황금, 울금, 대황, 방풍, 치자, 당귀, 천궁, 적작약, 용담초.

上爲末, 每服三錢, 溫酒調下, 食後服二次.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따뜻한 술에 타서 먹는데, 식후에 두 번 복용 한다.

84. 鱠魚 : 민물고기인 드렁허리. ↵

1.37. 突起睛高 | 눈동자가 도드라져 튀어나온 것

# 高 晴 起 突



突起睛高，險峻厲害之症也，同前旋螺尖大<sup>85</sup>不祥矣。皆因五臟毒風所蘊，熱極充眼者，內屬五臟，外屬五輪。五臟之氣毒，攻五輪之瞳，初起麻木疼痛，汪汪淚出，病勢洶涌，卒暴之變莫測，非精於龍木<sup>86</sup>之奧旨，不能措手。諺云，眼不醫不瞎，正此也。苟非其人，殆有甚焉，非徒無益，而反害之。治法，揚湯止沸，莫若去薪息火，急投酒調散，酒煎散，宣退五臟之毒熱，搗蔥艾熨五輪之突起，消除疼痛。洗以白芷細辛當歸蒼朮麻黃防風羌活，未可與點藥，宜忌口葷腥，將息避風。治法<sup>87</sup>稍遲，或控瞼或突出一寸高者，至此之際，須鋒針針出惡水，疼痛方止，睛高取平耳，無尤之效也。

돌기정고(突起睛高)는 험악하고 손상이 큰 병증으로, 앞의 선라첨기(旋螺尖起)와 마찬가지로 예후가 좋지 않다. 모두 오장(五臟)에 독풍(毒風)이 쌓인 것으로 인해 열(熱)이 극하여 눈을 공격하는 것으로, 안으로는 오장에 속하고 밖으로는 오륜(五輪)에 속한다. 오장의 기(氣)와 독이 오륜의 동공을 공격하면 처음에는 마목(麻木)과 동통(疼痛)이 생기고 눈물이 줄줄 나며, 병세가 격렬해지면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용목(龍木)의 깊은 뜻에 정밀하지 못하면 손을 댈 수가 없다. 속담에 ‘눈병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딱 맞는 말이다. 만약 정확히 아는 의사가 아니라면 위태로움이 심하며, 다만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치법은, 펄펄 끓는 탕이 끓는 것을 멈추게 하는 데는 땃나무를 제거하여 불을 끄는 것만 한 것이 없으니, 급히 주조산(酒調散), 주전산(酒煎散)을 투약하여 오장의 독과 열을 제거하고 파와 쑥을 찧어서 오륜의 돌기를 짐질하여 통증을 없앤다. 백지, 세신, 당귀, 창출, 마황, 방풍, 강활로써 눈을 씻되 점안약을 투여해서는 안 되고, 맵고 비린 음식을 주의하며, 몸조리를 하여 바람을 피해야 한다. 치료가 조금 늦으면 혹은 농이 차고 혹은 1촌 높이로 돌출되니, 이런 지경에 이르면 봉침(鋒鍼)으로 찔러서 악수(惡水)를 배출시켜야만 통증이 비로소 사라지는데, 눈동자가 튀어나온 것이 가라앉을 뿐이지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

### 1.37.1. 酒調散<sup>88</sup> | 주조산

當歸 甘草 赤芍藥 菊花 羌活 桑螵蛸 芫 蔚子 防風 荊芥 木賊

당귀, 감초, 적작약, 국화, 강활, 상표초, 충울자, 방풍, 형개, 목적.

上各等分, 水煎, 食後加酒三盞溫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이고 식후에 술 3잔을 더하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85. 大 : ‘起’의 잘못이다. ↵

86. 龍木 : 書名. 隋唐 때의 사람이 龍木 즉 龍樹菩薩을 托名하여 편찬한 眼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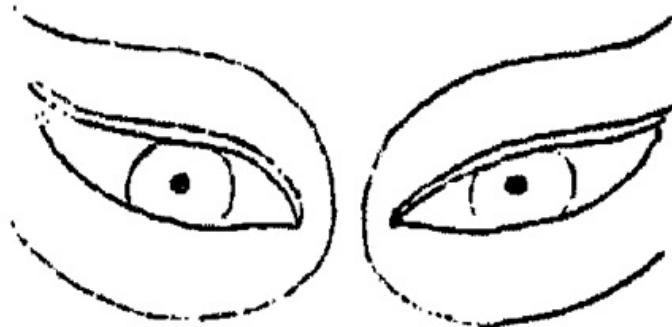
醫書『眼科龍木論』을 가리킨다. ↵

87. 法 : (集成) 鼎本에는 ‘若’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88. 酒調散 : (集成) 처방명이 원래 없었으나 鼎本에 의거하여 補入하였다. ↵

1.38. 硬瞼硬睛 | 눈꺼풀과 눈알이 굳어지는 것

睛 硬 瞼 硬



硬瞼硬睛者，胞臉睛珠俱木，痛<sup>澀</sup><sup>89</sup> 難運，膈間積熱，肝風上壅，氣血凝滯，睛瞼堅硬。血旺氣虛之人，或飲酒大腸堅結，多受是症。先患一眼，後乃相牽俱損，漸生翳膜。治法，初發時宜摩風膏，摩去風邪，散運血氣，或煎生地黃當歸川芎赤芍白芷羌活熏洗，日三度。宜瀉肝膈之熱，點以時藥。若積年久，瞼有瘀血，宜洗，黑睛有翳有膜，可吹可點。

경검경정(硬瞼硬睛)은 눈꺼풀과 눈알이 모두 굳어져 아프고 껄끄러우며 잘 돌 아가지 않는 것으로, 격(膈) 사이에 열이 쌓이고 간풍(肝風)으로 상부가 막혀 기혈(氣血)이 영기므로 눈알과 눈꺼풀이 굳는 것이다. 혈(血)이 왕성하고 기

(氣)가 부족한 사람이 혹 술을 마셔서 대장(大腸)이 굳어지면 흔히 이러한 병증이 생긴다. 처음에는 한쪽 눈에 병이 있다가 나중에는 서로 연관되어 모두 상하며 점차 예막(翳膜)이 생긴다. 치법은 발생 초기에 마풍고(摩風膏)를 써서 풍사(風邪)를 제거하고 혈기를 흩어주며 혹은 생지황, 당귀, 천궁, 적작약, 백지, 강활을 끓여 김을 써고 씻기를 하루 세 번 한다. 간격(肝膈)의 열을 사(瀉)하고, 때에 맞는 약을 점안한다. 병이 오래되어 눈꺼풀에 어혈(瘀血)이 있으면 씻는 방법을 써야 하고, 검은자위에 예(翳)나 막(膜)이 생기면 불어넣거나 점안하는 방법을 쓴다.

問曰, 眼患經久, 瞼胞睛珠俱木不運者, 何也. 答曰, 血氣受邪, 凝閉不行故也. 治法, 宜瀉洗, 服用當歸活血煎, 助陽和血湯, 點用重藥加辛熱薑粉之類.

묻기를, “눈병을 앓은 지 오래되어 눈꺼풀과 눈알이 모두 굳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혈기(血氣)가 사기(邪氣)를 받아 엉겨서 막히고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료는 살짝 찌르고 씻어내며 당귀활혈전(當歸活血煎), 조양화혈탕(助陽和血湯)을 복용하고, 점안약으로는 중약(重藥)에 신열(辛熱)한 생강가루 등을 더하여 쓴다.”

### 1.38.1. 當歸活血湯 | 당귀활혈탕

《方在前兩瞼粘睛症內》

《처방은 앞의 양검점정(兩瞼粘睛) 조에 있다》

### 1.38.2. 助陽和血湯 | 조양화혈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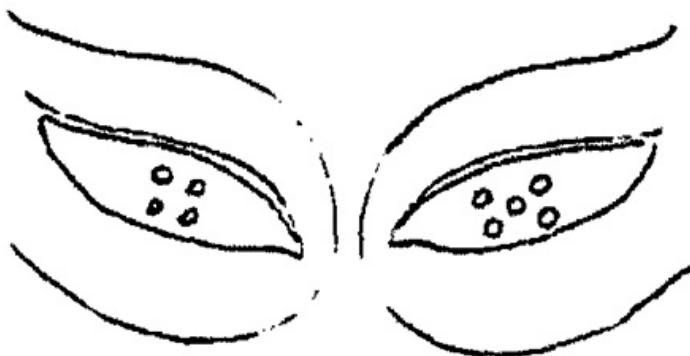
《方在前傷寒熱病症內》

《처방은 앞의 상한열병후외장(傷寒熱病後外障) 조에 있다》

89. 濶 : (集成) 鼎本에는 ‘濶’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1.39. 白陷魚鱗 | 하얗게 파인 모양이 물고기 비늘 같은 것

鱗 魚 陷 白



白陷魚鱗者，肝肺二經積熱，充壅攻上，致黑睛遂生白翳，如魚鱗鋪砌之狀，或入粟花，中有白陷，發歇不時，或發或聚，疼痛淚出。然婦人多生此病，何也。苦樂不由己出，七情鬱結不舒，**毒蘊於肝肺者，血之室也**<sup>90</sup> 婦人以血為主，血傷則肝風，黑仁風輪多生是翳。甚至白陷釘入黃仁，引血相授，漸成大患，額頭兼痛，用摩頂膏摩擦，封貼於額頭處，用陰二陽四丹吹點。或用青鹽黃泥固濟包，煨熟研末，以鴨毛點於魚鱗中，日一次，又能除此翳耳。

백함어린(白陷魚鱗)은 간(肝), 폐(肺) 두 경맥(經脈)에 쌓인 열이 막혀서 위로 공격하여 검은자위에 마침내 흰 예(翳)가 생기는 것인데, 마치 물고기 비늘이 차곡차곡 겹쳐진 모양이거나 대추나무 꽃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하얗게 파인 것이 있으니, 아무 때나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퍼졌다 모였다 하며 통증이 있으면서 눈물이 난다. 그런데 부인이 이 병을 앓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째서인가? 고락(苦樂)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칠정(七情)이 울결되고 펼쳐지지 못하여 독이 간에 쌓이는데, 간은 혈(血)이 모이는 곳이다. 부인은 혈이 주(主)가 되는데, 혈이 상하면 간풍(肝風)이 되어 검은자위의 풍륜(風輪)에 예(翳)가 생기기 쉽다. 심하면 하얗게 파인 것이 황인(黃仁)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혈(血)을 끌어들여 공급해서 점차로 큰 병을 이루니, 이마와 머리에 아울러 통증이 있으면 마정고(摩頂膏)를 써서 문지르고 이마와 머리의 아픈 곳에 붙이며,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4로 배합한 약을 눈에 불어 넣거나 바른다. 혹은 청염(青鹽)을 황토 진흙으로 단단히 싸서 불에 구운 것을 가루로 만들어 오리털을 이용해 고기비늘 모양의 환부에 하루 한 번 바르면 또한 이 예(翳)를 제거할 수 있다.

問曰, 黑睛生白翳, 凹入不平成陷者, 何也. 答曰, 肝虛血衰也. 故肝虛則受風, 風甚則作痛, 血衰則成陷. 治法, 點用珍珠二八丹之類.

묻기를, “검은자위에 흰 예(翳)가 생겨 오목하게 들어가 평평하지 않고 파인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肝)이 허하고 혈(血)이 쇠한 것이다. 간이 허하면 풍(風)을 받고 풍이 심하면 통증이 있으며, 혈이 쇠하면 파이게 된다. 치료는 진주산(珍珠散)이나 이팔단(二八丹) 등을 점안한다.”

### 1.39.1. 痛甚宜服 | 통증이 심한 경우 복용할 처방

#### 1.39.1.1. 酒調散 | 주조산

《方在前突起睛高症內》

《처방은 앞의 돌기정고(突起睛高) 조에 있다》

### 1.39.1.2. 没藥散 | 물약산

《方在血灌瞳人症內》

《처방은 혈관동인(血灌瞳人) 조에 있다》

### 1.39.2. 羞明而不痛者宜服 | 눈이 부시고 통증은 없는 경우 복용할 처방

#### 1.39.2.1. 蟬花散, 密蒙花散 | 선화산, 밀몽화산

《二方在兩臉粘睛症內》

《두 처방은 양검점정(兩臉粘睛) 조에 있다》

#### 1.39.2.2. 표초주조산 桑螵蛸 酒調散 |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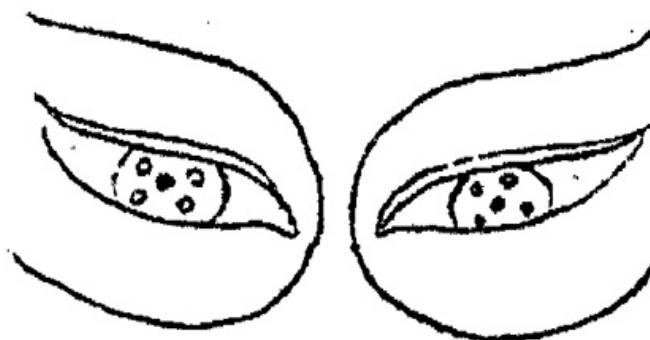
《方在暴風客熱症內》

《처방은 폭풍객열(暴風客熱) 조에 있다》

90. 毒蘊於肝肺者, 血之室也 : 문맥으로 보아 ‘毒蘊於肝, 肝者, 血之室也’의 오류가 아닌지 의심된다. ↪

1.40. 花翳 白陷 | 꽃잎 모양의 예가 생겨 하얗게 파인 것

陷 白 翳 花



人之患眼生翳 如蘿卜花 或魚鱗子 入陷如碎米者 此肝經熱毒入腦. 致眼中忽然腫痛，赤澀 淚出不明，頭痛鼻塞，乃是肝風熱極，腦中風熱極致使然也。宜服瀉肝散，加味修肝散主之。

사람이 눈병을 앓아 예(翳) 가 생긴 것이 무꽃이나 고기비늘 같고 파여 들어가 싸라기와 같은 것은 간경(肝經)의 열독(熱毒)이 뇌(腦)에 들어간 것이다. 눈이 갑자기 붓고 아프며, 붉고 걸끄러워 눈물이 나면서 잘 보이지 않고, 두통이 있

고 코가 막히게 되니, 이는 간풍(肝風)으로 열이 지극하고 뇌 속의 풍열(風熱)이 극성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사간산(瀉肝散), 가미수간산(加味修肝散)을 복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 1.40.1. 瀉肝散 | 사간산

黑參 大黃 黃芩 知母 桔梗 車前子《各一兩》羌活 龍膽草 當歸 芒硝

흑삼, 대황, 황금, 지모, 길경, 차전자《각 1냥》강활, 용담초, 당귀, 망초.

上爲末等分,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같은 양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40.2. 加味修肝散 | 가미수간산

羌活 防風 桑螵蛸 梔子 薄荷 當歸 赤芍藥 甘草 麻黃 連翹 菊花 木賊 白蒺 藜 川芎  
大黃 黃芩 荆芥《各一兩》

강활, 방풍, 상표초, 치자, 박하, 당귀, 적작약, 감초, 마황, 연교, 국화, 목적, 백질려, 천궁, 대황, 황금, 형개《각 1냥》.

上爲末等分, 水煎入酒溫服.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같은 양씩 물에 달이고, 술을 타서 따뜻하게 복용 한다.

#### 1.40.3. 蟬花散 | 선화산

蟬蛻 菊花 蒺 藜 蔓荊子 草決明 車前子 防風 黃芩 甘草

선태, 국화, 질려, 만형자, 초결명, 차전자, 방풍, 황금, 감초.

上等分, 水煎服.

이상을 같은 양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40.4. 补腎明目丸 | 보신명목환

《方在前蠅翅黑花症內》

《처방은 앞의 승시흑화(蠅翅黑花) 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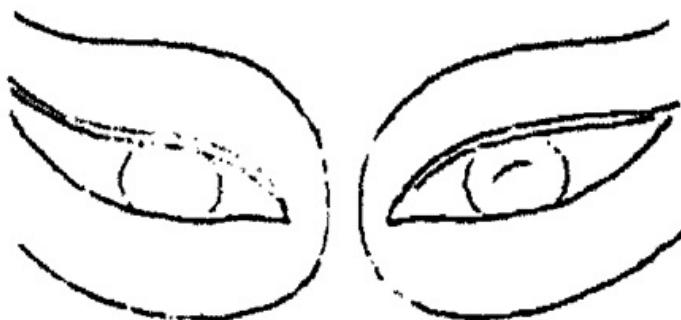
#### 1.40.5. 密蒙花散 | 밀몽화산

《方在前兩臉粘睛症內》

《처방은 앞의 양검점정(兩臉粘睛) 조에 있다》

1.41. 冰 蝦 翳 深 | 새우 살처럼 속이 비치는 예

深 翳 蝦 氷



冰 蝦 翳 深者，黑睛上生翳，如冰 蝦形狀，因而名曰冰 蝦也。大抵與魚鱗白陷同也，亦因肝經有熱，微微小小，點在眼之風輪，黑睛含糊，清眵 壞粘於翳 之低處，乍時赤澀 淚出，眵 滿，蒙蔽瞳人一重如鼻涕，或黃或白，看則如膜遮障一般，蘸 却又生。日久能致損眼，發歇來往。治法，宜陰二陽四，二夜吹一次，稍退宜點。侵晨用菊花側柏葉黃連歸鬚桑白皮之類煎湯，日洗二三次，服撥雲退翳散。

빙하예심(冰 蝦 翳 深)은 검은자위에 예(翳) 가 생긴 것이 속이 비치는 새우의 모습과 같아서 이름을 빙하(冰 蝦)라 한다. 대개 어린백함(魚鱗白陷)과 같은 것이니, 역시 간경(肝經)에 열이 있어서 생긴다. 자잘한 예(翳) 들이 풍륜(風

輪)에 흘어져 있고, 검은자위가 흐리멍덩하며, 물은 눈곱이 예(翳)의 밑부분에 가득 엉겨있다. 때로 눈이 붉고 깔끄러우면서 눈물이 나고, 눈곱이 그득하고, 콧물 같은 것이 동공을 한 겹 가리는데 혹은 황색이고 혹은 백색이며, 보기에 마치 막으로 가린 것 같은데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다. 오래 되면 눈을 상하며, 증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오락가락한다. 치료는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4로 배합한 약을 이틀에 한 번 밤에 불어넣고, 조금 나아지면 눈에 찍어 바른다. 이른 새벽에 국화, 측백엽, 황련, 당귀미, 상백피 등을 달여서 하루 2~3번 씻으며, 발운퇴예산(撥雲退翳散)을 복용한다.

#### 1.41.1. 撥雲退翳散<sup>91</sup> | 발운퇴예산

楮實子 薄荷《各五錢》川芎《一兩五錢》黃連 菊花 蟬蛻《各五錢》桔 薑根《生用三錢》蔓荊子 密蒙花 蛇蛻《各五錢》荊芥穗 香白芷 木賊 防風 甘草《各五錢》

저실자, 박하《각 5돈》천궁《1냥 5돈》황련, 국화, 선태《각 5돈》과루근《생용, 3돈》만형자, 밀몽화, 선태《각 5돈》헝개수, 향백지, 목적, 방풍, 감초《각 5돈》.

上爲末, 煉蜜爲丸, 如櫻桃大, 每一兩作十九丸. 每服二丸, 一日二服.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환을 만드는데, 앵두 크기로 하여 1냥으로 10개의 환을 만든다. 매번 2환씩 하루 두 번 복용한다.

#### 1.41.2. 治眼引子於後 | 눈병을 치료할 때 약을 삼기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氣障<sup>92</sup>, 木香湯下. 眼常昏暗, 菊花湯<sup>93</sup>下. 眼睛無神懶視, 當歸湯下. 婦人血暈, 當歸湯下. 虛弱之人, 十全大補湯下.

기장(氣障)에는 목향탕(木香湯)으로 삼킨다. 눈이 항상 맑지 않으면 국화탕(菊花湯)에 먹는다. 눈동자가 초점이 없고 명한 경우 당귀탕(當歸湯)에 먹는다. 부인의 혈晕(血暈)에는 당귀탕에 먹는다. 허약한 사람은 십전대보탕(十全

大補湯)에 먹는다.

---

91. **撥雲退翳 散** : 『普濟方』에는 ‘撥雲退翳 丸’으로 되어 있어 조제법과 일치 한다. [←](#)

92. **氣障** : 肺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눈병. 清代 醫書인 『異授眼科』에서 “白睛腫起, 多生瘀肉, 有淚, 或白膜侵睛, 名曰氣障, 其病在肺”라 하였다. [←](#)

93. **湯** : (集成) 鼎本에는 ‘如茶’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는 ‘好茶’로 되어 있다. [←](#)

1.42. 玉翳 浮瞞 | 옥색의 예가 눈을 덮어씌운 것

瞞 浮 翳 玉



玉翳者，風充入腦，積熱肝膈，發歇疼痛，失於調治，日久積累，血凝不散，結成白翳，遮瞞瞳人，如玉色相似，立名玉翳浮瞞。如此之狀，有進有退，有紅有淚，發歇未定。治法，用陰三陽二藥吹點一次，眼淚帶藥汪汪流出。如此之狀，其翳膜必能漸漸收卷，渾如磨鏡，塵埃去盡，明必復矣。若發年久，無進無退，不紅不痛，縱有丹藥之驗，刀針之利，終無措手之處，撥雲墜翳，服藥之聖，功效不能施爲，縱然公侯王孫，若受此疾，爲廢人矣。雖有千金之貴，天下之良醫<sup>94</sup>，莫能出其手也。

옥예(玉翳)는 풍(風)이 뇌에 들어차고 열(熱)이 간격(肝膈)에 쌓여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작하는데, 조치하지 못하고 날이 지나면 혈(血)이 엉겨 흘어지지 않고 맺혀서 흰 예(翳)를 이루니, 동공을 가린 것이 옥색과 비슷하므로 이름을 옥예부만(玉翳 浮瞞)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진행되거나 나아지기도 하고 붉어지거나 눈물이 나기도 하여, 발작하고 쉬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치료는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3:2로 배합한 약을 한 번 눈에 불어 넣거나 바르면 눈물이 약과 함께 줄줄 흘러나온다. 이와 같이 하면 예막(翳膜)이 반드시 점차로 줄어들 것이니, 혼탁하기가 갈아놓은 거울과 같다가 티끌과 먼지가 다 없어지고 반드시 밝음을 되찾게 된다. 병이 생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진행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붉거나 아프지 않으면 설령 효험 있는 단약(丹藥)과 예리한 칼이나 침이 있더라도 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으며 발운(撥雲), 추예(墜翳) 등 의 성약(聖藥)으로도 효과가 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공(公), 후(候), 왕손(王孫)이라도 이 병에 걸리면 장님이 된다. 비록 천금의 귀함이 있다 한들 천하의 뛰어난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것이다.

問曰, 人之患眼, 翳如玉色遮瞞烏睛者, 何也. 答曰, 此同肝風攻充入腦, 積熱在於肝膈之間, 久乃腎虛, 致眼中常發熱或赤痛. 初則紅腫赤脈穿睛, 漸漸生白翳膜, 初起時如碎米, 久則成片遮瞞烏睛, 凝結如玉色, 名曰玉翳遮睛. 治之宜服瀉肝散, 明目菊花散, 通明補腎丸.

문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옥색과 같은 예(翳)가 검은자위를 가린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 역시 간풍(肝風)이 뇌(腦)를 공격하고 간격(肝膈)의 사이에 열이 쌓여서 오래 지나 신(腎)이 허(虛)하게 된 것이니, 눈에 항상 발열이 있으면서 혹은 붉고 아프다. 처음에는 벌겋게 부으면서 핏발이 검은자위를 뚫고 가다가 점점 흰 예막(翳膜)이 생기는데, 초기에는 싸라기 같고 오래되면 조각을 이루어 검은자위를 가리고 응결된 것이 옥색과 같으니 이름을 옥예차정(玉翳 遮睛)이라 한다. 치료는 마땅히 사간산(瀉肝散), 명목국화산(明目菊花散), 통명보신환(通明補腎丸)을 복용해야 한다.”

### 1.42.1. 瀉肝散 | 사간산

治胃中熱.

위중(胃中)의 열을 치료한다.

歸尾 大黃 黃芩 知母 桔梗 菊 蔚子 芒硝 車前子 防風 赤芍藥 柴子 連翹 薄荷

당귀, 대황, 황금, 지모, 길경, 충울자, 망초, 차전자, 방풍, 적작약, 치자, 연교, 박하.

上各等分, 每服六錢,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매번 6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42.2. 明目菊花散 | 명목국화산

菊花 車前子 熟地黃 木賊 密蒙花 薄荷 連翹 白蒺藜 防風 荊芥穗 甘草 川芎

국화, 차전자, 숙지황, 목적, 밀몽화, 박하, 연교, 백질려, 방풍, 형개수, 감초, 천궁.

上等分, 水煎服.

이상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42.3. 通明補腎丸 | 통명보신환

楮實子 五味子 枸杞子《各一兩》人參 菟 絲子 肉蓯 蓉 菊花 熟地黃 當歸 牛膝 知母 黃柏 青鹽《各一兩》

저실자, 오미자, 구기자《각 1냥》인삼, 토사자, 육종용, 국화, 숙지황, 당귀, 우슬, 지모, 황백, 청염《각 1냥》.

上煉蜜爲丸. 每服五十丸, 空心鹽湯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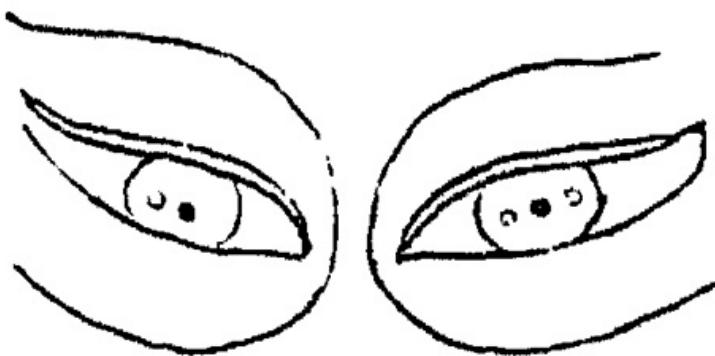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졸인 꿀로 환을 만든다. 매번 50환씩 빈속에 소금 끓인 물로 삼킨다.

---

94. 良醫 :〔集成〕鼎本에는 ‘翳熟近’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는 ‘醫熟近’으로 되어 있다. ↪

1.43. 膜入水輪 | 예막이 수륜에 들어간 것

輪 氷 入 膜



膜入水輪者，肝臟積熱，邪在肺經，此金克木之候也。故黃仁乍時生瘡白色，可後又發，日往月來，致膜漸入水輪，此翳之根也。如水之得土，變化異常，遂生瘡不退，日積月累，久成大患，謂之膜入水輪。流汁流膿，痛澀難開，右患傳左，左患傳右。治法，

宜明藥之類, 加<sup>95</sup>以蔥艾, 吹以丹藥, 服以湯散, 無有不效. 若傷日久, 不痛不疼, 不淚不紅, 如釘入木, 如玉之有瑕玷, 如玳瑁之有黑點, 此黃仁與水輪變白定矣, 雖使岐黃龍木再世, 亦不能爲也.

막입수륜(膜入水輪)은 간(肝)에 열이 쌓이고 사기(邪氣)가 폐경(肺經)에 있는 것으로 이는 금(金)이 목(木)을 극(克)하는 징후이다. 따라서 황인(黃仁)에 때 때로 창(瘡)이 생겨 백색이 되는데, 나아지다가 후에 재발하여 시간이 지나면 예막(翳膜)이 점차 수륜에 들어가니 이것이 예막의 뿌리이다. 수(水)가 토(土)를 얻은 것과 같아 그 변화가 보통과 다르고, 마침내는 창(瘡)이 생겨 사라지지 않으며 날이 계속 흘러 오래되면 큰 병을 이루니 이를 일러 막입수륜(膜入水輪)이라 한다. 진물과 농이 흐르고 통증이 있으면서 깔끄러워 눈을 뜨기 어려 우며, 왼쪽의 병이 오른쪽에 전하고 오른쪽의 병이 왼쪽으로 전하게 된다. 치료는 눈을 밝게 하는 종류의 약에 대파와 쑥을 더해서 쓰며, 단약(丹藥)을 불어 넣고, 탕약(湯藥)이나 산약(散藥)을 복용하면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상한 지 오래되어 통증이 없고 눈물이 나지도 붉지도 않은데, 나무에 못을 박아 둔 것 같거나, 옥에 티가 있는 것 같거나, 거북의 등에 검은 점이 있는 것 같다면 이는 황인(黃仁)과 수륜(水輪)이 변하여 백색으로 굳어진 것이니, 기백(岐伯), 황제(黃帝), 용목(龍木)이 다시 살아 오더라도 역시 치료할 수 없다.

問曰, 風輪生瘡或突起, 愈後變成白翳, 久不散者, 何也. 答曰, 肝木衰金氣甚也. 此病初患時有痛有淚, 治宜退血瀉肺金, 修肝活血. 無痛無淚淡白色者, 宜服補暖活血之劑治之.

묻기를, “풍륜(風輪)에 창(瘡)이 생기거나 혹은 돌출되었는데, 나은 후에 변하여 흰색 예(翳)를 이루고 오래되어 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간목(肝木)이 쇠하고 금기(金氣)가 성(盛)한 것이다. 이 병을 처음 앓을 때에는 통증이 있고 눈물이 나니, 치료는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폐금(肺金)을

사(瀉)하며 간(肝)을 다스리고 혈(血)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통증과 눈물이 없으며 담백색인 경우는 보(補)하고 덥히며 활혈(活血)하는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 1.43.1. 瀉肺散 | 사폐산

當歸 黃芩《各一兩》桔梗 麻黃 枳殼《各半兩》秦皮 莖蕧 菊花 旋複花 生地黃 防風  
白芷 甘草 玄參 桔子《各一兩》地骨皮《八錢》

당귀, 황금《각 1냥》길경, 마황, 지각《각 반냥》진피, 정력, 국화, 선복화, 생지황, 방풍, 백지, 감초, 현삼, 치자《각 1냥》지골피《8돈》.

上爲末, 每服三錢, 桑白皮煎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상백피 달인 물에 복용한다.

#### 1.43.2. 修肝活血湯 | 수간활혈탕

歸尾 赤芍《各一兩半》川芎 羌活《各七錢》黃芪 防風 大黃 黃連《各三錢》薄荷 連翹  
白蒺藜 菊花《各一兩》

당귀미, 적작약《각 1냥 반》천궁, 강활《각 7돈》황기, 방풍, 대황, 황련《각 3돈》  
박하, 연교, 백질려, 국화《각 1냥》.

上每服四錢, 水煎<sup>96</sup>服.

위의 약들을 매번 4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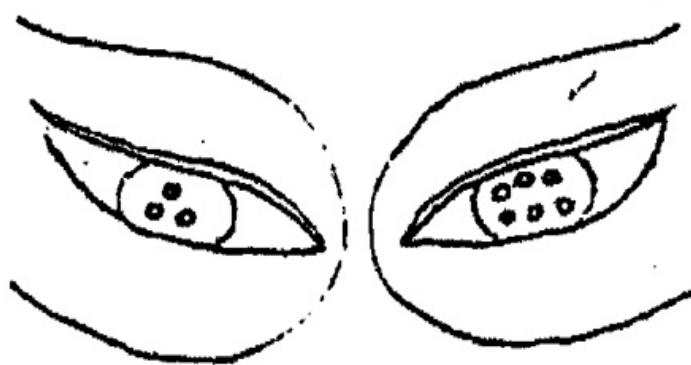
95. 類, 加 : [集成] 鼎本에는 ‘時, 煎’로 되어 있다. ↪

96. 水煎 : [集成] 鼎本에는 ‘入酒’로 되어 있다. ↪



1.44. 風輪釘翳 | 풍륜(風輪)에 예가 깊게 박힌 것

# 翳 釘 輪 風



釘翳 <sup>97</sup>者，與膜入水輪同也。此乃勞傷肝經，或性躁急促之人，啼哭含情之婦，欲強制鬱傷於肝，赤澀難開，痛牽頭腦，淚出羞明怕日，釘翳日深，接 <sup>98</sup>引黃仁，根深血援終不移。治法，用退熱飲去風散血之劑，或痛甚服酒調散一二貼，頭痛熨以蔥艾，洗以防風川芎菊花歸尾白芷麻黃羌活荊芥之類，量翳大小輕重吹以丹藥。將息避風，大忌淫欲嗔怒。不疼不痛，亦爲不治之症也。

정예(釘翳)가 깊이 뿌리박힌 병증은 막입수륜(膜入水輪)과 같다. 이는 과로로 간경(肝經)을 상하였거나 혹은 성질이 조급한 사람이거나, 한 맷힌 부인이거나, 욕구를 억눌러서 울증(鬱症)이 간(肝)을 상한 것인데, 붉고 껌끄러우면서 통증이 머리와 뇌까지 이어지며, 눈물이 나오고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며, 정예(釘翳)가 날로 깊어져서 황인(黃仁)에까지 이르며, 뿌리가 깊어지고 혈(血)이 엉겨 끝내는 움직이지 않는다. 치료는 퇴열음자(退熱飲子) 등 거풍(去風), 산혈(散血)하는 처방을 사용하며, 혹 통증이 심하면 주조산(酒調散)을 1~2첩 복용하고, 두통이 있으면 대파와 쑥으로 짐질하며, 방풍, 천궁, 국화, 당귀미, 백지, 마황, 강활, 형개 등으로 눈을 씻으며, 예(翳)의 크기와 병의 경증을 해아려 단약을 불어 넣는다. 몸조리를 하면서 바람을 피하고, 음욕(淫欲)과 진노(嗔怒)를 절대 금한다. 통증이 없는 것은 역시 치료할 수 없는 병증이다.

問曰, 風輪生翳, 如針如麻米者, 何也. 答曰, 肝虛火動也. 此症多是性躁之人, 或思慮太過所致. 治法, 疼痛甚者, 宜服洗肝散, 糖煎散, 點用珍珠散加涼膈散.《俱在前》

묻기를, “풍륜(風輪)에 예(翳)가 생겨서 바늘 같고 깨알 같은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간허(肝虛)로 화(火)가 동한 것이다. 이 증상은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거나 생각이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치료는 통증이 심하면 세간산(洗肝散), 당전산(糖煎散)을 복용해야하고 진주산(珍珠散)에 양격산(涼膈散)을 더하여 점안한다.”《모두 앞에 있다》

#### 1.44.1. 修肝散 | 수간산

梔子 薄荷 防風 當歸 甘草 連翹 大黃 黃芩 蒼朮 羌活 菊花 木賊 赤芍藥 麻黃

치자, 박하, 방풍, 당귀, 감초, 연교, 대황, 황금, 창출, 강활, 국화, 목적, 적작약, 마황.

上各等分爲末. 每服二錢, 食後蜜水調下, 或煎日進二三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든다. 매번 2돈씩 식후에 꿀물에 타서 먹거나 혹은 달여서 하루 2~3번 먹는다.

#### 1.44.2. 糖煎散 | 당전산

龍膽草 防風 防己 大黃 荆芥 赤芍藥 當歸 甘草 川芎

용담초, 방풍, 방기, 대황, 형개, 적작약, 당귀, 감초, 천궁.

上各等分爲末, 水煎. 臨時投入砂糖少許, 同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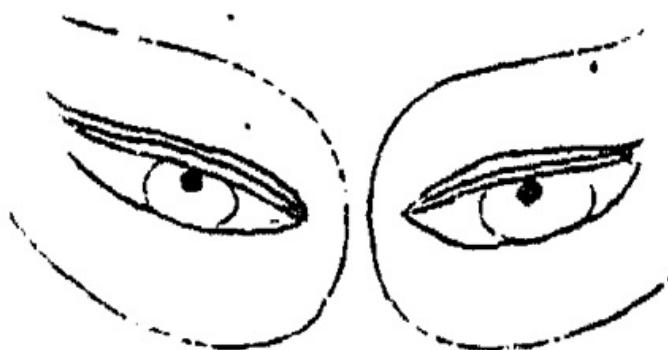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물에 달인다. 복용할 때에 설탕을 조금 타서 함께 먹는다.

97. 釘翳 根深 : 이 조문의 제목인 ‘風輪釘翳’와 본문의 첫머리가 일치하지 않으니 本書에서는 이례적이다. ‘釘翳 根深’이 독립된 痘症의 명칭으로 기재된 醫書로는 『世醫得效方』이 있다. ←

98. 接 : (集成) 鼎本에는 ‘久’로 되어 있다. ←

1.45. 黃膜下垂 | 누런 예막(翳膜)이 아래로 드리운 것

# 垂 下 膜 黃



黃膜下垂者，脾胃熱，風結，血凝氣滯，膏脂窒塞血運不能通，故生是疾。發歇無時，痛澀淚出，漸生黃膜下垂，發則膜舒，退則膜卷。胞皮下垂，羞明怕日，雖舉不張，黃膜漸長，遮瞞瞳人也。甚至滿目皆黃，難辨人物。治法，雖不是拳毛倒睫之症，亦可夾

些眼皮, 使露黑睛, 黃膜氣舒, 發歇年久可夾, 乍發不宜夾. 治宜通脾瀉胃撥雲八正之劑以對, 充之丹片腦少許. 如有淚退之速, 無淚退之遲. 忌口齋戒, 使衰其血易於調理也. 又有一症, 黃膜從下生上, 爲之黃膜上充, 大抵治同, 厚者宜挑剪.

황막하수(黃膜下垂)는 비위(脾胃)에 열이 있는데 풍(風)이 맺혀서 혈(血)이 엉기고 기(氣)가 정체된 것이니, 기름이 틀어막아서 혈의 운행이 통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병이 생긴다. 발작하고 쉬는 데 일정한 때가 없으며, 아프고 껄끄럽고 눈물이 나며, 점차 누런 예막(翳膜)이 생겨 아래로 드리우니, 증상이 발작하면 막이 펼쳐지고 물러가면 막이 줄어든다. 눈꺼풀의 피부가 아래로 늘어지고,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며,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해도 눈을 크게 뜰 수 없고, 황막(黃膜)이 점차 자라나 동공을 다 가리게 된다. 심하면 온 눈이 모두 누렇게 되며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치료는 비록 권모도첩(拳毛倒睫)이 아니더라도 역시 눈꺼풀을 집어서 검은자위를 드러나게 하고 황막의 기가 펼쳐지도록 하는데, 발작했다 쉬었다 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집는 방법을 써도 되나 금방 생긴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치료에 마땅히 통비사위(通脾瀉胃), 발운(撥雲), 팔정(八正) 등의 처방을 증상에 맞게 쓰고, 더하여 단약(丹藥)에 편뇌(片腦)를 조금 넣는다. 눈물이 나는 경우는 낫는 것이 빠르고, 눈물이 없으면 낫는 것이 느린다. 음식을 주의하고 심신(心神)을 깨끗이 하여 엉긴 혈(血)이 풀리게 되면 조리가 용이하다. 또 하나의 병증으로 황막이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것이 있으니 황막상충(黃膜上充)이라 하는데, 대체로 치료는 같으며, 두꺼운 것은 마땅히 도려내야 한다.

問曰, 白睛黃赤, 生翳如赤膜者, 何也. 答曰, 脾胃得肝木克土之候也. 治宜省味金花丸去其黃膜, 後用針沙平胃丸收功, 點用重藥, 腦不可用, 少下.

묻기를, “흰자위가 황적색이고 붉은 막과 같은 예(翳)가 생기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비위(脾胃)의 토(土)가 간목(肝木)에 극(克)을 당한 징후이다. 치료는 마땅히 생미금화환(省味金花丸)으로 황막(黃膜)을 제거하고, 이후

에 침사평위환(針沙平胃丸)을 써서 마무리하며, 중약(重藥)을 점안하되 편뇌(片腦)는 쓰지 말고, 조금만 넣는다.”

#### 1.45.1. 針沙平胃丸 | 침사평위산

久服平胃氣, 去肝邪.

오래 복용하면 위기(胃氣)를 고르게 하고 간(肝)의 사기(邪氣)를 제거한다.

蒼朮 厚朴 陳皮 甘草 針沙<sup>99</sup>

창출, 후박, 진피, 감초, 침사.

上各等分, 咬咀爲末, 煉蜜爲丸如綠豆大. 每服五十丸, 空心米湯下.

이상을 같은 분량씩 썰어서 가루로 만들고, 졸인 꿀로 녹두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50환씩 공복에 승능으로 먹는다.

#### 1.45.2. 省味金花丸 | 생미금화환

治脾胃積熱, 致生黃膜.

비위(脾胃)에 쌓인 열로 황막(黃膜)이 생기게 된 것을 치료한다.

梔子 黃芩 黃柏 桑白皮 地骨皮 桔梗 知母 甘草

치자, 황금, 황백, 상백피, 지골피, 길경, 지모, 감초.

上爲細末, 煉蜜爲丸, 清茶送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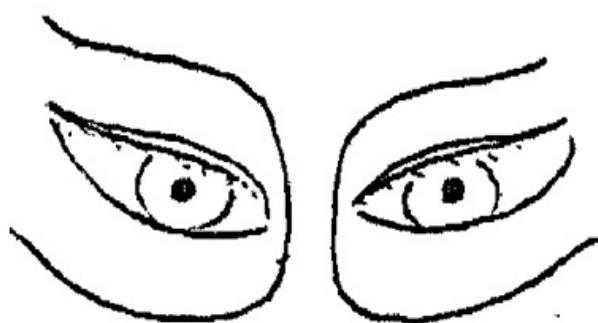
이상을 곱게 갈아 졸인 꿀로 환을 만들어 찻물에 먹는다.

<sup>99</sup>. 針沙 : 침을 갈아 만들 때 떨어지는 고운 가루. ‘鋼砂’라고도 한다. ↪



1.46. 赤膜下垂 | 붉은 예막(翳膜)이 아래로 드리운 것

# 垂 下 膜 赤



眼胞下生赤膜垂下, 遮於黑睛疼痛者, 乃胃熱也. 治法, 紅痛甚者服鬱金酒調散, 大黃當歸散, 微退後用撥雲湯, 生地黃散, 點用重藥加清涼散藥, 以上方俱在前.

눈꺼풀 밑에 붉은 예막(翳膜)이 생겨 아래로 드리워서 검은자위를 가리고 통증이 있는 것은 위(胃)의 열이다. 치료는 붉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울금주조산(鬱金酒調散), 대황당귀산(大黃當歸散)을 복용하고, 약간 물러난 뒤에는 발

운탕(撥雲湯), 생지황산(生地黃散)을 쓰며 중약(重藥)에 청량산(清涼散)의 약재들을 더하여 점안하는데, 이상의 방제는 모두 앞에 있다.

### 1.46.1. 大黃當歸散 | 대황당귀산

治胃中有熱, 生膜疼痛.

위(胃) 속에 열이 있어서 예막(翳 膜)이 생기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當歸 茯苓 川芎 菊花 大黃 黃芩 杏仁 薄荷

당귀, 작약, 천궁, 국화, 대황, 황금, 행인, 박하.

上各等分咬 咀, 食後水煎溫服.

위의 약들을 같은 분량으로 썰어서 식후에 물에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 1.46.2. 生地黃散 | 생지황산

治眼下赤膜, 發歇無時, 久服則不發.

눈꺼풀 밑에 붉은 예막(翳 膜)이 때 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치료하니, 오래 복용하면 발작하지 않는다.

生地黃 黃柏 知母 防風 荊芥 升麻 千葛 天花粉 黃芩 甘草 桑白皮 白茯苓 赤芍藥

생지황, 황백, 지모, 방풍, 협개, 승마, 건갈, 천화분, 황금, 감초, 상백피, 백복령, 적작약.

上咬 咀, 每服七八錢重, 水煎食後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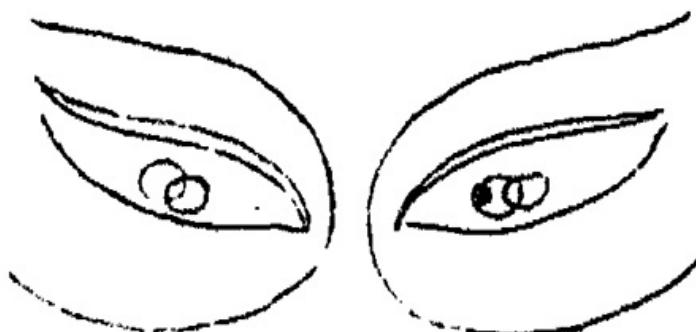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썰어 매번 7~8돈씩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붉은 예막이 아래로 드리운 것 赤膜下垂

---

1.47. 逆順生翳 | 위쪽과 아래쪽으로 생기는 예막

翳 生 順 逆



逆順生翳，與赤膜下垂，與黃膜下垂，上充之症頗同，然此順逆者，五臟虛勞，風熱衝於肝膈。上胞陽明經毒壅，血氣凝滯，故生赤膜垂下，謂之垂簾翳，此爲順。下瞼，太陰肝經毒壅，故翳膜下生向上，謂之逆翳。治法，宜服瀉脾胃之劑，大抵去翳之藥，隨其輕重增減用之，宜忌口諸毒。

역순생예(逆順生翳)는 적막하수(赤膜下垂), 황막하수(黃膜下垂), 황막상충(黃膜上充)의 병증과 거의 같으나, 이 역순(逆順)의 경우는 오장(五臟)이 허로(虛勞)하고 풍열(風熱)이 간격(肝膈)으로 치받은 것이다. 윗눈꺼풀은 양명경(陽明經)인데 독이 쌓여서 혈기(血氣)가 엉긴 탓에 붉은 예막(翳膜)이 아래로 드리우면 ‘수렴예(垂簾翳)’라 부르니 이것이 순(順)이 된다. 아래쪽 눈꺼풀은 태음경(太陰經)과 간경(肝經)인데 여기에 독이 쌓이면 예막이 아래에서 생겨 위로 자라니 역예(逆翳)라 한다. 치료는 비위(脾胃)를 사(瀉)하는 처방을 복용해야 하니 무릇 예(翳)를 제거하는 약은 그 경증을 따라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하며, 음식을 주의하여 여러 독성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問曰, 眼上下逆順上翳者, 何也. 答曰, 肝經虛損, 積毒熱甚, 至生翳 四起侵黑睛. 治宜明目流氣飲, 蟬花無比散, 點用珍珠散, 次用三七丹, 腫者亦可剷洗.

묻기를, “눈의 위아래에서 역(逆)과 순(順)으로 자라나는 예막(翳膜)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간경(肝經)의 허손(虛損)으로 독이 쌓이고 열이 심하면 예막(翳膜)이 사방에서 자라나 검은자위를 침범하기에 이른다. 치료는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 선화무비산(蟬花無比散)이 마땅하며, 진주산(珍珠散)을 점안하고 다음으로 삼칠단(三七丹)을 쓰며, 부은 경우는 살짝 찌르고서 씻는 것도 좋다.”

#### 1.47.1. 明目流氣飲 | 명목유기음

《方在前傷寒熱病症內》治脾得邪熱, 或逆順生翳.

《처방은 앞의 상한열병후외장(傷寒熱病後外障) 조에 있다》 비(脾)가 열사(熱邪)를 받아 위나 아래로 예막(翳膜)이 자라나는 것을 치료한다.

#### 1.47.2. 蟬花無比散 | 선화무비산

治風毒傷目, 昏暗漸生白翳 遮睛.

풍독(風毒)이 눈을 상하여 보이는 것이 흐릿하고 흰색 예막(翳 膜)이 점차 생겨나 눈동자를 가리는 것을 치료한다.

白茯苓 甘草《炙, 助胃》防風《各四兩》川芎 赤芍藥《各二兩》石決明《鹽水煮, 研極細》白蒺藜《炒, 去尖, 四兩》蛇蛻《炙, 三兩》蟬蛻《去頭足, 四兩》蒼朮《一兩》當歸《酒浸, 二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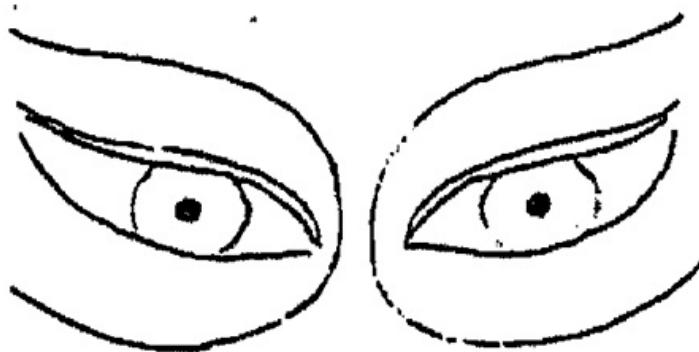
백복령, 감초《구운 것, 위(胃)를 돋는다》방풍《각 4냥》천궁, 적작약《각 2냥》석결명《소금물에 삶아서 아주 곱게 간 것》백질려《볶아서 뾰족한 부분 제거, 4냥》사태《구운 것, 3냥》선태《머리와 다리를 제거, 4냥》창출《1냥》당귀《술에 담근 것, 2냥》.

上爲末. 每服三錢, 食後米汁調服, 茶亦可. 忌食毒物.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든다. 매번 3돈씩 식후에 쌀뜨물로 복용하며, 찻물로 먹는 것도 역시 좋다. 독성이 있는 음식을 주의한다.

1.48. 漏眼膿血 | 눈이 짓무르고 농혈이 나오는 것

# 血 膿 眼 漏



漏眼膿血者，有甚於釘翳並 膜入水輪二症之利害也。此症未發之時，其頭先覺昏悶，四肢如勞，五臟多積風熱壅毒，攻充於黑睛黃仁，生出毒瘡，灌溉水輪控血，潰爛流膿。治法，宜蔥艾入白芷，鍋內炒熱，以棉裹熨於眼胞上。屢換熱的，散其惡血，消其敗膿，止其惡痛。生地黃搗爛煨熨於有瘡處更妙，用陰二陽四丹對於有瘡處吹。或單用枯礬輕粉血竭乳香研細，對着瘡處吹點。亦可洗。以桑白皮入鹽花明礬熏洗。服以墜翳明目丸，沒藥散，忌動風動血之物。

누안농혈(漏眼膿血)은 정예(釘翳) 와 막입수륜(膜入水輪) 두 병증보다 더욱 위험하다.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머리가 먼저 아득한 것을 느끼고 사지가 지친 듯하며, 오장(五臟)에 풍열(風熱)이 쌓이고 독이 차면 검은자위의 황인(黃仁)을 공격하여 독창(毒瘡)이 생기고, 수륜(水輪)으로 혈(血)을 끌어들이면 문드러지고 농이 흐르게 된다. 치료는 대파와 쑥에 백지(白芷)를 더해 솔에 볶아 뜨겁게 한 것을 면으로 싸서 눈꺼풀 위를 찜질해야 한다. 뜨거운 것으로 바꿔 주면서 계속하면 악혈(惡血)이 흘어지고 썩은 농이 사라지며 심한 통증도 그친다. 생지황을 뭉그려지도록 찢어 불에 구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찜질하면 더욱 좋으며,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 : 4의 비율로 배합한 약을 상처난 곳에 대고 불어 준다. 혹은 단방(單方)으로 고반, 경분, 혈갈, 유향을 곱게 갈아 상처에 불어 넣거나 바른다. 씻는 것도 역시 좋으니, 상백피에 염화(鹽花)와 명반을 넣어 김을 쏘고 씻는다. 추예명목환(墜翳 明目丸), 몰약산(沒藥散)을 복용하며, 풍(風)을 일으키거나 혈(血)을 동하는 음식을 주의한다.

#### 1.48.1. 明目丸 | 추예명목환 墜翳

《方在前血灌瞳人症內》

《처방은 앞의 혈관동인(血灌瞳人) 조에 있다》

#### 1.48.2. 没藥散 | 몰약산

沒藥 大黃《蒸, 少用》朴硝

몰약, 대황《찐 것, 소량 사용》박초.

上爲末, 每服三錢, 酒調下, 茶亦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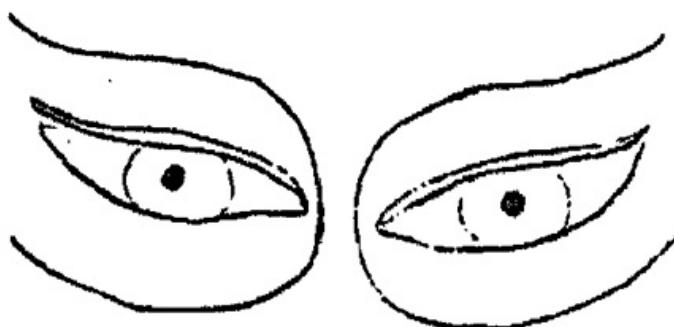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술에 타서 먹으며, 찻물에 먹는 것도 역시 좋다.

눈이 짓무르고 농혈이 나오는 것 漏眼膿血

---

1.49. 飛塵入眼 | 티끌이 눈에 들어간 것

眼 入 塵 飛



飛塵入眼者，此病全然無事，誤被物或飛塵<sup>100</sup>入眼者，此外傷也。只爲塵物粘在胞瞼之間，粘定不出，痛澀難開，矇澀<sup>101</sup>淚出，致生障膜。初患之時，治法用絲線纏耳環脚，番轉上下胞瞼，撥出塵物即 可。若初時不諳此法，少療，日久必生翳膜遮瞼瞳人，須有丹藥吹點。胞瞼內仔細番看，有物粘處，必定有血積成塊或肉疙瘩，此是病之發縱<sup>102</sup>處。宜小鋒針挑撥，或有刺塵處針毒血出，可此爲病之根也，曰外病也。初起宜將絲線卷銅匙脚，捻撥出塵物，久者宜番轉看，一下有積處，剉洗至平。點用清涼散，服以散血退熱之劑。

비진입안(飛塵入眼)은 달리 병인(病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여 이물질이나 티끌, 연가시 등이 눈에 들어간 것으로 외상(外傷)이다. 단지 이물질이 눈꺼풀 틈에 붙은 것이니, 들러붙어 나오지 않아서 아프고 껄끄러워 눈을 뜨기 힘들거나 모래처럼 깔깔하여 눈물이 나오고 예막(翳膜)이 생기기도 한다. 처음 앓을 때의 치법은 귀걸이 고리에 실을 칭칭 감아 위아래 눈꺼풀을 뒤집어서 이물질을 훑어내면 낫는다. 초기에 이 방법을 모르고 조금 나은 채로 오래되면 반드시 예막이 생겨서 동공을 가리게 되니, 단약(丹藥)을 눈에 불어 넣거나 점안해야 한다. 눈꺼풀 안쪽을 뒤집어 자세히 살피면 이물질이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분명히 혈(血)이 쌓여 덩어리를 이루거나 혹은 부스럼 같은 살점이 있으니 이것이 병의 자취가 드러나는 곳이다. 작은 봉침(鋒鍼)으로 도려내야 하는데, 혹 이물질이 있는 곳을 찔렀을 때 독혈(毒血)이 나오기도 하니 이것이 병의 뿌리라 할 수 있으므로 외병(外病)이라 한다. 초기에는 실을 구리 숟가락의 손잡이에 칭칭 감아 이물질을 빼내고, 오래된 것은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어느 한 곳에 적(積)이 있는 자리가 있으니 살짝 찌른 후 씻어내어 가라앉도록 한다. 점안약으로는 청량산을 쓰고 산혈(散血), 퇴열(退熱)하는 처방을 복용한다.

#### 1.49.1. 酒調散 | 주조산

當歸 甘草 大黃 赤芍藥 菊花 桔梗 蒼朮 桑螵蛸 麻黃 羌活 蕺蔚子 連翹《各一兩》

당귀, 감초, 대황, 적작약, 국화, 길경, 창출, 상표초, 마황, 강활, 충울자, 연교  
《각 1냥》.

上爲末, 每服三錢, 酒調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술에 타서 먹는다.

#### 1.49.2. 修肝散 | 수간산

防風 羌活 當歸 生地黃 黃芩 桔子 赤芍藥 大黃 甘草 蔡藜《各一兩》

방풍, 강활, 당귀, 생지황, 황금, 치자, 적작약, 대황, 감초, 질려《각 1냥》.

上水煎服.

위의 약들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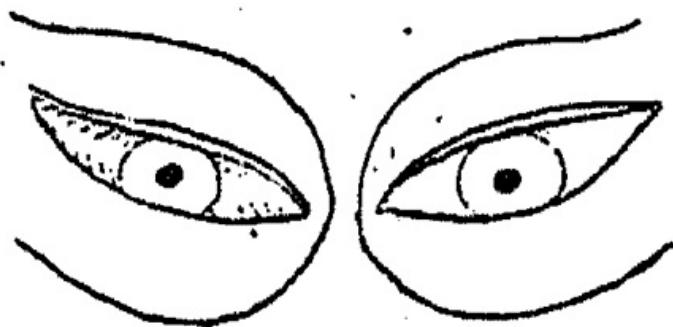
100. 飛絲 : 거미줄 따위가 바람에 날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飛絲入目’이라 하면 연가시가 눈에 들어간 것을 말하기도 한다. 연가시는 가느다란 철사 모양의 동물로서, 유생은 메뚜기, 사마귀 등 곤충에 기생하고 성체는 민물 속에서 산다. ↪

101. 濶 : [集成] 원래 없던 것을 鼎本에 의거하여 補入하였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102. 縱 : 四庫全書本에는 ‘蹤’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는 편이 文義가 순조롭다. ↪

1.50. 拳毛倒睫 | 속눈썹이 말려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 睖 倒 毛 拳



拳毛倒睫者，此脾與肺二經之得風熱也。肺為五臟之華蓋，主一身之皮毛，肺虛損則皮聚而毛落也，脾家多壅濕熱，致令上胞常腫。大抵肝家受熱不時淚出，痛癢羞明怕日，赤澀難開，常以手摩引，致令上下胞瞼皮漸長眼漸緊，故睫毛番倒裏面，刺眼礙澀瞳人，漸生翳膜，欹頭則視，不能正觀。治法，先宜剗洗瘀血，後用竹夾夾起眼皮，灸四五壯為妙，使毛生向外，其疾瘳耳。睛中有翳，用陰二陽五丹吹點，翳即消磨。其夾須依口訣，務令夾起，不可滋水，恐潰有疤痕。若脫下痕處用光粉<sup>103</sup>調香油<sup>104</sup>，遂早搽抹，久則肉色一般，眼目光明如舊。

권모도첩(拳毛倒睫)은 비(脾)와 폐(肺)의 두 경맥(經脈)이 풍열(風熱)을 받은 것이다. 폐는 오장(五臟)의 지붕으로서 온몸의 피모(皮毛)를 주관하니 폐가 허손(虛損)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털이 빠지며, 비(脾)에 습열(濕熱)이 많이 쌓이면 윗눈꺼풀이 항상 부어있게 된다. 무릇 간(肝)이 열을 받으면 때 없이 눈물이 나오고, 아프고 가려우며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게 되고, 붉고 깔끄러우면서 눈을 뜨기 어려워 항상 손으로 비비고 잡아당기므로 위아래 눈꺼풀의 피부 쪽은 점차 늘어지고 눈 쪽은 점차 오그라든다. 따라서 속눈썹이 계속 안쪽으로 뒤집어져 눈을 찔러 눈동자가 깔끄러워지고 점차 예막(翳膜)이 생겨, 머리를 기울이면 보이고, 똑바로는 보이지 않는다. 치료는 먼저 살짝 찔러 어혈(瘀血)을 씻어낸 후에 대나무 집개로 눈의 피부를 집어 올리고 4~5장의 뜰을 뜨면 효과가 좋으니, 속눈썹이 밖을 향하도록 하여 그 병이 낫는다. 눈동자에 예(翳)가 있으면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5로 배합한 약을 눈에 불어 넣거나 바르면 예가 곧 사라진다. 그 집어 올리는 것을 구결(口訣)에 따라 확실히 집어 올리도록 하는데, 물에 불리지 말아야 하니 짓물려 흉터가 생길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빼낸 자리에 자국이 생기면 광분(光粉)을 향유(香油)에 개어 곧바로 바르니, 오래하면 보통의 살색으로 돌아오며 눈은 예전처럼 밝아진다.

### 1.50.1. 細辛湯 | 세신탕

治脾經腫, 得風熱宜服.

비경(脾經)이 부은 것을 치료하는데, 풍열(風熱)에 속하면 마땅히 복용한다.

細辛 防風 菊 蔊子 知母 大黃 桔梗 羚羊角 黑參

세신, 방풍, 충울자, 지모, 황백, 길경, 영양각, 흑삼.

上咬咀, 每服四錢, 用水煎, 食後溫服.

위의 약들을 썰어 매번 4돈씩 물에 달여 식후 따뜻하게 복용한다.

### 1.50.2. 防風飲子 | 방풍음자

黃連《一兩》細辛 蔓荊子《各三錢》葛根 防風《各五錢》當歸身《七錢》甘草《炙》人參

황련《1냥》세신, 만형자《각 3돈》갈근, 방풍《각 5돈》당귀신《7돈》감초《구운 것》인삼.

上水煎, 食遠服, 避風忌口.

위의 약들을 달여서 끼니와 먼 시간에 복용하며, 바람을 피하고 음식을 주의한다.

### 1.50.3. 除濕壓熱飲 | 제습압열음

細辛 蒼朮《各一兩》防風 知母 菖 蔚子《各兩半》桔梗《二兩》大黃 黃芩 桔子仁 朴硝

세신, 창출《각 1냥》방풍, 지모, 충울자《각 1냥 반》길경《2냥》대황, 황금, 치자인, 박초.

上水煎服.

위의 약들을 달여서 복용한다.

### 1.50.4. 阿膠丸 | 아교환

阿膠《蛤粉炒》鼠粘子《炒》甘草 糯米《炒, 各一兩》馬兜鈴 款冬花 紫菀 桔梗

아교《대합 가루로 볶은 것》서점자《볶은 것》감초, 나미《볶은 것, 각 1냥》마두령, 관동화, 자완, 길경.

上爲末, 煉蜜爲丸, 如彈子大. 每服一丸, 食後細嚼, 薄荷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환을 만드는데 탄알 크기로 한다. 매번 1 환씩을 식후에 잘게 씹어 박하 달인 물로 삼킨다.

#### 1.50.5. 密蒙花散 | 밀몽화산

密蒙花 羌活 菊花 石決明 木賊 黃柏 白蒺 藜 黃芩 蔓荊子 青葙子 枸杞子

밀몽화, 강활, 국화, 석결명, 목적, 황백, 백질려, 황금, 만형자, 청상자, 구기자.

上每服三錢, 茶送下, 水煎亦可.

위의 약들을 매번 3돈씩 찻물에 삼키며, 물에 달여 복용해도 된다.

---

103. 光粉 : 납을 가공하여 만든 염기성 탄산염이다. 鉛粉과 같다. [←](#)

104. 香油 : 고소한 냄새가 나는 기름. 대개 참기름을 말한다. [←](#)

1.51. 充風淚出 |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것

# 充風淚出



充風淚出者，症非一也。有腎虛不生肝木，肝經受風而虛損，故木動也，迎風而淚出也。肝經虛者，宜服止淚補肝散止之。[大 105](#) 止淚之法，點用重藥，熱淚者服川芎茶調散，點用清涼散，肝風者，宜[蒼朮 106](#) 止之。不赤不疼淚出，是謂之風淚，腫痛赤澀淚出者，此熱淚也。若迎風而出汪汪，冬日多，夏日少，拭即還生，又不分四季皆有，此冷淚也，冷淚者乳香川烏丸。川烏一個，草烏二個，去皮，明礬一錢，白礬塊一個，爲

末, 猪膽汁爲丸如黍米大, 每用一丸。夜臥時放在眼之大眦頭, 淚出即止, 或灸止之。又有肺臟久冷, 大眦有竅, 名爲淚堂, 淚堂通肺腑, 此淚難治。久流則能令目昏暗, 血氣虛弱之人, 不腫不赤, 但淡紫紅者, 澀痛淚出, 是虛淚。

충풍누출(充風淚出)은 병증이 하나가 아니다. 신(腎)이 허(虛)하여 간목(肝木)을 생(生)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간경(肝經)이 풍(風)을 받아 허손(虛損)되므로 목(木)이 동하여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난다. 간경(肝經)이 허한 경우는 지루보간산(止淚補肝散)을 복용하여 그치게 한다. 대개 눈물을 멈추는 방법은 중약(重藥)을 점안하는 것이며, 열루(熱淚)인 경우는 천궁다조산(川芎茶調散)을 복용하고 청량산(淸涼散)을 점안하며, 간풍(肝風)의 경우는 창출(蒼朮)을 써서 그치게 한다. 붉지 않고 통증도 없으면 눈물이 나는 것은 풍루(風淚)라고 하고, 붓고 아프고 붉고 껄끄러우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열루(熱淚)이다.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겨울에 많고 여름에 적으며, 닦아도 다시 나오고, 또 계절을 가리지 않고 다 나타난다면 이것은 냉루(冷淚)이니, 냉루에는 유향천오환(乳香川烏丸)을 쓴다. 천오 1개, 초오 2개 껍질 벗긴 것, 명반 1돈, 백반 덩어리 1개를 가루로 만들어 6개월 된 돼지의 쓸개즙으로 환을 만드는데 기장 크기로 하여 한 번에 하나씩 먹는다. 잠자리에 들 때 눈구석 끝에 놓으면 눈물이 곧 그치며, 혹은 뜰을 떠도 그친다. 또한 폐(肺)가 오랫동안 냉(冷)한 경우가 있으니, 눈구석에 있는 구멍을 누당(淚堂)이라 하는데 누당은 폐부(肺腑)와 통하므로 이러한 눈물은 치료하기 어렵다.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혈기(血氣)가 허약한 사람으로서 붓거나 붉어지지 않고 단지 담자홍색을 띠는 경우에 껄끄럽고 아프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허루(虛淚)이다.

### 1.51.1. 灸法 | 뜸을 뜨는 법

久流冷淚, 灸上迎香<sup>107</sup>二穴, 天府二穴, 肝腧二穴, 第九骨開各對寸<sup>108</sup>.

냉루(冷淚)를 오랫동안 흘리면 상영향 2혈, 천부 2혈, 간수 2혈에 뜰을 뜨는데,  
간수는 9번 째 흉추 양쪽 1촌 반이다.

#### 1.51.1.1. 止淚補肝散 | 지루보간산

治肝虛迎風淚出不止. 宜灸睛明二穴, 系大毗 頭, 風池二穴, 臨泣二穴.

간(肝)이 허(虛)하여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서 멈추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정명 2혈(눈구석 끝 부근), 풍지 2혈, 임읍 2혈에 뜰을 뜯다.

蒺藜當歸熟地黃白芍藥川芎木賊防風夏枯草《血虛者不用》

질려, 당귀, 숙지황, 백작약, 청궁, 목적, 방풍, 하고초《혈이 허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

上各等分, 為末, 每服二三錢, 茶清送下.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로 만들어 매번 2~3돈씩 찻물로 삼킨다.

#### 1.51.1.2. 蒼朮散 | 창출산

治風濕傷肝, 濕淚昏花.

풍습(風濕)이 간(肝)을 상하여 습루(濕淚)가 있고 눈앞이 어른거리는 것을 치  
료한다.

蒼朮木賊香附米夏枯草蟬蛻甘草蒺藜白芷防風蔓荊子川芎僵蠶

창출, 목적, 향부미, 하고초, 선태, 감초, 질려, 백지, 방풍, 만형자, 천궁, 강잠.

上依各等分爲末. 每服二三錢, 茶清下, 酒亦可.

위의 약들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든다. 매번 2~3돈씩 찻물에 삼키며 술로 삼  
켜도 된다.

#### 1.51.1.3. 川芎茶調散 | 천궁다조산

治一切熱淚, 眼弦濕爛.

일체의 열루(熱淚)와 눈시울이 짓무르는 것(眼弦濕爛)을 치료한다.

川芎 防風 羌活 甘草 石決明 木賊 石膏《炒》 荊芥 菊花 薄荷葉

천궁, 방풍, 강활, 감초, 석결명, 목적, 석고《볶은 것》형개, 국화, 박하엽.

上各一兩爲末, 每服二三錢, 食後茶下.

위의 약들 각 1냥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3돈씩 식후에 찻물로 삼킨다.

---

105. 大 : 文義가 순조롭지 않으니 ‘夫’의 잘못이거나 脫字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106. 蒼朮 : 아래 조문에 역시 눈물을 멈추는 처방으로 蒼朮散이 나오는데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

107. 上迎香 : 本書에서 유래한 經外奇穴. 그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 비근골(nasal bone) 아래 오목한 곳, 콧방울 옆 도랑의 위쪽 끝에 해당한다고 정하였다. ←

108. 寸 : (集成) 鼎本에는 ‘寸半’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도 ‘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는 穴位 및 뒤에 나오는 「定發際並點各穴法則」에 따르면 ‘寸半’이 옳다. ←

1.52. 肝風積熱 | 간이 풍사를 맞아 열이 쌓인 것

# 熱 積 風 肝



肝風積熱者，肝家勞苦，七情鬱結，二三年間來來往往，一發一歇，遂生翳膜，或聚或散，赤澀淚出。此症多是夜勤燈光觀書史，或雕畫打銀細巧之人，久累肝家積熱成風，肝若受風，必有腦疼，不覺漸漸昏蒙。治法，有翳者吹以丹藥，內服瀉肝省風之劑，除肝家之風熱。忌口將息，一年半載，病根除矣。其洗眼照依疼痛腫澀，洗眼之方，載在前症條下。

간풍적열(肝風積熱)은 간이 피로하고 칠정(七情)이 울결되어 2~3년 동안 오락 가락하며 발병했다 멈추었다 하다가 마침내 예막(翳膜)이 생기니, 모여들었다 흩어졌다 하고 붉고 깔끄러우면서 눈물이 난다. 이 병증은 밤에 등불에 책을 보거나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은을 세공하는 것과 같이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흔한데, 오래되면 간에 열이 쌓여 풍이 되니, 간이 풍을 받으면 반드시 머릿속이 아프고 모르는 사이에 점차 흐릿해진다. 치료는 예(翳)가 있으면 단약(丹藥)을 불어넣고, 사간탕(瀉肝湯)이나 성풍탕(省風湯) 등을 복용하여 간(肝)의 풍열(風熱)을 제거한다. 음식을 주의하고 조섭하기를 1년이나 반년쯤 하면 병의 뿌리가 제거된다. 눈을 씻는 것은 통증, 붓기, 깔끄러운 정도에 따라 하니, 눈을 씻는 처방은 앞의 병증 조문 아래에 실려 있다.

問曰, 眼目連年歇發無時者, 何也. 答曰, 肝經積熱也. 經云肝勞則氣逆, 肝寧則氣順, 氣急則發, 氣順則歇. 治宜發時痛甚者服洗肝散, 省風湯之類, 常服此數方則能除此病也, 點用清涼散.

묻기를, “눈병이 몇 년 동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여 때가 없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간경(肝經)에 열이 쌓인 것이다. 경(經)에 이르길, 간이 고단하면 기(氣)가 거스르고 간이 편안하면 기가 순조로우니, 기가 급하면 발병하고 기가 순조로우면 멈춘다고 하였다. 치료는 증상이 발작할 때 통증이 심하면 세간산(洗肝散), 성풍탕(省風湯) 등을 복용하는데, 평상시에 이 몇 가지 처방들을 복용하면 능히 그 병을 제거할 수 있으며, 점안약으로는 청량산(清涼散)을 쓴다.”

### 1.52.1. 洗肝散 | 세간산

《方在天行赤眼症內》

《처방은 천행적목(天行赤眼) 조에 있다》

### 1.52.2. 瀉肝散 | 사간산

治肝經積熱.

간경(肝經)에 열이 쌓인 것을 치료한다.

黑參 大黃 黃芩 知母 桔梗 芒硝

흑삼, 대황, 황금, 지모, 길경, 망초.

上各等分爲末. 每服二三錢, 食後熱水調下, 日二次.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든다. 매번 2~3돈씩 식후 뜨거울 물에 타서 하루 2번 복용한다.

### 1.52.3. 省風湯 | 성풍탕

治肝熱大旺, 瞳人不清或細小, 宜服.

간열(肝熱)이 몹시 왕성한 것을 치료하니, 동공이 맑지 않거나 매우 작아진 경우 마땅히 복용한다.

防風 犀角 大黃 知母 玄參 黃芩 羚羊角《肝虛不用》桔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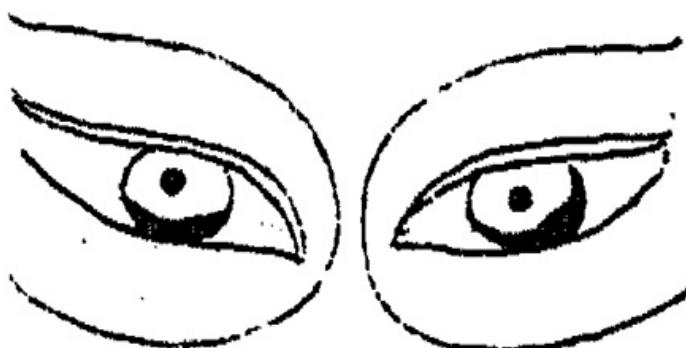
방풍, 서각, 대황, 지모, 현삼, 황금, 영양각《간이 허하면 쓰지 않는다》길경.

上爲末, 每服二錢, 水煎入燈心, 竹葉, 食後服.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을 등심, 죽엽을 넣은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1.53. 坐起生花 | 앉았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어른거리는 것

# 花 生 起 坐



坐起生花者，此是內障。此症肝血衰，肝腎二經虛也，六陽不舉，故久坐傷血，起則頭暈眼花，或前常見花發數般，或赤或黑或白，撩亂昏暗不明，良久乃定，瞳人開大不清。此症宜補肝腎，或明目固本丸。不治，患久，變爲青盲<sup>109</sup>內障，變爲五風，難治之症也。固本丸只生熟二地黃，天門二冬<sup>110</sup>，加人參也。

작기생화(坐起生花)는 내장(內障)이다. 이 병증은 간혈(肝血)이 쇠약하고 간(肝)과 신(腎)의 두 경맥(經脈)이 허(虛)한 것이라 육양(六陽)이 일어나지 못하니, 그러므로 오래 앉아 있어서 혈(血)을 상하여 일어서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앞이 어른거리며, 혹은 눈앞에 항상 온갖 꽃이 피어 보이는데 붉거나 검거나 희며, 요란하고 아득하여 선명하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면 안정되며, 동공이 산대(散大)되고 맑지 못하다. 이 증상은 간과 신을 보(補)해야 하니 명목고본환(明目固本丸)을 쓸 수 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병이 오래되면 변하여 청맹내장(青盲內障)이 되고 오풍(五風)이 되니, 치료하기 어려운 병증이다. 고본환은 바로 생지황、숙지황과 천문동、맥문동에 인삼을 더한 것이다.

問曰, 人之坐起, 眼前見花, 數般茫茫, 如蠅翅者, 何也? 答曰, 肝腎二經乏氣也. 經云  
肝腎之氣充則精彩光明, 肝經之氣乏則昏蒙眩暉. 治法, 宜補腎丸, 補肝重光散, 還  
精丸, 明目固本丸, 補腎明目丸, 隨人氣體虛實加減用之.

묻기를,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설 때에 눈앞에 꽃이 보이고 갖가지로 아른거려 마치 파리가 날아다니듯 하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간경(肝經)과 신경(腎經)의 기(氣)가 부족한 것이다. 경(經)에 이르길, 간신(肝腎)의 기가 충실하면 눈에 광채가 나고 밝으며, 간경(肝經)의 기가 부족하면 아득하고 어지럽다고 하였다. 치료는 보신환(補腎丸), 보간중광산(補肝重光散), 환정환(還精丸), 명목고본환(明目固本丸), 보신명목환(補腎明目丸)을 쓰는 것이 마땅하니, 그 사람의 기와 몸의 허실(虛實)에 따라 가감하여 쓴다.”

### 1.53.1. 补腎丸 | 보신환

治血氣虛弱, 變成內障宜服.

혈기(血氣)가 허약한 것을 치료하니, 변하여 내장(內障)을 이루면 마땅히 복용한다.

磁石《火煅 醋淬 七次, 水飛<sup>111</sup>過, 三兩》肉蓯 蓉《酒浸焙》五味子 熟地黃《酒蒸焙》  
枸杞子 菖 蘭絲子《洗淨, 酒浸蒸, 另研, 各二兩》楮實子 覆盆子《酒浸》車前子《酒浸》  
石斛《去根, 各二兩》沈香《另研, 五錢》黃柏《各二兩》青鹽《另研, 五錢》或加知母

자석《불에 달구고 식초에 담그기를 일곱 번 하고 수비(水飛)한 것, 3냥》육종  
용《술에 담근 뒤 불에 말린 것》오미자, 숙지황《술에 찐 뒤 불에 말린 것》구기  
자, 토사자《깨끗이 씻어서 술에 담갔다 찌고 별도로 간다, 각 2냥》저실자, 복  
분자《술에 담근 것》차전자《술에 담근 것》석곡《뿌리를 제거, 각 2냥》침향《별  
도로 간다, 5돈》황백《각 2냥》청염《별도로 간다, 5돈》. 지모를 더하기도 한다.

上煉蜜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五十丸, 空心鹽湯下.

위의 약들을 줄인 꿀로 환을 만드는데 벽오동 열매 크기로 한다. 매번 5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먹는다.

### 1.53.2. 补腎明目丸 | 보신명목환

治肝腎血虛, 視物不明, 諸眼服涼藥, 表裏愈後, 少神光.

간신(肝腎)의 혈(血)이 허(虛)하여 사물을 보는 것이 선명치 않으며, 눈병에 찬  
약(涼藥)을 복용해서 표리(表裏)가 나은 후에 신광(神光)이 줄어든 것을 치료  
한다.

羚羊角 生地黃 肉蓯 蓉 枸杞子 防風 草決明《各一兩》楮實子《五錢》干菊花 羌活  
當歸《各二兩》羊子肝《四兩, 烹焙》

영양각, 생지황, 육종용, 구기자, 방풍, 초결명《각 1냥》저실자《5돈》건국화,  
강활, 당귀《각 2냥》새끼양의 간《4냥, 삶아서 불에 말린 것》.

上爲末, 煉蜜丸, 如梧桐子大. 每服二十丸<sup>112</sup>, 空心鹽湯送下. 日午清茶下, 臨臥酒  
下, 不飲酒人參當歸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고 졸인 꿀로 환을 만들어 벽오동 열매 크기로 한다.  
매번 2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먹는다. 오후에는 찻물에 먹고 잠자리에  
들 때는 술에 먹는데,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삼과 당귀 달인 물로 먹는다.

### 1.53.3. 明目固本丸 | 명목고본환

治心熱, 腎水不足, 用少晴光. 久服生精清心.

심열(心熱)과 신수(腎水)의 부족을 치료하니 눈에 정광(精光)이 적은 것에 쓴다. 오래 복용하면 정(精)이 생기고 마음이 맑아진다.

生地黃 熟地黃 天門冬 麥門冬 枸杞子 干菊花

생지황, 숙지황, 천문동, 맥문동, 구기자, 건국화.

上各研 末, 煉蜜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三十丸, 空心鹽湯下.

위의 약들을 각각 가루로 만들고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3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먹는다.

109. 青盲 : 內障의 일종. 겉보기에 이상이 없으나 시력이 악화되다가 실명에 까지 이르게 되는 병증. ↪

110. 天門二冬 : 의미상 天門冬과 麥門冬을 함께 지칭하고 있으니 ‘門’은 ‘麥’의 誤字일 것이다. ↪

111. 水飛 : 炮製法의 하나. 물에 용해되지 않는 약재에 물을 넣고 함께 간 다음, 다량의 물을 넣고 흔들어 고운 입자만 걸러서 미세한 분말로 만드는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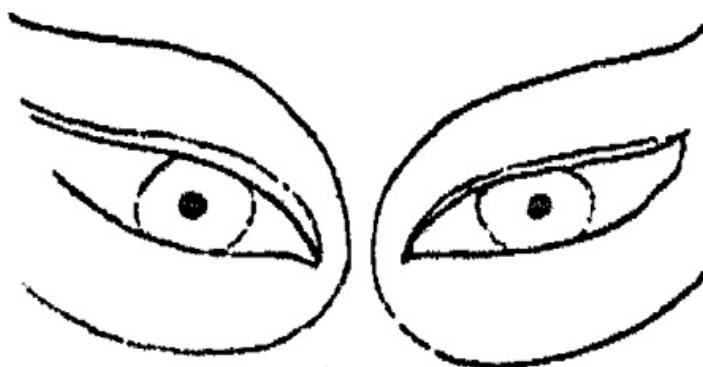
112. 二十丸 : (集成) 鼎本에는 ‘三十丸’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않았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어른거리는 것 坐起生花

---

1.54. 黃昏不見 | 저녁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見 不 昏 黃



人之兩目，至日落西之時，漸漸不見，亦系內障，俗謂之雞蒙眼也。此乃腎之虛也，眼雖屬於竅門，乃歸腎而爲主，腎虛則眼目昏。或貪淫樂欲，酒色過度，使腎臟衰憊，稟受天眞不全，精神短少，致瞳人神腎水不清，故目之無光也。治之須有還睛補腎，看人老少虛實，斟酌藥餌以平之，飲食以補之，戒色斷怒，使會陰水，自然明矣。

사람의 두 눈이 해가 서쪽으로 지는 때가 되면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은 역시 내장(內障)과 관련되니 세간에서 ‘계몽안(鷄蒙眼)’이라 한다. 이는 신(腎)이 허(虛)한 것인데, 눈은 비록 밖으로 난 구멍에 속하나 신(腎)에 귀속되어 주인으

로 삼으니 신이 허하면 눈이 어둡다. 혹 방탕한 것을 탐하여 욕심껏 즐기며 주색이 과도하여 신장(腎臟)을 쇠하고 고달프게 하거나, 타고난 천진(天眞)이 온전치 못하여 정(精)과 신(神)이 부족하면 동공의 신기(神氣)와 신수(腎水)가 맑지 못하므로 눈에 빛이 없다. 치료는 모름지기 환정보신환(還睛補腎丸)을 쓰는데, 사람의 노소(老小)와 허실(虛實)을 살펴서 알맞게 약을 조절해 복용하여 안정시키고, 음식으로 몸을 보하며, 색욕을 경계하고 분노를 자제하여서 음수(陰水)가 모이게 하면 자연히 눈이 밝아진다.

#### 1.54.1. 還精補腎丸 | 환정보신환

治內障. 《方在目暗生花症內》

내장(內障)을 치료한다. 《처방은 목암생화(目暗生花) 조에 있다》

#### 1.54.2. 补腎明目丸 | 보신명목환

治諸內障, 欲變五風, 變化視物不明.

모든 내장(內障)에 오풍(五風)으로 변하려 하고 물체를 보는 것이 선명하지 않게 된 것을 치료한다.

川芎 當歸 熟地黃 菊花 山藥 知母 石菖蒲 黃柏 青鹽 遠志 白蒺藜 川巴戟 五味子  
白芍藥 桑螵蛸 菖 蔚子 菴 絲子 青葙 子 密蒙花 枸杞子 肉蓴 蓿 石決明

천궁, 당귀, 숙지황, 국화, 산약, 지모, 석창포, 황백, 청염, 원지, 백질려, 천파극, 오미자, 백작약, 상표초, 충울자, 토사자, 청상자, 밀몽화, 구기자, 육종용, 석결명.

上爲末, 煉蜜爲丸, 如梧桐子大. 每服四十九丸, 空心鹽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환을 만드는데 벽오동 열매 크기로 한다. 매번 4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먹는다.

### 1.54.3. 十味還睛丸 | 십미환정환

治下元虛憊, 一切內障.

하원(下元)이 허쇠(虛衰)한 일체의 내장(內障)을 치료한다.

防風 羌活 密蒙花 靑葙 子 川芎 蔺 藜 甘草 白朮 木賊 菟 絲子《酒浸三宿, 生用焙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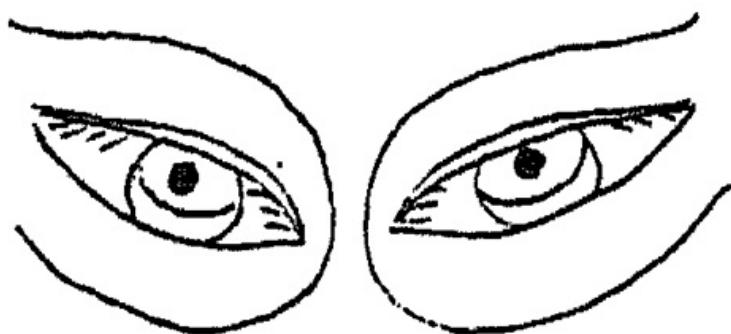
방풍, 강활, 밀몽화, 청상자, 천궁, 질려, 감초, 백출, 목적, 토사자《술에 3일간 담가 묵히거나 생것을 불에 말린 것》

上爲末, 煉蜜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二十九丸, 空心鹽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고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2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먹는다.

1.55. 瞳人乾缺 | 동공이 말라 오그라드는 것

# 缺 乾 人 瞳



瞳人乾缺者，亦系內障，與外障無預，但因頭疼痛而起，故列外障條中。按此症因夜臥不得。肝藏魂，肺藏魄，魂魄不安，精神不定而少臥，勞傷於肝，故金井不圓，上下東西如鋸齒，【+++偏】<sup>113</sup>缺參差。久則漸漸細小，視物蒙蒙，難辨人物，相牽俱損。治法，宜瀉肝補腎之劑。一本無眦 鴻飛內有，腎肝俱虛，火旺也。用豬肝煮熟，露宿侵晨切薄，蘸夜明沙<sup>114</sup>細嚼，此藥能通明益膽之功。瞳人小者肝之實，瞳人大者肝之

虛、此症失於醫治，久久瞳多鎖緊，如小針眼大，內結有雲翳，或黃或青或白，陰看不大，陽看不小，遂成瞽疾耳。初起時眼珠墜痛，大眦微紅，猶見三光<sup>115</sup>者，治宜服五瀉湯，省風湯同補腎丸，及補腎明目丸。久服效，方俱在前。

동인건결(瞳人乾缺)은 역시 내장(內障)과 연관되고 외장(外障)과는 관련이 없으나, 다만 두통에 이어서 일어나므로 외장의 조문 중에 열거한다. 생각건대 이 병증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간(肝)은 혼(魂)을 갈무리하고 폐(肺)는 백(魄)을 갈무리하는데, 혼백이 불안하면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여 잠이 줄고 간이 고달프고 상하니, 그러므로 눈동자가 둥글지 못하고 상하와 양옆으로 톱날처럼 되며 치우치고 짜그러져 들쭉날쭉하다. 오래되면 점차 작아지고 물체를 보는 것이 흐릿하며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고 양쪽 눈이 모두 상한다. 치료는 간을 사(瀉)하고 신(腎)을 보(補)하는 약이 마땅하다. 어떤 책에는 ‘눈초리가 없어지고 눈동자 안에 기러기가 나는 모양이 있다’고 하였는데, 신과 간이 모두 허(虛)하고 화(火)가 치성한 것이다. 돼지 간을 끓 삶아서 밤새 밖에 두었다가, 새벽에 얇게 저미고 야명사(夜明沙)에 무쳐서 잘게 씹어 먹으니, 이 약은 눈을 밝게 하고 담(膽)을 보하는 효과가 있다. 동공이 작은 것은 간이 실한 것이고 동공이 벌어진 것은 간이 허한 것이다. 이 증상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래 지나면 눈동자가 바짝 오므라들어서 작은 바늘귀만 하고 안으로 맺혀서 운예(雲翳)가 생겨 누렇거나 푸르거나 희니, 어두운 곳을 볼 때 (동공이) 커지지 않고 밝은 곳을 볼 때 작아지지 않다가 마침내 장님이 된다. 초기에 때때로 눈알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눈구석이 약간 붉은데 아직 삼광(三光)은 볼 수 있으면 오사탕(五瀉湯)을 복용하거나, 성풍탕(省風湯)과 보신환(補腎丸)을 함께 복용하거나, 또는 보신명목환(補腎明目丸)을 복용한다. 오래 복용하면 효과가 있으며, 처방은 모두 앞에 있다.

### 1.55.1. 五瀉湯 | 오사탕

治瞳人乾缺火旺，及五臟虛火旺動，此藥能瀉火。

동공이 찌그러지고 화(火)가 치성한 것 및 오장(五臟)의 허화(虛火)가 크게 동하는 것을 치료하니, 이 약으로 능히 화를 사(瀉)할 수 있다.

黃柏 知母 木通 桔子 生地黃 甘草 黑參 桔梗 黃芩 防風 熱甚加羚羊角, 犀角, 黃連.

황백, 지모, 목통, 치자, 생지황, 감초, 흑삼, 길경, 황금, 방풍. 열이 심하면 영양각, 서각, 황련을 더한다.

上咬 咀, 每服六七錢, 用水煎, 食後服.

위의 약들을 썰어 매번 6~7돈씩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

113. 【+++徧】: 四庫全書本에는 ‘匾’으로 되어있다. ↪

114. 夜明沙 : 박쥐의 똥. ↪

115. 三光 : 해, 달, 북두칠성을 말하니, ‘三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시력이 많아 떨어졌으나 빛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

1.56. 癢 極難忍 | 가려움이 심하여 참을 수 없는 것

# 忍 難 極 痒



癢 極難忍者，肝經受熱，膽因虛熱，風邪攻充。肝含熱極，肝受風之燥動<sup>116</sup>，木搖風動，其癢發焉。故諸癢屬虛，虛則癢，諸痛為實，實則痛。有黑珠癢者，有眼弦癢者，點以丹藥，或煨薑摩擦，淚通癢止。或濕癢用碧天丹洗，侵晨洗以鹽湯，或入桑白皮，防風，荊芥，薄荷之類。

양극난인(癢 極難忍)은 간경(肝經)이 열을 받고 담(膽)의 허열(虛熱)로 인하여 풍사(風邪)가 공격하는 것이다. 간이 열을 품은 것이 극성하여 간이 풍(風)의 조동(燥動)을 받으면 목(木)이 흔들리고 풍이 동하여 가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모든 가려움은 허증(虛證)에 속하여 허하면 가렵고, 모든 통증은 실증(實證)에 속하여 실하면 아프다. 검은자위가 가려운 경우가 있고 눈초리가 가려운 경우가 있는데, 단약(丹藥)을 눈에 넣거나 구운 생강으로 마찰하면 눈물이 나오면서 가려움이 멈춘다. 혹 짓무르면서 가려우면 벽천단(碧天丹)으로 씻고, 이른 새벽에 소금 끓인 물로 씻으며 상백피, 방풍, 형개, 박하 등을 넣기도 한다.

問曰, 眼迎風受癢 者, 何也. 答曰, 肝肺<sup>117</sup>二經受風邪也. 治法, 癢 時用三霜丸, 撥雲散, 棉裹 散, 洗用去風藥.

묻기를, “눈이 바람을 맞았을 때 가려운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경(肝經)과 폐경(肺經)이 풍사(風邪)를 받은 것이다. 치료는 가려울 때에 삼상환(三霜丸), 발운산(撥雲散), 면과산(棉裹 散)을 쓰며 거풍(去風)하는 약으로 눈을 씻는다.”

### 1.56.1. 三霜丸 | 삼상환

治癢 極難忍, 用此丸即 愈.

가려움이 심하여 참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하니, 이 환약을 쓰면 곧 낫는다.

薑粉 枯礬 白硼砂

강분, 고반, 백봉사.

上爲末, 口津液調和如粟大, 要用時將一丸, 放於大眦 止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고 침에 개어 졸쌀 크기로 빗었다가 필요할 때 1알을 눈구석에 놓으면 그친다.

## 1.56.2. 散 | 면과산 棉裹

治眼濕淚爛弦眼目.

눈이 습하고 눈물이 나며 눈시울이 짓무른 것을 치료한다.

當歸 黃連《各一錢》**銅青**<sup>118</sup>《七分》枯礬《四分》朴硝

당귀, 황련《각 1돈》동청《7푼》고반《4푼》박초.

上各爲細末, 用細絹包綿縛緊, 每一個約龍眼核大. 要用時將一個用白湯半盞泡洗,  
一日二次.

위의 약물들을 각각 곱게 갈고 명주에 싸고 단단히 묶는데 각각을 용안(龍眼)  
의 씨 크기로 만든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을 끓인 맹물 반잔에 우려서 하루  
에 두 번 씻는다.

---

<sup>116</sup>. 燥動 : 四庫全書本도 이와 같으나, 혹 ‘躁動’일 수도 있겠다. ↪

<sup>117</sup>. 肝肺 : (集成) 鼎本에는 ‘肝膽’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는  
‘脾肝’으로 되어 있다. ↪

<sup>118</sup>. 銅青 : 구리에 슨 녹. ↪

### 1.57. 眼內風癢 | 눈에 바람이 들면 가려운 것

問曰, 人之患眼, 遇風癢 極者, 何也. 答曰, 此因肝虛, 合畜風熱, 膽經風毒, 上充入眼, 遂遇風受癢. 宜剷洗, 服藁本烏蛇湯, 補膽湯.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바람을 맞으면 가려움이 심한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간(肝)이 허(虛)하기 때문이니, 풍열(風熱)이 쌓이고 담경(膽經)에 풍독(風毒)이 있어서 위로 공격하여 눈으로 들어가면 마침내 바람을 맞을 때 가렵게 된다. 살짝 찌른 뒤 씻어내고 고본오사탕(藁本烏蛇湯), 보담탕(補膽湯)을 복용해야 한다.”

#### 1.57.1. 藉本烏蛇湯 | 고본오사탕

藁本 烏蛇 防風 羌活 白芍藥 川芎 細辛

고본, 오사, 방풍, 강활, 백작약, 천궁, 세신.

上浸酒, 煎服亦可.

이상을 술에 담그며, 달여서 복용해도 된다.

#### 1.57.2. 補膽湯 | 보담탕

前胡 馬兜鈴 茯苓 《各一兩》 柴胡 人參 桔梗 細辛 黑參

전호, 마두령, 복령《각 1냥》시호, 인삼, 길경, 세신, 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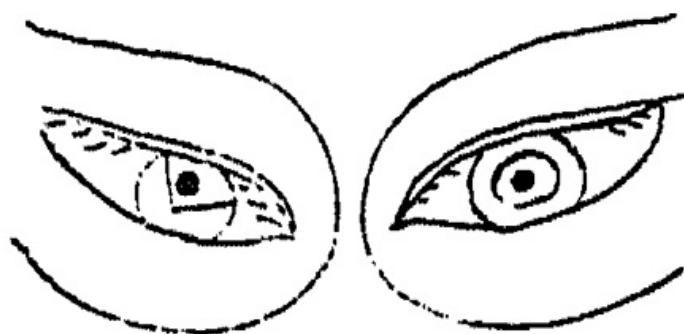
上煉蜜爲丸, 每服三錢. 水煎服亦可.

위의 약들을 졸인 꿀로 환을 만든다. 매번 3돈씩 물에 달여 복용해도 된다.



1.58. 垂簾翳 | 발을 드리운 모양의 예막

# 痒 風 內 眼



問曰，人之患眼生翳，如珠垂簾，遮睛者，何也。答曰，此因心火虛炎，肝經風熱，上攻入腦中，熱毒流下，注於風輪，故眼赤澀淚出，腫疼無時，年久烏睛白紅色，故名曰垂簾翳。宜服洗心散，加味修肝散。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아 예(翳)가 생겼는데 구슬을 꿰어 만든 발 모양으로 눈동자를 가린 경우는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심(心)의 허화(虛火)가 타오르고 간경(肝經)에 풍열(風熱)이 있어서, 뇌를 공격하고 열독(熱毒)이 흘러내려 풍륜(風輪)에 들어가므로 눈이 붉고 깔끄러우며 눈물이 나고 수시로 붓고 아픈데, 오래되면 검은자위가 흰색이나 붉은색을 띠니, 이름을 수렴예(垂簾翳)라 한다. 마땅히 세심산(洗心散), 가미수간산(加味修肝散)을 복용해야 한다.”

### 1.58.1. 洗心散 | 세심산

荆芥 薄荷 連翹 麻黃 赤芍藥 桔子 黃連 大黃《各一兩》

형개, 박하, 연교, 마황, 적작약, 치자, 황련, 대황《각 1냥》

上每服五錢, 水煎服.

위의 약들을 매번 5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58.2. 加味修肝散 | 가미세간산

梔子 薄荷《各三兩》羌活《一兩》當歸 大黃 連翹《各五錢》黃芩 赤芍藥 菊花 木賊  
白蒺藜 川芎《各一兩》麻黃 甘草

치자, 박하《각 3냥》강활《1냥》당귀, 대황, 연교《각 5돈》황금, 적작약, 국화,  
목적, 백질려, 천궁《각 1냥》마황, 감초.

上爲末, 每服三錢, 用酒調下. 痛用酒, 不痛水煎服.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술에 타서 먹는다. 통증이 있으면 술을  
쓰고 통증이 없으면 물에 달여 복용한다.



1.59. 鶲 眼凝睛 | 송골매의 눈처럼 되고 눈알을 굴리지 못하는 것

翳 簾 垂



鶲 眼凝睛，此驟然所感，非久患之症。因五臟皆受熱毒，致五輪振起，堅硬不能轉運，氣血凝滯，睜然如鶲鳥之眼，凝視不運之貌，難辨人物，因形而名曰鶲 眼凝睛，治法，宜用香油調薑粉汁，於額臉部摩擦及面上，或摩風膏摩擦更好。服以酒煎散，以被蓋出汗，其眼即活動，面面用燈火燒之，斷其風路。此症多是小兒急慢驚風之症，大人少有此患。

골안응정(鶲 眼凝睛)은 급성으로 감수(感受)하는 것이지 오래 앓는 병증이 아니다. 오장(五臟)이 모두 열독(熱毒)을 받아 오륜(五輪)이 튀어나오고 단단히 굳어 돌지 못하는데, 기혈(氣血)이 응체되어 눈을 부릅뜬 것이 마치 송골매의 눈이 한 곳을 응시하여 돌리지 않는 모습과 같으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 형태로 인해 골안응정이라 부른다. 치료는 향유(香油)에 생강가루와 즙을 타서 이마와 눈꺼풀에서 얼굴까지 마찰하며, 또는 마풍고(摩風膏)로 마찰하면 더욱 좋다. 주전산(酒煎散)을 복용하고 이불을 덮어 땀을 내면 눈이 곧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사방에 등불을 켜서 찢어주고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 병증은 소아의 급경풍(急驚風)과 만경풍(慢驚風)의 증에 많고 성인은 이 병이 적다.

### 1.59.1. 酒調散 | 상표초주조산 桑螵蛸

《方在前暴風客熱內》眼障初服.

《처방은 앞의 폭풍객열(暴風客熱) 조에 있다》 눈에 예장(翳 障)이 생긴 초기에 복용한다.

### 1.59.2. 導痰消風散 | 도담소풍산

陳皮 半夏 甘草 白芷 全蠍 羌活 防風 荆芥 升麻 細辛 蘆薈<sup>119</sup>

진피, 반하, 감초, 백지, 전갈, 강활, 방풍, 형개, 승마, 세신, 노회.

上咬 咂, 各等分, 水煎, 薑三片, 溫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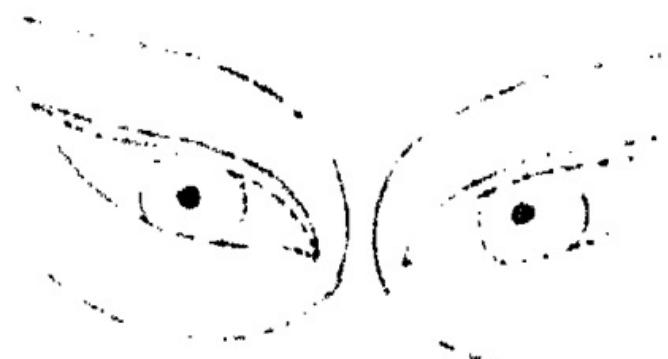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썰어 같은 분량씩 물에 달이는데 생강 3쪽을 넣고, 따뜻하게 먹는다.

<sup>119</sup>. 薈 :〔集成〕鼎本에는 ‘香’으로 되어 있다.〔역주〕四庫全書本도 鼎本과

| 같다. ↵

1.60. 輓驢 展開<sup>120</sup> | 눈동자가 퍼지는 것

睛 涙 眼 骨



輥驢 展開者，與鶲 眼凝睛症同。鶲 眼凝睛者，睛凝不運之貌，輥驢 展開而大者，此膽腎之水散焉。瞳人之大小，隨黃仁之展縮，黃仁展則瞳人小，黃仁縮則瞳人大，人不知瞳人能大小者非也。此乃肝受風而不展輥驢，則瞳人圜 圜也，隨肝輪而縮，覺見瞳人大不收，號曰輥驢 展開症。風充入腦，眼帶弔起，此症小兒急慢驚風受之。治法同前，薑汁調香油摩風膏摩擦，藥用蚌殼頻頻灌下，乳母忌口。

녹로전개(輻驢 展開)는 골안응정증(骷 眼凝睛症)과 같다. 골안응정은 눈동자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이고, 녹로전개는 담(膽)과 신(腎)의 수(水)가 흘어진 것이다.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황인(黃仁)이 펼쳐지고 수축되는 것을 따르니, 황인이 펼쳐지면 동공은 작아지고 황인이 오므라들면 동공은 커지는데, 사람들은 동공이 스스로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는 간(肝)이 풍(風)을 받아 녹로(輻驢) 즉 동공을 둘러싼 등근부분을 주관하지 못하여 녹로가 간륜(肝輪)을 따라 오므라들므로 동공이 커진 채로 수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름을 녹로전개증이라 부른다. 풍(風)이 뇌(腦)로 들어가면 눈을 치뜨게 되는데 이 증상은 소아의 급경풍(急驚風)과 만경풍(慢驚風)에서 생긴다. 치법은 앞과 동일하여, 생강즙을 향유(香油)에 탄 것이나 마풍고(摩風膏)로 마찰하고, 약은 방합(蚌蛤) 껌데기를 자주 먹이며, 유모는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問曰, 瞳人開大, 眼不收而展縮者, 何也. 答曰, 肝受風, 痰盛也. 治法, 僻巽錠子, 牛黃丸, 石楠散, 初起者宜發表. 小兒如患此, 治法亦同.

문기를, “동공이 크게 벌어져서 오므라들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肝)이 풍(風)을 받아서 담(痰)이 성한 것이다. 치료는 벽손정자(僻巽錠子), 우황환(牛黃丸), 석남산(石楠散)을 사용하고, 초기에는 마땅히 발표(發表)시켜야 한다. 소아가 이 병을 앓을 때에도 치법은 역시 같다.”

### 1.60.1. 僻巽錠子 | 벽손정자

治肝膽受風, 變成前症, 小兒通睛, 瞳人闊大, 並 皆治之.

간담(肝膽)이 풍(風)을 받아서 앞의 증상으로 변한 것, 소아의 통정(通睛), 동공이 산대된 것을 모두 치료한다.

牛膽南星《七錢》防風 乾薑《各三錢》白附子《五錢》牛黃《三分》川烏 白芷 薄荷 木香 白朮 白茯苓 人參《各五錢》朱砂《一錢》麝香《五分》白僵 蟲《二十個, 生用》片腦《五分》

우담남성《7돈》방풍, 건강《각 3돈》백부자《5돈》우황《3푼》천오, 백지, 박하, 목향, 백출, 백복령, 인삼《각5돈》주사《1돈》사향《5푼》백강잠《20개, 생것을 쓴다》편뇌《5푼》.

上將前藥俱研爲細末. 冬用蜜二斤, 甘草半斤, 煎作膏, 稀稠得宜. 將次藥末和作錠子, 金箔爲衣. 小兒急慢驚風, 手足搐搦, 金銀箔磨湯化下一錠, 大人破傷風, 酒化下三四錠子, 約一錢一個, 或七分一個. 夏用 121 麻黃一斤, 甘草半斤, 用水三四碗, 砂鍋內煎至一鐘之時, 入蜜一斤, 緩緩熬煉, 滴水內成珠, 方將前藥搜和爲丸, 即作錠子也.

먼저 앞의 약들을 함께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겨울에는 꿀 2근과 감초 반근을 달여 고(膏)를 만드는데, 묽고 된 정도를 적당히 한다. 다음으로 가루 낸 약들과 섞어 정자(錠子)로 만들고 금박을 입힌다. 소아가 급경풍(急驚風)과 만경풍(慢驚風)으로 손발에 경련이 있을 때는 금박과 은박을 갈아 넣은 물에 1알을 먹고, 성인의 파상풍에는 술에 3~4알을 먹는데, 대략 1돈이 1알이거나 혹은 7푼이 1알이 된다. 여름에는 마황 1근, 감초 반근을 물 3~4사발과 함께 사기그릇에 넣고 물이 한 종지가 될 때까지 달인 뒤 꿀 1근을 넣고 천천히 졸이다가 물속에 떨어뜨려 보아 구슬모양이 되면 비로소 앞의 약들을 섞어서 환으로 만드니, 즉 정(錠)을 만드는 것이다.

### 1.60.2. 牛黃丸 | 우황환

能去風痰.

풍담(風痰)을 제거한다.

牛黃《二分》白附子 全蠍 肉桂 川芎 石膏《各一兩》白芷《三分》藿香《五錢》麝香《少許》朱砂《二錢》

우황《2푼》백부자, 전갈, 육계, 천궁, 석고《각 1냥》백지《3푼》곽향《5돈》사향《조금》주사《2돈》.

上爲細末, 煉蜜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二三丸, 臨臥薄荷湯下.

위의 약들을 곱게 갈아서 줄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2~3 알씩을 잠자리에 들 때 박하 달인 물로 삼킨다.

### 1.60.3. 通頂石楠散 | 통정석남산

能利膈開風痰.

막힌 것을 원활하게 하고 풍담(風痰)을 없앤다.

石楠藤 藜蘆《各一兩》瓜蒂《七分》

석남등, 여로《각 1냥》과체《7푼》.

上爲末, 米湯下一匙, 日一二度, 灌入口內, 去風痰.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승능에 한 숟가락 넣어서 하루에 1~2번 입에 넣어 주면 풍담이 제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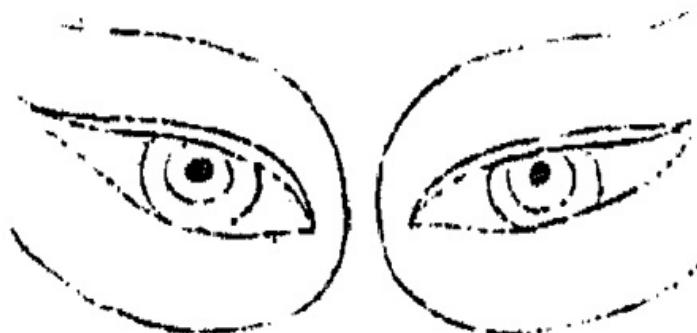
120. 輻軸 展開 : 본문의 내용은 이 병증을 瞳人散大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與鶲 眼凝睛症同’, ‘風充入腦, 眼帶弔起, 此症小兒急慢驚風受之’라 한 것은 이와 다른 증상으로, 눈을 치뜨거나 한 곳을 응시한 채 돌리지 못하는 것이니 『秘傳眼科龍木論』에 나오는 輻軸 轉關外障과 일치한다. 『普濟方』 등의 다른 의서에서도 輻軸 轉關外障에 대하여 ‘肝臟極熱, 風熱入腦, 致令眼帶弔起’라 한 것을 보면 이는 명백히 ‘展開’가 아닌 ‘轉關’에 대한 말이다. ‘輻軸 展開’라

는 명칭은 本書 외에 찾아볼 수 없고 그 설명에 瞳人散大와 不轉에 대한 내용이 뒤섞여 있으니, 本書의 성립 과정에서 병명이 詭傳된 후 瞳人散大에 대한 내용을 덧붙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sup>121</sup>. 夏用 :〔集成〕鼎本에는 ‘舉此’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1.61. 小兒通睛 | 소아의 눈병에 황인과 동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

開 展 轢 輸



小兒通睛，與鶴眼凝睛，輢転展開，此三症頗同。然此症或因外物打着頭顱，或被諸般人物驚心，遂成驚風之症。風熱傷肝，魂不應目，風邪上壅，黃仁不成關鎖，瞳人開，惟直視不辨人物，致眼通睛。通者黃仁水輪皆黑，似無黃仁，瞳人水散，似無瞳人，此黃仁與瞳人通混不分，號曰通瞳。亦風藥摩擦二法<sup>122</sup>，發散風邪，宜服牛黃丸，不須點藥，只服藥。然前症牛黃丸，通頂石楠散，亦可用也。

소아통정(小兒通睛), 골안응정(鶴眼凝睛), 녹로전개(輶轄展開) 이 세 병증은 거의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병증은 물건에 머리를 맞았거나 혹은 갖가지 사람이나 물건에 놀라서 마침내 경풍(驚風)을 이룬 것이다. 풍열(風熱)이 간(肝)을 상하면 혼(魂)이 눈에 응하지 못하고 풍사(風邪)가 상부를 막으니, 황인(黃仁)이 문빗장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동공이 벌어지고, 단지 앞만 바라볼 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눈이 온통 하나의 눈자위로 보이게(通睛) 된다. ‘通’이란 황인과 수륜(水輪)이 모두 검어서 마치 황인이 없는 것 같고, 동인(瞳人)의 수(水)가 흘어져 마치 동공이 없는 것 같으니, 이에 황인과 동공이 함께 섞여 나님이 없으므로 통정이라 부른다. 역시 풍약(風藥)으로 마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풍사를 발산시키고 우황환(牛黃丸)을 복용하며, 점안하는 약은 쓰지 않고 먹는 약만 쓴다. 앞선 증상에 사용한 우황환, 통정석남산(通頂石楠散) 또한 사용할 수 있다.

### 1.61.1. 牛黃丸, 通頂石楠散 | 우황환, 통정석남산

《二方俱在前症條下》

《처방은 모두 앞 증상의 조문 아래 있다》

#### 1.61.1.1. 五七犀角飲 | 오칠서각음

犀角 人參 茯苓 甘草 遠志《各一兩》麝香《少許》龍膽草 黃芩《各五錢》

서각, 인삼, 복령, 감초, 원지《각 1냥》사향《조금》용담초, 황금《각5돈》.

上㕮咀, 水煎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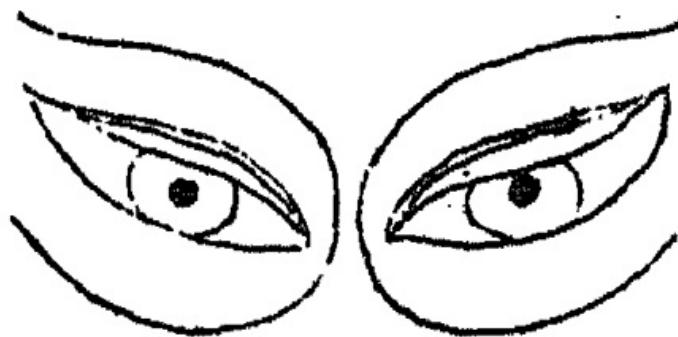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썰어서 물에 달여 복용한다.

122. 風藥摩擦二法 : 鶴眼凝睛과 輶轄展開 조에 보인다. ←



1.62. 小兒疹痘 | 소아의 두진(痘疹)

# 小兒疹痘



小兒疹痘者，名爲百歲瘡也，不論大小俱患一度。疹痘入眼，疹有兩分，痘瘡初上皮膚之際，眼閉不開，眼上即有痘瘡，點在黑睛上，易治，急取益母草煎湯熏洗，日三度，更以陰一陽五丹調鱠魚血點，忌口及夜啼，乳母亦忌口。須疹痘痊可，其眼漸開，眼中之痘亦隨而痊矣。又有一症，痘疹之後瘡癰落盡，肌體肥壯，眼中忽然紅澀，此乃餘毒鬱結於肝而發出，此症十分利害，失治多能害目。只用車前草擂水頻與飲下，洗却肝經之熱毒，洗以益母草，點以鱠魚血調藥。經曰，疹痘之後，毒氣鬱結於肝而氣不能泄，攻發於眼，傷於瞳人者，素無治法也。<sup>123</sup>

소아진두(小兒疹痘)는 이름을 백세창(百歲瘡)이라 하는 것이니, 나이에 상관 없이 한 번은 앓게 된다. 진두(疹痘)가 눈에 들어가는데 진(疹)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창(痘瘡)이 처음 피부에 돋아날 때 눈을 감은 채 뜨지 않으며 바로 눈 위에 두창이 있고 검은자위에도 흘어져 있는 것은 쉽게 치료되니, 급히 익모초를 달여 하루 3번 김을 씌고, 다시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1:5로 배합한 약을 드렁허리의 피에 타서 점안하며, 먹는 것과 밤에 우는 것을 조심하고 유모 역시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진두가 나으면 눈이 점차 떠지고 눈 속에 있던 두창도 따라서 낫는다. 또 하나의 병증은 두진(痘疹)을 앓은 후 딱지가 다 떨어졌으며 살지고 건장한데 눈 속이 갑자기 붉고 깔끄러워지니, 이는 남은 독이 간(肝)에 울결되었다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이 병증은 매우 위험하니 치료를 못 하면 눈을 상하는 경우가 많다. 차전초를 갈아서 나온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눈을 씻어 간경(肝經)의 열독을 물리치는데, 씻는 것은 익모초로 하고 드렁허리의 피에 약을 섞어 점안한다. 경(經)에 말하기를 진두(疹痘)를 앓은 후에 독기가 간(肝)에 울결되고 기(氣)가 배설되지 못하면 눈을 공격하니 동공을 상한 경우는 본래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問曰, 小兒此症入眼者, 何也. 答曰, 小兒痘瘡之發, 五臟皆熱毒之氣壅塞停留, 热氣在肝膈充入眼, 使疼痛淚出, 怕日羞明難開, 遂生瘡於眼內, 久發變爲白膜. 初覺瘡入眼中赤澀之時, 急將藥泄其毒, 外以退翳之藥, 若不能爲, 終身之患也. 先將秦皮湯洗目眼, 紅花退翳散服之效.

묻기를, “소아의 이러한 병증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소아에게 두창(痘瘡)이 생기면 오장(五臟)에 모두 열독(熱毒)의 기(氣)가 막혀 있으니, 열기가 간격(肝膈)에 있다가 눈으로 들어가서 아프고 눈물이 나며 눈이 부셔 핫빛을 꺼리고 눈을 뜨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눈 속에 창(瘡)이 생기며, 오래되면 흰 막으로 변한다. 처음 창이 눈 속에 들어가 붉고 깔깔한 것을 느낄 때에 급히 약으로 그 독을 빼내고, 예(翳)를 물리치는 약을 외용(外用)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의 우환이 된다. 먼저 진피탕(秦皮湯)으로 눈을 씻고 홍화퇴예산(紅花退翳散)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 1.62.1. 秦皮湯 | 진피탕

洗眼.

| 눈을 씻는다.

秦皮 秦艽 防風 細辛《各兩》甘草《一錢》

| 진피, 진교, 방풍, 세신《각 1냥》감초《1돈》

上將水二盞, 煎至一半, 热洗.

| 위의 약들을 물 2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뜨거울 때 씻는다.

### 1.62.2. 紅花散 | 흥화산

紅花 連翹 當歸 生地黃 紫草 大黃 甘草 赤芍藥

| 흥화, 연교, 당귀, 생지황, 자초, 대황, 감초, 적작약.

上燈心竹葉水煎服.

| 위의 약들에 등심, 죽엽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62.3. 退翳 散 | 퇴예산

即豬 肝散.

| 즉 저간산(豬 肝散)이다.

眞蛤粉 穀精草 夜明砂

| 진합분, 곡정초, 야명사.

上爲細末, 用豬 肝二兩切開, 摻 藥於內, 以麻扎 定煮, 水冷, 將肝同藥細嚼, 煮肝本  
汁嚥. 諸般毒物莫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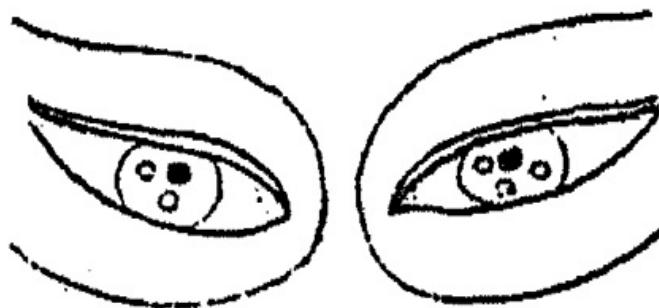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곱게 갈아 돼지의 간 2냥을 절개하여 약을 그 속에 끼워 넣고, 삼  
끈으로 묶어 고정하여 삶으니, 삶은 물이 식으면 간과 약을 함께 잘게 씹어서  
간을 삶은 물로 삼킨다. 독성이 있는 음식은 모두 먹지 말라.

---

123. 經曰.....素無治法也 : ‘經曰’이라 하였으나 다른 醫書에는 보이지 않고,  
本書 앞부분의 「五輪八廓總論」에 이 말이 나온다. [←](#)

1.63. 小兒眼生翳 | 소아의 눈에 예가 생긴 것

# 痘 痘 兒 小



小兒眼生翳者，脾胃實熱所致，或是胎中受毒，或因乳母好食熱物，皆能令小兒患眼。量兒之大小，疾之遠近輕重，一周半載者，其藥須令母吃，或蛤殼灌入小兒吃可也。二三歲者，此是胎毒也。離母之後患眼者，此是小兒自受之症，與母無預。此藥須令小兒吃，忌以油膩 煎炒糖甜 果子之類，不獨患眼所忌，不忌多生驚症，變爲疳傷，亦能害目，甚至不治之症。其疳眼別有餘條款，此乃小兒生翳症也，黑睛如麻豆<sup>124</sup>，大如蘿卜花，與疳眼大不侔矣。一倍三黃丹一倍珍珠散點用。

소아안생예(小兒眼生翳)는 비위(脾胃)의 실열(實熱)에 의한 것이니, 태중(胎中)에서 독을 받았거나 유모가 성질이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모두 소아의 눈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아이의 연령, 병을 앓은 기간과 경증을 따져서, 1년이나 반년까지의 아이는 약을 유모에게 먹이며, 조개껍질 가루를 아이 입에 넣어주 어 먹이는 것도 좋다. 2~3세가 된 경우 이는 태독(胎毒)이다. 모유를 떼고 나서 눈병을 앓는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얻은 병이니 어미와는 무관하다. 이런 경우 약은 아이가 먹어야 하고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은 것, 단 과자 등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눈병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니, 주의하지 않으면 경증(驚症)이 생기기 쉽고 감상(疳傷)으로 변하며 또한 눈에 해를 입혀 심하면 불치증이 된다. 감안(疳眼)은 별도로 다른 조문이 있고, 여기서의 소아생예증(小兒生翳症)은 검은자위가 마두(麻豆)와 같고 크기가 무꽃만 하니 감안과는 전혀 다르다. 삼황단(三黃丹)과 진주산(珍珠散)을 같은 양으로 섞어 점안한다.

### 1.63.1. 加味修肝散 | 가미수간산

梔子 薄荷 連翹 麻黃 赤芍藥 羌活 當歸 大黃 黃芩 菊花 木賊 白蒺 藜 川芎 甘草

치자, 박하, 연교, 마황, 적작약, 강활, 당귀, 대황, 황금, 국화, 목적, 백질려, 천궁, 감초.

上水煎, 食後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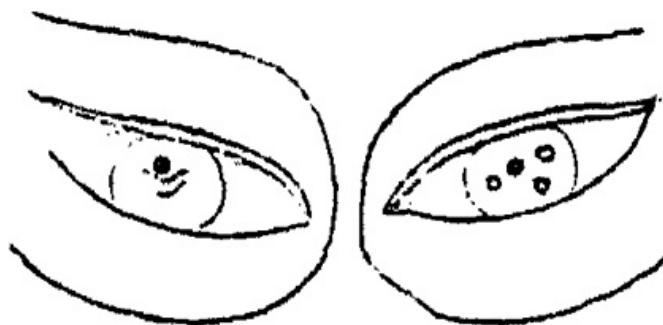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124. 麻豆 : 여기서는 콩의 일종을 가리킨다. ‘麻疹과 痘瘡’의 뜻으로도 쓰인다. ↪



1.64. 痘疹入眼 | 두진(痘疹)이 눈에 들어간 것

翳 生 眼 兒 小



問曰, 小兒疹痘入眼者, 何也. 答曰, 小兒於母胎中受其毒, 必發疹痘, 出之時五臟俱有熱相攻, 或肝臟受熱甚, 必有痘生於目內, 宜服.

묻기를, “소아의 두진(痘疹)이 눈으로 들어간 경우는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아이가 어미의 태중에서 독을 받으면 반드시 두진이 생기며, 두진이 돋을 때  
오장(五臟)에 모두 열이 있어 서로 공격하는데, 혹 간(肝)이 열을 받은 것이 심

하면 반드시 눈 속에 두진이 생기니, 다음 약을 복용해야 한다.”

#### 1.64.1. 凉肝散 | 양간산

草決明 天花粉 甘草 赤芍藥 綠豆皮 穀精草

초결명, 천화분, 감초, 적작약, 녹두피, 곡정초.

上爲末, 每服六錢, 蜜水調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6돈씩을 꿀물에 타서 먹는다.

問曰, 小兒痘疹傷眼者何也. 答曰, 內臟虛熱上攻也. 治法, 經云切不可泄, 餘毒宜用微涼劑和解, 此症初起, 睛上紅紫澀痛, 可用通神散, 或車前草擂蜜水, 頻頻與吃, 洗去肝中火邪. 若至喪明, 睛中有翳, 或凹入者, 經云疹痘之後, 毒氣斯鬱結於肝, 傷於瞳, 素無治法也.<sup>125</sup>

문기를, “소아의 진두(疹痘)가 눈을 상하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내장(內臟)에 허열(虛熱)이 위를 공격하는 것이다. 치료는, 경(經)에 말하기를 절대로 설사를 시켜서는 안 되고 독이 남았으면 약간 서늘한 약으로 화해(和解) 시켜야 한다 하였으니, 이 병증의 초기에 눈동자 위에 흥자색이 보이고 껄끄러 우면서 아프면 통신산(通神散)을 쓸 수 있으며, 혹은 차전초(車前草)를 갈아 꿀물에 넣어서 자주 마시게 하여 간(肝) 속의 화사(火邪)를 씻어낸다. 만약 시력을 잃고 눈동자에 예(翳)가 생기거나 오목하게 패인 경우는, 경(經)에 말하기를 진두를 앓은 후에 독기가 간에 울결되어 동공을 상하면 본디 치법이 없다고 하였다.”

#### 1.64.2. 通神散<sup>126</sup> | 통신산

治小兒疹痘, 用此能解毒.

소아의 진두(疹痘)를 치료하니, 이를 써서 해독할 수 있다.

### 白菊花 緑豆皮 穀精草 石決明《煅 過》

백국화, 녹두피, 곡정초, 석결명《불에 달군 것》.

上各等分爲末. 每服二錢, 乾柿 一個, 米汁水一盞同煎. 候水乾, 不拘時服. 能服湯藥, 只將本方煎服亦可.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로 만든다. 매번 말린 감 1개를 이 약 2돈과 함께 쌀뜨물 1잔에 달여서, 물이 마르면 아무 때나 먹는다. 탕약을 먹을 수 있으면 이 처방을 물에 달여서 복용해도 된다.

### 1.64.3. 救苦觀音散 | 구고관음산

桔梗 當歸 連翹 藁本 細辛 蒼朮 龍膽草 羌活 黃連 知母 黃芩 黃柏 川芎 柴胡 防風  
升麻 生地黃 紅花

길경, 당귀, 연교, 고본, 세신, 창출, 용담초, 강활, 황련, 지모, 황금, 황백, 천궁,  
시호, 방풍, 승마, 생지황, 흥화.

上各等分, 煉蜜爲丸. 能吞 者, 每四五十丸服, 小者量服之.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졸인 꿀로 환을 만든다. 잘 삼키는 아이는 매번  
40~50환씩 먹고, 어린아이는 해아려서 복용시킨다.

### 1.64.4. 통신산 通神散

菊花 穀精草 密蒙花 緑豆皮 蒼朮 石決明 甘草 黃芩 蟬蛻 木賊

국화, 곡정초, 밀몽화, 녹두피, 창출, 석결명, 감초, 황금, 선태, 목적.

上各等分, 水煎, 食後溫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125. 經云.....素無治法也 : ‘經云’이라 하였으나 다른 醫書에는 보이지 않고,

本書 앞부분의 「五輪八廓總論」에 이 말이 나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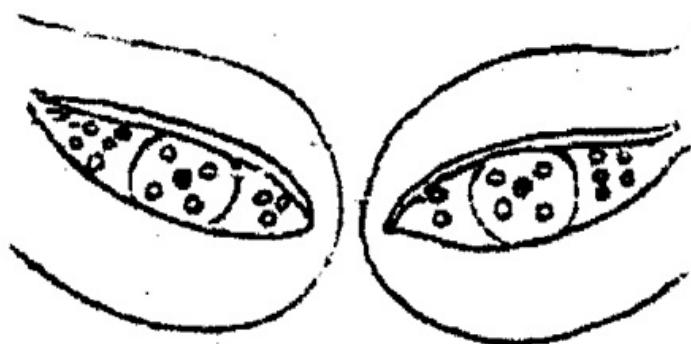
126. 通神散 : 두 번 나오는데, 뒤의 것은 여기의 처방구성에 다른 藥味가 더 들

어 있으며, 둘 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신산과는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신산은 『證治準繩』에서 볼 수 있다. ←

1.65. 小兒雀目 | 소아 야맹증

# 眼 入 痘 痘



問曰, 大人小兒雀目, 至申酉時不見物者, 何也. 答曰, 肝受虛邪熱所傷<sup>127</sup>, 經絡凝滯不和, 陰陽不和, 樞衛不通, 夜至昏也. 治法, 宜服五膽丸, 蝙蝠肝散, 又宜服蒼蠅散.

묻기를, “성인과 소아가 작목(雀目)이 있어 신시(申時)나 유시(酉時)가 되면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肝)이 허(虛)하여 사열(邪熱)에 상한 것이니, 경락(經絡)이 응체되어 화평하지 못하고 음양(陰陽)

이 조화롭지 못하며 영위(營衛)가 통하지 못하여 밤이 면 눈이 어두워진다. 치료는 마땅히 오담환(五膽丸), 편복간산(蝙蝠 肝散)을 복용하며, 또한 창승산(蒼蠅散)을 복용한다.”

### 1.65.1. 蒼蠅散 | 창승산

用蒼蠅翅<sup>128</sup>草及花爲細末, 用白水煮豬肝露一宿, 空心煎丸. 又可服豬肝散.

창승시의 풀과 꽃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맹물로 돼지 간을 삶아 하루 밤 밖에 두었다가, 빈 속에 달여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는다. 저간산(豬肝散)을 복용 해도 된다.

### 1.65.2. 豬肝散 | 저간산

即退翳散. 《方在前小兒疹痘症內》

즉 퇴예산(退翳散)이다. 《처방은 앞의 소아진두(小兒疹痘) 조에 있다》

### 1.65.3. 五膽丸 | 오담환

熊膽《一個》黃牛膽《二個》青魚膽《一個》鯉魚膽《二個》青羊膽《一個》石決明《二兩》夜明沙《一兩》麝香《少許》

응담《1개》황우담《2개》청어담《1개》이어담《2개》청양담《1개》석결명《2냥》  
야명사《1냥》사향《조금》.

上爲末, 將前膽和爲丸, 如綠豆大. 每服三十丸, 空心茶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고 앞의 담(膽)들과 섞어서 녹두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30환씩을 공복에 찻물로 삼킨다.

#### 1.65.4. 蝙蝠 散 | 편복산

蝙蝠 肝《一個》石膏《一兩》黃丹<sup>129</sup> 石決明《煅》白蒺藜《炒, 各二兩》若無蝠 肝用羊肝加夜明沙.

편복간《1개》석고《1냥》황단, 석결명《불에 달군 것》백질려《볶은 것, 각 2냥》.

만약 편복간이 없으면 양간을 쓰고 야명사를 더한다.

上將前藥研細末, 每服二錢, 米湯調下. 無蝙蝠 肝用羊肝一塊切作四塊. 以藥一二錢糝 肝內, 以麻縛定, 用米汁水入罐內煮熟. 次早取出羊肝藥細嚼, 以煮肝汁同食效. 如體虛弱之人亦可服補藥, 爲丸尤妙.

위의 약들을 곱게 갈아 매번 2돈씩을 숭늉에 타서 먹는다. 박쥐간이 없으면 양의 간 한 덩이를 네 덩이로 잘라서 쓴다. 약 가루 1~2돈을 간 속에 넣은 뒤 삼끈으로 고정하고, 쌀뜨물을 넣은 솥에 끓여 삶는다. 다음날 아침에 양간과 약을 꺼내어 잘게 씹어 먹는데, 간을 삶은 국물도 함께 먹으면 효과가 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보약을 먹어도 좋으며, 환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127. 肝受虛邪熱所傷 : 四庫全書本에는 ‘肝虛, 受邪熱所傷’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는 편이 文義가 명확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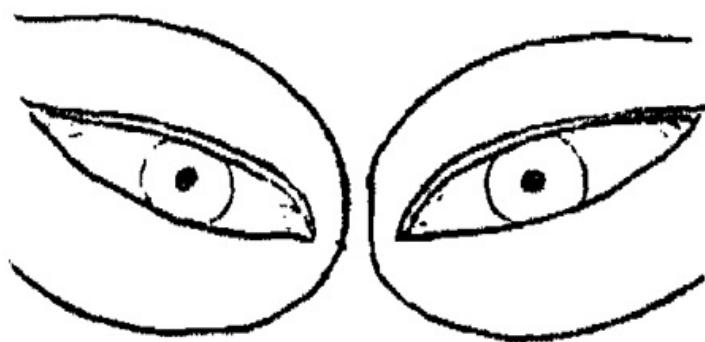
128. 蒼蠅翅 : 파리의 날개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식물성 약재인 蒼蠅翼을 말한다. 蒼蠅翼으로 불리는 식물은 여럿인데, 藥性으로 보아 夜關門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129. 黃丹 : 순수한 납을 가공하여 만든 사산화납(Pb<sub>3</sub>O<sub>4</sub>)의 가루. 鉛丹과 같다.  
↪



1.66. 胎風赤爛 | 태중(胎中)에서 풍(風)을 받아 눈이 붉게 짓무르는 것

目 雀 兒 小



胎風赤爛者，其症有三。初時血露入眼，洗不乾淨，而生是疾，遂至赤爛。又有在母胎中，其母不知忌口，多食壅毒之物，酒麵五辛<sup>130</sup>之類，至產生三四個月，兩眼雙赤，眵粘四眦，紅赤濕爛，此是胎毒所致。此小兒在腹中飲母血，血毒於兒，生出方發此症也。又有乳母壯盛之人，抱兒供乳之際，兒口未哺，乳頭汁脹滿，其汁洒然射出，充入兒眼，亦能生此爛濕，若充射面部則能生疵濕瘡癢。大抵此三症通號曰胎風赤爛，

孰知內有三因之由. 血露不淨與乳充射, 宜碧天丹洗. 胎毒者須再服<sup>131</sup> 三黃丸, 忌口, 其兒亦用三黃湯熏洗, 點以時藥可也. 服宜小防風湯, 小承氣湯, 小菊花膏, 導赤散, 此數方隨冷熱用之. 或童子患眼者<sup>132</sup>, 治法亦用此數方加減, 點用時藥.

태풍적란(胎風赤爛)에는 세 가지가 있다. 태어날 때 피가 눈에 들어갔는데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이 병이 생겨서 마침내 눈이 붉게 짓무른다. 또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미가 음식을 주의할 줄 모르고 독이 쌓이게 하는 음식물이나 술, 면, 오신(五辛)을 많이 먹으면 생후 3~4개월에 양쪽 눈이 붉게 되고 끈끈한 눈곱이 눈초리마다 생기며 붉게 짓무르니, 이는 태독(胎毒)의 소치이다. 이는 소아가 뱃속에 있을 때 어미의 혈(血)을 마시는데 태아에게 독을 끼쳐 출생 후 이러한 병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유모가 체질이 건강한 사람인 경우,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에 아이가 아직 젖을 물지 않았는데 유두에 유즙이 가득차서 그 즙이 쏘아져 나와 아이의 눈에 들어가면 역시 이렇게 짓무르게 되고, 만약 얼굴에 맞으면 습진이 생겨 헐고 가렵다. 무릇 이 세 가지 병증을 모두 태풍적란이라 하니, 누가 그 중에도 세 가지 원인이 있음을 알겠는가. 피를 깨끗이 닦지 않은 것과 젖이 들어간 것은 벽천단(碧天丹)으로 씻어야 한다. 태독의 경우 모름지기 유모가 삼황환(三黃丸)을 복용하고 음식을 주의해야 하며, 아이도 삼황탕(三黃湯)으로 김을 쐬고 씻으며, 때에 맞는 약을 점안하는 것이 좋다. 소방풍탕(小防風湯), 소승기탕(小承氣湯), 소국화고(小菊花膏), 도적산(導赤散)이 적합한데, 이 처방들을 한열(寒熱)에 따라 쓴다. 혹 동자(童子)가 눈병을 앓을 때에도 치법은 역시 이 처방들을 가감하여 쓰고 때에 맞는 약을 점안한다.

### 1.66.1. 小防風湯 | 소방풍탕

此方治小兒胎風赤爛, 小兒眼生翳.

이 처방은 소아의 태풍적란(胎風赤爛)과 소아의 눈에 예(翳)가 생긴 것을 치료한다.

大黃 梔子 甘草 赤芍 歸尾 防風 羌活

대황, 치자, 감초, 적작약, 당귀미, 방풍, 강활.

上等分, 水煎食後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 1.66.2. 小承氣湯 | 소승기탕

大黃 薄荷 杏仁 蟬蛻 甘草 羌活 天麻 當歸 赤芍藥 防風

대황, 박하, 행인, 선태, 감초, 강활, 천마, 당귀, 적작약, 방풍.

上水煎服.

위의 약들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66.3. 小菊花膏丸 | 소국화고환

治小兒風毒眼.

소아가 풍독(風毒)으로 눈병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黃連 枯黃芩 大黃 乾菊花 羌活 蒼朮 荊芥 防風

황련, 고황금, 대황, 건국화, 강활, 창출, 형개, 방풍.

上爲細末, 煉蜜爲丸. 每服四五十丸. 或爲膏.

이상을 곱게 갈아 졸인 꿀로 환을 만든다. 매번 40~50환을 복용한다. 혹은 고(膏)로 만든다.

---

130. 五辛 : 마늘, 파, 부추, 염교(혹은 겨자), 생강을 합하여 이르는 말. ↪

131. 再服 : 四庫全書本에는 ‘母服’으로 되어 있다. 이를 따르는 편이 文義가

순조롭다. ↵

132. 或童子患眼者 : 乳兒가 아닌, 좀 더 자란 아이의 경우를 말한다. ↵

1.67. 小兒疳傷<sup>133</sup> | 소아가 감증으로 눈을 상한 것

# 爛 赤 風 胎



小兒疳傷之症，富貴之家，多生是疾，蓋因父母過愛之由也。小兒如草木之萌芽，難受風日寒露之欺，且小兒五臟六腑未實，氣血柔弱，怎禁油膩煎炒及諸般葷腥。或一周半載，縱口味食糖甜之物，及鵝鴨雞豬牛羊等肉，或飯方了又哺以乳，或乳方飽又與其飯，此出於父母至情。富貴之家，有是症焉，或貧賤之家，亦有是症，何也。一食諸物，不消不化，先傷於脾，致腹脹。午後發熱至夜半方退，日久頭發稀疏，轉作泄瀉頻頻，瀉甚則渴，至傷肝膽，眼之白仁鮮紅，羞明怕日，漸生翳膜遮瞞黑珠，或

突起如黑豆如香菰之狀. 治法, 先治內, 後治外, 用雞卵入輕粉一二分, 使君子仁一個半, 蔥珠幾顆, 濕綿包煨與吃, 宜空心連吃五七彈止. 又宜煮羊肝露宿蘸夜明沙吃, 或煮豬肝亦可. 切宜忌口葷腥, 其白膜用陰一陽七藥調乳點, 煎胡宣二連服, 側柏葉熏洗. 若疳傷肝膽, 眼珠突出或瞎盡, 為不治之症, 不獨瞎眼, 甚至傷命. 若聲啞口乾, 手腳俱腫, 十死八九.

소아감상(小兒疳傷)은 부귀한 집안에 이 질병이 많이 생기니, 대개 부모의 지나친 애정에서 말미암는다. 소아는 초목(草木)의 싹과 같아서 바람과 별과 추위와 이슬의 펑박을 견뎌내기 어렵고, 또한 소아의 오장육부(五藏六府)는 아직 실(實)하지 못하며 기혈(氣血)은 유약한데, 기름에 튀기고 볶은 것과 여러 맵고 비린 것들을 어찌 이겨내겠는가? 혹 1년이나 6개월 된 아이에게 먹고 싶은 대로 맛있고 단 음식, 거위, 오리, 닭, 돼지, 소, 양 등의 고기를 먹게 하거나, 혹은 밥을 방금 먹었는데 다시 젖을 먹이거나, 혹은 젖을 먹었는데 다시 밥을 먹이니, 이는 모두 부모의 지극한 정(情)에서 나온 것이다. 부귀한 집안에는 이러한 병증이 있지만, 혹 빈천한 집에도 이러한 병증이 있는 것은 왜인가? 어떤 음식이든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먼저 비(脾)를 상하여 복창(腹脹)을 일으킨다. 오후에 열이 나다가 한밤중이 되어야 비로소 열이 물러가며, 시일이 오래되면 머리가 빠지고, 증상이 변해서 설사를 빈번하게 하며, 설사가 심해지면 갈증(渴症)이 생기고, 간담(肝膽)을 상하기에 이르러 눈의 흰자위가 선홍색이 되고, 눈이 부셔서 해를 피하고, 점차 예막(翳膜)이 생겨 검은자위를 가리는데, 검은콩이나 표고버섯 모양으로 불쑥 솟기도 한다. 치법은 먼저 안을 치료하고 후에 밖을 치료하니, 계란에 경분(輕粉) 1~2푼, 사군자(使君子)의 씨 1개 반, 대파 썬 것 몇 조각을 넣고 젖은 면으로 싸서 불에 익힌 후 먹이는데, 공복에 연속해서 5~7알을 먹으면 그친다. 또한 양의 간을 삶아 밤에 밖에 놓아두었다가 야명사(夜明砂)에 무쳐서 먹게 하며, 삶은 돼지 간을 써도 된다. 맵고 비린 음식을 절대로 주의해야 하며, 백막(白膜)에는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1:7로 배합한 약을 젖에 섞어 점안하고, 호황련(胡黃蓮)과 선주황련(宣州連蓮)을 함께 달여 복용하며, 측백엽(側柏葉)을 끓여 김을 씌고 씻는다. 만약

감증(疳症)으로 간담(肝膽)이 상하여 눈알이 돌출되었거나 눈이 멀어버린 것은 치료할 수 없는 증이니,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심하면 명(命)을 상한다. 만약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이 마르며 손발이 모두 부으면 십중팔구 죽는다.

問曰, 小兒疳傷眼目, 疼痛羞明不開, 烏睛上青翳 如黑珠子, 或白膜遮睛者, 何也. 答曰, 此因飲乳之際, 好食果子雜物油膩 及熱毒物, 多使脾胃生疳, 或瀉泄不止, 夜間潮熱, 久則疳蟲傷肝, 上攻眼目. 初覺紅澀 羞明, 急療, 若烏睛上變成有黑翳 如珠, 泄瀉不止者, 多是不治. 宜服除熱飲等方.

묻기를, “소아의 감증(疳症)으로 눈을 상하여 아프고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고 검은자위에 청색의 예(翳) 가 생겨 검은 구슬 같거나, 혹은 백막(白膜)이 눈동자를 가린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젖을 먹을 때에 과자, 군것, 기름진 것 및 열독(熱毒)이 있는 음식을 즐겨 먹어서이니, 비위(脾胃)에 감증(疳症)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은 설사가 그치지 않거나 밤에 조열(潮熱)이 있고, 오래되면 감충(疳蟲)이 간(肝)을 상하여 위로 눈을 공격한다. 처음에 눈이 붉고 깔끄러우며 눈이 부신 것을 느낄 때 급히 치료해야 하고, 만약 검은자위가 변하여 흑예여주증(黑翳如珠症)이 생기고 설사가 그치지 않는 경우는 대개 불치이다. 마땅히 제열음(除熱飲) 등의 처방을 복용한다.”

### 1.67.1. 五疳丸 | 오감환

治小兒疳眼, 面瘦皮黃, 羞明怕 日, 食乳不消.

소아감안(小兒疳眼)으로 얼굴이 수척하고 피부가 누렇게 되며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고 음식이나 젖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綠礬《成樸 洗淨》彌陀僧《服過》夜明砂《各一兩》

녹반《덩이진 것을 깨끗이 씻는다》밀타승《법제한 것》야명사《각 1냥》.

上爲末, 用蒸棗肉, 捣前藥末爲丸, 如黍米大. 每服三四十丸, 量兒之大小, 空心米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고, 삶은 대추 과육에 앞의 약 가루들을 넣고 찧어서  
기장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30~40환을 복용하되 아이의 나이를 헤아려서  
하고, 공복에 송승으로 먹는다.

### 1.67.2. 除熱飲 | 제열음

大黃 知母 防風 黃芩《各兩》黑參 芫 蔚子 菊花 木賀《各一兩半》

대황, 지모, 방풍, 황금《각 1냥》흑삼, 충울자, 국화, 목적《각 1냥 반》.

上水煎, 食後服三貼. 用雞 蛋一個, 使君子仁三個, 輕粉二分, 合研 末, 入蛋內煨 熟,  
空心服, 至二三個即 去疳蟲, 後服五疳丸.

위의 약들을 달여서 식후에 3첩을 복용한다. 계란 1개에 사군자 씨 3개, 경분 2  
푼을 함께 갈아서 넣고 구워 익힌 것을 공복에 먹는데, 2~3개째 먹으면 감충  
(疳蟲)이 제거되니, 후에 오감환(五疳丸)을 복용한다.

### 1.67.3. 五疳丸 | 오감환

胡黃連《五錢》牛黃《一錢》彌陀僧《一兩》夜明砂 緑礬《三兩》

호황련《5돈》우황《1돈》밀타승《1냥》야명사, 녹반《3냥》.

上用棗肉爲丸, 綠豆大. 空心服三十丸, 米湯送下.

위의 약들을 대추 과육으로 녹두 크기의 환을 만든다. 공복에 30환을 송승으로  
먹는다.

### 1.67.4. 薰夷丸 | 무이환

治小兒五疳.

소아의 다섯 가지 감증(疳症)을 치료한다.

蕪夷<sup>134</sup> 黃連 神曲 麥芽《炒》

무이, 황련, 신곡, 맥아《볶은 것》.

上各等分爲末, 麵糊爲丸, 綠豆大. 每服十九丸至十五丸, 米湯下. 五疳, 陳皮湯, 寒熱往來, 薄荷湯下<sup>135</sup>

위의 약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로 만들고, 밀가루 풀로 녹두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10~15환을 숭늉에 먹는다. 오감의 경우는 진피(陳皮) 달인 물에 먹고, 한열왕래(寒熱往來)가 있으면 박하 달인 물에 먹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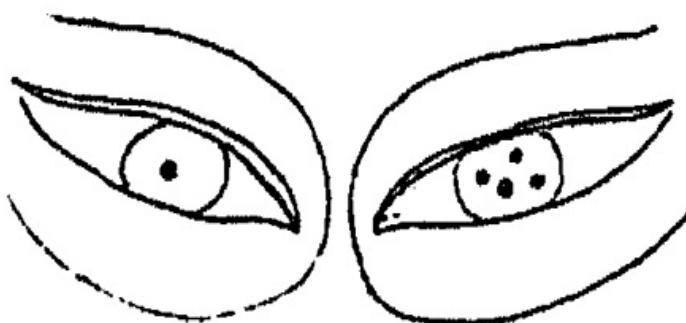
133. 小兒疳傷 : ‘小兒疳傷眼目’, ‘小兒疳眼’이라고도 한다. ↪

134. 蕪夷 : 왕느릅나무의 열매. ↪

135. 五疳, 陳皮湯, 寒熱往來, 薄荷湯下 : 원래 ‘五疳陳皮湯’을 처방명으로 표기하였고, ‘寒熱往來, 薄荷湯下.’는 그 복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普濟方』에는 ‘如五疳, 陳皮湯下, 寒熱往來, 薄荷湯下.’라 하여 五疳蕪夷丸 처방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모두 복용법에 대한 설명이다. ↪

1.68. 風弦赤眼 | 눈시울이 붉게 짓무르는 것

# 傷 痘 兒 小



問曰，人之患眼，兩瞼時常赤爛者，何也。答曰，大人患者，因脾土蘊積濕熱，脾土衰不能化濕，故濕熱之氣相攻。傳發於胞瞼之間，致使羞明淚出，含在胞瞼之內，此淚熱毒，以致眼弦赤爛。治法，春夏爛者爲熱爛，服用三黃湯，洗用棉裹散，金錢湯，有瘀血宜剗洗，與服瀉脾湯。秋冬爛者爲冷爛，又曰迎風洒淚<sup>136</sup>，洗用碧天丹，點用重藥，瞼濃剗洗之，後宜火烙之。小兒患者，因母胎中受熱，或落地之時，惡露入目，沐浴不淨，拭之未乾，却感外傷風邪，使邪入目，亦生此疾。治之小兒服黃耆湯，大人服茶調散，熱甚洗金錢湯，風甚洗碧天丹，先剗洗後服藥。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양쪽 눈꺼풀이 항상 붉게 짓무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성인 환자는 비토(脾土)에 습열(濕熱)이 쌓여서이니, 비토가 쇠약하여 습(濕)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습열의 기(氣)가 서로 공격한다. 눈꺼풀 부위로 전해져 발작하면 눈이 부시면서 눈물이 나오고 눈꺼풀 속에 고여서, 이 눈물의 열독(熱毒) 때문에 눈시울이 붉게 문드러진다. 치법은, 봄과 여름에 문드러진 것은 열란(熱爛)이니 삼황탕(三黃湯)을 복용하고 면과산(棉裹散), 금전탕(金錢湯)으로 눈을 씻으며 어혈이 있으면 살짝 찌른 뒤 씻어내고 사비탕(瀉脾湯)을 복용시킨다. 가을과 겨울에 문드러진 것은 냉란(冷爛)이며 또한 영풍쇄루(迎風洒淚)라 하니, 벽천단(碧天丹)으로 눈을 씻고 중약(重藥)을 점안하며, 눈꺼풀에 놓이 있으면 살짝 찔러 씻어내고, 그 후에 불로 지져야 한다. 소아의 경우 어미의 태중에서 열을 받았거나, 혹은 출생 시 오로(惡露)가 눈에 들어갔는데 깨끗이 목욕시키지 않거나, 잘 닦아 말리지 않아서 다시 밖으로부터 풍邪(風邪)를 받아 사기(邪氣)가 눈으로 들어가도 역시 이 병이 생긴다. 치료하려면 소아는 황기탕(黃耆湯)을 복용하고 성인은 다조산(茶調散)을 복용하며, 열에 의해 심해지면 금전탕(金錢湯)으로 눈을 씻고 바람으로 심해지면 벽천단(碧天丹)으로 씻으며, 먼저 살짝 찔러서 씻어낸 후에 약을 복용한다.”

### 1.68.1. 黃芪 湯 | 황기탕

黃芪 車前子 細辛 黃芩 五味子 蒼朮 黃連《各一兩》

황기, 차전자, 세신, 황금, 오미자, 창출, 황련《각 1냥》.

上各等分,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68.2. 茶調散 | 다조산

即 川芎茶調散. 《方在前充風淚出症內》

즉 천궁다조산이다. 《처방은 앞의 충풍누출(充風淚出) 조에 있다》

#### 1.68.3. 三黃湯 | 삼황탕

《在閣 肉攀睛症內》

《노육반정(閣 肉攀睛) 조에 있다》

#### 1.68.4. 棉裏散 | 백리산

《在瘡 極難忍症內》

《양극난인(瘡 極難忍) 조에 있다》

#### 1.68.5. 碧天丹 | 벽천단

#### 1.68.6. 金錢湯 | 금전탕

治年久弦爛.

눈시울이 짓무르는 병증이 오래된 것을 치료한다.

古錢《即 老銅錢生鏽 者. 用七個》黃連《研 末, 二錢》白梅《乾五個, 梅自落者爲白梅》

고전《즉 오래된 동전으로 녹이 슨 것이다. 7개를 쓴다》황련《가루 낸 것, 2돈》

백매《말린 것 5개, 매실이 저절로 떨어진 것을 백매라 한다》.

上將此三味, 用老酒二小盞, 於磁罐內煎至半盞. 至夜時冷可洗用, 不過三四次即愈, 日二次.

위의 세 약재를 묵은 술 2잔에 타서 사기그릇에 넣고 1/4잔이 되도록 달인다.

밤이 되어 식힌 것으로 씻으면 좋으니, 3~4번도 하기 전에 나아지는데, 하루 2번 한다.

#### 1.68.7. 爛弦火穴法 | 눈시울 문드러진 데에 뜰뜨는 방법

魚尾<sup>137</sup> 二穴 睛明二穴 上迎香<sup>138</sup> 二穴 攢竹一穴<sup>139</sup> 太陽二穴

어미 2혈, 정명 2혈, 상영향 2혈, 찬죽 1혈, 태양 2혈.

爛弦風之症, 因脾胃壅熱, 久受風濕, 更加吃諸毒物, 日積月累, 致成風爛胞瞼之內, 變成風痘. 動則發癢 不時, 因手拂拭, 甚則連眼眶 皆爛, 無分春夏秋冬皆如是, 眇淚滿腮, 有不近人手之怕. 治法, 番轉眼瞼, 利<sup>140</sup> 洗瘀血二三度, 或小鋒針針出瘀血亦可. 若因摩引有紅筋者, 宜老醋燒爐甘石<sup>141</sup> 泡 七次, 加以陰丹, 量輕重搽 點眼弦, 或吹點眼內無妨. 忌動風動血之物, 不食可也.

난현풍(爛弦風)의 병증은 비위(脾胃)에 막힌 열 때문이니, 오랫동안 풍습(風濕)을 받은 데다 또 여러 독물(毒物)을 먹으면 시일이 지남에 따라 풍(風)이 눈꺼풀 속을 짓무르게 하고, 풍두(風痘)로 변한다. 동하면 가려움이 수시로 발작하여 손으로 비비게 되고, 심하면 눈언저리까지 모두 짓물려 사계절을 막론하고 모두 이와 같으며, 뺨에 온통 눈곱과 눈물이라 남의 손이 닿는 것을 꺼리게 된다. 치료는 눈꺼풀을 뒤집어 어혈(瘀血)을 씻어내기를 2~3회 하고, 혹은 작은 봉침(鋒鍼)으로 어혈을 찔러서 빼내는 것도 좋다. 만약 눈을 비빈 탓으로 핏발이 생긴 경우는 노감석을 불에 달궈 묵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하고 음단(陰丹)을 더하여 경증에 따라 눈시울에 바르며, 혹은 눈에 불어 넣거나 찍어 발라도 무방하다. 동풍(動風)하거나 동혈(動血)하는 음식을 주의해야 하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136. **迎風洒淚** : 바람을 맞으면 시린 눈물이 나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보인다. [←](#)

137. **魚尾** : 뒤에 나오는 「定髮際並 點各穴法則」에서 ‘魚尾穴在小毗 橫紋盡處’라 하였으니 瞳子髎 와 같은 자리이다. 혹은 눈썹의 바깥쪽 끝을 가리키기도 한다. 『扁鵲神應鍼灸玉龍經』에 ‘在目上眉外尖’이라 하였다. [←](#)

138. **上迎香** : 本書에서 유래한 經外奇穴. 그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 비근골(nasal bone) 아래 오목한 곳, 콧방울 옆 도량의 위쪽 끝에 해당한다고 정하였다. [←](#)

139. **攢竹一穴** : 足太陽膀胱經의 穴로 양측에 모두 있는데, 攢竹만 ‘一穴’이라 한 것은 착오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四庫全書本도 이와 같이 되어 있다. [←](#)

140. **利** : [集成] 鼎本에는 ‘劙’으로 되어 있다. [←](#)

141. **爐甘石** : 菱亞鉛礦. 本書에서는 點眼하는 丹藥의 기본 원료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

1.69. 肝風目暗疼痛 | 간풍(肝風)으로 눈이 어둡고 아픈 것

# 眼赤弦風



此症肝風目暗者，乃是肝腎虛勞，肝氣不足，血虛故也。不時疼痛，舉發無時，痛則惟眼珠墜痛，頗有赤澀淚出，看物依稀，眼前多見花發數般，或黃或白或黑，見一物如見兩般形狀，不清療治，恐損眼也。此症實有內外相兼病也，非徒治外而不治內曷濟哉。內則白蒺藜散補，外則陰二陽八丹，調乳汁點二三夜，點一次加片腦少許，洗以黃菊花赤芍藥側柏葉秦皮白芷川芎，更加忌口，[五辛](#)<sup>142</sup>諸熱物莫吃。

이 간풍목암(肝風目暗)이라는 병증은 바로 간신(肝腎)이 허로(虛勞)하여 간기(肝氣)가 부족하고 혈(血)이 허(虛)하기 때문이다. 수시로 아프고 증상이 발작함에 때가 없으며, 통증이 있으면 눈알이 빠지는 듯하고,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며, 물체를 보는 것이 희미하고, 눈앞에 갖가지로 꽃이 핀 듯 어른 거려 혹은 누렇고 혹은 희고 혹은 검으며, 하나의 물체가 두 개의 형상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치료하지 않으면 눈이 손상할 우려가 있다. 이 병증은 실상 내외가 서로 겹친 병이니, 단지 밖을 치료하고 안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찌 구제하겠는가? 안으로는 백질려산(白蒺藜散)으로 보하고, 밖으로는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2:8로 배합한 약을 젖에 타서 2~3일 밤 동안 점안하는데 한번 점안할 때에 편뇌를 조금 더하며, 황국화, 적작약, 측백엽, 진피, 백지, 천궁으로 눈을 씻고, 또한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하니 오신(五辛)과 성질이 뜨거운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

### 1.69.1. 补肝活血散 | 보간활혈탕

虛者宜服.

허(虛)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藁本 白芷 石決明 天麻 防風 細辛 羌活 黃耆 菊花 當歸 生地黃 黃連

고본, 백지, 석결명, 천마, 방풍, 세신, 강활, 황기, 국화, 당귀, 생지황, 황련.

上各等分,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69.2. 补腎丸 | 보신환

治目暗疼痛, 恐變成黑風內障<sup>143</sup>, 先宜服之.

눈이 어둡고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하니, 흑풍내장(黑風內障)으로 변할 염려가 있으면 미리 복용해야 한다.

澤瀉《去土》細辛《去苗》菟 絲子《酒浸焙乾》五味子《炒, 各一兩》茺蔚子《焙, 二兩》山藥《一兩五》熟地黃《焙, 二兩》

택사《흙을 제거한 것》세신《싹을 제거한 것》토사자《술에 담갔다가 불에 말린 것》오미자《볶은 것, 각 1냥》충울자《불에 말린 것, 2냥》산약《1냥 5돈》숙지황《불에 말린 것, 2냥》.

上爲末, 研勻, 煉蜜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二十丸, 空心鹽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되 균일하게 갈아서,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20환씩을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먹는다.

### 1.69.3. 白蒺 薺散 | 백질려산

蒺 薺 菊花 蔓荊子 草決明 甘草 連翹 青葙 子

백질려, 국화, 만헝자, 석결명, 감초, 연교, 청상자.

上各等分, 水煎食後溫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142. 五辛 : 마늘, 파, 부추, 염교(혹은 겨자), 생강을 합하여 이르는 말. ↪

143. 黑風內障 : 五風變內障의 하나. ‘黑風’이라고도 한다. 『秘傳眼科龍木論』에 “初患之時, 頭旋額角偏痛, 連眼瞼骨及鼻頰骨時時亦痛, 兼眼內痛澀, 有黑花來往.”이라 하였으며 『證治準繩』에서는 “與綠風候相似 ..... 乃腎受風邪, 熱攻于眼.”이라 하였다. ↪

간풍으로 눈이 어둡고 아픈 것 肝風目暗疼痛

---

1.70. 過風洒淚症 | 바람을 맞으면 시린 눈물을 흘리는 것

# 痛疼暗目 風肝



問曰, 過風洒淚者, 何也. 答曰, 肝之虛也, 是亦腦冷, 過風淚遂出, 拭却還生. 夏月即少, 冬月即多, 後若經二三年間, 不以冬夏皆有. 此疾乃淚通於肝, 肝屬木, 目乃肝之外候, 為肝虛風動則淚流. 故過風淚出, 即服補肝散治冷淚.

묻기를, “바람을 맞으면 시린 눈물이 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肝)이 허(虛)한 것이며, 이는 또한 뇌(腦)가 차가운 것이니 바람을 맞으면 곧 눈물이 나는데 닦아도 다시 난다. 여름에 적고 겨울에 많은데, 이후에 2~3년이 지나서는 겨울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있게 된다. 이 병은 바로 눈물이 간

에 통하고 간은 목(木)에 속하고 눈은 간의 외후(外候)이니, 간이 허하고 풍(風)이 동함으로 인해 눈물이 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을 맞을 때 눈물이 난다면 보간산(補肝散)을 복용하여 냉루(冷淚)를 치료한다.”

### 1.70.1. 补肝散 | 보간산

治冷淚.

냉루(冷淚)를 치료한다.

當歸 熟地黃 川芎 赤芍藥 防風 木賊

당귀, 숙지황, 천궁, 적작약, 방풍, 목적.

上等分, 水煎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70.2. 菊花散 | 국화산

治熱淚.

열루(熱淚)를 치료한다.

菊花 川芎 木賊 香附子 夏枯草 羌活《各一兩》草烏《一錢》防風 甘草 荆芥 白芷《各五錢》

국화, 천궁, 목적, 향부자, 하고초, 강활《각 1냥》초오《1돈》방풍, 감초, 형개, 백지《각5돈》.

上爲末, 每服三錢, 茶下, 水煎亦可.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찻물로 복용하며, 물에 달여 먹어도 된다.

### 1.70.3. 又方 | 또 다른 처방

治實淚.

실증(實證)의 눈물을 치료한다.

菊花 菊防風 羌活 川芎 夏枯草 木賊 甘草《各三兩》

국화, 질려, 방풍, 강활, 천궁, 하고초, 목적, 감초《각 3냥》.

上每服三錢, 湯調下, 水煎亦可.

위의 약들을 매번 3돈씩 끓인 물에 타서 마시며, 물에 달여 먹어도 된다.

### 1.70.4. 川芎茶調散 | 천궁다조산

治熱淚.《方在前充風淚出症內》

열루(熱淚)를 치료한다.《처방은 앞의 충풍누출(充風淚出) 조에 있다》

### 1.70.5. 蒼朮止淚散 | 창출지루산

木賊 香附子 白芷 石膏 菊花 荊芥 白蒺 藜 薄荷 當歸 白芍藥 川芎 蟬蛻 夏枯草

목적, 향부자, 백지, 석고, 국화, 형개, 백질려, 박하, 당귀, 백작약, 천궁, 선태, 하고초.

上爲末, 每服三錢, 食後茶清下. 冬淚, 酒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식후에 찻물로 삼킨다. 겨울의 눈물에는 술로 삼킨다.

바람을 맞으면 시린 눈물을 흘리는 것 過風洒淚症

---

2.1. 紅霞映日 | 붉은 예장이 노을처럼 보이는 것

# 症 泪 汗 風 迎



問曰, 人之患眼, 赤澀 腫痛, 年深有紅翳 於烏睛上, 濃淚如紅霞映日者, 何也. 答曰,  
此乃三焦積熱, 肝膈風熱上攻致然也. 治之須用去風散血清涼之藥.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아 눈이 붉고 껁끄럽고 붓고 아픈데, 해묵어서 검은  
자위에 붉은 예(翳)가 있고 고름 섞인 눈물이 나서 붉은 노을에 해가 비치는  
듯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이는 삼초(三焦)에 열이 쌓이고, 간격

(肝膈)의 풍열(風熱)이 위를 공격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치료에는 마땅히 거풍(去風), 산혈(散血)하며 성질이 청량(清涼)한 약을 써야 한다.”

### 2.1.1. 修肝散 | 수간산

治肝氣不順.

간기(肝氣)가 순조롭지 못한 것을 치료한다.

防風 羌活 當歸 黃芩 生地黃 桔子 赤芍藥 甘草 薏本 大黃 白蒺藜

방풍, 강활, 당귀, 황금, 생지황, 치자, 적작약, 감초, 고본, 대황, 백蒺藜.

上各等分,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 2.1.2. 撥雲散 | 발운산

黃芩 甘草 薏本 桔子 防風 菊花 密蒙花 連翹 桔梗 薄荷 赤芍藥 白蒺藜

황금, 감초, 고본, 치자, 방풍, 국화, 밀몽화, 연교, 길경, 박하, 적작약, 백蒺藜.

上水煎, 食後服.

위의 약들을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 2.1.3. 加味修肝散 | 가미수간산

《方在小兒眼生翳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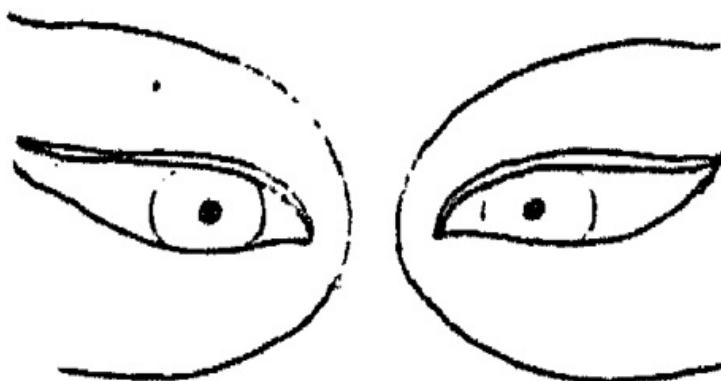
《처방은 소아안생예(小兒眼生翳) 조에 있다》

붉은 예장이 노을처럼 보이는 것 紅霞映日

---

2.2. 早晨疼痛 | 이른 새벽에 눈이 아픈 것

日 映 霞 紅



問曰，早晨痛至午者，何也。答曰，早晨至午皆陽旺。是虛陽攻上，頭風攻注，爲諸陽之首<sup>144</sup>，早晨人動則血運，赤陽<sup>145</sup>轉於首，與風氣相攻，早晨疼痛兩眦。宜服川芎散，白蒺藜散。

문기를, “이른 새벽에 눈이 아픈 것이 정오까지 가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 하기를,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모두 양(陽)이 왕성한 때이다. 이는 허양(虛陽)이 위를 공격하고 두풍(頭風)이 눈으로 몰리는 것인데, 머리는 모든 양

이 모이는 곳이니, 이른 새벽에 사람이 움직이면 혈(血)이 운행하여 모든 양이 머리로 가서 풍기(風氣)와 서로 공격하므로 이른 아침이면 눈의 양끝이 쑤시고 아프다. 마땅히 천궁산(川芎散)과 백질려산(白蒺藜散)을 복용해야 한다.”

### 2.2.1. 川芎散 | 천궁산

石膏《二兩》川芎《五錢》白附子《一兩》甘草 羌活 菊花 地骨皮

석고《2냥》천궁《5돈》백부자《1냥》감초, 강활, 국화, 지골피.

上等分,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 2.2.2. 白蒺藜散 | 백질려산

《方在肝風目暗症內》

《처방은 간풍목암(肝風目暗) 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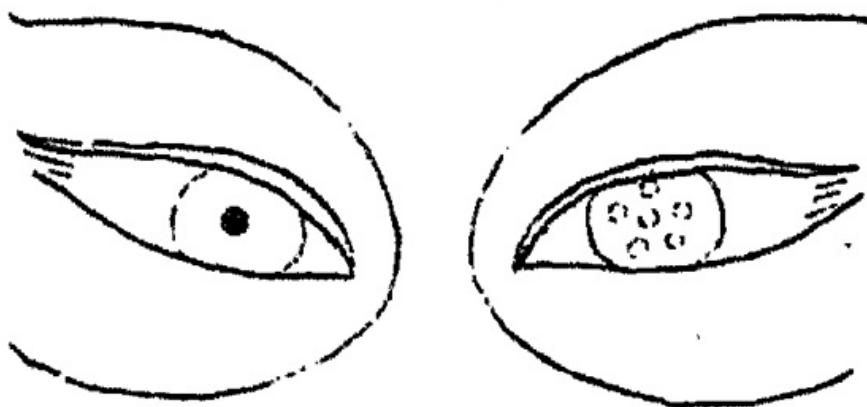
144. 諸陽之首 : ‘諸陽之會’를 잘못 쓴 것 같다. 諸陽之會는 머리를 가리킨다.



145. 赤陽 :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諸陽’으로 보면 虛陽上攻을 설명하는 전체 내용에 부합한다. ←

2.3. 午後疼痛 | 오후에 눈이 아픈 것

痛 疼 晨 早



問曰，人之患眼，午後至夜，漸加疼痛者，何也。答曰，腦虛陽毒<sup>146</sup>勝也。人身之血，午後行於陰道，至夜歸於肝之司，況腦虛陽毒<sup>147</sup>勝，故午後漸疼痛昏花也。治之須用回陽湯，次以夜光柳紅丸，宜服。

문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오후부터 밤까지 점차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뇌(腦)가 허(虛)하고 음독(陰毒)이 승(勝)한 것이다. 사람 몸의 혈(血)은 오후에 음도(陰道)를 행하다가 밤이 되면 간(肝)의 구

역으로 돌아가는데, 더구나 뇌허(腦虛)하고 음독이 승하므로 오후면 통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눈앞이 어른거리게 된다. 치료는 회양탕(回陽湯)을 써야하고, 다음으로 야광유홍환(夜光柳紅丸)을 복용함이 마땅하다.”

### 2.3.1. 回陽湯 | 회양탕

治眼珠淡紅, 羞澀 難開, 宜服.

눈알이 담홍색이면서 눈이 부시고 껄끄러워 눈을 뜨기 힘든 것을 치료하니, 마땅히 복용한다.

附子 人參 當歸 川芎 赤芍藥 茯苓 五味子 細辛 車前子 甘草

부자, 인삼, 당귀, 천궁, 적작약, 복령, 오미자, 세신, 차전자, 감초.

上每服棗子一枚, 薑三片, 水煎飢服<sup>148</sup>.

위의 약들을 매번 대추 1알, 생강 3쪽과 함께 물에 달여 배가 반쯤 꺼졌을 때 복용한다.

### 2.3.2. 夜光柳紅丸 | 야광유홍환

《方在風牽出瞼症內》 治風濕傷肝.

《처방은 풍건출검(風牽出瞼) 조에 있다》 풍습(風濕)이 간(肝)을 상한 것을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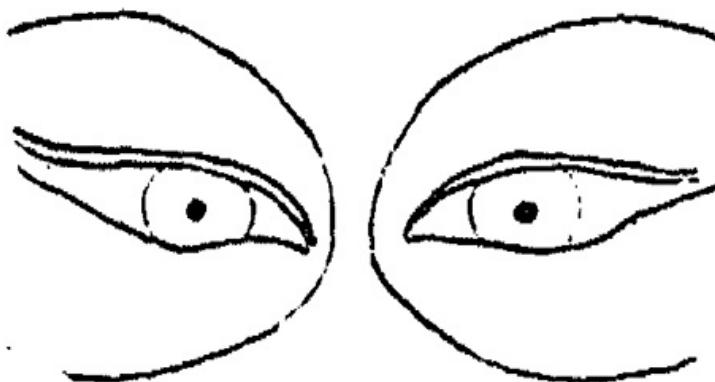
<sup>146</sup>. 陽毒 : 四庫全書本에도 이와 같으나, 文義로 보아 ‘陰毒’이 되어야 할 것이다. ↪

<sup>147</sup>. 陽毒 : [集成] 鼎本에는 ‘陰毒’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이를 따르는 것이 文義에 합당하다. ↪

148. 飢服 : (集成) 鼎本에는 ‘半飢服’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이를 따르는 편이 文義가 순조롭다. ←

2.4. 痛極增寒 | 통증이 극렬하고 오한이 심한 것

# 痛 疼 後 午



問曰，人之患眼，痛而增塞者，何也。答曰，此乃氣衰血盛。經曰血榮氣衛，足厥陰主血，榮陰也，衛爲陽<sup>149</sup>，今氣衰血旺，乃陽不勝陰，故痛極而惡寒也。宜服附子豬苓湯，白朮湯主之。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통증이 있으면서 오한이 심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이는 기(氣)가 쇠하고 혈(血)이 성한 것이다. 경(經)에 말하길, 혈은 영(營)이고 기는 위(衛)이며, 족궐음(足厥陰)이 혈을 주관하고, 영은

음(陰)이고 위는 양(陽)이라 하였는데, 지금 기가 쇠하고 혈은 왕성하여 양이  
음을 이기지 못하므로 통증이 극렬하고 오한이 있는 것이다. 마땅히 부자저령  
탕(附子豬苓湯)과 백출탕(白朮湯)을 복용하여 치료한다.”

#### 2.4.1. 附子豬苓湯 | 부자저령탕

白芍藥 甘草 羌活《各一兩》 附子 豬苓 加黃芩 柴胡

백작약, 감초, 강활《각 1냥》부자, 저령. 황금, 시호를 더한다.

上每服五錢, 水煎服之.

위의 약들을 매번 5돈씩 물에 달여 먹는다.

#### 2.4.2. 白朮湯 | 백출탕

白朮 川芎 蔓荊子 没藥 白蒺藜《去刺》黃芩 防風 五味子 菊花 甘草

백출, 천궁, 만형자, 몰약, 백질려《가시를 제거》황금, 방풍, 오미자, 국화, 감초.

上各等分,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問曰, 人之患眼, 痛而體熱者, 何也. 答曰, 衛屬陽而發熱, 榮屬陰而發寒. 榮衛爲陰陽之道也, 在上屬心肺, 在下屬肝腎, 今乃氣旺而血衰, 是陽多陰少, 故痛而體熱, 是熱邪歸於心也. 宜服洗心散, 解明散.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통증이 있으면서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어째서 인가?” 대답하기를, “위(衛)는 양(陽)에 속하여 열을 내고, 영(營)은 음(陰)에 속하여 오한을 발생시킨다. 영위(榮衛)는 음양(陰陽)의 길로서 위로는 심폐(心肺)에 속하고 아래로는 간신(肝腎)에 속하는데, 지금 기(氣)가 성하고 혈(血)이

쇠하여 양이 많고 음이 적으므로 통증이 있으면서 몸에 열이 나니, 이는 열사(熱邪)가 심(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땅히 세심산(洗心散), 해명산(解明散)을 복용한다.”

#### 2.4.3. 洗心散 | 세심산

大黃 赤芍藥 荊芥 黃連 當歸 連翹 薄荷 甘草

대황, 적작약, 형개, 황련, 당귀, 연교, 박하, 감초.

#### 2.4.4. 解明散 | 해명산

當歸 赤芍藥 黃芩 菊花 柴胡 地骨皮 車前子 桔梗 生地黃 梔子 連翹《各一兩》

당귀, 적작약, 황금, 국화, 시호, 지골피, 차전자, 길경, 생지황, 치자, 연교《각 1 양》.

上各等分, 水煎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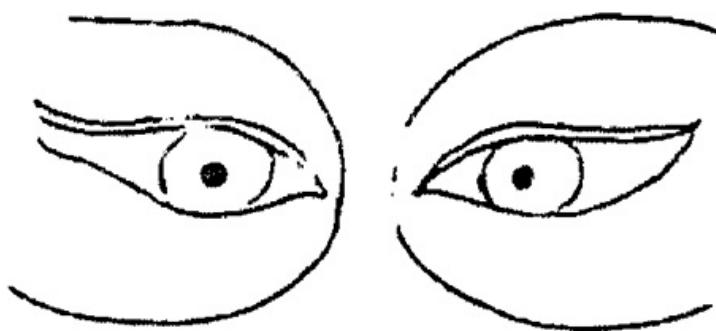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49. 經曰血榮氣衛.....衛爲陽 : ‘경曰’이라 하였으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고, 문장에 脫漏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5. 瞪停瘀血 | 눈꺼풀에 어혈이 있는 것

# 寒 增 极 痛



問曰，人之患眼，瞼停瘀血者，何也。答曰，此乃肝氣凝滯，脾胃停風濕也。或因天行赤眼之後，起之太早，不能調養，則使血凝於胞瞼之間，名曰瘀血。治之須番上下胞瞼，剉洗瘀血至盡，宜服退赤散，當歸散。

문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눈꺼풀에 어혈이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간기(肝氣)가 응체되고 비위(脾胃)에 풍습(風濕)이 정체된 것이다. 혹 천행적안(天行赤眼)을 앓은 후에 너무 빨리 운신하고 몸조리

를 하지 못하면 혈(血)이 눈꺼풀 부위에 맺히게 되니 어혈(瘀血)이라 부른다.  
치료는 위아래 눈꺼풀을 뒤집어서 살짝 찔러서 어혈을 다 씻어내고, 퇴적산(退赤散), 당귀산(當歸散)을 복용해야 한다.”

### 2.5.1. 退赤散 | 퇴적산

天黃<sup>150</sup> 黃芩 黃連 白芷 當歸 赤芍藥 桀子 桑白皮

대황(大黃), 황백, 황금, 백지, 당귀, 적작약, 치자, 상백피.

上各等分, 水煎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2.5.2. 當歸散 | 당귀산

當歸 生地黃 赤芍藥 川芎 甘草 菊花 木賊 黃芩 大黃 白蒺藜 木通 桀子

당귀, 생지황, 적작약, 천궁, 감초, 국화, 목적, 황금, 대황, 백질려, 목통, 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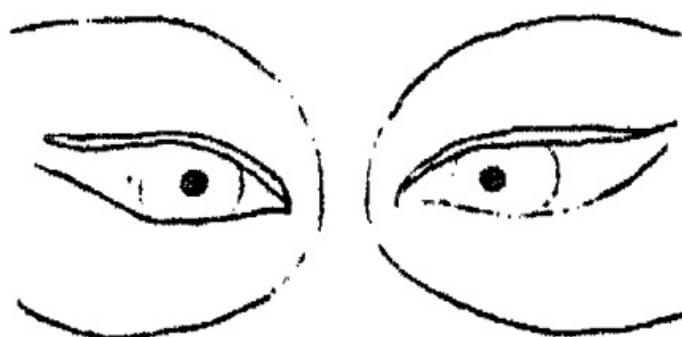
上各等分, 水煎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150. 天黃 : ‘大黃’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四庫全書本에도 ‘大黃’으로 되어 있다. ↪

2.6. 不赤而痛 | 눈이 붉지 않으면서 아픈 것

# 血 瘡 停 臉



問曰，人之患眼，不癢不赤而痛者，何也。答曰，氣腦虛也，榮衛不和，氣血凝滯亦有也。七情鬱結，肝風衝上，腦中風氣相攻，故不癢不赤而痛。初患急服藥，恐變爲五風內障難治。宜服透紅勻氣散，川芎散，助陽和血湯。

문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가렵지도 붉지도 않으면서 통증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기(氣)가 뇌(腦)에 부족하고 영위(營衛)가 조화롭지 못한 데다 기혈(氣血)의 응체 또한 있는 것이다. 칠정(七情)이 울결되어 간

풍(肝風)이 위로 치받아 뇌중(腦中)에 풍(風)과 기(氣)가 서로 공격하므로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으면서 통증만 있다. 처음 앓을 때에 급히 약을 복용해야 하니, 오풍(五風)과 내장(內障)으로 변하여 난치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투홍균기산(透紅勻氣散), 천궁산(川芎散), 조양화혈탕(助陽和血湯)을 복용한다.”

### 2.6.1. 透紅勻氣散 | 투홍균기산

當歸 細辛 白芷 没藥 澤蘭 甘草 茴香 天仙藤<sup>151</sup> 厚朴 乳香 肉桂 黑牽牛 生地黃 羌活《各一兩》

당귀, 세신, 백지, 몰약, 택란, 감초, 회향, 천선등, 후박, 유향, 육계, 흑견우, 생지황, 강활《각 1냥》.

上爲末, 每服三錢, 热酒調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 뜨거운 술에 타서 먹는다.

### 2.6.2. 川芎散 | 천궁산

川芎 菊花 細辛 鼠粘子 石膏 僵蠶 疥藜《各一兩》.

천궁, 국화, 세신, 서점자, 석고, 강잠, 질려《각 1냥》.

上爲末, 每服二<sup>152</sup>錢, 米湯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 승능에 먹는다.

### 2.6.3. 助陽和血湯 | 조양화혈탕

《方在傷寒熱病後症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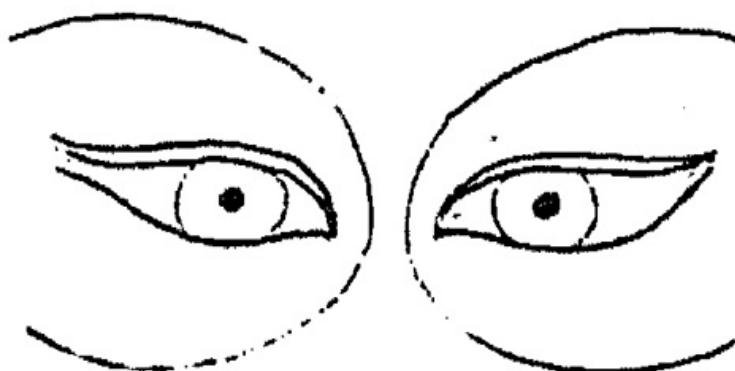
《처방은 상한열병후외장(傷寒熱病後外障) 조에 있다》

151. 天仙藤 : 馬兜鈴의 잎이 달린 줄기 덩굴. ←

152. 二 : [集成] 鼎本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 ←

2.7. 赤而不痛 | 눈이 붉으면서 아프지는 않은 것

痛 而 赤 不



問曰，人之患眼，赤而不痛者，何也。答曰，肝熱也，膀胱澀而不利，心火炎也。人身之血若河澤之流，此<sup>153</sup>若川澤疏通，必歸於海，若膀胱壅塞，則洪<sup>154</sup>水妄流。人之血順則經絡流利，上下相接，周而複始，逆則散漫妄行，上注於目，故赤而不痛也。今膀胱不利，心火上炎，肝經實熱，豈不若川澤之壅塞也。治之須用八正散，導赤散，順肝丸服之。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눈이 붉으면서 아프지는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肝)에 열이 있으며 방광(膀胱)이 깔끄러워 순조롭지 못하여 심화(心火)가 타오르는 것이다. 사람 몸의 혈(血)은 강물의 흐름과 같으니, 강물이 잘 소통되면 반드시 바다로 돌아가지만 만약 방광이 막히면 흥수가 나서 제멋대로 흐른다. 사람의 혈(血)이 순조로우면 경락(經絡)의 흐름이 매끄럽고 상하가 서로 연결되며 돌고 나면 다시 시작되지만, 거스르면 흘어지고 넘쳐서 제멋대로 행하여 위로 눈에 몰려들게 되므로 눈이 붉어 아프지는 않다. 지금 방광이 순조롭지 못하여 심화(心火)가 타오르고 간경(肝經)에 실열(實熱)이 있으니, 어찌 강물이 막힌 것과 같지 않겠는가? 치료는 마땅히 팔정산(八正散), 도적산(導赤散), 순간환(順肝丸)을 복용해야 한다.”

### 2.7.1. 八正散, 導赤散 | 팔정산, 도적산

《二方俱在大毗 赤脈條下》

《두 처방은 모두 대자적맥전정(大眡 赤脈傳睛) 조에 있다》

### 2.7.2. 順肝丸 | 순간환

黃連 黃芩 當歸 蕤仁<sup>155</sup> 《三十粒》

황련, 황금, 당귀, 유인《30알》.

上共爲末, 煉蜜爲丸.

위의 약들을 함께 갈아 졸인 꿀로 환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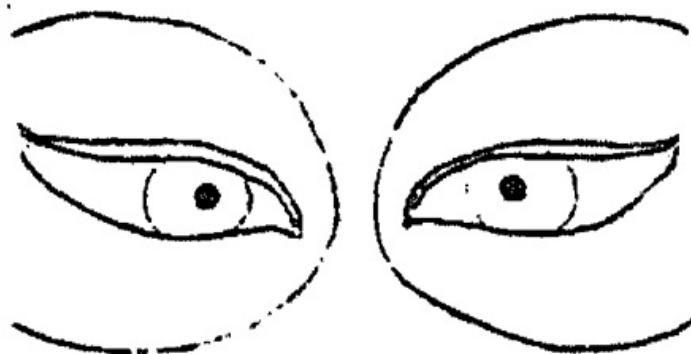
153. 此 : 四庫全書本에는 ‘比’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면 文義가 보다 명확하다. ↪

154. 洪 : (集成) 鼎本에는 ‘逆’으로 되어 있다. [←](#)

155. 蕤仁 : 장미과 식물 單花扁核木(*Prinsepia uniflora* Batal.)의 과핵. [←](#)

2.8. 左赤傳右 | 왼쪽 눈이 붉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

痛 不 而 赤



問曰, 左赤傳右, 何也. 答曰, 此陰經火熱也. 陽中行陰, 肝也, 陰中行陽, 心也, 邪熱攻積於肝也, 肝邪交於心, 傳於目也. 左目屬太陽, 右目屬太陰, 故左赤傳右, 太陽經旺也. 宜服三黃丸, 洗心散.

문기를, “왼쪽 눈이 붉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음경(陰經)의 화열(火熱)이다. 양경(陽經) 중에 음기(陰氣)를 행하는 것  
은 간(肝)이고 음경(陰經) 중에 양기(陽氣)를 행하는 것은 심(心)인데, 사열(邪  
熱)이 공격하여 간에 쌓이고 간의 사기(邪氣)가 심의 사기와 사귀어 눈에 전하

는 것이다. 왼쪽 눈은 태양(太陽)에 속하고 오른쪽 눈은 태음(太陰)에 속하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하는 것은 태양경이 성한 것이다. 마땅히 삼황환(三黃丸)과 세심산(洗心散)을 복용한다.”

### 2.8.1. 三黃丸 | 삼황환

《方在大趾 赤脈症內》 热甚加黃柏.

《처방은 대자적맥전정(大趾 赤脈傳睛) 조에 있다》 열이 심하면 황백을 더한다.

### 2.8.2. 洗心散 | 세심산

大黃 赤芍藥 當歸 甘草 荊芥 麻黃 桔子《各一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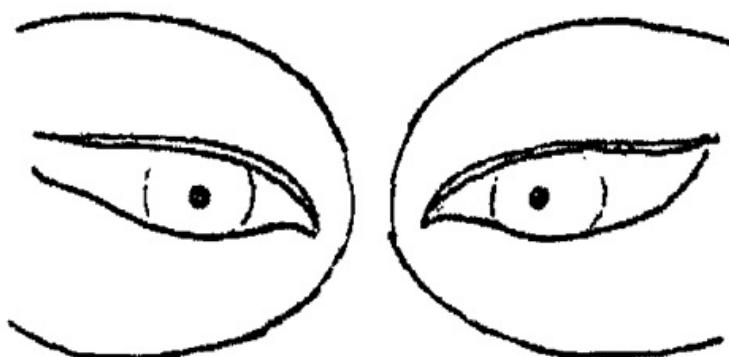
대황, 적작약, 당귀, 감초, 헝개, 마황, 치자《각 1냥》.

上各等分, 水煎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2.9. 右赤傳左 | 오른쪽 눈이 붉다가 왼쪽으로 옮기는 것

右 傳 赤 左



問曰，右赤傳左，何也。答曰，此陰經火旺。脈有陰經及陽絡，皆屬於肺，氣者肺之精也。故右赤傳左，乃肺經邪熱，陰絡火旺，宜服瀉肺散。一曰陰虛，命門火旺也。

묻기를, “오른쪽 눈이 붉다가 왼쪽으로 전하는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음경(陰經)의 화(火)가 성한 것이다. 경맥(經脈)에는 음경과 양경이 있  
는데 모두 폐(肺)에 속하니 기(氣)는 폐(肺)의 정(精)이다. 따라서 오른쪽 눈이

붉다가 왼쪽으로 옮기는 것은 폐경에 사열(邪熱)이 있어 음락(陰絡)의 화가 성한 것이니 마땅히 사폐산(瀉肺散)을 복용한다. 일설에는 음허(陰虛)하고 명문화(命門火)가 치성한 것이라 한다.”

### 2.9.1. 瀉肺散 | 사폐산

《方在膜入水輪症內》

《처방은 막입수륜(膜入水輪) 조에 있다》

### 2.9.2. 桑白散 | 상백산

治肺氣壅塞, 邪熱上攻眼目, 白睛腫脹, 日夜痛, 心煩悶.

폐기(肺氣)가 막히고 사열(邪熱)이 위로 눈을 공격하여 흰자위가 붓고 밤낮으로 아프며 가슴이 번거롭고 답답한 것을 치료한다.

桑白皮 元參 升麻 杏仁 旋複花 赤芍藥 菊花 莖藴 防風 黃芩 枳殼 甘草《炙, 各一兩》

상백피, 원삼, 승마, 승마, 행인, 선복화, 적작약, 국화, 정력, 방풍, 황금, 지각, 감초  
《구운 것, 각 1냥》.

上每服水一鐘半, 薑三片, 煎至八分, 食遠<sup>156</sup>溫服.

위의 약들을 매번 물 1종지 반, 생강 3쪽과 함께 8/10이 되도록 달여, 끼니와 먼 때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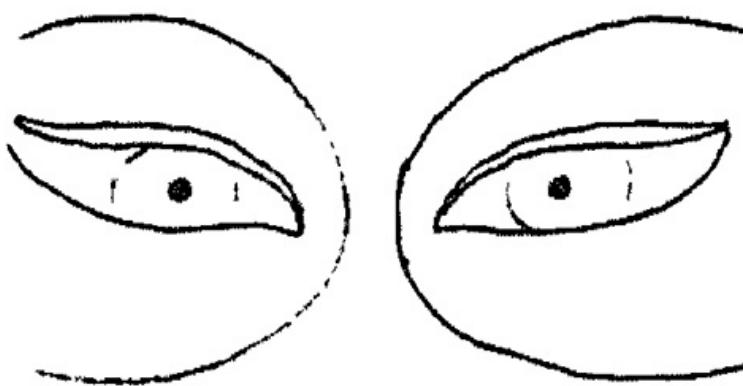
<sup>156</sup>. 遠 : (集成) 鼎本에는 ‘後’로 되어 있다. ↵

오른쪽 눈이 붉다가 왼쪽으로 옮기는 것 右赤傳左

---

2.10. 胞腫如桃 | 눈꺼풀이 복숭아처럼 부어 오른 것

左 傳 赤 右



問曰，人之患眼，胞臉壅腫如桃者，何也。答曰，此乃脾肺之壅熱，邪客於腠理，致上下胞腫如桃，痛澀淚出，不絕之注。桃目治之，用桃葉烘熱，熨其腫處。宜服此散清涼散，羌活除風湯，蟬化散主之。

문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눈꺼풀이 부어올라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어떤 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비(脾)와 폐(肺)에 열이 막혀있고 사기(邪氣)가 주리(腠理)에 침입하여 위아래 눈꺼풀이 복숭아처럼 붓는 것으로, 아프고 깔깔하

며 눈물이 나는데 끊임없이 줄줄 흐른다. 복숭아처럼 부은 눈을 치료할 때에는 복숭아 잎을 불에 찌어 뜨겁게 해서 부은 곳을 찜질한다. 마땅히 차산청량산(此散清涼散), 강활제풍탕(羌活除風湯), 선화산(蟬化散)을 복용하여 치료한다.”

### 2.10.1. 此散清涼散<sup>157</sup> | 차산청량산

升麻 赤芍藥 川芎 柴胡《各三兩》元參 黃芩 荊芥 甘草 白朮 桔子 赤茯苓 干葛 草決明

승마, 적작약, 천궁, 시호《각 3냥》원삼, 황금, 형개, 감초, 백출, 치자, 적복령, 건갈, 석결명.

上共爲末, 每服六錢, 水煎服.

위의 약들을 함께 갈아 매번 6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2.10.2. 羌活除風湯 | 강활제풍탕

羌活 獨活 川芎 桔梗 大黃 地骨皮 黃芩《各一兩》麻黃 蒼朮 甘草 菊花 木賊

강활, 독활, 천궁, 길경, 대황, 지골피, 황금《각 1냥》마황, 창출, 감초, 국화, 목적.

上水煎服.

위의 약들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2.10.3. 蟬花散 | 선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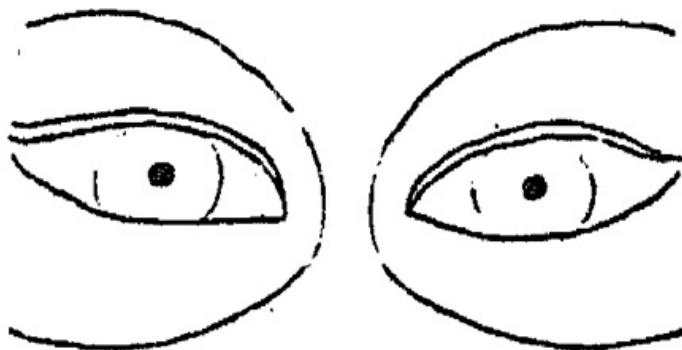
《方在花翳 白陷症內》

《처방은 화예백합(花翳 白陷) 조에 있다》

157 . 此散清涼散 :〔集成〕鼎本에는 ‘此’가 ‘无’로 되어 있다. 〔역주〕四庫全書本은 ‘此’로 되어 있다. ↪

2.11. 視物不眞 |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 것

# 桃如腫胞



問曰，人之患眼，視物不明，如紗遮睛，何也。答曰，此血衰氣旺。血爲營，氣爲衛，衛爲陽而氣清，榮爲陰而氣濁。素問曰，清氣爲天，濁氣爲地，清陽發腠理，濁陰走五臟者，<sup>158</sup>心肝脾肺腎也。眼有五輪，內屬五臟，腎屬於水輪爲瞳人。腎水衰不能濟於肝木，使肝木血衰，不榮於眼目，故睛少短，不能久視，腎衰不爲心火交濟，故心火上炎，眼目必熱，則看物不准。今腎水衰乃虛陽攻上，肝血衰故目不得血，豈非血衰而氣旺也。服駐景丸，補腎，四順涼肝散。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아 얇은 천으로 눈을 가린 듯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이는 혈(血)이 쇠약하고 기(氣)가 왕성한 것이다. 혈은 영(營)이고 기는 위(衛)이며, 위는 양(陽)으로 기운이 맑고 영은 음(陰)으로 기운이 탁하다. 『소문(素問)』에서 청기(淸氣)는 하늘이 되고 탁기(濁氣)는 땅이 되며, 청양(淸陽)은 주리로 나오고 탁음은 오장(五臟)으로 달려간다 하였으니, 바로 심간비폐신(心肝脾肺腎)이다. 눈에 오륜(五輪)이 있어서 안으로 오장에 배속되는데, 신(腎)은 수륜(水輪)에 속하며 동공이 된다. 신수(腎水)가 쇠하여 간목(肝木)을 돋지 못하면 간목의 혈을 쇠하게 하여 눈을 영양하지 못하므로 동공이 작아지고 오랫동안 볼 수 없으며, 신이 쇠하여 심화(心火)와 교제(交濟)하지 못하므로 심화가 타올라 눈이 반드시 열을 받게 되니 사물을 보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다. 지금 신수가 쇠하여 허양(虛陽)이 위를 공격하고, 간혈(肝血)이 쇠하여 눈이 혈을 얻지 못하니 어찌 혈이 쇠하고 기가 왕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경환(駐景丸)으로 보신(補腎)하고, 사순양간산(四順涼肝散)을 복용한다.”

### 2.11.1. 駐景丸 | 주경환

川椒《一兩, 去目》楮實子 五味子 枸杞子 乳香 人參《各一兩》菟絲子 肉蓴蓉《各五錢》

천초《1냥, 눈을 제거한 것》저실자, 오미자, 구기자, 유향, 인삼《각 1냥》토사자, 육종용《각 5돈》.

上煉蜜爲丸, 鹽湯下.

위의 약들을 졸인 꿀로 환을 만들어 소금 끓인 물에 먹는다.

### 2.11.2. 四順涼肝散 | 사순양간산

荊芥 川芎 當歸 防風 赤芍藥 甘草 漢防己

형개, 천궁, 당귀, 방풍, 적작약, 감초, 한방기.

上各等分, 水煎溫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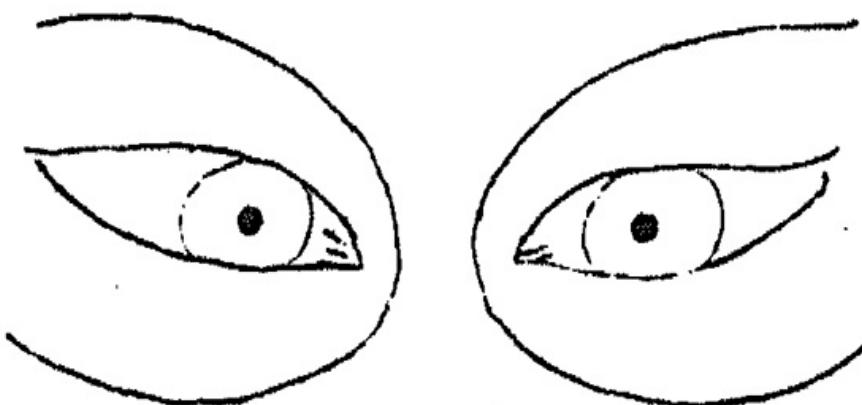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

158. 清氣爲天.....濁陰走五臟者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보인다. “故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故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

2.12. 室女逆經 | 처녀의 월경이 거슬러서 눈병이 생긴 것

真 不 物 視



問曰，人之患眼，女子逆經，血灌瞳人，滿眼赤澀者，何也。答曰，此乃室女或肥壯婦女血熱經閉，過期不行，則血逆行於上，注於目，灌於睛外，皆紅色，或烏睛上起如胬肉。治之切不可鉤割，只用下氣破血通經之藥，其血翳自退。宜服調經散，破血紅花散，順經湯，導赤散。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여자의 월경이 거슬러서 핏발이 동공으로 뻣고 눈이 온통 붉으면서 껄끄러운 것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는 처녀나 혹은 살지고 건강한 여자가 혈열(血熱)로 월경이 막힌 것이니, 날짜가 지나도 월경을 하지 않으면 혈이(血)이 위로 역행하여 눈에 몰려 눈알 바깥쪽에 흘러 들어가 모두 붉게 되며, 혹은 검은자위에 군살 같은 것이 돋는다. 치료는 절대 따거나 째서는 안 되며, 단지 하기(下氣), 파혈(破血), 통경(通經)하는 약을 쓰면 그 혈에(血鬱) 가 자연히 사라진다. 마땅히 조경산(調經散), 파혈홍화산(破血紅花散), 순경탕(順經湯), 도적산(導赤散)을 복용한다.”

### 2.12.1. 調經散 | 조경산

香附米 當歸尾《各一兩》大黃《五錢, 蒸》黃芩《二兩》黃連 生地黃 赤芍藥 川芎 羌活 桀子 薄荷 木賊 蘇木 紅花 甘草《以上各一兩》

향부미, 당귀미《각 1냥》대황《5돈, 찐 것》황금《2냥》황련, 생지황, 적작약, 천궁, 강활, 치자, 박하, 목적, 소목, 홍화, 감초《이상 각 1냥》.

### 2.12.2. 破血紅花散 | 파혈홍화산

《方在血鬱 胞睛症內》 治室女逆經, 眼疼痛, 生血鬱 包睛.

《처방은 혈예포정(血鬱 胞睛) 조에 있다》 실녀역경(室女逆經)으로 눈이 아프고 혈예포정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 2.12.3. 順經湯 | 순경탕

能通經, 行血止痛.

월경을 통하게 하고 혈(血)을 운행시켜 통증을 그치게 한다.

當歸尾 川芎 枳殼 小茴香 柴胡 陳皮 玄胡索 白芍藥 青皮 香附子 桃仁 紅花 肉桂 热  
甚加黃連 黃芩.

당귀미, 천궁, 지각, 소회향, 시호, 진피, 현호색, 백작약, 청피, 향부자, 도인, 홍화, 육계. 열이 심하면 황련, 황금을 더한다.

上各等分, 水煎, 食後溫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2.4. 導赤散 | 도적산

《方在大眦 赤脈症內》

《처방은 대자적맥전정(大眥 赤脈傳睛) 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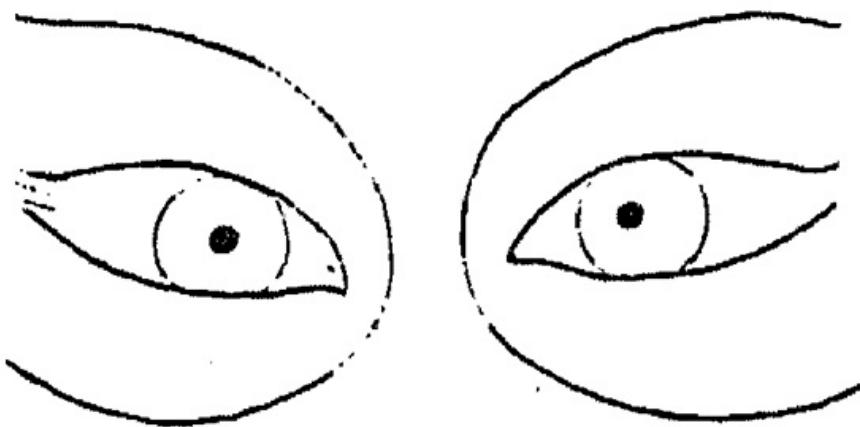
#### 2.12.5. 没藥散 | 몰약산

《方在胞肉生瘡症內》

《처방은 포육생창(胞肉生瘡) 조에 있다》

2.13. 血室澀痛 | 월경을 할 때 눈이 깔끄럽고 아픈 것

# 經逆女室



問曰，婦人遇行經之際，眼目澀痛者，何也。答曰，肝虛也。凡婦人稟受虛者，眼中原有病根，若遇行經之際，去血過多，肝經愈加虛損。故使眼目轉加疼痛，腫澀難開，頭痛眩暉，生翳於黑睛上，或如粟米，或如花翳白陷者，皆因肝衰虛也，宜服當歸補血散，煎煎<sup>159</sup>以九一丹。

묻기를, “부인이 월경을 할 즈음에 눈이 깔끄럽고 아픈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간(肝)이 허(虛)한 것이다. 무릇 타고난 바탕이 허(虛)한 부인은 눈에 본디 병의 뿌리가 있는데, 월경을 할 즈음이 되면 혈(血)이 배출되는 것이

과다하여 간경(肝經)이 더욱 허손(虛損)된다. 그래서 눈을 굴리면 통증이 심해지며, 붓고 껄끄러워서 눈을 뜨기 어렵고,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우며, 검은 자위에 예(翳)가 생겨 혹은 졸쌀 같고 혹은 화예백함(花翳 白陷)과 같으니, 모두 간이 허약한 것이다. 마땅히 당귀보혈산(當歸補血散)을 복용하며,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 2.13.1. 當歸補血散 | 당귀보혈산

當歸 川芎 白芍藥 防風 細辛 菊花 甘草 車前子 疾藜 白朮 羌活 荘蔚子 薄荷《各一兩》大黃《五錢》

당귀, 천궁, 백작약, 방풍, 세신, 국화, 감초, 차전자, 질려, 백출, 강활, 충울자, 박하《각 1냥》 대황《5돈》.

上每服八錢, 水煎, 入酒三盞, 溫服.

위의 약들을 매번 8돈씩 물에 달이고 술 3잔을 넣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3.2. 八物湯 | 팔물탕

治虛損血枯, 上攻眼目.

몸이 허손(虛損)되고 혈(血)이 말라서 위로 눈을 공격하는 것을 치료한다.

黃芪 茯苓 熟地黃 川芎 當歸 人參 菊花 白芍

황기, 복령, 숙지황, 천궁, 당귀, 인삼, 국화, 백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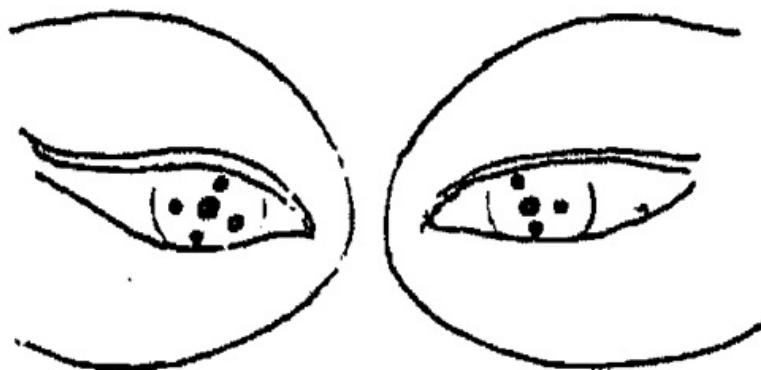
上每服半飢, 溫服.

위의 약들은 매번 복용할 때마다, 반 정도 배가 꺼진 상태에서 따뜻하게 먹는다.

159. 煎 : (集成) 鼎本에는 ‘點’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또한 本書 전체에 걸쳐 九一丹 등의 丹藥을 점안하는 내용이 나오며 이 를 煎湯한다고는 하지 않았으니, ‘點’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

2.14. 白睛黃赤 | 흰자위가 누렇거나 붉게 된 것

# 痛 滴 室 血



問曰，白睛漸漸黃赤者，何也。答曰，酒毒也。酒能發陽，過飲無度，脾經受濕，傷肝膽助火，火傷於肺經，白仁屬肺，故白睛黃赤者，酒之過也。引血傷於肝，肝受其血熱，自上朝於目，目受其酒之熱毒灌注睛輪黃赤。宜服黃連解毒散，服數貼之後，點以清涼散。

묻기를, “흰자위가 점점 누렇거나 붉게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주독(酒毒)이다. 술은 양(陽)을 발동시키는데, 절도 없이 과음하면 비경(脾經)이 습(濕)을 받고 간담(肝膽)이 상하여 화(火)를 도와서 화가 폐경(肺經)을 상하는데, 흰자위는 폐(肺)에 속하므로 흰자위가 누렇고 붉게 되는 것은 술이 과한 것이다. 혈(血)을 끌어 간을 상하고 간이 혈열(血熱)을 받으면 자연히 위로 눈에 모여드는데, 눈이 술의 열독(熱毒)을 받으면 눈동자로 흘러들어가 누렇고 붉어진다. 마땅히 황련해독산(黃連解毒散)을 복용하는데, 몇 첨을 복용한 후에 청량산(淸涼散)을 점안한다.”

#### 2.14.1. 黃連解毒散 | 황련해독산

黃連 黃芩 黑參 龍膽草 荊芥 梔子 天花粉 茵陳 生地黃 車前子 桔梗 連翹

황련, 황금, 흑삼, 용담초, 형개 치자, 천화분, 인진, 생지황, 차전자, 길경, 연교.

上每服水煎, 加童便三盞, 溫服.

위의 약들을 복용할 때마다 물에 달이고 동변 3잔을 넣어 따뜻하게 먹는다.

#### 2.14.2. 清金涼肝散 | 청금양간산

黃連 黃芩 梶子 連翹 莖薢 桑白皮 麥門冬 天花粉 赤芍藥 干葛 荆芥 杏仁 青皮 甘草

황련, 황금, 치자, 연교, 정력, 상백피, 맥문동, 천화분, 적작약, 건갈, 형개, 행인, 청피, 감초.

上水煎, 加蜜一盞入內, 煎一沸, 食後溫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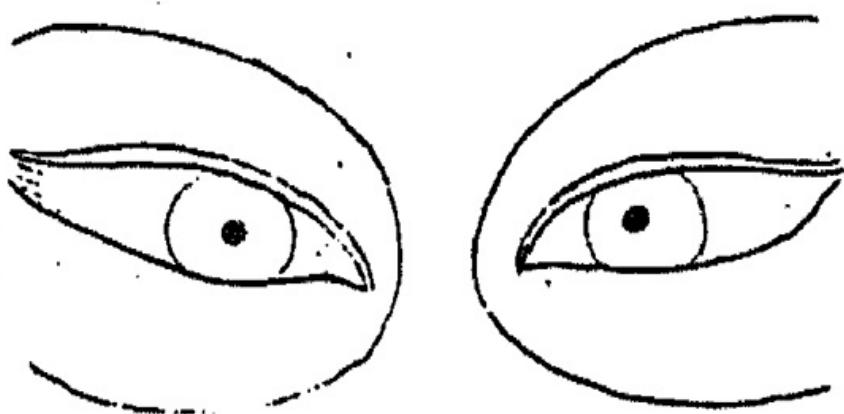
위의 약들을 물로 달이는데, 꿀 1잔을 더 넣고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흰자위가 누렇거나 붉게 된 것 白睛黃赤

---

2.15. 患眼頭痛 | 눈병을 앓으면서 두통이 있는 것

赤 黃 睛 白



問曰，人之患眼，偏正頭痛者，何也。答曰，風毒甚也。頭風在右者，屬痰屬熱，用蒼朮，半夏，熱用酒製黃芩。在左屬風及血虛，風用荊芥，薄荷，血虛者用芎歸芍藥酒製黃柏。此三症看而用之有驗。治法，痛甚者酒調散表之，熱痛者，石膏散，清空散，川芎茶調散，冷痛者酒調散，川芎散，神清散主之。風毒作痛，菊花散，如神散主之，不必點丹。

묻기를,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편두통(偏頭痛)과 정두통(正頭痛)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풍독(風毒)이 심한 것이다. 두풍(頭風)이 오른 쪽에 있는 경우는 담(痰)과 열(熱)에 속하니 창출, 반하를 쓰고 열이 있으면 술로 법제한 황금을 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풍(風)이나 혈허(血虛)에 속하니 풍에는 형개, 박하를 쓰고 혈허에는 천궁, 당귀, 작약, 술로 법제한 황백을 쓴다. 이 세 가지 증을 분별하여 사용하면 효험이 있다. 치료는 통증이 심하면 주조산(酒調散)으로 표(表)를 풀어주는데, 열통(熱痛)에는 석고산(石膏散), 청공산(清空散), 천궁다조산(川芎茶調散)을 쓰고, 냉통(冷痛)에는 주조산(酒調散), 천궁산(川芎散), 신청산(神清散)을 쓰며, 풍독(風毒)으로 통증이 있으면 국화산(菊花散), 여신산(如神散)을 쓰니, 단약(丹藥)을 점안할 필요는 없다.”

### 2.15.1. 酒調散<sup>160</sup> | 주조산

下桑螵蛸 的. 《方在暴風客熱證內》

상표초를 넣은 것. 《처방은 폭풍객열(暴風客熱) 조에 있다》

### 2.15.2. 灸穴 | 뜸을 뜨는 혈자리

百會一穴 神聰四穴 臨泣二穴 聽會二穴 耳尖二穴 風池二穴 光明二穴 太陽二穴 率骨<sup>161</sup>二穴

백회 1혈, 신총 4혈, 임읍 2혈, 청회 2혈, 이첨 2혈, 풍지 2혈, 광명 2혈, 태양 2혈, 솔골 2혈.

### 2.15.3. 定髮際並 點各穴法則 | 발제(髮際)를 정하고 각 혈을 정하는 법

《南筠參入》偏則《灸一邊痛處》<sup>162</sup> 前眉心平以墨點記, 以草比同身寸三寸. 自眉心比至草盡處是前發際, 亦以墨點記. 又大杼骨上一點, 以前草三寸盡處, 亦點記, 是後發際. 又將草自前發際比至後發際, 平折摘去一節, 又將草均分作六折, 摘一折止

存五折. 以此草, 自前發際比至草盡處, 是百會穴. 又以百會穴爲中, 四邊各開二寸半, 乃神聰穴也.

《남군이 참고로 기입함》 한 쪽《한 쪽의 아픈 곳에 뜸을 뜯다》. 미심(眉心)의 한 가운데에 먹으로 점을 찍어 표시하고, 풀잎을 동신촌법(同身寸法)으로 3촌에 맞춘다. 미심으로부터 풀을 대어서 풀이 끝나는 점이 전발제(前髮際)이니 역시 먹으로 점을 찍어 표시한다. 또한 대저골(大杼 骨) 위에 점 하나를 찍고, 앞의 풀로 3촌이 다하는 곳에 역시 점을 찍으니 이곳이 후발제(後發際)이다. 또 풀잎을 전발제부터 후발제까지의 길이에 맞춘 다음, 반으로 접어 한 마디는 떼어버리고, 다시 이 풀을 6등분하여 이 중 한마디를 잘라내고 5마디만 남긴다. 이 풀을 전발제부터 대여보아 풀이 끝나는 지점이 백회혈(百會穴)이다. 또한 백회혈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각각 2촌 반씩 떨어진 곳이 신총혈(神聰穴)이다.

#### 2.15.3.1. 灸耳尖穴 | 이첨혈(耳尖穴)에 뜸을 뜯다

《即率骨穴<sup>163</sup>》將耳折轉, 尖上比寸半, 盡處是率骨穴》考過同<sup>164</sup>

《즉 솔골혈이다》 귀를 접어 넘겼을 때 생기는 꼭지점에서 위로 1촌 반을 재어 끝나는 곳이 솔골혈이다.

#### 2.15.3.2. 臨泣穴 | 임읍혈

以瞳人對眉尖上點爲記, 以草自點, 比上三寸半是臨泣穴.

동공과 수직이 되는 눈썹 위에 점을 찍어 기록하고, 풀잎으로 재어 그 점에서 위로 3촌 반 올라간 곳이 임읍혈이다.

#### 2.15.3.3. 光明穴 | 광명혈

對瞳人上眉中, 是光明穴.

동공과 수직이 되는 눈썹 중앙이 광명혈이다.

#### 2.15.3.4. 攢竹穴 | 찬죽혈

眉頭兩陷中, 是攢竹穴.

눈썹 앞머리의 오목한 곳이 찬죽혈이다.

#### 2.15.3.5. 睛明穴 | 정명혈

在目內大毗 外畔肉上, 陷宛中.

눈 안쪽 끝의 가장자리 살 부분에 있는 오목한 곳이다.

#### 2.15.3.6. 頰車穴 | 협거혈

在耳下曲頰<sup>165</sup>端, 陷中.

귀 밑, 아래턱 모서리 끝의 오목한 곳이다.

#### 2.15.3.7. 風池穴 | 풍지혈

在後發際陷中.

후발제의 오목한 곳이다.

#### 2.15.3.8. 肝俞 穴 | 간수혈

在第九骨下, 各開寸半.

제9번 흉추 아래에서 좌우로 1촌 반씩 떨어진 곳이다.

#### 2.15.3.9. 天府穴 | 천부혈

在胸兩腋下, 三寸宛宛中.

가슴 양옆의 겨드랑이에서 아래로 3촌이 되는 오목한 곳이다.

#### 2.15.3.10. 清會穴 聽會穴

在耳下前陷中, 開口取之.

귀 전하방의 오목한 곳이며, 입을 벌리고 취혈(取穴)한다.

### 2.15.3.11. 耳門穴 | 이문혈

在上耳前起肉, 當耳缺.

| 귀 전상방의 살이 도드라진 부분이니, 귀가 얼굴과 만나는 곳에 해당한다.

### 2.15.3.12. 魚尾穴 | 어미혈

在小毗 橫紋盡處.

| 눈초리의 가로 주름이 끝나는 부분이다.

### 2.15.3.13. 太陽穴 | 태양혈

在外毗 五分是.

| 눈초리에서 5푼 떨어진 곳이다.

### 2.15.4. 石膏散 | 석고산

石膏《五錢》麻黃《一兩》何首烏《五錢》干葛《八錢》

| 고《5돈》마황《1냥》하수오《5돈》건갈《8돈》.

上用水煎, 食後服.

| 위의 약들을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5.5. 清空散 | 청공산

川芎《五錢》柴胡《七錢》黃連《炒》防風《去蘆》甘草《炙》羌活《各一兩》梔子《兩半》黃芩《三兩半, 炒一半, 酒製一半》

천궁《5돈》시호《7돈》황련《볶은 것》방풍《뿌리꼭지를 제거한 것》감초《구운 것》강활《각 1냥》치자《1냥 반》황금《3냥 반, 절반은 볶고 절반은 술로 법제한다》.

上爲細末, 每服一錢, 热酒內入茶少許, 調如膏, 臨臥抹口內, 少用白湯下. 如頭疼每服加細辛二錢, 如太陰脈緩有疾, 名痰厥頭疼, 加羌活, 防風, 川芎, 甘草, 半夏《一兩五錢》. 如偏正頭痛服之不愈, 減羌活, 防風, 川芎一半, 加柴胡一倍. 如發熱惡寒, 热而渴, 此陽明頭痛, 只服白虎湯加香白芷.

위의 약들을 곱게 가루로 만들고, 매번 1돈씩을 뜨거운 술에 넣고 차(茶)를 약간 타서, 되직하게 개어 잠자리에 들 때 입안에 바른 후 끓인 물 조금으로 삼킨다. 머리가 아프면 복용할 때마다 세신 2돈을 더하며, 태음맥(太陰脈)이 완(緩)하면서 질(疾)하면 담궐두동(痰厥頭疼)이라 하니 강활, 방풍, 천궁, 감초, 반하《1냥 5돈》을 더한다. 편두통과 정두통에 약을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강활, 방풍, 천궁을 반으로 줄이고 시호를 1배 더한다. 발열과 오한이 있는데 열이 나면 갈증이 있는 것은 양명두통(陽明頭痛)이니 백호탕(白虎湯)에 향백지를 더해서 복용한다.

### 2.15.6. 白虎湯 | 백호탕

知母 石膏 甘草 加香白芷

지모, 석고, 감초. 향백지를 더한다.

上各等分, 入粳米三十粒, 水煎服.

위의 약들을 같은 양으로 하고 맵쌀 30알을 넣어서 물에 달여 복용한다.

### 2.15.7. 川芎茶調散 | 천궁다조산

治諸風上攻頭目, 偏正頭痛, 热頭風.

풍(風)이 위로 머리와 눈을 공격하여 생긴 편두통과 정두통, 열로 인한 두풍(頭風)을 모두 치료한다.

薄荷《八錢》防風《一兩五錢》細辛《一兩》羌活 白芷 甘草《各二兩》川芎 荊芥《各四兩》

박하《8돈》방풍《1냥 5돈》세신《1냥》강활, 백지, 감초《각 2냥》천궁, 형개《각 4냥》.

上爲末, 每服三錢, 蔥白茶調湯溫服, 常服清頭目.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을 총백과 차를 끓인 물에 따뜻하게 복용하니, 늘 복용하면 머리와 눈이 맑아진다.

#### 2.15.8. 芎藶 散 | 궁궁산

治冷頭風.

냉두풍(冷頭風)을 치료한다.

石膏《二錢五分》草烏《一分五厘》芎藶《二分》薄荷《二分》白附子《二分》甘草《一分》白芷《三分》細辛《一分》仙靈脾<sup>166</sup>《二分》

석고《2돈 5푼》초오《1푼 5리》궁궁《2푼》박하《2푼》백부자《2푼》감초《1푼》백지《3푼》세신《1푼》선령비《2푼》.

#### 2.15.9. 神清散 | 신청산

《方在兩瞼粘睛症內》治冷頭風.

《처방은 양검점정(兩瞼粘睛) 조에 있다》냉두풍(冷頭風)을 치료한다.

枳殼 白芷 石膏 甘草 細辛 麻黃

지각, 백지, 석고, 감초, 세신, 마황.

#### 2.15.10. 菊花散 | 국화산

《方在迎風酒 漏症內》

《처방은 영풍쇄루증(迎風酒 淚症) 조에 있다》

#### 2.15.11. 如聖散 | 여성산

白芷 川烏 防風《各一兩》細辛《二分半》雄黃《二分》草烏《炮 過, 去皮》兩頭尖<sup>167</sup>

백지, 천오, 방풍《각 1냥》세신《2푼 반》웅황《2푼》초오《불에 그슬려 껍질을 제거한 것》양두첨.

上爲末, 溫酒調下, 二日服一次.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술에 타서 이틀에 한번 복용한다.

#### 2.15.12. 通頂散 | 통정산

治一切頭風.

모든 두통을 치료한다.

川芎 白芷 穀精草 藜蘆 防風 薄荷 牙皂 蔓荊子 細辛 蒲黃

천궁, 백지, 곡정초, 여로, 방풍, 박하, 아조, 만형자, 세신, 포황.

上爲末, 口含水噙之. 吹入鼻內亦可.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입에 물을 머금고 약을 코로 들이마신다. 콧속에 불어 넣어도 된다.

### 2.15.13. 雄黃丸 | 웅황산

治偏正頭風.

편두풍(偏頭風)과 정두풍(正頭風)을 치료한다.

全蠍 雄黃《各二錢》 盆硝《一錢五分》 乳香 沒藥《各二錢》 薄荷 川芎《各一錢》 冰 片《一分》

전갈, 응황《각 2돈》 분초《1돈 5푼》 유향, 몰약《각 2돈》 박하, 천궁《각 1돈》 빙 면《1푼》.

上爲末, 口噙水搐, 吹鼻內, 日二次.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하루 2번씩 입에 물을 머금고 코로 들이마시거나 콧속에 불어 넣는다.

### 2.15.14. 貼諸般疼痛眼方<sup>168</sup> | 통증이 있는 눈병에 붙이는 처방

赤芍蒲黃與鬱金, 芙蓉研 末拌均勻.

적작약, 포황, 울금, 부용을 갈아서 고루 섞는다.

朱缺土螺<sup>169</sup> 緊薑汁, 若然常痛只擦睛.

눈알이 이지러지면 우렁이, 땅기면 생강즙, 늘 아프다면 그저 눈동자에 바른다.

痛甚, 加白芷南星無名異<sup>170</sup>. 血見熱久不開, 加生川烏. 等分爲末, 热水調搽 眼眶四圍, 乾了再換.

통증이 심하면 백지, 남성, 무명이를 더한다. 핏발이 서고 뜨거우며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하면 생천오를 더한다.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타서 눈 주위 사방에 바르고, 마르면 다시 발라준다.

### 2.15.14.1. 羌活除風湯 | 강활제풍탕

《方在前》

《처방은 앞에 있다》

160. 酒調散 : 「暴風客熱」조에는 처방명이 ‘桑螵蛸 酒調散’으로 되어 있다. ↵

161. 率骨 : 足少陽膽經의 率谷穴이다. ↵

162. 《南筠參入》偏則《灸一邊痛處》: ‘南筠’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小字注文이 맨 앞에 나오는 것도 다른 곳의 격식과 다르다.抄校者가 脫誤를 바로잡으려 補入한 것 같기도 하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偏側에 뜸을 뜨라는 내용은 앞의 灸穴을 나열한 곳에 붙어야 뜻이 통할 것으로 생각된다. ↵

163. 即率骨穴 : 耳尖은 귀를 접었을 때 나타나는 尖端部이고, 率骨 즉 率谷은 耳尖을 기준으로 取穴하는 側頭部의 穴이다. 앞에서 灸穴을 나열한 곳에도 耳尖과 率骨이 모두 있으므로 같은 穴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

164. 考過同 : 의미가 불명확하다. 풀잎으로 길이를 재는 앞의 방법과 같이 하라는 말일 수 있겠다. ↵

165. 曲頰 : 아래턱뼈 양옆의 모난 부분을 말한다. ↵

166. 仙靈脾 : 淫羊藿. ↵

167. 兩頭尖 : 雄鼠糞. 쥐과 동물 褐家鼠 수컷의 건조시킨 糞便.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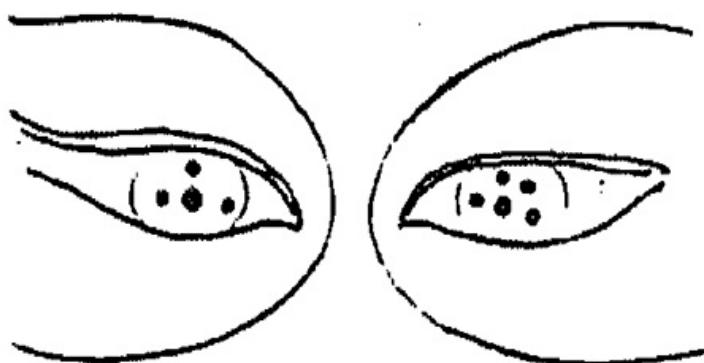
168. 貼諸般疼痛眼方 : 『急救仙方』에 “貼眼藥, 赤芍蒲黃與鬱金, 芙蓉研 末拌均勻, 珠缺土螺緊薑汁, 若還常痛止茶清, 痛甚加白芷南星無名異. 血見愁, 久不開者, 加生川烏.”라 하여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

169. 土螺 : 田螺와 같은 말로, 우렁이를 가리킨다. ↵

170. 無名異 : 연망간석(軟Mangan石). 우리나라에는 없는 鎌物이다. ↵

2.16. 眼能遠視不能近視 | 멀리는 볼 수 있는데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

# 疼頭眼患



問曰，能遠視不能近視者，何也。答曰，氣旺血衰也。經云，近視不明，是無水也。治宜六味地黃丸加補腎丸，諸補陰藥皆可主之。

문기를, “먼 곳은 잘 보는데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 하기를, “기(氣)가 왕성하고 혈(血)이 쇠한 것이다. 경(經)에 말하기를 가까운 것을 또렷이 보지 못하면 수(水)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치료는 육미지황환(六

味地黃丸)에 보신환(補腎丸)을 더하여 복용하며, 여러 보음약(補陰藥)도 모두 쓸 수 있다.”

### 2.16.1. 六味地黃丸 | 육미지황환

治腎虛, 眼不奈視, 神光不足.

신허(腎虛)로 눈이 보이지 않고 신광(神光)이 부족한 것을 치료한다.

熟地黃 澤瀉 白茯苓 牡丹皮 山萸 山藥 一方加川芎, 當歸, 蔓荊子.

숙지황, 택사, 백복령, 목단피, 산수유, 산약. 어떤 처방에는 천궁, 당귀, 만형자 를 더한다.

上爲末, 煉蜜爲丸, 如桐子大, 每服三十丸, 空心服. 不必點丹.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고 줄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으로 만들어 매번 30환씩 공복에 복용한다. 단약(丹藥)을 점안할 필요는 없다.

問曰, 能近視不能遠視者, 何也. 答曰, 血虛氣不足也. 經云, 遠視不明, 是無火也. 治初起者宜服地芝丸, 千里光散, 菊花散, 隨人氣血虛實加減, 諸補藥皆可用.

묻기를, “가까운 것은 잘 보는데 먼 곳은 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 하기를, “혈(血)이 허하고 기(氣)가 부족한 것이다. 경(經)에 말하기를, 먼 곳을 또렷이 보지 못하면 화(火)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치료는 초기에 지지환(地芝丸), 천리광산(千里光散), 국화산(菊花散)을 쓰는데 환자의 기혈허실(氣血虛實)에 따라 가감하며, 여러 보약을 모두 쓸 수 있다.”

### 2.16.2. 地芝丸 | 지지환

甘菊花 枢殼《各一兩》生地黃《四兩》天門冬《四兩》又加麥門冬亦可用

감국화, 지각《각 1냥》 생지황《4냥》 천문동《4냥》 또 맥문동을 더하여 쓸 수도 있다.

上爲末, 煉蜜爲丸. 每服三十丸, 空心鹽湯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환을 빚는다. 매번 3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먹는다.

### 2.16.3. 千里光散 | 천리광산

菊花 **千里光**<sup>171</sup> 甘草《各等分》

국화, 천리광, 감초《각각 같은 양》.

上爲末, 每服三錢, 夜間臨臥, 用茶清調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씩을 잠자리에 들 때 찻물에 타서 먹는다.

### 2.16.4. 菊花散 | 국화산

菊花《四兩》 甘草《五錢》 生地黃《四兩》 白蒺 藜《去刺, 炒, 二兩》

국화《4냥》 감초《5돈》 생지황《4냥》 백질려《가시를 제거하고 볶은 것, 2냥》.

上爲末, 每服二錢, 食後米泔水下.

위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을 식후에 쌀뜨물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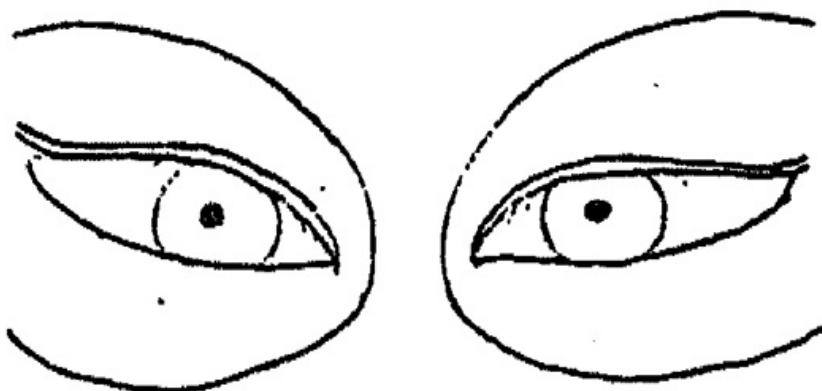
<sup>171</sup>. **千里光** : 국화과 식물 千里光의 풀 전체.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초이다. 本書 뒷부분의 「藥性論」에 千里光은 곧 夜明砂라는 말이 있는데, 다시 千里光은 草藥이고 앞의 설명은 틀렸다고 하였다. ↪

멀리는 볼 수 있는데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 眼能遠視不能近視

---

2.17. 治<sup>172</sup> 小兒疳傷 | 소아의 감병(疳病)으로 눈이 상한 것을 치료함

# 視近能不視遠能眼



問曰, 小兒三五歲, 身如癆瘍, 面色萎黃, 眼內紅腫或突者, 何也. 答曰, 脾胃受傷, 五臟火旺, 名曰疳傷也. 治宜退熱, 用寒涼劑. 潮熱用胡宣二連湯, 有蟲使君子湯, 收功用五疳丸, 點用清涼散. 若至胃氣下陷, 泄瀉頻頻, 無治法, 眼珠或突起變白者, 廢人耳.

묻기를, “3~5세의 소아가 몸이 노채증(勞瘍症)과 같고 얼굴빛이 누렇게 뜨고 눈 안쪽이 붉게 붓거나 혹은 돌출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비위(脾胃)가 손상되고 오장(五臟)의 화(火)가 성한 것이니, 감상(疳傷)이라 부른다. 치료는 열을 물리쳐야 하니, 차고 서늘한 약을 쓴다. 조열(潮熱)에는 호선이런

탕(胡宣二連湯)을 쓰고, 충(蟲)이 있을 때에는 사군자탕(使君子湯)을 쓰며, 마무리로는 오감환(五疳丸)을 쓰고 청량산(淸涼散)을 점안한다. 만약 위기(胃氣)가 하함(下陷)되어 설사가 빈번한 지경이 되면 치료할 수 없으며, 눈알이 튀어나오거나 희게 변한 경우는 장님이 되고 만다.”

### 2.17.1. 二連湯 | 이련탕

胡黃連《五分》宣黃連《一錢》成童子者倍之

호황련《5푼》선황련《1돈》. 좀 자란 아이에게는 두 배로 쓴다.

上爲末, 用蜜水調服. 或以末<sup>173</sup>服亦妙. 热甚加銀柴胡.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꿀물에 타서 마신다. 혹은 가루로 복용해도 좋다. 열이 심하면 은시호를 더한다.

### 2.17.2. 使君子湯 | 사군자탕

能殺疳蟲.

감충(疳蟲)을 죽인다.

使君子《三個》輕粉《一分》蔥珠《數顆》

사군자《3개》경분《1푼》대파 썬 것《몇 개》.

上使君子輕粉二味爲細末. 入雞蛋一個攪勻. 以濕紙包七重煨熟蛋. 息火氣, 空心與吃, 連吃四五個蛋止, 不可多用.

사군자와 경분 두 약은 고운 가루로 만든다. 계란 1개를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젖은 종이로 7겹 싸서 불에 구워 계란을 익힌다. 불기운이 가시면 공복에 먹는데, 연속으로 계란 4~5알을 먹으면 그쳐야지 많이 써서는 안 된다.

### 2.17.3. 五疳丸 | 오감환

《方在小兒疳疾症內》

《처방은 소아감질(小兒疳疾) 조에 있다》

### 2.17.4. 豬 肝 散 | 저간산

《方在小兒疹痘症內》

《처방은 소아진두(小兒疹痘) 조에 있다》

172. 治 : 四庫全書本에는 이 글자가 없다. ↵

173. 末 : (集成) 鼎本에는 ‘成貼’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  
과 같다. ↵

## 1.88. 안과상용처방 眼科常用處方

- 1.88.1. 주경보신명목환 駐景補腎明目丸
- 1.88.2. 구고탕 救苦湯
- 1.88.3. 결명자산 決明子散
- 1.88.4. 눈이 붉어진 모든 경우에 붙이는 처방 貼諸般赤眼
- 1.88.5. 청량소독고 清涼消毒膏
- 1.88.6. 경험세안산 經驗洗眼散
- 1.88.7. 세안탕포산 洗眼湯泡散
- 1.88.8. 주전산 酒煎散
- 1.88.9. 주조산 酒調散
- 1.88.10. 대황당귀산 大黃當歸散
- 1.88.11. 가미탕포산 加味湯泡散
- 1.88.12. 눈물이 나오는 3가지 병증 三淚
- 1.88.13. 천궁환 川芎丸
- 1.88.14. 가감주경환 加減駐景丸
- 1.88.15. 발운산 撥雲散
- 1.88.16. 사담산 瀉膽散
- 1.88.17. 천문동음자 天門冬飲子
- 1.88.18. 덧붙이는 처방 補言方
- 1.88.19. 또 다른 처방 又方
- 1.88.20. 눈을 씻는 처방인 척풍산 滌風散
- 1.88.21. 소아의 두창이 눈에 들어간 것 小兒斑瘡入眼
- 1.88.22. 눈이 벌겋게 부은 것을 치료함 治眼赤腫
- 1.88.23. 소아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치료함 治小兒眼不開
- 1.88.24. 또 다른 처방 又方
- 1.88.25. 치료에, 오래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씻는 처방 治爛弦風不問遠年近日洗藥

- 1.88.26. 전염성 열안을 치료함 治時行熱眼
- 1.88.27. 눈과 머리가 아플 때 쓰는 소풍산 眼目頭痛消風散
- 1.88.28. 냉안에 쓰는 점안약 點藥, 冷眼用
- 1.88.29. 눈이 갑자기 붉게 되는 것 暴赤眼

## 1.18. 眼科常用處方<sup>174</sup> | 안과상용처방

### 2.18.1. 駐景補腎明目丸 | 주경보신명목환

治肝腎俱虛, 瞳人內有淡白色, 昏暗漸成內障. 服能安魂穩魄, 補血氣虛散.

간신(肝腎)이 모두 허하여 눈동자 속이 희끄무레하며 눈이 흐리다 점차 내장(內障)으로 진행되는 것을 치료한다. 복용하면 능히 혼(魂)을 안정시키고 백(魄)을 평온하게 하며, 혈(血)과 기(氣)가 허(虛)하고 흩어진 것을 보(補)한다.

五味子 熟地黃《酒蒸炒》枸杞子 楮實子《酒浸》肉蓯蓉《酒蒸, 焙》車前子《酒洗》石斛《去根》各二兩 青鹽《另研》一兩 沈香《另研》五錢 磁石《火煅, 醋水飛過》菟絲子《酒浸, 另研》各一兩

오미자, 숙지황《술로 찐 것이 좋다》구기자, 저실자《술에 담근 것》육종용《술로 쪄서 약한 불에 말린 것》차전자《술로 씻은 것》석곡《뿌리를 제거한 것》각 2냥. 청염《따로 간다》침향《따로 간다》5돈, 자석《불에 구웠다가 식초물에 수비한 것》토사자《술에 담갔다 따로 간다》각 1냥.

上爲細末, 煉蜜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七十丸, 空心鹽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줄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들어서 매번 7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복용한다.

<sup>174</sup>. **안과상용처방(眼科常用處方)**: 이 부분에는 원래 제목이 없는데, 내용에 따라 편의상 이와 같이 제목을 붙였다. 集成本에서는 제목을 ‘眼科諸方’으로 하였다. ↪

## 2.18.2. 救苦湯 | 구고탕

治熱症, 用裹 不能退熱亦赤.<sup>175</sup>

열증(熱症)을 치료하는데, 과(裹)를 쓰는 것은 열을 물리치지 못하며 또한 붉게 된다.

桔梗 連翹 紅花 細辛 歸身 甘草《炙》蒼朮 龍膽草 羌活 升麻 柴胡 防風 藿本 黃連  
生地黃 黃芩 知母 川芎 赤芍藥

길경, 연교, 흥화, 세신, 당귀신, 감초《구운 것》창출, 용담초, 강활, 승마, 시호,  
방풍, 고본, 황련, 생지황, 황금, 지모, 천궁, 적작약.

上薑三片, 蔥三根, 食後溫服.

이상의 약들에 생강 3쪽과 파 3뿌리를 넣어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sup>175</sup>. 用裹 不能退熱亦赤 : 이 구절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裹’는 대개 藥液에 적신 천을 뜨겁게 하여 환부를 싸매는 것을 말하니, 冷症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의 热症과는 거리가 멀다. 혹 本書에서 癢 極難忍, 風弦赤眼 등에 적용한 棉裹 散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편 四庫全書本에는 ‘用裹 不得, 能退熱亦赤’으로 되어 있으니, 热症에는 싸매는 방법을 쓰지 못하고 이 처방으로 热과 發赤를 없앤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 ‘裹’를 ‘裏’의 誤記로 본다면 裏症을 다스리는 약을 써도 热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本書 뒷부분의 ‘當苦湯’에 대한 설명에서 ‘服利藥未效’라 한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처방구성이 나와 있지 않아 확증할 길이 없다. ←

### 2.18.3. 決明子散 | 결명자산

黃芩 甘菊 木賊 草決明 石膏 赤芍藥 川芎 羌活 甘草 蔓荊子 石決明

황금, 감국, 목적, 초결명, 석고, 적작약, 천궁, 강활, 감초, 만형자, 석결명.

上各等分爲末, 每服三錢, 水一盞, 薑三片, 煎至七分, 食後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어, 매번 3돈을 물 1잔에 생강 3쪽을 넣고 7/10

이 되도록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4. 貼諸般赤眼 | 눈이 붉어진 모든 경우에 붙이는 처방

治眼赤腫不開者.

눈이 붉고 부어서 뜰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黃柏 薑黃 南星 草烏 黃連

황백, 강황, 남성, 초오, 황련.

上等分爲末, 薑自然汁, 調貼兩太陽穴, 一二次痛止. 如有赤障起亦可貼. 打傷赤腫  
不開加芙蓉葉, 綠豆粉調貼, 同蔥搗貼亦妙.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고 생강즙에 개어 양쪽 태양혈 붙이는데, 1~2  
번이면 통증이 멎는다. 붉은 예장(翳 障)이 도드라진 경우에도 붙일 수 있다.  
타박상으로 벌겋고 부어서 떠지지 않는 경우는 부용엽(芙蓉葉)을 더하고 녹두  
가루에 개어 붙이며, 파를 찔은 것과 함께 붙여도 효과가 좋다.

## 2.18.5. 清涼消毒膏 | 청량소독고

敷諸熱眼<sup>176</sup>.

모든 열안(熱眼)에 붙인다.

薄荷葉 芒硝 大黃 細辛 雄黃 黃柏

박하엽, 망초, 대황, 세신, 응황, 황백.

上等分爲末, 水調塗之效.

이상을 같은 분량씩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서 바르면 효과가 있다.

---

176. 热眼 : 本書 첫머리의 「銀海精微序」에서 “검은자위가 솟아오르고, 눈꺼풀이 단단하고 붉게 부으며, 눈곱과 눈물로 늑진거리고 속에 열이 있어 찌르는 듯 아프면 이것을 열안(熱眼)이라 한다”고 하였다. ↪

## 2.18.6. 經驗洗眼散 | 경험세안산

洗時眼<sup>177</sup> 热眼.

시안(時眼)과 열안(熱眼)에 씻는 처방이다.

大黃 山梔子 防風 薄荷 川芎 羌活 甘草

대황, 산치자, 방풍, 박하, 천궁, 강활, 감초.

上等分, 用水煎, 熏洗.

이상을 같은 분량씩 물에 달여서 김을 씌고 씻는다.

---

<sup>177</sup>. 時眼 : 유행성 눈병. ↵

## 2.18.7. 洗眼湯泡散 | 세안탕포산

當歸梢<sup>178</sup> 赤芍藥 黃連 杏仁

당귀초, 적작약, 황련, 행인.

上爲細末, 每日二次, 用水湯泡洗.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매일 두 번씩 끓는 물에 풀어서 씻는다.

---

178. **當歸梢** : 當歸尾. ↵

## 2.18.8. 酒煎散 | 주전산

治眼有風熱, 赤澁痛, 宜服.

| 눈에 풍열(風熱)이 있어 붉고 깔깔하며 아픈 것을 치료할 때 마땅히 복용한다.

防風 防己 甘草 荊芥 當歸 赤芍藥 牛蒡子

| 방풍, 방기, 감초, 협개, 당귀, 적작약, 우방자.

上等分, 用好酒煎, 食後服.

| 이상을 같은 분량씩 좋은 술로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9. 酒調散 | 주조산

治白仁腫痛可服.

| 흰자위가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할 때 복용할 수 있다.

槐花 桃子 牛蒡子 防風 蛤粉

| 괴화, 치자, 우방자, 방풍, 합분.

上共<sup>179</sup> 爲末, 水煎, 食後入酒少許調服.

| 이상을 함께 가루로 만들어 물에 달이고, 식후에 술을 조금 타서 복용한다.

---

<sup>179</sup>. 共 : (集成) 鼎本에는 ‘等分’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 2.18.10. 大黃當歸散 | 대황당귀산

治眼壅腫, 瘀血凝滯不散, 攻充生翳, 宜服.

눈이 막히고 붓는 것을 치료하니, 어혈(瘀血)이 응체(凝滯)되어 흘어지지 않고 눈을 침범하여 예(翳) 가 생기면 마땅히 복용한다.

歸尾《酒洗》川芎《各一兩》菊花《三兩》大黃《酒炒, 五錢》黃芩 蘇木 桔子《酒炒, 各一兩》紅花《五錢》

당귀미《술로 씻은 것》천궁《각 1냥》국화《3냥》대황《술로 볶은 것, 5돈》황금, 소목, 치자《술로 볶은 것, 각 1냥》홍화《5돈》.

上等分, 照加減, 用水煎, 食後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하되 참조하여 가감하고,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11. 加味湯泡散 | 가미탕포산

洗眼方.

눈을 씻는 처방이다.

歸尾 赤芍藥 黃連 杏仁 加防風《各一兩》銅青<sup>180</sup>《二錢》薄荷葉《三錢》

당귀미, 적작약, 황련, 행인에 방풍《각 1냥》동청《2돈》박하엽《3돈》을 더한다.

---

180. 銅青 : 구리에 슨 녹. ↪

### 2.18.12. 三淚 | 눈물이 나오는 3가지 병증

一曰冷淚, 二曰熱淚, 三曰眵 淚.

첫째는 냉루(冷淚)이고, 둘째는 열루(熱淚)이며, 셋째는 치루(眵 淚)이다.

一冷淚, 不赤不痛, 無翳 無膜. 凡早起迎風有淚, 或至秋迎風有淚, 其淚自出, 痘在肝也.

첫째 냉루(冷淚)는 눈이 붉지도 아프지도 않고 예막(翳 膜)도 없다. 대개 아침 일찍 일어나 바람을 맞았을 때 눈물이 나거나 혹은 가을에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니, 병이 간(肝)에 있다.

二熱淚, 如糊粘下與上瞼皮, 有紅有腫, 眼圈不見日, 夜見燈火淚涌出, 痘在心也.

둘째 열루(熱淚)는 눈곱이 풀처럼 아래와 위 눈꺼풀을 엉겨 있고, 벌겋고 부으며 눈이 어두워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밤에 불빛을 보면 눈물이 솟아나오는 것인데, 병이 심(心)에 있는 것이다.

三眵 淚, 如糊粘兩眼弦, 赤腫生胬 肉, 痘在肺也.

셋째 치루(眵 淚)는 눈곱이 양쪽 눈시울에 풀처럼 엉기며, 눈이 벌겋고 부으면서 군살이 생기는 것이니, 병이 폐(肺)에 있다.

冷淚用肝經止淚方.

냉루(冷淚)에는 간경지루방(肝經止淚方)을 쓴다.

當歸 青鹽 地黃 木賊

당귀, 청염, 지황, 목적.

熱淚用此方.

열루(熱淚)에는 이 처방을 쓴다.

荊芥 梔子 黃芩 黃連 木賊 地黃 夏枯草

형개, 치자, 황금, 황련, 목적, 지황, 하고초.

眵 淚方.

치루(眵 淚)에 쓰는 처방.

桑白皮 夏枯草 川芎 木賊 莖藶 麥冬 梔子

상백피, 하고초, 천궁, 목적, 정력자, 맥문동, 치자.

治上實下虛血貫瞳睛.

상실하허(上實下虛)로 핏발이 눈동자를 관통한 것을 치료한다.

防風《二錢》羌活 白芍藥《各兩半》荊芥《二錢》生熟地黃《各兩半》粉草《五錢》當歸《二錢》川芎《四錢》菊花《二錢》加茯苓

방풍《2돈》강활, 백작약《각 1냥 반》형개《2돈》생숙지황《각 1냥 반》분초《5돈》당귀《2돈》천궁《4돈》국화《2돈》에 복령을 더한다.

上爲末, 水一鐘入當土地黃<sup>181</sup> 同煎, 溫服. 忌一切毒物.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 한 종지에 해당 지역의 지황을 넣고 함께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일체의 독한 음식을 삼간다.

<sup>181</sup>. **當土地黃** : 처방 내용에 生地黃, 熟地黃이 이미 들어있는데 여기에 다시 地黃이 나오는 것은 오류가 아닌지 의심된다. ‘當地黃土’의 抄倒일 수도 있겠으나, 本書 내에서 黃土를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

### 2.18.13. 川芎丸<sup>182</sup> | 천궁환

治頭風冷淚.

두풍(頭風)과 냉루(冷淚)를 치료한다.

川芎 細辛 白朮 甘菊 白芷

천궁, 세신, 백출, 감국, 백지.

上爲細末, 蟻丸如黍米大. 夜臥一丸, 日中一時辰換—<sup>183</sup>丸. 荀收仲嘗謂予曰, 有人視一物作兩物, 醫者作肝氣有餘, 故見一爲二, 教服補肝氣藥<sup>184</sup>皆不效, 此何疾也. 予曰, 孫真人云目之系上屬於腦, 後出於項中, 邪中於頭, 逢身之虛, 其人沈<sup>185</sup>則隨目系入於腦, 轉則目系急, 急則目眩以轉. 邪中其睛, 所中不相比則睛散, 睛散則歧, 故見一物爲兩物也.<sup>186</sup> 後令服驅風入腦藥則愈.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밀랍으로 기장 크기의 환을 만든다. 잠자리에 들 때 1환을, 낮 동안에는 한 시진(時辰)에 1환을 쓴다. 순수종(荀收仲)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였는데, 의사가 간기(肝氣)가 유여(有餘)하므로 하나가 둘로 보이는 것이라 하여 간기(肝氣)를 사(瀉)하는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으니, 이것은 어떤 병인가?” 내가 대답하기를, “손진인(孫眞人; 孫思邈)이 ‘목계(目系)는 위로 뇌(腦)에 속하고 뒤로 목덜미 가운데서 나오므로, 사기(邪氣)가 머리를 적중하고 몸이 허(虛)한 때를 만나서 그 들어가는 것이 깊으면 목계를 따라 뇌로 들어가니, 뇌가 둘면 목계가 급해지고, 급해지면 눈이 아찔하여 둘게 된다. 사기가 눈에 침입할 때에 침입한 곳이 서로 나란하지 않으면 눈이 흐트러지고, 눈이 흐트러지면 엇갈리므로 하나의 사물을 둘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후에 풍(風)을 몰아내고 뇌(腦)로 들어가는 약을 복용시키면 나을 것이다.”

<sup>182</sup>. 川芎丸 : 이 처방의 출전으로 확인 가능한 것 중 가장 이른 문헌은 宋代 許

叔微의 『類證普濟本事方』이다. 처방명 없이 ‘頭風冷淚에 쓰는 龐安常의 처방’이라고만 하였고 ‘荀收仲’이 ‘荀牧仲’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대체로 내용이 일치하며, 이후의 여러 醫書에 인용되어 있다. 단지 『普濟方』에서는 출전을 『龍木論』이라 하였는데, 현존하는 『秘傳眼科龍木論』에는 이 처방이 「卷之七、諸家秘要名方、本事方」에 실려 있으며 역시 ‘龐安常의 처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

183. — : [集成] 鼎本에는 ‘二’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는 ‘一’로 되어 있다. ↪

184. 教服補肝氣藥 : 肝氣가 有餘한 것으로 보고 肝氣를 补하는 약을 썼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나, 『普濟本事方』을 비롯한 여러 醫書에 모두 이와 같아 되어 있다. 다만 『普濟方』에는 ‘教 服瀉肝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면 文義에 부합한다. ↪

185. 人沈 : 『靈樞、大惑論』에 ‘入深’으로 되어 있으며, 『普濟本事方』을 비롯한 여러 醫書도 그와 같으니 本書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

186. 孫真人云目之系上屬於腦.....故見一物爲兩物也 : 『靈樞、大惑論』에 같은 내용이 보이는데, 문장이 좀 더 정연하다. “五藏六府之精氣, 皆上注於目, 而爲之精..... 肌肉之精爲約束, 裹擷 筋骨血氣之精, 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故邪中於項, 因逢其身之虛, 其入深, 則隨眼系以入於腦, 入於腦則腦轉, 腦轉則引目系急, 目系急則目眩以轉矣. 邪其精, 其精所中, 不相比也, 則精散, 精散則視岐, 視岐見兩物.” ↪

#### 2.18.14. 加減駐景丸 | 가감주경환

治肝腎氣虛, 視物矇矇, 血少氣多.

간신(肝腎)의 기(氣)가 허(虛)하여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치료하니, 혈(血)이 적고 기(氣)가 많은 것이다.

車前子《略炒, 二兩》當歸《去尾》熟地黃《洗, 各五錢》枸杞子 川椒 楮實子《無翳不用》五味子《各一兩》菟絲子《酒煮焙, 半斤》

차전자《살짝 볶은 것, 2돈》당귀《잔뿌리 제거》숙지황《씻은 것, 각 5돈》구기자, 천초, 저실자《예(翳) 가 없으면 쓰지 않는다》오미자《각 1냥》토사자《술에 삶아 약한 불로 말린 것, 반근》.

上爲細末, 蜜水煮糊丸, 如梧桐子大, 每服三十丸, 空心或酒或鹽湯下.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꿀물로 풀을 쑤어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들어서, 매번 30환씩 공복에 술이나 소금 끓인 물로 삼킨다.

### 2.18.15. 撥雲散 | 발운산

能散風毒, 退翳障, 及赤爛弦者.

풍독(風毒)을 흩어서 예장(翳障) 및 눈시울이 붉게 짓무른 것을 치료한다.

羌活 防風 川芎 白蒺 藜 荊芥 蟬蛻 甘菊花《各一兩》

강활, 방풍, 천궁, 백질려, 형개, 선태, 감국화《각 1냥》.

上爲細末, 每服二錢, 食後桑白皮煎湯調服.

이상을 곱게 갈아 매번 2돈씩 식후에 상백피(桑白皮)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 2.18.16. 瀉膽散 | 사담산

治瞳人乾缺內障.

| 동인건결내장(瞳人乾缺內障)을 치료한다.

玄參 黃芩 地骨皮 麥門冬 知母《各一兩》黃芪 荘 蔚子

| 현삼, 황금, 지골피, 맥문동, 지모《각 1냥》황기, 충울자.

上每服水煎, 食後溫服.

| 이상을 매번 물에 달여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8.17. 天門冬飲子 | 천문동음자

治輶軸 轉則外障<sup>187</sup>.

녹로전관외장(輶軸 轉關外障)을 치료한다.

天門冬 菖 蔚子 知母《各二兩》五味子 防風《各一兩》人參 茯苓 羌活《各兩半》

천문동, 층울자, 지모《각 2냥》오미자, 방풍《각 1냥》인삼, 복령, 강활《각 1냥 반》.

上每服水煎, 食後溫服.

이상을 매번 물에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187. 輶軸 轉則外障 : 『秘傳眼科龍木論』에서 이 天門冬飲子를 ‘輶軸 轉關外障’에 쓴다고 한 것을 따라 번역하였다. 한편 本書에는 이 병증명이 ‘輶軸 展開’로 되어 있으며 輶軸 轉關의 병증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다. 해당 조문의 주석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 2.18.18. 補言方 | 덧붙이는 처방

所著法最奇云. 眼癢 流淚或生翳 或赤痛並 皆治之.

기록되어 있는 법 중에 가장 묘한 것 같다. 눈이 가렵고 눈물이 흐르거나, 예(翳)가 생기거나, 혹은 붉고 아픈 것을 아울러 모두 치료한다.

上用宣州黃連稿碎末, 薏核仁去皮, 研爲膏等分和合. 取無所病乾棗三枚, 割頭少許留之卻去核, 以二物滿模於中. 却將割下棗頭依前合定, 以少棉裹之爲薄膏, 則以茶甌量水半碗, 於銀罐器內文武火煎, 取一雞子大, 以棉瀝待冷點眼. 前後試數人皆應, 食翳<sup>188</sup> 家用亦多得效, 故附之萬不失其驗.

위의 증상에는 선주(宣州)에서 난 황련을 쓰는데 말려서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유학인은 껌질을 제거하며, 갈아서 고(膏)를 만들어 같은 분량씩 섞어 합한다. 병들지 않은 마른 대추 3개를 취하여 머리를 약간 잘라내어 두고 씨를 제거하여, 앞의 두 약물을 대추 속에 채워 넣는다. 다음은 앞서 잘라 두었던 대추 머리를 전과 같이 닫아서 잘 맞추고, 약간의 솜으로 그것을 싸서 묽은 고(膏)를 만드니, 즉 차사발로 반 사발 되는 물을 은그릇에 담아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불에 달여 달걀 하나 분량이 되도록 하고, 무명으로 걸러서 식으면 점안한다. 전후에 여러 사람에게 시험해보니 모두 잘 들었고, 식예(食翳)를 앓는 사람이 써도 대부분 효험을 보았으므로, 이 징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기에 덧붙여 둔다.

#### 2.18.18.1. 补陽湯<sup>189</sup> | 보양탕

治陽不勝其陰, 乃陰盛陽虛, 則九竅不通, 今青白翳 見於大毗, 及足太陽少陰經中鬱遏, 足厥陰肝經氣不得上通, 故目<sup>190</sup> 青白翳 內阻也. 當於太陽少陰經中九原之下<sup>191</sup>, 以監府中陽氣<sup>192</sup> 衝天而上行, 此乃先補其陽, 後於太陽<sup>193</sup> 標中, 標者頭也<sup>194</sup>, 泄足厥陰肝經火也. 上下<sup>195</sup> 伏於陽中, 乃陰治<sup>196</sup> 也. 內經云, 陰盛陽虛, 則當先補

其陽, 後泄其陰, 此法是也. 每日侵晨, 以腹中無宿食, 服補陽湯, 臨臥服益陰丸<sup>197</sup>, 若天色變大寒大熱並勞役, 預日飲食不調, 精神不足<sup>198</sup>, 乃先補其陽, 氣上升, 通於肝經之末, 利矣<sup>199</sup>.

양(陽)이 음(陰)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니, 음이 성하고 양이 허하면 구규(九竅)가 통하지 못하는데, 지금 청백예(青白翳) 가 눈구석에 나타나는 것은 족태양경(足太陽經)과 족소음경(足少陰經)이 울알(鬱遏)됨에 미치어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기(氣)가 위로 눈에 통하지 못하므로 청백색의 예가 안에서 가로막는 것이다. 태양경(太陽經)과 소음경(少陰經) 중 구원(九原)의 아래에서부터 감부(監府)의 양기(陽氣)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게 해야 하니, 이 때는 먼저 양(陽)을 보하고 나중에 태양(太陽)의 표(標)에서 ('標'은 머리이다) 족궐음간경의 화(火)를 빼내야 한다. 아래로 양(陽) 중에 잠복하게 하니, 음(陰)을 다스리는 것이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허하면 먼저 양을 보한 다음 음을 빼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그것이다. 매일 새벽 뱃속에 남은 음식이 없을 때 보양탕(補陽湯)을 복용하고, 잠자기 전에 익음환(益陰丸)을 복용하는데, 만약 날씨가 변하여 매우 춤거나 매우 더우며 아울러 노역(勞役)을 하는데, 전날 음식이 적절치 못하였거나 정신(精神)이 부족할 때에는 먼저 그 양(陽)을 보하여, 기(氣)가 상승해서 간경(肝經)의 말단 까지 통하도록 하면 원활해진다.

人參 熟地黃 黃芪 白朮 甘草 白芍藥 羌活 獨活《各一兩》澤瀉 陳皮 防風《各五錢》知母《炒》歸身《酒製, 去蘆》白茯苓《去皮》生地黃《炒, 各三錢》柴胡《去苗, 三兩》肉桂

인삼, 숙지황, 황기, 백朮, 감초, 백작약, 강활, 독활《각 1냥》택사, 진피, 방풍《각 5돈》지모《볶은 것》당귀신《술로 법제하고 뿌리꼭지를 제거》백복령《껍질을 벗긴 것》생지황《볶은 것, 각 3돈》시호《싹을 제거한 것, 3돈》육계.

上同爲粗末, 每服半兩, 水三盞, 煎至一盞, 去渣, 空心宿食盡消服.

이상을 함께 거칠게 빻아서, 매번 반냥을 물 3잔에 달여 한 잔으로 줄면 찌꺼기 를 걸러버리고, 먹었던 것이 모두 소화된 빈속에 복용한다.

### 2.18.18.2. 知母飲子 | 지모음자

治花翳 多年不退.

화예(花翳) 가 여러 해 동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知母 菖 蔊子《各三兩》防風 細辛 桔梗 荀苓 大黃 芒硝《各一兩》

지모, 쟁울자《각 3냥》방풍, 세신, 길경, 복령, 대황, 망초《각 1냥》.

上每服水一碗, 煎至五分, 食後溫服.

이상을 매번 물 한 사발이 반으로 줄도록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8.18.3. 開明丸 | 개명환

治遠年近日, 翳 障昏盲, 寂無所見, 一切目疾.

오래되었거나 새로 생긴 예장흔맹(翳 障昏盲)으로 전혀 보이는 바가 없는 것 과 일체의 눈병을 치료한다.

熟地黃《一兩半, 酒浸》菟 絲子 車前子 麥門冬 蕤 仁《去皮》決明子 地膚子 菖 蔊子  
枸杞子《去心》黃芩 五味子 防風《去蘆》澤瀉 杏仁《炒, 去皮尖》細辛 青葙 子 莢 蓼  
官桂 羊肝《須用白羊者肝, 薄切片焙乾作末, 或只以水煮爛研爲末, 作丸, 或少則以  
蜜漬之》

숙지황《1냥 반, 술에 담근 것》토사자, 차전자, 맥문동, 유인(껍질을 제거한 것) 결명자, 지부자, 쟁울자, 구기자《속을 빼낸 것》황금, 오미자, 방풍《뿌리 꼬리를 제거한 것》택사, 행인《볶아서 속껍질과 끝을 뗀 것》세신, 청상자, 정력자, 관계, 양간《흰 양의 간을 사용하여, 얇게 저며서 약한 불에 말려 가루로 만들거나, 그저 물에 끓여 뭉그러지도록 갈아서 가루를 내어 환을 만들며, 혹 물기가 적으면 꿀로 적신다》.

上爲細末, 糊丸如梧桐子大. 每服三十丸, 热水下, 日三服. 但<sup>200</sup>忌生薑糟酒, 炙燂等物.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풀에 개어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30환씩 하루 세 번 뜨거운 물로 삼킨다. 생강과 거르지 않은 술, 굽고 튀긴 음식 등은 피한다.

#### 2.18.18.4. 磨光散 | 마광산

治諸風攻眼, 磨翳 障, 除昏暗.

모든 풍(風)이 눈으로 침입한 것을 치료하고, 예장(翳 障)을 없애며 흐릿하고 어두운 것을 없애준다.

防風 羌活 菊花 草決明 蟬蛻《去足》蛇蛻《剪碎, 和麻油炒》甘草《炙》沙苑蒺藜《形如羊腎者, 慢火略炒》石決明《揚碎, 研細, 以水飛過, 各五錢》

방풍, 강활, 국화, 초결명, 선태《다리를 제거》사태《잘라서 부수고 마유(麻油)와 섞어 볶는다》감초《볶은 것》사원질려《모양이 양의 콩팥 같은 것, 약한 불에 살짝 볶는다》석결명《달구어 부수고 곱게 갈아 수비한 것, 각 5돈》.

上爲細末, 每服一錢半, 食後麥門冬煎湯調服.

이상을 곱게 갈아, 매번 1돈 반씩 식후에 맥문동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 2.18.18.5. 密蒙花散 | 밀몽화산

治冷淚昏暗.

냉루(冷淚)로 눈이 흐리고 어두운 것을 치료한다.

密蒙花 菊花 蔡 蓼 石決明 木賊《去節》白芍藥 甘草《各五錢》

밀몽화, 국화, 질려, 석결명, 목작《마디 제거》백작약, 감초《각 5돈》.

上爲細末, 每服一錢, 清茶調下. 服半月加至二錢.

이상을 곱게 갈아 매번 1돈을 찻물에 타서 복용한다. 보름 정도 복용하면서 2 돈까지 늘린다.

#### 2.18.18.6. 決明散 | 결명산

治眼見黑花不散.

눈앞에 검은 꽃무늬가 보이며 흩어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決明子 甘菊花《各一兩》防風《去蘆》車前子 菖蒲 細辛 桔子仁 玄參 蔓荊子 白茯苓  
山茱萸《各一兩半》生地黃《三兩》

결명자, 감국화《각 1냥》방풍《뿌리꼭지를 제거한 것》차전자, 궁궁, 세신, 치자  
인, 현삼, 만형자, 백복령, 산수유《각 1냥 반》생지황《3냥》.

上爲末, 每服二錢, 食後鹽湯調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 식후에 소금 끓인 물에 타서 삼킨다.

#### 2.18.18.7. 羌活散 | 강활산

治風氣攻眼, 昏澁多淚.

풍기(風氣)가 눈을 침입하여 흐리고 빽빽하며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羌活 川芎 旋複花 天麻 蒿本 防風 蟬蛻 甘菊花 細辛 杏仁《去皮, 各二兩》甘草《炙,  
五錢》

강활, 천궁, 선복화, 천마, 고본, 방풍, 선태, 감국화, 세신, 행인《껍질 제거, 각 2  
냥》감초《구운 것, 5돈》.

上爲末, 水煎食後服.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18.8. 龍膽草散 | 용담초산

治上焦風熱, 毒氣攻衝, 眼目暴赤, 磨痛羞明, 多眵, 過風有淚, 翳膜攀睛, 等肉隱痛, 並皆治之.

상초(上焦)의 풍열(風熱)과 독기(毒氣)가 치받아서 눈이 갑자기 붉어지고, 모래처럼 깔깔하고 아프며 눈이 부시고 눈곱이 많이 끼며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오고, 예막(翳膜)이 눈알을 뒤덮고 군살이 돋아 은은히 아픈 것을 모두 치료한다.

龍膽草 木賊《去節》草決明《微炒》甘草《炙, 各二兩》附米《炒, 去毛》川芎《各四兩》

용담초, 목적《마디 제거》초결명《살짝 볶은 것》감초《구운 것, 각 2냥》향부자《볶고 털 제거》천궁《각 4냥》.

上爲末每服二錢. 麥門冬, 热水入沙糖少許同煎, 食後調服, 或米泔汁調亦可.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 복용한다. 맥문동을 뜨거운 물에 설탕을 조금 넣고 함께 달인 것에 타서 식후에 복용하며, 혹은 쌀뜨물에 타서 복용해도 된다.

#### 2.18.18.9. 地黃散 | 지황산

治黑睛或白睛先赤而後癢, 過風有淚, 隱澁不開.

검은자위나 흰자위가 먼저 붉어진 다음에 가려워지며,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오고 깔끄러워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生地黃《一兩》芍藥《五錢》當歸 甘草《各五錢》

생지황《1냥》작약《5돈》당귀, 감초《각 5돈》.

上每服五錢, 食後服.

이상을 매번 5돈씩 식후에 복용한다.

#### 2.18.18.10. 噎鼻散<sup>201</sup> | 후비산

治目風熱, 赤腫難開.

눈이 풍열(風熱)로 벌겋게 붓고 뜨기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

雄黃 辰砂《各三兩》細辛《五錢》麝香 片腦《各一分》

응황, 진사《각 3냥》세신《5돈》사향, 편뇌《각 1푼》.

上爲細末, 口含<sup>202</sup>少許噙 鼻中.

이상을 곱게 갈아 입안에 물을 조금 머금고 코 안으로 들이마신다.

#### 2.18.18.11. 燥肝散 | 사간산

治天行赤眼外障.

천행적안(天行赤眼)으로 생긴 외장(外障)을 치료한다.

知母 桔梗 菊 蔚子 大黃 玄參 羌活 細辛

지모, 길경, 충울자, 대황, 현삼, 강활, 세신.

#### 2.18.18.12. 車前飲 | 차전음

治肝經積熱, 上攻眼目, 逆順生翳, 血灌瞳人, 瞳明怕 日, 多淚, 宜服之.

간경(肝經)의 적열(積熱)이 위로 눈을 침범한 것을 치료하니, 역순생예(逆順生翳)나 혈관동인(血灌瞳人)으로 눈이 부서 햇빛을 꺼리며 눈물을 많이 흘리는 데에 마땅히 복용한다.

車前子《炒》蒙花《去枝》草決明 羌活 白蒺藜《炒去角》龍膽草 菊花 粉草<sup>203</sup>

차전자《볶은 것》밀몽화《가지 제거》초결명, 강활, 백질려《볶아서 가시 제거》용담초, 국화, 분초.

上爲末, 每服三錢, 食後米湯調下.<sup>204</sup>

(해석 없음)

### 2.18.18.13. 還睛補肝丸 | 환정보간환

治肝虛兩目昏, 睛衝<sup>205</sup>下淚.

간허(肝虛)로 두 눈이 흐릿하고 바람을 맞으면 눈물을 흘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朮 細辛 川芎 人參 決明子《微炒》羌活《去蘆》當歸《切, 焙》白茯苓《去皮》苦參  
防風《去蘆》官桂《去粗皮》地骨皮 玄參 黃芩《去黑心》五味子 車前子《炒》菊花 青  
葙子 甘草《炙》

백출, 세신, 천궁, 인삼, 결명자《살짝 볶은 것》강활《뿌리꼭지 제거》당귀《썰어  
서 약한 불로 말린 것》백복령《껍질 제거》고삼, 방풍《뿌리꼭지 제거》관계《걸  
껍질 제거》지골피, 현삼, 황금《흑심(黑心)을 제거》오미자, 차전자《볶은 것》  
국화, 청상자, 감초《구운 것》.

上爲細末, 煉蜜糊丸. 每服三十丸, 加四十丸, 不拘時米飲下.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과 풀로 환을 빚는다. 매번 30환씩 복용하  
되 40환까지 늘리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으로 삼킨다.

### 2.18.18.14. 鎮肝丸 | 진간환

治肝經不足, 內受風熱, 上攻眼目, 昏暗癢澁難開, 多眵灑淚, 怕日羞明, 時發腫赤,  
或生翳障澁, 並能治之.

간경(肝經)이 부족하여 안으로 풍열(風熱)을 받은 것이 위로 눈을 침범하여,  
흐리고 어두우며 가렵고 깔끄러워 눈을 뜨기 힘들고, 눈곱이 많고 눈물을 흘리  
며 눈이 부셔 핫빛을 꺼리고, 때때로 붓고 붉어지거나 혹은 예장(翳障)이 생겨  
깰끄러운 것을 모두 치료한다.

遠志《去心, 三兩》地膚子《二兩》青葙子《炒》白茯苓 防風 決明子 蔓荊子 人參《各  
二兩》山藥 甘菊花 柏子仁《炒》甘草 細辛 玄參 車前子 地骨皮

원지《심을 제거, 3냥》지부자《2냥》청상자《볶은 것》백복령, 방풍, 결명자, 만형자, 인삼《각 2냥》산약, 감국화, 백자인《볶은 것》감초, 세신, 현삼, 차전자, 지골피.

上蜜糊丸, 每服三十丸, 食後米湯下, 日三服.

이상을 꿀과 풀로 환을 빚어 매번 30환씩 하루 3번 식후에 쌀뜨물로 삼킨다.

#### 2.18.18.15. 羌活散 | 강활산

鎮肝明目, 暴赤眼, 一切內外障翳.

간(肝)을 진정시켜 눈을 밝게 하고, 갑자기 눈이 붉어진 것과 일체 내외(內外)의 예장(翳 障)을 치료한다.

羌活 川芎 防風 旋複花《各五錢》楮葉 楮實 蒼朮《米泔 浸, 去皮》蟬蛻 木賊 菊花 桑葉 甘草《各二兩》

강활, 천궁, 방풍, 선복화《각 5돈》저엽, 저실, 창출《쌀뜨물에 담가 껍질 제거》선태, 목적, 국화, 상엽, 감초《각 2냥》.

上爲細末, 每服二錢, 清茶下, 早晚食後, 臨臥時各一服, 合藥時不得犯鐵器, 及不見火, 忌麵及酒, 諸毒物.

이상을 곱게 갈아 매번 2돈씩 찻물로 넘기는데, 아침저녁 식후와 잠자리에 들 때 각 한 번씩 복용한다. 약을 만들 때 쇠그릇에 닿지 않게 하며 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밀가루음식과 술, 모든 독한 음식을 삼간다.

#### 2.18.18.16. 青葙 子丸 | 청상자환

治肝虛積熱外障.

간(肝)이 허하고 열(熱)이 쌓여서 외장(外障)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青葙子《二兩》車前子 菟絲子 熟地黃 芫蔚子 五味子 細辛 防風 人參 漚瀉 茯苓  
《各一兩》

청상자《2냥》차전자, 토사자, 숙지황, 층울자, 오미자, 세신, 방풍, 인삼, 택사,  
복령《각 1냥》.

上每服三十丸, 空心清茶下.

이상을 매번 30환씩 공복에 찻물로 넘긴다.

### 2.18.18.17. 地黃丸 | 지황환

治用力勞心, 肝虛風熱攻眼, 赤腫羞明, 漸生翳膜, 兼肝腎風毒, 热氣上衝. 久視目疼  
傷肝血. 肝主血, 勸書則肝傷而目昏, 肝傷則目傷. 風而熱氣湊目, 昏益甚, 不宜專服  
補藥, 當益血鎮肝, 而目自明矣.

힘을 쓰고 마음을 졸여 간(肝)이 허해져서 풍열(風熱)이 눈을 침범하여 벌겋게  
부으며 눈이 부시고 점차 예막(翳膜)이 생기며, 간신(肝腎)의 풍독(風毒)을 겪  
하여 열기(熱氣)가 위로 치받은 것을 치료한다. 오랫동안 보면 눈이 아프고 간  
혈(肝血)을 상하게 된다. 간은 혈(血)을 주관하므로 독서에 힘쓰면 간이 상하  
여 눈이 흐려지니, 간이 상하면 눈도 상한다. 풍(風)으로 열기(熱氣)가 눈에 모  
이면 흐린 것이 더욱 심해지니, 보약(補藥)만 복용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혈  
(血)을 더해주고 간(肝)을 진정시키면 눈이 저절로 밝아진다.

熟地黃《兩半》菊花 防風 光明朱砂 羌活 桂心 没藥《各五錢》決明子 黃連《各一兩》

숙지황《1냥 반》국화, 방풍, 광명주사, 강활, 계심, 몰약《각 5돈》결명자, 황련  
《각 1냥》.

上爲末, 煉蜜爲丸, 每服二十丸, 食後熱水服, 日三次.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환을 만들어서, 매번 20환씩 식후에 뜨거운  
물로 하루 3번 복용한다.

晉范寧嘗苦目痛, 就張湛求方, 湛戲之曰, 古宋陽子少得其術, 以授魯東門伯, 次授左丘明, 遂世世相傳, 以及漢杜子夏, 晉左太沖. 凡此諸賢, 皆有目疾, 得此方云, 省讀書一, 減思慮二, 專內視三, 簡外觀四, 日起晚五, 夜早眠六. 凡六物熬以神火<sup>206</sup>, 下以氣飾<sup>207</sup>, 蘊於胸中七日, 然後納諸方寸<sup>208</sup>. 修之一時, 近其<sup>209</sup>數其目睫, 遠視尺筆之餘. 長服不已, 非但明目, 亦能延年. 審如是而行, 可謂嘲戲亦有方也.<sup>210</sup>

진(晉)나라의 범녕(范寧)이 일찍이 목통(目痛)으로 고생하다 장담(張湛)에게 가서 처방을 구하니 장담이 농담으로 이르기를, “옛날에 송(宋)나라의 양리자(陽里子)가 그 술법을 약간 얻어 노(魯)나라의 동문백(東門伯)에게 전수하였고, 다음으로 좌구명(左丘明)에게 전수하여 마침내 대대로 전해져서, 한(漢)나라의 두자하(杜子夏)와 진(晉)나라의 좌태충(左太沖)에게 미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다 눈병이 있었는데 이 처방을 얻었으니, 독서를 적게 하는 것이 첫째요,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둘째요, 내면을 관조하는 데 몰두함이 셋째요, 바깥에 신경 쓰기는 간략히 함이 넷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다섯째요,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여섯째입니다. 이 여섯 약재(六物)를 신화(神火)로 졸이고 기(氣)의 체로 걸러 가슴속에 7일간 묵힌 다음 방촌(方寸)에 넣습니다. 한동안 수양하면 가까이는 자기 속눈썹을 세고, 멀리는 채찍 끝의 가는 가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복용하면 단지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능히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진실로 이와 같이 행한다면 농담 속에도 처방이 있다고 할 만하다.

### 2.18.18.18. 菊花散 | 국화산

治肝受風毒, 眼目昏朦, 漸生翳膜.

간(肝)이 풍독(風毒)을 받아 눈이 흐리고 어두우며 점차 예막(翳膜)이 생기는 것을 치료한다.

甘菊花《四兩》蟬蛻《去足》白蒺藜《炒焦, 去刺》木賊《童便浸宿, 曬乾》羌活《各三兩》荊芥 甘草《各二兩》

감국화《4냥》선태《다리 제거》백질려《바짝 볶아 가시 제거》목적《동변에 하  
룻밤 담갔다가 볶에 말린 것》강활《각 3냥》형개, 감초《각 2냥》.

上爲細末, 每服二錢, 食後清茶調下.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 식후에 찻물에 타서 복용한다.

### 2.18.18.19. 湯泡散 | 탕포산

治肝虛, 風熱攻眼, 赤腫羞明, 漸生翳膜.

간(肝)이 허한데 간풍(肝風)이 눈을 침입하여 벌겋게 붓고 눈이 부시며 점차  
예막(翳膜)이 생기는 것을 치료한다.

杏仁 防風 黃連 赤芍藥 歸尾《各五錢》銅青<sup>211</sup>《一錢》薄荷《三錢》

행인, 방풍, 황련, 적작약, 당귀미《각 5돈》동청《1돈》박하《3돈》.

上挫碎, 每服二錢, 極沸湯泡, 乘熱先熏後洗, 冷則再換熱用, 日兩三次. 一方入白鹽  
少許, 開目沃沸洗, 鹽亦散血.

이상을 빻아 매번 2돈씩 팔팔 끓는 물에 풀어서 뜨거울 때 먼저 김을 씬 다음  
씻는데, 식으면 뜨거운 것으로 바꾸어주면서 하루에 두세 번 한다. 어떤 처방  
에서는 백염(白鹽)을 약간 넣어 눈을 뜯 채로 끼얹으면서 씻으니, 소금이 또한  
혈(血)을 흘는다.

### 2.18.18.20. 雷巖丸<sup>212</sup> | 뇌암환

治男子婦人, 肝經不足, 風邪內乘, 上攻眼目, 淚出羞明怕日, 多見黑花, 翳膜遮睛,  
瞼生風粟, 或癢或痛, 隱澁難開. 兼人患偏正頭風<sup>213</sup>, 牽引兩目, 漸覺細小, 視物不明,  
皆因腎水不能既濟肝木, 此藥久服大修腎臟, 能添目力於人. 服藥多不知根源,  
往往不效.

남자와 부인의 간경(肝經)이 부족할 때 풍사(風邪)가 안으로 틈타 위로 눈을 침입하여, 눈물이 나오 눈이 부셔 빛을 꺼리며, 눈앞에 검은 꽃이 많이 아른거리며, 예막(翳膜)이 눈알을 가리고, 눈꺼풀에 오톨도톨한 것이 생겨 가렵거나 아프며, 깔끄러워 눈뜨기가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 아울러 편정두풍(偏正頭風)을 앓아서 두 눈을 끌어당겨 점차 작아지는 듯하며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신수(腎水)가 간목(肝木)을 돋지 못한 까닭이니, 이 약을 오래 복용하면 신장(腎臟)을 크게 다스려 능히 사람에게 시력을 더해준다. 약을 많이 복용해도 근원을 알지 못하면 왕왕 효과를 보지 못한다.

枸杞子 菊花《各二兩》巴戟《酒浸一宿, 去皮心》肉蓯蓉 牛膝《各一兩》川椒《三兩, 去目》黑附子《青鹽二錢, 以泔水, 同皂莢水浸, 去皮根》

구기자, 국화《각 2냥》파극《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껌질과 심을 제거》육종용, 우슬《각 1냥》천초《3냥, 알맹이 제거》흑부자《청염 2돈을 넣은 쌀뜨물에 조협과 함께 담가서 껌질과 꼾지를 제거》.

上爲細末, 浸藥水<sup>214</sup>煮麵糊爲丸. 每服十丸, 空心溫酒下.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약을 담갔던 물로 밀가루 풀을 쑤어서 환을 만든다. 매번 20환씩 공복에 따뜻한 술로 넘긴다.

188. 食翳 : 어떤 병증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

189. 补陽湯 : 이하의 내용은 다른 여러 醫書에 실려 있는데, 가장 이른 문헌은 『蘭室秘藏』이며 『普濟方』, 『證治準繩』 등의 몇몇 明代 의서에도 보인다. 本書의 문장이 정연하지 못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곳은 이들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

190. 上通, 故目 : 『蘭室秘藏』에는 ‘上通於目, 故’로 되어 있다. ↪

191. 九原之下 :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九原’은 ‘九泉’과 같이

저승을 뜻하는 말이다. 이어지는 구절의 ‘陽氣衝天行’과 연관시켜 보면 아마도 인체의 陽氣가 발원하는 下元인 命門, 胞宮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192. 以監府中陽氣 : 文義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陽氣’는 문맥을 고려할 때 足厥陰肝經의 陽氣를 의미한다. 『蘭室秘藏』 등 다른 문헌에는 ‘以益肝中陽氣’로 되어 있다. ↵

193. 太陽 : 『蘭室秘藏』에는 ‘足太陽太陰’으로 되어 있다. ↵

194. 標者頭也 : 바로 앞 구절에 대한 주석이다. 『蘭室秘藏』에는 4글자가 본문 끝에 있다. ↵

195. 上下 : 『蘭室秘藏』에는 ‘下’로 되어 있다. ↵

196. 陰治 : 『蘭室秘藏』에는 ‘次治’로 되어 있다. ↵

197. 益陰丸 : 『蘭室秘藏』에는 ‘瀉陰丸’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달린 처방은 ‘瀉陰火丸’이며 ‘일명 連棗益陰丸이다’ 하였는데, 바로 『東醫寶鑑』에 실려 있는 連柏益陰丸이다. 本書에도 ‘連柏益陰丸’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실려 있다.  
↵

198. 精神不足 : 『蘭室秘藏』에는 이 뒤에 ‘或氣弱, 俱不可服, 待體氣和平, 天氣如常, 服之’가 더 있다. ↵

199. 利矣 : 『蘭室秘藏』에는 ‘利空竅於目矣’로 되어 있다. ↵

200. 但 : (集成) 鼎本에는 ‘仍’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201. 噎鼻散 : 集成本에 처방명이 ‘搐鼻散’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중의 ‘口含少許噎鼻中’에 의거하여 고쳤다. ‘噎鼻’는 콧속으로 가루를 들이마시는 복용법이다. 四庫全書本에도 ‘噎鼻散’으로 되어 있다. ↵

202. 口含 : 痛如針刺 조에 ‘口噙水噏以雄黃散’이라 한 것이나 通頂散 복용 법에 ‘口含水噏之’라 한 것을 보면 여기에 ‘水’자가 탈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
203. 粉草 : 甘草. ↪
204. 上爲末……食後米湯調下 : [集成] 煎服法이 원래 없는데 鼎本에 의거하여 補入하였다. ↪
205. 晴衝 : 『普濟方』과 『證治準繩』에는 ‘衝風’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면 文義가 보다 명확하다. ↪
206. 神火 : ‘靈火’와 같은 말인데, 內丹 용어로 正念을 가리킨다. ↪
207. 飾 : 『晉書』에 ‘飾’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를 따르는 것이 옳다. ↪
208. 方寸 : 心을 가리킨다. ↪
209. 其 : ‘視’의 잘못이다. 四庫全書本에는 ‘視’로 되어 있고, 『晉書』에는 ‘能’으로 되어 있다. ↪
210. 晉范寧……可謂嘲戲亦有方也 : 이 내용은 『晉書』에 보이며, 本書 서두의 「銀海精微引」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
211. 銅青 : 구리에 손 녹. ↪
212. 雷巖丸 : 이 처방은 『宣明論方』에 나온다. ↪
213. 偏正頭風 : 偏頭痛과 正頭痛을 합하여 이르는 말. ‘頭風’은 심하고 오래 가는 頭痛을 말한다. ↪
214. 浸藥水 : 『宣明論方』에는 ‘水’가 ‘酒’로 되어 있다. ↪



### 2.18.19. 又方 | 또 다른 처방

治肝虛, 或當風眼淚, 鎮肝明目.

간허(肝虛)로 혹 바람을 쐬면 눈물이 나는 것을 치료하니, 간을 진정시키고 눈을 밝게 한다.

上用臘月健 牛膽盛黑豆, 不論多少浸, 候百日開取食, 後夜間吞三七粒, 神效.

섣달에 잡은 불친소의 쓸개에 검정콩을 많은 적든 가득 채워서 담갔다가, 백일을 기다린 후 열어서 꺼내 먹는다.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21알을 삼키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

### 2.18.19.1. 萬壽地芝丸 | 만수지지환

治目能近視, 不能遠視, 食之能治風熱.

가까운 것은 잘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하며, 복용하면 풍열(風熱)을 다스릴 수 있다.

天門冬《去心》生薑《焙, 各四兩》甘菊花《二兩》枳殼《炒, 三兩》

천문동《심을 제거》생강《약한 불에 말린 것, 각 4냥》감국화《2냥》지각《볶은 것, 3냥》.

上爲末, 每服一百丸, 食後茶清或酒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100환씩 식후에 찻물이나 술로 넘긴다.

### 2.18.19.2. 洗肝散 | 세간산

治肝實眼.

간(肝)이 실(實)하여 발생한 눈병을 치료한다.

人參 黃芩《去黑心》赤茯苓 桔子仁 川芎 柴胡 地骨皮 菊花 桔梗 黃連 甘草

인삼, 황금《검은 심을 제거한 것》적복령, 치자인, 천궁, 시호, 지골피, 국화, 길경, 황련, 감초.

上每服入苦竹葉七片, 食後服.

이상의 약들에 복용할 때마다 고죽엽(苦竹葉) 일곱 개를 넣고, 식후에 복용한다.

#### 2.18.19.3. 羚羊角散 | 영양각산

治肝臟實熱, 眼目昏暗, 時多熱淚.

간장(肝臟)의 실열(實熱)로 눈이 흐리고 어두우며 때때로 열루(熱淚)가 많은 것을 치료한다.

黃芩 桔子 枯萎 胡黃連 菊花 細辛

황금, 치자, 과루, 호황련, 국화, 세신.

上每服加竹葉煎之.

이상의 약들에 매번 죽엽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 2.18.19.4. 竹葉湯 | 죽엽탕

治肝臟實熱, 眼赤疼痛.

간장(肝臟)의 실열(實熱)로 눈이 붉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淡竹葉 黃芩 升麻 木通 車前子 黃連 玄參 瓦硝<sup>215</sup> 桔子 大黃《炒》

담죽엽, 황금, 승마, 목통, 차전자, 황련, 현삼, 와초, 치자, 대황.

上食後服.

이상을 식후에 복용한다.

#### 2.18.19.5. 龍膽飲 | 용담음

治肝臟實熱, 眼赤腫痛.

간장(肝臟)의 실열(實熱)로 눈이 벌겋게 부으며 아픈 것을 치료한다.

龍膽草 桀子 山茵陳 防風 川芎 玄參 荊芥穗 菊花 楮實 甘草

용담초, 치자, 산인진, 방풍, 천궁, 현삼, 헝개수, 국화, 저실, 감초.

上食後服.

이상을 식후에 복용한다.

#### 2.18.19.6. 決明子湯 | 결명자탕

治肝臟實熱, 目毗 生赤肉, 濕痛.

간장(肝臟)의 실열(實熱)로 눈초리에 붉은 살이 생겨 깔깔하고 아픈 것을 치료 한다.

決明子《炒》 柴胡 黃連 竹葉 防風 升麻 細辛 菊花 甘草

결명자《볶은 것》 시호, 황련, 죽엽, 방풍, 승마, 세신, 국화, 감초.

上水煎服.

이상을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2.18.19.7. 泄肝散 | 설간산

治肝熱, 赤眼腫痛.

간열(肝熱)로 눈이 붉어지고 부으며 아픈 것을 치료한다.

梔子仁 荊芥 大黃 甘草

치자인, 헝개, 대황, 감초.

#### 2.18.19.8. 羊肝丸 | 양간환

治肝經有熱, 目赤睛痛, 視物昏澁, 及治障翳, 青盲之眼.

간경(肝經)에 열(熱)이 있어서 눈이 붉어지고 눈알이 아프며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치료하며, 더불어 예장(障翳)과 청맹(青盲)을 치료한다.

羯羊<sup>216</sup>肝《五兩, 切片生用》黃連《研爲末》

갈양간《5냥, 저며서 생것을 쓴다》황련《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上先將羊肝去筋膜, 於砂盆內擂, 入黃連末杵和爲丸. 每服五十丸, 不拘時, 热水送下, 忌豬肉及冷水, 一連作五劑瘥. 昔唐崔承元內障喪明, 夜坐聞有聲問誰, 答曰蒙營出活, 今特來謝, 授此方. 依方修合, 服之眼複明朗.<sup>217</sup>

먼저 양의 간에서 근막을 제거하고 사기그릇에 담아 뭉갠 다음, 황련 가루를 넣고 찧어서 개어 환을 만든다. 매번 50환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뜨거운 물로 삼키며, 돼지고기와 찬물을 꺼린다. 한 번에 연이어 다섯 제를 지으면 낫는다. 옛날에 당(唐)나라 최승원(崔承元)이 내장(內障)으로 시력을 잃었는데, 밤에 앓아 있다가 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관아에서 내보내 살려주셨으니 지금 특별히 감사드리러 왔다며 이 처방을 주었다. 처방대로 약을 만들어서 복용하니 눈이 다시 밝아졌다.

### 2.18.19.9. 助陽活血湯 | 조양활혈탕

治眼發之後, 熱壅甚. 白睛紅, 多眵淚, 無疼痛, 而隱澁難開, 此因服苦寒藥過多, 真氣不能通九竅也, 故眼花不明. 宜補陽和血益氣, 眼中自然明朗, 不必點丹.

눈병을 앓은 후에 열(熱)이 심하게 막힌 것을 치료한다. 흰자위가 붉고 눈곱과 눈물이 많은데 통증은 없으면서 깔끄러워 눈을 뜨기 어려우니, 이것은 고한(苦寒)한 약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여 진기(真氣)가 구규(九竅)에 통하지 못한 까닭이니, 그래서 눈앞에 꽂모양이 어른거리고 밝지 못하다. 마땅히 양(陽)을 보하고 혈(血)을 조화롭게 하며 기(氣)를 더하면 눈 속이 자연히 밝아지며, 단약(丹藥)을 점안할 필요는 없다.

柴胡 白芷 升麻 當歸 黃芪 防風 蔓荊子 甘草

시호, 백지, 승마, 당귀, 황기, 방풍, 만형자, 감초.

上水煎臨臥熱服, 避風寒, 忌食冷物.

이상을 물에 달여서 잠자리에 들 때 뜨겁게 복용하며, 풍한(風寒)을 피하고 찬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 2.18.19.10. 甘菊花散 | 감국화산

治肝氣壅塞, 翳 障遮睛, 隱澁難開.

간기(肝氣)가 막혀서 예장(翳 障)이 눈알을 덮으며 깔끄러워 눈을 뜨기 어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菊花 木賊 防風 菖 藜 甘草 木香

국화, 목적, 방풍, 질려, 감초, 목향.

上爲末, 每服一錢七分, 不拘時, 沸湯點服.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1돈 7푼씩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 2.18.19.11. 甘菊花湯 | 감국화탕

治內外障翳, 一切眼疾.

국화, 승마, 선복화, 석결명, 천궁, 대황《볶은 것, 각 5돈》석고, 강활, 지골피, 목적《볶은 것》청상자, 황금, 방풍, 치자인, 초결명, 형개, 황련, 감초.

菊花 升麻 旋複花 石決明 川芎 大黃《炒, 各五錢》石膏 羌活 地骨皮 木賊《炒》青葙  
子 黃芩 防風 桔子仁 草決明 荆芥 黃連 甘草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매번 5돈을 물 한 사발과 꿀 한 잔에 달여서 7/10 이 되면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上爲細末, 每服五錢, 水一碗, 蜜一盞, 煎至七分, 食後溫服.

내장(內障), 외장(外障)의 예(翳)와 일체의 눈병을 치료한다.

### 2.18.19.12. 八子丸 | 팔자환

治風毒氣眼, 翳 膜睛不開, 久新及內外瘀障.

풍독기(風毒氣)로 인한 눈병으로 예막(翳 膜)이 생겨 눈이 떠지지 않는 것, 오래되거나 새로운 내장(內障)과 외장(外障)을 치료한다.

青葙 子 決明子 莼蘆 子 車前子 五味子 枸杞子 地膚子 芫 蔚子 麥門冬《去心》澤瀉  
防風《去蘆》黃芩《各一兩》

청상자, 결명자, 정력자, 차전자, 오미자, 구기자, 지부자, 층을자, 맥문동《심을 제거》택사, 방풍《뿌리꼭지를 제거》황금《각 1냥》.

上爲細末, 煉蜜和丸, 每服二十丸, 加至三十丸. 茶清送下, 溫米飲亦好, 日進三服.

이상을 곱게 갈아 줄인 꿀로 환을 만들고, 매번 20환씩 복용하되 30환까지 늘린다. 찻물로 넘기거나 따뜻한 미음 또한 좋으며, 하루에 3번 복용한다.

### 2.18.19.13. 靈圓丹 | 영원단

治男女攀睛翳 膜, 癢 澡羞明, 赤筋碧暉. 內外障瘀, 內風赤眼, 並 宜服之.

남자와 여자의 눈알을 뒤덮은 예막(翳 膜), 가렵고 깔깔하며 눈이 부신 것, 핏발이 서고 눈알에 푸른빛이 도는 것을 치료한다. 내외장(內外障)이 가렵거나 내풍(內風)으로 눈이 붉어진 경우에 모두 복용하기 적합하다.

蒼朮《米泔 浸, 四兩》川芎 柴胡 白附子 遠志《去心》羌活 獨活 菊花 青皮 陳皮 荊芥  
石膏 防風 青葙 子 全蠍 仙靈脾《酥 炙》木賊《去節》楮實 黃芩 甘草《各一兩》

창출《쌀뜨물에 담근 것, 4냥》천궁, 시호, 백부자, 원지《심을 제거》강활, 독활, 국화, 청피, 진피, 형개, 석고, 방풍, 청상자, 전갈, 선령비《졸인 젖을 발라 볶은 것》목적《마디 제거》저실, 황금, 감초《각 1냥》.

上爲細末, 煉蜜糊餅, 蒸熟爲丸, 一錢重一個. 食後荊芥湯, 酒或茶磨服, 日進二丸, 其功立驗.

이상을 곱게 갈아 졸인 꿀과 풀로 떡처럼 반죽하여 푹 짜서 환을 만들되, 환 1 개의 무게가 1돈씩 되게 한다. 식후에 형개 달인 물이나 술, 혹은 차에 풀어서 복용하며, 하루에 2개씩 복용하면 곧 효과를 본다.

#### 2.18.19.14. 羌活退翳 丸(地黃丸) | 강활퇴예환《일명 지황환》

治內障, 右眼小眦 靑白翳, 大眦 微顯白翳. 腦痛, 瞳子散大, 上熱惡寒, 大便澁或時難, 小便如常, 遇天暖熱處, 頭痛睛脹, 能食, 日沒後天陰則昏暗, 此症亦可服, 名滋陰地黃丸.

내장(內障)으로 오른쪽의 눈초리에 청백예(靑白翳) 가 있고 눈구석에 엷은 백예(白翳) 가 나타는 것을 치료한다. 머리가 아프고 동공이 크게 열리며, 상부에 열이 나면서 오한(惡寒)하고, 대변이 비삽(秘澁)하며 때로 잘 안 나오는데 소변은 평상시와 같고, 날씨가 따뜻하거나 더운 곳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눈알이 부으며, 밥은 먹을 수 있고, 일몰 후 어둑어둑할 때 눈이 흐리고 어두워진다면 이러한 증상들에 또한 복용할 수 있으니, 이름을 자음지황환(滋陰地黃丸) 이라 한다.

熟地黃《八錢》生地黃《酒洗炒》黃柏 當歸《酒製》茺蔚子 丹參 知母 黑附子 寒水石 茯苓《一兩三錢》防己《酒製, 二錢》牡丹皮 羌活 川芎 柴胡《五錢》

숙지황《8돈》생지황《술로 씻어 볶은 것》황백, 당귀《술로 법제한 것》충울자, 단삼, 지모, 흑부자, 한수석, 작약《1냥 3돈》방기《술로 법제한 것, 2돈》목단피, 강활, 천궁, 시호《5돈》.

上爲細末, 煉蜜爲丸, 如梧桐子, 每服五七十丸, 空心白湯送下. 如有宿食未盡, 俟飢時服之, 忌語言, 隨後以食壓之<sup>218</sup>. 東垣蘭室秘藏方, 去翳在大眦 加葛根升麻, 翳在小眦 加柴胡羌活是也.

이상을 곱게 갈아서 졸인 꿀로 벽오동 열매 크기의 환을 만들어, 매번 50~70환씩 공복에 끓인 물로 넘긴다. 먹은 것이 아직 다 소화되지 않았다면 배고프기를 기다려 복용하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잠시 후 음식을 먹어 누른다. 동원(東垣)의 『난실비장(蘭室秘藏)』처방에 눈구석의 예(翳)를 없앨 때는 갈근, 승마를 더하며, 눈초리의 예(翳)에는 시호, 강활을 더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 2.18.19.15. 補腎丸 | 보신환

治黑翳 如珠外障.

흑예여주(黑翳 如珠)의 외장(外障)을 치료한다.

人參 茯苓 細辛 五味子 桔梗 肉桂《各一兩》乾山藥 柏子仁《各二兩》乾地黃《一兩五錢》加知母 黃柏《二兩》青鹽《一兩》

인삼, 복령, 세신, 오미자, 길경, 육계《각 1냥》건산약, 백자인《각 2냥》건지황《1냥 5돈》에 지모, 황백《2냥》청염《1냥》을 더한다.

上爲末, 煉蜜和丸, 每服三十丸, 空心白湯下.

상을 가루로 만들어 졸인 꿀로 환을 빚어서 매번 30환씩 공복에 끓인 맹물로 삼킨다.

#### 2.18.19.16. 退熱飲子 | 퇴열음자

防風 黃芩 桔梗 芫 蔊《各三兩》大黃 玄參 細辛 五味子《各一兩》

방풍, 황금, 길경, 충울《각 3냥》대황, 현삼, 세신, 오미자《각 1냥》.

上爲末, 每服五錢, 水一盞, 煎至五分, 食後服.

이상을 가루로 만들고, 매번 5돈씩 물 한 잔에 달여서 반으로 줄면 식후에 복용 한다.

#### 2.18.19.17. 搜風湯 | 수풍탕

治旋螺大起<sup>219</sup> 外障.

선라첨기(旋螺尖起)의 외장(外障)을 치료한다.

防風 大黃 天門冬 五味子 桔梗《各一兩》細辛 菊 蔚《各三兩》菊花 芍藥《各一兩半》

방풍, 대황, 천문동, 오미자, 길경《각 1냥》세신, 충울자《각 3냥》국화, 작약《각 1냥 반》.

上每服五錢, 水一鐘, 煎至五分, 食後服.

이상을 매번 5돈씩 물 한 종지가 반으로 줄도록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19.18. 抽風湯 | 추풍탕

治奚魁蜑 肉<sup>220</sup> 外障.

해괴현육(奚魁蜑 肉)의 외장(外障)을 치료한다.

防風 桔梗 大黃 細辛<sup>221</sup> 黃芩 玄參 車前子 芒硝《各一兩》

방풍, 길경, 대황, 세신, 황금, 현삼, 차전자, 망초《각 1냥》

上每服五錢, 水煎食後服.

이상을 매번 5돈씩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19.19. 摩風膏 | 마풍고

治鶲 眼凝睛外障.

골안응정(鶲 眼凝睛)의 외장(外障)을 치료한다.

黃芪 細辛 當歸 杏仁 防風 松脂 黃蠟《各一兩》白芷 小麻油《各四兩》

황기, 세신, 당귀, 행인, 방풍, 송지, 황랍《각 1냥》백지, 소마유《각 4냥》.

上爲末, 煎成膏塗之.

이상을 가루로 만들고, 달여서 고(膏)를 만들어 바른다.

#### 2.18.19.20. 補腎丸 | 보신환

治眼暗浮花, 恐變成黑風內障<sup>222</sup>.

눈이 어두우면서 꽂 모양이 아른거려 흑풍내장(黑風內障)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澤瀉 細辛 菖 絲子《酒浸, 焙乾》五味子《炒, 各一兩》茺蔚子《焙, 二兩》山藥《一兩  
五錢》熟地黃《焙, 二兩》

택사, 세신, 토사자《술에 담갔다가 약한 불로 말린 것》오미자《볶은 것, 각 1  
냥》충울자《약한 불로 말린 것, 2냥》산약《1냥 5돈》숙지황《약한 불로 말린  
것, 2냥》.

上爲丸, 每服二十丸, 空心鹽湯下.

이상을 환으로 만들어 매번 20환씩 공복에 소금 끓인 물로 삼킨다.

#### 2.18.19.21. 磁石丸 | 자석환

治雷頭風<sup>223</sup>變內障.

뇌두풍(雷頭風)으로 내장(內障)이 된 것을 치료한다.

磁石《燒紅醋浸三次》五味子《炒》乾薑 牡丹皮 玄參《各一兩》附子《炮, 五錢》

자석《빨갛게 달궈서 식초에 담금질 3번》오미자《볶은 것》건강, 목단피, 현삼  
《각 1냥》부자《구운 것, 5돈》.

上爲末, 蜜和爲丸, 每服十丸, 食後清茶或鹽湯下.

이상을 가루로 만들고 꿀에 개어 환을 빚어서, 매번 10환씩 식후에 찻물이나 소금 끓인 물로 삼킨다.

### 2.18.19.22. 燥肝散 | 사간산

治肝虛雀目, 恐變成內障.

간허작목(肝虛雀目)이 내장(內障)으로 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防風《去蘆》黃芩 桔梗 芍藥 大黃《炒》

방풍《뿌리꼭지를 제거》황금, 길경, 작약, 대황《볶은 것》.

上每服入芒硝半字<sup>224</sup>, 臨臥溫服.

이상의 약들에 매번 망초 1/8돈을 넣어서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8.19.23. 連柏益陰丸<sup>225</sup> | 연백익음환

一名泄陰火丸.

설음화환(泄陰火丸)이라고도 한다.

黃連《酒洗炒, 一兩》防風 五味子 甘草 羌活 獨活 歸尾《酒洗, 各一兩一錢》黃柏 細辛 知母《各一兩》石決明《燒存性》

황련《술로 씻어서 볶은 것, 1냥》방풍, 오미자, 감초, 강활, 독활, 당귀미《술로 씻은 것, 각 1냥 1돈》황백, 세신, 지모《각 1냥》석결명《속은 원상태가 남도록 태운 것》.

上煉蜜爲丸, 如綠豆大, 每服三十丸, 漸加至百丸止, 用清茶下. 常服補陽湯, 少服此藥, 爲不可勝補陽, 恐妨飲食.

이상을 졸인 꿀로 녹두크기의 환을 만들어, 매번 30환씩 복용하되 점차 100개 까지 늘리며 찻물로 넘긴다. 보양탕(補陽湯)을 상복하는 사람은 이 약을 조금만 복용하고 보양탕보다 많이 먹어서는 안 되니, 음식에 방해될까 염려해서이다.

#### 2.18.19.24. 升陽柴胡湯 | 승양시호탕

升陽瀉陰, 羌活柴胡補陽湯<sup>226</sup>.

양(陽)을 끌어올리고 음(陰)을 사(瀉)하니, 강활시호보양탕(羌活柴胡補陽湯)이다.

柴胡 羌活 獨活 甘草根《去梢》歸身 熟地黃《酒炒》楮實 人參 白茯苓 白朮 黃芪《各五錢》澤瀉 陳皮 防風《各三錢》知母《三錢, 酒浸, 夏月加五錢》肉桂《五分》

시호, 강활, 독활, 감초근(끝을 떼어낸 것), 당귀신, 숙지황《술로 볶은 것》저실, 인삼, 백복령, 백출, 황기《각 5돈》택사, 진피, 방풍《각 3돈》지모《3돈, 술에 담가서 쓰며 여름철에는 5돈을 쓴다》육계《5푼》.

上剉碎, 每服五錢, 水二盞, 煎至一盞, 去渣稍熱服. 仍合一料煉蜜爲丸, 食遠清茶下五十丸, 每日與前藥各一服. 如天氣熱加五味子三錢, 天門冬去心五錢, 更加楮實五錢.

이상을 뺏아서 매번 5돈씩을 물 2잔이 1잔으로 줄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약간 뜨겁게 복용한다. 또 같은 재료를 졸인 꿀로 환을 만들어서 끼니와 먼 때에 찻물로 50환씩 삼키는데, 매일 앞의 약과 더불어 각각 한 번씩 복용한다. 만약 날씨가 더우면 오미자 3돈과 거심(去心)한 천문동 5돈을 더하고, 저실을 5돈 더 늘린다.

#### 2.18.19.25. 桑白皮湯 | 상백피탕

治目生花翳 白點<sup>227</sup>, 狀如棗花.

눈에 꽃모양의 예(翳)나 흰 점이 대추꽃 모양으로 생긴 것을 치료한다.

桑白皮 木通 澤瀉 犀角 黃芩 甘草 玄參 旋複花 川大黃《炒, 各一兩》菊花《一兩五錢》甘草《炙, 五錢》

상백피, 목통, 택사, 서각, 황금, 감초, 현삼, 선복화, 천대황《볶은 것, 각 1냥》  
국화《1냥 5돈》감초《구운 것, 5돈》.

上爲細末, 每服二錢, 水一盞煎六分, 連渣湯溫服.

이상을 곱게 갈아서 매번 2돈씩을 물 한 잔에 6/10으로 줄도록 달이고, 건더기  
와 탕액(湯液)을 함께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8.19.26. 柏苓 丸 | 구령환

治男子婦人腎臟虛耗, 水不上升, 眼目昏暗, 遠視不明, 漸成內障.

남자와 부인이 신장(腎臟)이 허약해져 수(水)가 상승하지 못하므로 눈이 흐리  
고 어두우며 먼 것을 뚜렷이 볼 수 없고 점차 내장(內障)이 되는 것을 치료한  
다.

枸杞子《四兩》白茯苓《八兩, 去皮》當歸《二兩》青鹽《另研, 一兩》菟絲子《四兩,  
酒浸蒸》

구기자《4냥》백복령《8냥, 껍질을 제거》당귀《2냥》청염《별도로 간다, 1냥》토  
사자《4냥, 술에 담갔다 찐 것》.

上爲細末, 煉蜜和丸, 每服七十丸, 食前白湯下.

이상을 곱게 갈아서 줄인 꿀로 환을 만들며, 매번 70환씩 식전에 끓인 맹물로  
넘긴다.

#### 2.18.19.27. 熟地黃丸 | 숙지황환

治血弱陰虛不能養心, 致心火旺, 陽必盛, 偏頭腫悶, 瞳子散大, 視物則花, 理當養血  
涼血, 益血除風, 散火則愈矣.

혈(血)이 약(弱)하고 음(陰)이 허(虛)하므로 심(心)을 기르지 못하여 심화(心火)가 왕성하게 되면 양(陽)이 반드시 성해지니, 머리 한쪽이 붓고 답답하면서 동공이 크게 열리고 물체를 보면 꽂처럼 아른거리는 것을 치료한다. 이치는 마땅히 혈(血)을 기르고 서늘하게 하며, 혈을 북돋아 풍(風)을 없애고 화(火)를 흘으면 낫는다.

熟地黃《一兩》五味子 枳殼《炒》甘草《炙, 各三錢》

숙지황《1냥》오미자, 지각《볶은 것》감초《구운 것, 각 3돈》.

上爲細末, 煉蜜和丸, 每服一百丸, 食遠清茶送下, 日進三服. 忌食辛辣物, 而助火邪, 及食寒冷物, 損胃氣, 藥不能上行也.

이상을 곱게 갈아 졸인 꿀로 환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 100환씩을 끼니와 먼 때에 찻물로 넘긴다. 매운 음식은 화사(火邪)를 도우며 찬 음식은 위기(胃氣)를 손상시키고 약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므로 피해야 한다.

#### 2.18.19.28. 煮肝散 | 자간산

治目生黑花, 漸成內障, 及開睛偏視, 風毒攻眼, 腫痛澁癢, 短視, 倒睫, 雀目.

눈에 검은 꽃이 아른거리면서 점차 내장(內障)이 되는 것과 눈알이 쓸려 비뚤어진 것, 풍독(風毒)이 눈을 침범한 것, 붓고 아프며 깔깔하고 가려운 것, 근시(近視), 도첩(倒睫), 작목(雀目)을 치료한다.

羌活《去蘆》獨活《去蘆》青葙 子 菊花《各一兩》

강활《뿌리꼭지를 제거》독활《뿌리꼭지를 제거》청상자, 국화《각 1냥》.

上爲細末, 每服三錢匕<sup>228</sup>, 羊肝子<sup>229</sup>羊肝子一葉剉, 淡竹葉數片同裹, 如棕子大, 別用黑豆四十九粒, 米泔一碗, 銀石器內同煮. 豆爛泔乾爲度, 取肝細嚼, 溫酒下, 又將豆食. 空心日午夜臥服.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매번 3전비(錢匕)씩을 양의 간(肝) 썬 것 한 쪽과 함께 담죽엽 몇 조각으로 종려나무 열매 크기가 되도록 감싸고, 따로 준비한 검정콩 49알, 쌀뜨물 한 사발과 함께 은그릇이나 돌그릇에 삶아, 콩이 뭉그러지고 쌀뜨물이 마르면 간을 꺼내어 잘게 씹어서 따뜻한 술로 넘기고 콩도 먹는다. 정오와 잠자리에 들 때 빈속에 복용한다.

### 2.18.19.29. 菖蒲 散 | 궁궁산

治目暈昏澁, 視物不明.

눈이 가물거리고 흐릿하며 깔깔하고 물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白芷《一錢》菖蒲 地骨皮 荊芥穗 何首烏《去黑皮》菊花 旋複花 草決明 石決明《製不碎》甘草《各一兩》青葙 子 蟬蛻《去足》木賊草《各五錢》

백지《1돈》궁궁, 지골피, 형개수, 하수오《검은 껌질을 제거》국화, 선복화, 초결명, 석결명《법제하되 부수지 않은 것》감초《각 1냥》청상자, 선태《다리를 제거》목적초《각 5돈》.

上爲細末, 每服一錢匕, 米泔 水調下.

이상을 곱게 갈아 매번 1전비(錢匕)씩 쌀뜨물에 타서 복용한다.

215. 瓦硝 : 석죽과에 속하는 식물 瓦草의 뿌리.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초이다.

四庫全書本에는 ‘芒硝’로 되어 있다. ↪

216. 羚羊 : 거세한 숫양. ↪

217. 昔唐崔承元內障喪明.....服之眼復明朗 : 『普濟本事方』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唐나라의 崔承元이라는 자가 관원으로서 사형수 한 명을 내보내 살려주었는데, 죄수는 몇 년 후 병들어 죽었다. 어느 날, 최승원은 내障을

앓아서 실명한 지가 1년이 넘어, 자정이 지나도록 탄식하며 혼자 앓아 있는데 갑자기 섬돌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렸다. 최승원이 누구냐고 물으니 ‘옛날에 살려주신 죄수인데 지금 은혜를 갚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하며 이 처방을 알려주고는, 말이 끝나자 사라졌다. 최승원이 이에 따라 약을 만들어 복용하니 몇 달 되지 않아 눈이 다시 밝아졌다.” ←

218. 以食壓之 : 복약 후 음식을 먹어 약기운이 내려가도록 누르는 것을 ‘食壓’이라고 한다. ←

219. 旋螺大起 : 四庫全書本도 이와 같으나, ‘旋螺尖起’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本書의 해당 조는 제목이 ‘螺旋尖起’로 되어 있고 본문에서 ‘旋螺尖起’라 하였다. ←

220. 奚魁蜆 肉 : 雞 冠蜆 肉과 같다. 本書의 해당 조문 참조. ←

221. 細辛 : 集成本에는 이 앞에 ‘桔梗’이 있는데, 처방 내에서 중복되어 오류가 명백하므로 刪去하였다. 四庫全書本에는 ‘桔梗’이 중복되지 않는다. ←

222. 黑風內障 : 五風變內障의 하나. ‘黑風’이라고도 한다. 『秘傳眼科龍木論』에 “初患之時, 頭旋額角偏痛, 連眼瞼骨及鼻頰骨時時亦痛, 兼眼內痛澀, 有黑花來往.”이라 하였으며 『證治準繩』에서는 “與綠風候相似 ..... 乃腎受風邪, 热攻于眼.”이라 하였다. ←

223. 雷頭風 : 『秘傳眼科龍木論』에 ‘雷頭風內障’으로 나와 있다. 머리와 눈의 심한 腫痛 및 耳鳴 등이 나타나며, 대개 風火와 痰으로 인해 생기는 병증이다.  
←

224. 字 : 重量의 단위. 1錢의 1/4이다. ←

225. 連柏益陰丸 : 本篇 앞부분의 補陽湯 조에서 언급한 ‘益陰丸’이 이것이다.  
←

226. 羌活柴胡補陽湯 :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 처방은 앞에 나온 補陽湯과

구성이 비슷한데, 보양탕에도 羌活과 柴胡가 들어있다. ↵

227. 花翳 白點 : 四庫全書本도 이와 같으나, ‘花翳 白陷’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本書의 앞쪽에 해당 병증이 나온다. ↵

228. 錢匕 : 粉末을 計量하는 도구. 1錢匕는 약 2g에 해당한다. ↵

229. 羊肝子 : 그대로 ‘양의 간’이라는 뜻이지만, 本書 내에서 「大眞 赤脈傳睛」의 肝連丸, 「坐起生花」의 补腎明目丸에는 ‘羊子肝(새끼양의 간)’을 쓰게 되어 있으므로 혹 抄倒일 가능성도 있다. ↵

## 2.18.20. 滌風散(滌風散洗眼方) | 눈을 씻는 처방인 척풍산

治風毒攻眼, 赤腫癢 痛.

풍독(風毒)이 눈을 침입하여 벌겋게 부으며 가렵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黃連 蔓荊子《各五錢》五味子<sup>230</sup>《二錢》

황련, 만형자《각 5돈》오미자《2돈》.

上剉 細末, 分三次, 新水煎, 濾清汁, 以手撥洗效.

이상을 썰어서 곱게 갈아 3번에 나누어 쓰는데, 갓 길어온 물에 달여서 맑은 즙 만 걸러 손으로 끼얹으면서 씻으면 효과가 있다.

### 2.18.20.1. 通頂散 | 통정산

治風毒攻眼並 夾腦風<sup>231</sup>.

풍독(風毒)이 눈을 침입한 것과 협뇌풍(夾腦風)을 치료한다.

細辛《去葉》香白芷 蕺香葉《去土》川芎 蹤躅花<sup>232</sup>《三錢》

세신《잎을 제거》향백지, 곽향엽《흙을 제거》천궁, 척촉화《3돈》.

上爲細末. 每用先含新汲水<sup>233</sup>一口, 然後挑少許搐<sup>234</sup> 在鼻內, 以手擦兩太陽穴.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 사용할 때는 먼저 신급수(新汲水)를 한 모금 입에 머금은 다음 약을 조금 집어서 콧속으로 들이마시고, 손으로 양쪽 태양혈(太陽穴)을 문지른다.

### 2.18.20.2. 銅青方 | 동청방

洗眼, 治風弦毒眼<sup>235</sup>.

눈을 씻으며, 풍현독안(風弦毒眼)을 치료한다.

銅青<sup>236</sup>《黑豆大一塊》防風《一兩》杏仁《二個, 去皮尖》

동청《검정콩 크기로 한 덩이》 방풍《1냥》 행인《2개}, 볶아서 속껍질과 끝을 뗀 것》.

上各細切, 於盞中新汲水浸, 湯瓶 中頓, 令乘熱洗之. 如痛者加當歸數片.

이상을 각각 잘게 썰어서 잔에 넣어 신급수(新汲水)에 담그고, 중탕으로 데워서 따뜻할 때 씻는다. 통증이 있는 경우는 당귀 몇 조각을 더한다.

#### 2.18.20.3. 蟬殼散 | 선각산

治眼目風腫, 及生翳 目等疾.

눈이 풍(風)으로 붓는 것과 예(翳)가 생기는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

蟬蛻 地骨皮 黃連 牡丹皮 蒼朮《米泔 浸, 焙》白朮 菊花《各一兩》龍膽草《五錢》甜瓜子<sup>237</sup>《三兩》

선태, 지골피, 황련, 목단피, 창출《쌀뜨물에 담가서 약한 불에 말린 것》백출, 국화《각 1냥》용담초《5돈》첨과자《3냥》.

上爲細末, 每服一錢五分, 荊芥煎湯送下, 食後臨臥各一服.

이상을 곱게 갈아서 매번 1돈 5푼을 헉개 달인 물로 넘기며, 식후와 잠자리에 들 때 각 1번씩 복용한다.

#### 2.18.20.4. 凉膈丸<sup>238</sup> | 양격환

治眼狀青色大小<sup>239</sup>.

눈의 형상이 푸른색을 띠고 눈구석과 눈초리가 .....한 것을 치료한다.

黃連《洗, 不見火》黃芩 荊芥 龍膽草《各五錢》蘆薈 防風《各一兩》黃柏《去皮》地膚子

황련《씻은 것, 불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황금, 헉개, 용담초《각 5돈》노회, 방풍《각 1냥》황백《껍질을 제거》지부자.

上爲細末, 煉蜜爲丸, 每服二十丸, 食後薄荷湯送下.

이상을 곱게 갈아 졸인 꿀로 환을 만들어서, 매번 20환씩 식후에 박하 달인 물로 넘긴다.

#### 2.18.20.5. 麥門冬散<sup>240</sup> | 맥문동산

治血灌瞳人, 昏澁疼痛, 及轆轤 門外障<sup>241</sup>.

혈관동인(血灌瞳人)과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픈 것 및 녹로전관외장(轆轤 轉關外障)을 치료한다.

麥門冬 大黃 黃芩 桔梗 玄參 細辛 芒硝《各五錢》

맥문동, 대황, 황금, 길경, 현삼, 세신, 망초《각 5돈》.

上每服水一鐘煎至七分, 去渣下芒硝少許, 食後溫服.

이상을 매번 물 한 종지에 달여 7/10으로 줄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망초를 조금 넣어,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8.20.6. 連翹飲子 | 연교음자

治目中惡翳 與大眦 隱澁, 小眦 累, 久視昏花, 近風有淚.

눈의 악예(惡翳) 와 눈구석이 걸끄럽고 눈초리는 땅기는 것, 오래 보면 흐릿하고 어른거리는 것,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連翹 當歸 菊花 蔓荊子 甘草 柴胡 升麻 黃芩 黃芪 防風 羌活 生地黃

연교, 당귀, 국화, 만형자, 감초, 시호, 승마, 황금, 황기, 방풍, 강활, 생지황.

上等分, 食後服.

이상을 같은 분량씩 식후에 복용한다.

#### 2.18.20.7. 調經散 | 조경산

治室女月水停久, 倒行逆上衝眼. 先以光明散點, 血膜不退, 用珍珠散點, 先以調氣, 則血通矣.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월경이 오래 멈추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 눈을 치받은 것을 치료한다. 먼저 광명산(光明散)을 점안하고 혈막(血膜)이 없어지지 않으면 진주산(珍珠散)을 점안하니, 우선 기(氣)를 고르게 하면 혈(血)이 통한다.

烏藥 附米 陳皮 川芎 當歸 茯苓 防風 荆芥 升麻 乾葛 血竭 紫薇花<sup>242</sup> 紅花

오약, 향부자, 진피, 천궁, 당귀, 복령, 방풍, 형개, 승마, 건갈, 혈갈, 자미화, 홍화.

血不通加蘇木, 氣不順加木香沈香.

혈(血)이 통하지 않으면 소목을 더하고, 기(氣)가 순조롭지 않으면 목향, 침향을 더한다.

上二香不過火, 煎出藥後, 將此二味香磨與藥同服. 若經脈月流不斷, 或因氣脹衝眼, 眼珠腫痛, 翳膜不退, 服天麻散.

목향과 침향은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약재를 달인 후에 이들을 갈아서 함께 복용한다. 만약 월경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기창(氣脹)으로 눈을 치받아서 눈알이 붓고 아프며 예막(翳膜)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천마산(天麻散)을 복용한다.

#### 2.18.20.8. 天麻退翳 散 | 천마퇴예산

治垂簾翳障, 昏暗不明.

수렴예장(垂簾翳障)으로 흐릿하고 어두워 또렷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當歸《一兩, 好酒浸焙乾》熟地黃《一兩, 酒浸焙乾》川芎《一兩五錢》赤芍藥《二兩五錢, 热水泡》白僵蠶《一兩, 热水泡過, 洗去絲, 薑汁炒》蟬蛻《五十個, 水泡, 洗去頭足》羌活 防風 荆芥 木賊《各一兩, 去根節》石決明《一兩, 燒過存性》白蒺藜《一兩

五錢》白芷《一兩五錢》甘草《七錢》麥門冬《二兩》黃芩尾 羊角天麻《炒存性》厚枳殼《炒》蔓荊子《各一兩, 打少碎》菊花《一兩》密蒙花《七錢》

당귀《1냥, 좋은 술에 담갔다가 약한 불에 말린 것》숙지황《1냥, 술에 담갔다가 약한 불에 말린 것》천궁《1냥 5돈》적작약《2냥 5돈, 뜨거운 물에 불린 것》백강잠《1냥, 뜨거운 물에 불린 후 실을 씻어내고 생강즙에 볶은 것》선태《50개, 물에 불리고 씻어서 머리와 다리를 제거》강활, 방풍, 형개, 목적《각 1냥, 뿌리와 마디를 제거》석결명《1냥, 속은 원상태가 남도록 태운 것》백질려《1냥 5돈》백지《1냥 5돈》감초《7돈》맥문동《2돈》황금 잔뿌리, 양각천마《속은 원상태가 남을 정도로 바짝 볶은 것》두툼한 지각《볶은 것》만형자《각 1냥, 깨뜨린다》국화《1냥》밀몽화《7돈》。

共二十一味, 每服蓮子三個, 燈芯七根, 水一鐘半, 煎至八分, 食後溫服. 若眼紅加黃連.

이상의 21가지 약물에 복용할 때마다 연자 3개, 등심초 7뿌리를 넣고 물 한 종지가 8/10로 줄도록 달여서 식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만약 눈이 붉으면 황련을 더한다.

#### 2.18.20.9. 酒煎散 | 주전산

治眼赤色, 有氣熱宜服. 此方通治婦人赤腫下垂<sup>243</sup>, 初起服此.

눈이 붉은 것을 치료하는데, 기열(氣熱)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 처방은 부인이 눈이 벌겋게 붓고 예막(翳 膜)이 내려오는 것을 두루 치료하니, 초기에 이를 것을 복용한다.

漢防己 防風 甘草 荊芥 當歸 赤芍藥 牛蒡子

한방기, 방풍, 감초, 형개, 당귀, 적작약, 우방자.

上酒煎, 食後服.

이상을 술로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20.10. 大黃當歸散 | 대황당귀산

治眼壅腫, 瘀血凝滯, 攻衛生翳, 宜服.

눈이 땀玷히 부은 것을 치료하니, 어혈(瘀血)이 응체되어 치받아 예(翳)가 생긴 경우에 적합하다.

當歸 菊花 大黃《炒》黃芩 紅花《炒》蘇木 桢子《炒》

당귀, 국화, 대황《볶은 것》황금, 홍화《볶은 것》소목, 치자《볶은 것》.

上煎服.

이상을 달여서 복용한다.

### 2.18.20.11. 當歸薄梗湯 | 당귀박경탕

治眼生翳, 淚出羞明, 發久不愈.

눈에 예(翳)가 생겨 눈물이 나고 눈이 부시며, 발생 후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薄荷 桔梗 知母 黑參 赤芍藥 黃芩《酒炒》生地黃 菊花 芫 蔚子 當歸 桑白皮 防風 川芎 白芷 甘草

박하, 길경, 지모, 흑삼, 적작약, 황금《술로 볶은 것》생지황, 국화, 충울자, 당귀, 상백피, 방풍, 천궁, 백지, 감초.

上淨水一鐘煎服.

이상을 깨끗한 물 한 종지에 달여서 복용한다.

### 2.18.20.12. 黃芩白芷散 | 황금백지산

治眼血翳, 淚出羞明, 發久不愈.

눈에 혈예(血翳)가 생겨 눈물이 나오고 눈이 부시며 발생 후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當歸 黃芩 防己 防風 川芎 白芷 菖蒲 石決明 草決明 桔梗 青葙 蒙花 菊花  
木賊 知母 赤芍藥

당귀, 황금, 방기, 방풍, 천궁, 백지, 질려, 석결명, 초결명, 길경, 청상자, 밀동화,  
충울자, 국화, 목적, 지모, 적작약.

上爲細末, 食後清茶下.

이상을 곱게 갈아 식후에 찻물로 넘긴다.

#### 2.18.20.13. 黃風菊花湯 | 황풍국화탕

治初起胬 肉攀睛, 急宜服之.

초기의 노육반정(胬 肉攀睛)을 치료하니, 급히 복용해야 한다.

防風 黃連 桑白皮 赤茯苓 瞿麥 車前子 桃子 大黃 黃芩 細辛 桔梗 連翹

방풍, 황련, 상백피, 적복령, 구맥, 차전자, 치자, 대황, 황금, 세신, 길경, 연교.

上水煎, 半飢溫服.

이상을 물로 달여서 배가 반쯤 꺼졌을 때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8.20.14. 加減當歸菊連湯 | 가감당귀국연탕

治膜下垂. 初起發, 此方致效. 如久病, 此方收功.

막(膜)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치료한다. 발생 초기에는 이 처방으로 효과를  
내고, 오래된 경우에는 이 처방으로 마무리를 한다.

當歸 白芷 赤茯苓 黃芩 赤芍 知母 桑螵蛸 生地黃 木通 連翹 麥門冬 菊花 防風 川芎  
石膏 覆盆子 菊蔚 甘草

당귀, 백지, 적복령, 황금, 적작약, 지모, 상표초, 생지황, 목통, 연교, 맥문동, 국화, 방풍, 천궁, 석고, 복분자, 충울자, 감초.

上水煎食後服.

이상을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 2.18.20.15. 蒼朮散 | 창출산

治小兒痘瘡入眼, 生翳 膜, 羞明怕 日.

소아의 두창(痘瘡)이 눈으로 침입하여 예막(翳 膜)이 생기고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는 것을 치료한다.

蒼朮 槐花 防風 乾葛 藁本 川芎 蛇蛻 枸杞子 黃芩《酒炒》蒺藜 乳香《不見火, 藥煎成方下》白菊花《家產》蟬蛻 木賊 石膏 穀精草 甘草 沒藥《不見火, 煎成藥傾碗內, 同乳香一齊下服》

창출, 괴화, 방풍, 건갈, 고본, 천궁, 선태, 구기자, 황금《술로 볶은 것》질려, 유향《불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약이 다 달여지면 넣는다》백국화《집에서 기른 것》선태, 목적, 석고, 곡정초, 감초, 몰약《불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약이 다 달여져 그릇에 부은 다음에 유향과 함께 넣어서 복용한다》.

上爲末, 水煎食後服. 大人水煎, 小兒爲末服之.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달여서 식후에 복용한다. 어른은 물에 달여서, 소아는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한다.

此治小兒疳眼<sup>244</sup>, 其症泄後眼不開<sup>245</sup>, 宜服此進賢方<sup>246</sup>.

이는 소아감안(小兒疳眼)을 치료하는데, 그 증이 설(泄)한 후에 눈이 안 떠진다면 이 진현방(進賢方)을 복용해야 한다.

當歸 菊花 黃連《各五錢》

당귀, 국화, 황련《각 5돈》.

上爲末, 水一鐘入蜜一匙, 煎三沸, 食後服之.

이상을 가루로 만들고, 물 한 종지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달여서 3번 끓어오르면 식후에 복용한다.

230. 五味子 : 『仁齋直指』, 『普濟方』, 『證治準繩』에 모두 ‘五倍子’로 되어 있다. 五倍子는 外用으로 환부에 도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처방의 용도에 부합한다. ↪

231. 夾腦風 : 양쪽 太陽穴에서 머릿속까지 아픈 병증. ↪

232. 蹤躅花 : 진달래과 식물 羊躤躅의 꽃. 우리나라에 없는 약초이다. ↪

233. 新汲水 : 샘에서 갓 길어온 물. ↪

234. 搗 : 문맥상 ‘嚙’의 의미로 생각된다. ↪

235. 風弦毒眼 : 風弦赤眼과 유사한 병증으로 생각된다. 本書의 해당 조문에 金錢湯을 쓴다고 하였는데, 녹슨 동전이 들어가는 처방으로서 銅青方과 일맥 상통한다. ↪

236. 銅青 : 구리에 슨 녹. ↪

237. 甜瓜子 : 참외 씨. ↪

238. 凉膈丸 : ‘涼膈丸’의 잘못으로 보인다. 凉膈丸은 『世醫得效方』에 나오는 처방으로 구성과 복용법이 여기에 실린 것과 일치하며, 本書의 ‘大小’ 이하 탈락된 내용도 『世醫得效方』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39. 眼狀青色大小 : 이하에 脫文이 있다. 『世醫得效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此候, 其狀青色, 大小皆頭澁痛, 頻頻下淚, 口苦不喜飲食, 蓋膽受風寒,

宜服涼膽丸.” ↵

240. 麥門冬散 : 明代 袁學淵의 『祕傳眼科七十二症全書』에서 血灌瞳人과 輻  
軸 轉關外障에 모두 사용한다고 밝힌 麥門冬湯과 일치한다. ↵

241. 輻軸 門外障 : ‘輻軸 轉關外障’의 잘못으로 보인다. 바로 앞의 주석 참조.

↵

242. 紫薇花 : 배롱나무의 꽃. ↵

243. 赤腫下垂 : ‘下垂’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 ‘赤膜下垂’의 잘못일 수 있  
겠다. ↵

244. 小兒疳眼 : 本書의 「小兒疳傷」참조. ↵

245. 其症泄後眼不開 : 蒼朮散 복용 후의 후속조치를 서술하는 말일 것이므로  
‘泄’은 誤字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나, 이들 처방의 출전을 달리 찾을 수 없어 확  
인은 어렵다. ↵

246. 進賢方 : 이어지는 처방을 가리키는 말로 보이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

### 2.18.21. 小兒斑瘡入眼 | 소아의 두창(痘瘡)이 눈에 들어간 것

柴胡湯, 又用茶調洗肝散, 如赤眼用四物湯.

| 시호탕(柴胡湯) 또는 다조세간산(茶調洗肝散)을 쓰며, 눈이 붉다면 사물탕(四物湯)을 쓴다.

#### 2.18.21.1. 四物湯 | 사물탕

赤芍藥 羌活 蟬蛻 木賊 黃芩 大黃 蒙花 粉草 桔梗 痰 藜 鬱金 當歸 防風 龍膽草 獨活 川芎 石膏 川椒 菊花 草決明 車前子 穀精草 黃連 蒼朮 荆芥

| 적작약, 강활, 선태, 목적, 황금, 대황, 밀몽화, 분초, 길경, 질려, 울금, 당귀, 방풍, 용담초, 독활, 천궁, 석고, 천초, 국화, 초결명, 차전자, 곡정초, 황련, 창출, 형가.

上每服, 燈芯十根, 溫服.

| 이상의 약재에 복용할 때마다 등심초 10뿌리를 넣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 2.18.21.2. 六一丸 | 육일환

治熱淚<sup>247</sup>.

| 열루(熱淚)를 치료한다.

蛤粉 黃連 木賊 香附米

| 합분, 황련, 목적, 향부자.

上爲末, 糊丸, 茶送下.

| 이상을 가루로 만들고 풀로 환을 빚어서 찻물로 삼킨다.

#### 2.18.21.3. 通草散<sup>248</sup> | 통초산

治風淚<sup>249</sup> 障翳.

풍루(風淚)로 예장(障翳)이 발생한 것을 치료한다.

赤芍藥 川芎 羌活 甘草 當歸 麝香

적작약, 천궁, 강활, 감초, 당귀, 사향.

上爲末, 調勻爲丸, 如皂 角子大, 百沸湯泡淚眼<sup>250</sup>, 神效.

이상을 가루로 만들고 고르게 섞어서 조각자 크기의 환을 만들어서, 끓인 맹물에 풀어서 씻으면 신기한 효험이 있다.

247. 热淚 : 本書「充風淚出」에 “붓고 아프고 붉고 껄끄러우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热淚”라고 하였다. ↵

248. 通草散 : 처방 구성에 通草가 들어있지 않으니, 脫文이 있는 듯하다. ↵

249. 風淚 : 本書「充風淚出」에 “붉지 않고 통증도 없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風淚라 한다”고 하였다. ↵

250. 百沸湯泡淚眼 : 처방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말이니, ‘淚眼’은 ‘洗眼’이나 ‘沃安’의 잘못인 것 같다. ↵

**2.18.22. 治眼赤腫 | 눈이 벌겋게 부은 것을 치료함**

大黃 荆芥 鬱金 薄荷 朴硝 痛加沒藥

대황, 형개, 울금, 박하, 박초. 통증이 있으면 몰약을 더한다.

上爲末, 用薑汁調, 或赤加蔥根捶爛, 和藥貼太陽二穴.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생강즙에 개고, 눈이 붉은 경우는 뭉그러지도록 찢은 파 뿌리를 더하여 약과 섞어서 양쪽 태양혈(太陽穴)에 붙인다.

### 2.18.23. 治小兒眼不開 | 소아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치료함

用葶藶 子爲末, 取豬 膽調貼額上.

정력자를 가루로 만들고, 돼지 쓸개즙에 개어서 이마에 붙인다.

#### 2.18.23.1. 小撥雲散 | 소발운산

治男婦目澁痛爛, 淚出羞明怕 日, 血灌瞳人.

남자와 부인의 눈이 깔깔하고 아프고 허는 것, 눈물이 나오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는 것, 혈관동인(血灌瞳人)을 치료한다.

黃芩 甘草 桔子 大黃 茵藥 鬱金 龍膽草 羌活 蟬蛻 木賊 當歸 蒙花 蔴藜

황금, 감초, 치자, 대황, 작약, 울금, 용담초, 강활, 선태, 목적, 당귀, 밀몽화, 질  
려.

#### 2.18.23.2. 洗心散 | 세심산

治眼目腫痛難開, 澈淚.

눈이 붓고 아파서 뜨기가 어렵고, 깔깔하며 눈물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大黃《炒》黃芩 桔子 甘草 黃柏 木通 菊花 赤芍藥 防風 荊芥

대황《볶은 것》황금, 치자, 감초, 황백, 목통, 국화, 적작약, 방풍, 형개.

#### 2.18.23.3. 密蒙花散 | 밀몽화산

治久患內外障翳, 羞明怕 日, 迎風洒 淚, 腫痛難開, 翳 肉攀睛, 風熱氣障<sup>251</sup>等病皆  
治之.

오래 앓은 내장(內障)과 외장(外障)을 치료하니,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는 것,  
영풍쇄루(迎風洒 淚), 눈이 붓고 아파 눈 뜨기가 어려운 것, 노육반정(翳 肉攀  
睛), 풍열(風熱)로 기장(氣障)이 발생한 것 등의 병을 모두 치료한다.

蒙花 威靈仙 草決明 羌活 黑附子 大黃 石膏 川椒《炒》木賊 甘草 蟬蛻 獨活 楮實子  
川芎 荊芥 車前子 防風 菊花 黃連 蒼朮

밀몽화, 위령선, 초결명, 강활, 흑부자, 대황, 석고, 천초《볶은 것》목적, 감초,  
선태, 독활, 저실자, 천궁, 형개, 차전자, 방풍, 국화, 황련, 창출.

上燈芯煎服.

이상을 등심초와 함께 달여서 복용한다.

#### 2.18.23.4. 消風散 | 소풍산

治一切風毒上攻, 頭目拘急鼻澁, 男婦宜服.

일체의 풍독(風毒)이 상부를 공격하여 머리와 눈이 땋기고 코가 답답한 것을  
치료하며, 남자나 부인이 복용하기에 적합하다.

藿香 白芷 全蠍 甘草 防風 青風藤<sup>252</sup>

곽향, 백지, 전갈, 감초, 방풍, 청풍등.

---

251. 氣障 : 肺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눈병. 清代 醫書인 『異授眼科』에서 “白睛  
腫起, 多生瘀肉, 有淚, 或白膜侵睛, 名曰氣障, 其病在肺”라 하였다. ←

252. 青風藤 : 防己의 덩굴줄기. ←

#### 2.18.24. 又方 | 또 다른 처방

治前症, 外感風邪, 頭痛鼻塞流涕, 眼目赤腫.

앞의 증상들과, 밖에서 받은 풍사(風邪)로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며 맑은 콧물이 나오고 눈이 벌겋게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荊芥 甘草 羌活 防風 陳皮 川芎 蘇葉 蟬蛻 附米 升麻 麻黃

형개, 감초, 강활, 방풍, 진피, 천궁, 소엽, 선태, 향부자, 승마, 마황.

上薑三片, 蔥三根, 熱服, 取汗爲度.

이상의 약물에 생강 3쪽, 파 3뿌리를 넣고 뜨겁게 복용하며, 땀이 날 때까지 복용한다.

##### 2.18.24.1. 燐弦風<sup>253</sup> | 난현풍

---

253. 燐弦風 : 本書의 「風弦赤眼」 참조. ↪

## 2.18.25. 治爛弦風不問遠年近日洗藥 | 치료에, 오래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씻는 처방

黃連 五倍子 薏仁 當歸 明礬《焙》銅青<sup>254</sup>

황련, 오배자, 유인, 당귀, 명반《약한 불에 말린 것》동청.

上爲細末, 將小鐘張水, 入藥於內, 飯上蒸過. 藥水點洗爛處爲妙.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 작은 종지에 물을 채우고 약을 넣어 밥 위에 안 쳐서 찐다. 이 약수를 헌 데에 바르고 씻으면 효과가 좋다.

---

<sup>254</sup>. 銅青 : 구리에 슨 녹. ↵

## 2.18.26. 治時行熱眼 | 전염성 열안(熱眼<sup>255</sup>)을 치료함

防風 川芎 生地黃 赤芍藥 桔子 龍膽草 蒼朮《浸炒》甘草 荊芥 黃柏

방풍, 천궁, 생지황, 적작약, 치자, 용담초, 창출《물에 담갔다가 볶은 것》감초, 형개, 박하.

上煎服.

이상을 달여서 복용한다.

### 2.18.26.1. 燥弦風 | 난현풍

用白礬光醋飛過, 取無病婦人乳汁調, 雞毛點搽之.

백반(白礬)을 밝게 빛나는 것으로 골라 식초로 수비(水飛)하고, 병이 없는 부인의 젖에 타서 닦털로 찍어 바른다.

### 2.18.26.2. 燥弦風, 赤眼 | 난현풍(燥弦風)과 적안(赤眼)

水銀《一錢》銀朱<sup>256</sup>《五分》銅青《三分》

수은《1돈》은주《5푼》동청《3푼》.

上薑包煨過, 共爲末篩過, 點眼弦如神.

싸서 구운 생강과 함께 가루로 만들어서 체에 내린 후 위아래 눈시울에 바르면 효과가 좋다.

255. 热眼 : 本書 첫머리의 「銀海精微序」에서 “검은자위가 솟아오르고, 눈꺼풀이 단단하고 붉게 부으며, 눈곱과 눈물로 눌진거리고 속에 열이 있어 찌르는 듯 아프면 이것을 열안(熱眼)이라 한다”고 하였다. ↪

256. 銀朱 : 수은과 유황으로 합성한 황화수은. 靈砂라고도 한다. ↪



2.18.27. 眼目<sup>257</sup> 頭痛消風散 | 눈과 머리가 아플 때 쓰는 소풍산(消風散)

藿香 川芎 甘草 人參 白茯苓 荆芥 逢州豆<sup>258</sup> 甘草蠶<sup>259</sup> 陳皮 蟬蛻 羌活 獨活 防風

곽향, 천궁, 감초, 인삼, 백복령, 형개, 봉주두, 감초잠, 진피, 선태, 강활, 독활,  
방풍.

加細辛, 白芷, 薄荷, 名川芎茶調散.

여기에는 세신, 백지, 박하를 더하면 이름을 천궁다조산(川芎茶調散)이라 한다.

257. 目 : (集成) 鼎本에는 ‘痰’으로 되어 있다. ↵

258. 逢州豆 :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逢州에서 난 콩일 수 있겠다.



259. 甘草蠶 :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蠶羌’에서와 같이  
‘蠶’이 누에고치 모양의 뿌리줄기를 뜻하는 경우가 있다. ↵

## 2.18.28. 點藥, 冷眼用 | 냉안(冷眼<sup>260</sup>)에 쓰는 점안약

火硝<sup>261</sup>《二錢, 水飛過晒 乾》 爐甘石<sup>262</sup>《煉過, 二<sup>263</sup>分》

화초《2돈, 수비하여 햇볕에 말린 것》 노감석《제련한 것, 2푼》.

不開流淚風癢, 一切治之.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며 가려운 일체의 병을 치료한다.

### 2.18.28.1. 热眼 | 열안

硼砂《一錢, 研細》 片腦《二厘, 入前藥》

붕사《1돈, 곱게 간 것》 편뇌《2리, 앞의 약에 넣는다》.

260. 冷眼 : 병증의 명칭으로 ‘冷眼’이라 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우니, 혹 ‘冷淚’일 수도 있겠다. 冷淚에 대해서는 本書의 「充風淚出」에 기술되어 있다. ↪

261. 火硝 : 질산칼륨 결정. 焰硝, 硝石이라고도 한다. ↪

262. 爐甘石 : 菱亞鉛礦. 本書에서는 點眼하는 丹藥의 기본 원료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

263. 二 : [集成] 鼎本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 ↪

### 2.18.29. 暴赤眼 | 눈이 갑자기 붉게 되는 것

雞子一個, 去黃用白, 黃連研細末一錢, 入雞子白內, 紙封, 放爛泥中埋一日一夜,  
次早取出, 濾過點之.

달걀 1개의 노른자를 제거하고 흰자만 사용하며, 곱게 간 황련 1돈을 달걀흰자  
에 넣고 종이로 봉하여, 진흙 속에 묻어 하루 밤낮을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꺼내어 걸러서 점안한다.

## 2.19. 五臟要論 | 오장요론

心熱眼紅者, 血熱則可用黃連, 當歸尾, 蘇木, 紅花, 赤芍藥之類. 虛者癢痛, 本方若虛, 此數味除之, 加人參, 細辛, 没藥, 歸尾, 熟地, 茯苓之類.

심열(心熱)로 눈이 붉은 경우, 혈열(血熱)이면 황련, 당귀미, 소목, 흥화, 적작약 등을 쓸 수 있다. 허(虛)하면서 가렵고 아픈 경우, 본래의 처방에서 만약 허하면 이들 약재를 빼고 인삼, 세신, 몰약, 당귀미, 숙지황, 복령 등을 더한다.

肺熱火旺者, 則可用山梔, 桑白皮, 地骨皮, 黃芩, 防風, 天麥二門冬之類. 虛則可加人參, 沈香, 黃芪, 磁石, 五味子之類, 實者用葶藶子, 連翹.

폐열(肺熱)로 화(火)가 왕성하면 산치자, 상백피, 지골피, 황금, 방풍, 천문동, 맥문동 등을 쓸 수 있다. 허하면 인삼, 침향, 황기, 자석, 오미자 등을 더할 수 있으며, 실하면 정력자, 연교를 쓴다.

肝氣盛火旺者, 則可用柴胡, 羌活, 青葙子, 白芍藥, 獐羊角. 虛則除之, 加熟地黃, 當歸, 川芎, 楮實子, 枸杞子之類.

간기(肝氣)가 성(盛)하면서 화(火)가 왕성하면 시호, 강활, 청상자, 백작약, 영양각을 쓸 수 있다. 허(虛)하면 이들을 빼고 숙지황, 당귀, 천궁, 저실자, 구기자 등을 더한다.

脾胃實者, 則可用石膏, 朴硝, 黃芩, 黃柏. 虛則除之, 可加白朮, 蒼朮, 枳殼, 陳皮, 半夏, 人參之類.

비위(脾胃)가 실(實)하면 석고, 박초, 황금, 황백을 쓸 수 있다. 허(虛)하면 이들을 빼고 백출, 창출, 지각, 진피, 반하, 인삼 등을 더할 수 있다.

腎熱相火旺者, 則可用黃柏, 知母, 車前子, 木通, 滑石, 瞿麥, 蒿蓄, 大黃, 朴硝之類. 虛則大忌之, 可加肉蓯蓉, 五味子, 磁石, 菖絲子, 乳香, 川椒, 青鹽, 枸杞子之類.

신열(腎熱)로 상화(相火)가 왕성하면 황백, 지모, 차전자, 목통, 활석, 구매, 편축, 대황, 박초 등을 쓸 수 있다. 허(虛)하면 이들을 크게 꺼리며, 육종용, 오미자, 자석, 토사자, 유향, 천초, 청염, 구기자 등을 더할 수 있다.

夫審瞳人之法, 瞳人開大者, 忌辛辣之藥, 瞳人焦小者, 宜寒涼, 辛辣則可也.<sup>264</sup> 開大者, 以酸藥收之, 焦小者, 以辛藥散之. 久注不開<sup>265</sup>者, 宜發之, 久積, 宜行氣血爲主.

무릇 동공을 살피는 법은, 동공이 크게 열려 있으면 매운 성질의 약을 꺼리며, 동공이 작게 오그라들어 있으면 대개 한량(寒涼)하니, 매운 성질의 약이 좋다. 크게 열려 있으며 신맛의 약으로 수렴하고, 작게 오그라들어 있으면 매운맛의 약으로 흘는다. 눈을 한참 감고 있으면 떠지지 않는 경우는 발산(發散)시켜야 하고, 사기(邪氣)가 오래 쌓인 경우에는 기혈(氣血)을 운행시키는 것을 위주로 한다.

養肝血還睛丸亦可用之.

간혈(肝血)을 기를 때에는 환정환(還睛丸) 역시 사용할 수 있다.

### 2.19.1. 未成症主方秘要 | 특정 병증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 주관하는 처방의 비결

服表裏不退, 疼痛愈甚, 用細辛湯.

약을 복용하여도 표리(表裏)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통증(疼痛)이 더욱 심하면 세신탕(細辛湯)을 쓴다.

#### 2.19.1.1. 明目細辛湯 | 명목세신탕

治眼赤痛, 眉攢 腫悶, 鼻塞涕唾稠粘, 大便秘結, 瞳明怕 日, 隱澁難開, 睫成紉 多眵粘.

눈이 붉고 아프며 눈썹의 찬죽혈(攢 竹穴) 부위가 부으면서 답답하고, 코가 막히고 콧물과 침이 끈적하며, 대변이 굳고,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며 깔끄러워 눈을 뜨기 어렵고, 속눈썹이 끄인 줄처럼 되며 눈곱이 많고 끈끈한 것을 치료 한다.

#### 2.19.1.2. 助陽和血湯 | 조양활혈탕

治陰陽不升降, 作痛不時, 隱澁有淚, 眇蠹 紅淚糊, 或時發赤眼, 凉藥不退者用.

음양(陰陽)이 승강(升降)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니, 아무 때나 통증이 발생하고, 깔끄러우면서 눈물이 나고, 황적색 눈곱이 끼면서 눈물이 풀처럼 끈적이며, 혹은 때로 적안(赤眼)이 되는데 서늘한 약으로 낫지 않으면 사용한다.

#### 2.19.1.3. 當苦湯<sup>266</sup> | 당고탕

眼暴發熱, 火旺苦痛不住, 服利藥<sup>267</sup>未效, 有熱火, 退<sup>268</sup>可用.

눈에서 갑자기 열이 나며 화(火)가 왕성하여 몹시 아픈 것이 그치지 않는데, 사하(瀉下)하는 약을 복용하여도 효과가 없고 열화(熱火)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 2.19.1.4. 當歸龍膽湯 | 당귀용담탕

治眼中黃仁生黃白翳, 從下而上. 此候多是火旺也, 人若患此, 此藥能瀉火退熱, 又且能退翳 消紅腫.

눈의 황인(黃仁)에 황백색의 예(翳)가 아래에서 생겨 올라오는 것을 치료한다. 이러한 증후는 대부분 화(火)가 왕성한 것이니, 사람이 이런 증을 앓는다면 이 약이 능히 화(火)를 없애고 열(熱)을 물리치며, 또한 예(翳)를 없애고 벌겋게 부은 것을 가라앉힐 수 있다.

桑螵蛸 酒調散<sup>269</sup> 治風熱裏病, 雙解散實熱裏病. 此藥治傷風頭疼及眼珠腫痛, 或偏正. 此是傷風寒, 眼腫雖甚, 其眼皮帶浮而軟, 人多鼻塞聲重, 眼羞明怕日, 白仁雖虛壅而不蠹紅. 如此狀者, 用前二散, 表裏之腫消痛止, 用生地黃散, 撥雲湯, 變用又

變, 前方不可久服.

상표초주조산(桑螵蛸 酒調散)은 풍열(風熱)의 리병(裏病)을 치료하고, 쌍해산(雙解散)은 실열(實熱)의 리병(裏病)을 치료한다. 이들은 풍(風)에 상하여 머리가 아픈 것과 눈알이 붓고 아픈 것, 혹은 편정두통(偏正頭痛)을 치료한다. 이는 풍한(風寒)에 상한 것으로, 눈이 부은 것이 심하기는 하지만 눈꺼풀이 부석부석하며 무르고, 코가 막혀 목소리가 무거우며,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고, 흰자위가 부풀기는 하나 황적색이 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의 상표초주조산과 쌍해산을 사용하고, 표리(表裏)의 부은 것이 가라앉고 통증이 멎고 나면 생지황산(生地黃散)과 발운탕(撥雲湯)을 쓰니, 변용하고 또 변용할 일이지 앞의 처방들을 오래 복용해서는 안 된다.

#### 2.19.1.5. 鬱金酒<sup>270</sup> | 올금주

裏熱無表症, 治一切實熱. 其眼腫起如桃, 有不近人手之怕, 瞳明怕 日, 或內壅突起, 眼紅, 淚出如湯, 鼻涕漁流, 內生淡赤虛翳, 如此狀者, 其翳不能爲害, 热去退翳即消. 此藥通解之, 痛止後用救苦湯, 當歸龍膽收功.

리열(裏熱)이 있고 표증(表症)은 없는 경우에 일체의 실열(實熱)을 치료한다. 눈이 복승아처럼 부어오르고 남의 손이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고, 혹 안에서 막혀 솟아오르며 황적색이 되고, 눈물이 나오면서 학끈거리고, 끈끈한 콧물이 흐르며 안에 담적색의 허예(虛翳)가 생긴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예(翳)가 해를 끼치지 못하며 열(熱)이 없어지고 예(翳)가 없어지면 다 가라앉는다. 이 약으로 통하게 하여 풀어주고, 통증이 그친 후에는 구고탕(救苦湯)이나 당귀용담탕(當歸龍膽湯)으로 마무리한다.

#### 2.19.1.6. 酒調洗肝散, 經驗洗肝散 | 주조세간산, 경험세간산

治一切熱眼, 及赤腫<sup>271</sup>難開, 眼珠痛, 白仁赤而痛. 不虛可用止痛, 生地黃散後用, 功亦同.

일체의 열안(熱眼) 및 벌겋게 부어서 눈을 뜨기 어렵고 눈알이 아프며 흰자위가 붉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허(虛)하지 않으면 사용하여 통증을 멎게 할 수 있고, 생지황산(生地黃散)을 나중에 사용하니, 효과는 역시 같다.

#### 2.19.1.7. 當歸活血湯 | 당귀활혈탕

治一切羞明怕 日者. 頭痛雖甚, 內不蠹 紅, 此樣眼多虛. 或眼上珠<sup>272</sup> 生白陷翳 者,  
此方可與蟬花散密蒙花散相間服之效.

일체의 눈이 부셔 핫빛을 꺼리는 것을 치료한다. 두통이 심하더라도 안이 황적색이 아니라면 이러한 눈병은 대개 허(虛)하다. 혹 눈알에 허옇게 파이는 예(翳)가 생긴 경우 이 처방을 선화산(蟬花散), 밀몽화산(密蒙花散)과 번갈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 2.19.1.8. 密蒙花散 | 밀몽화산

治一應體虛之人, 無疼有羞明者, 服涼藥不得. 其眼羞明而內痛, 白仁內隱紅, 常流清涕淚, 視物蒙蒙, 此藥可用, 日進二三服, 決明子散, 蟬花散, 此三方功亦同效.

몸이 허한 사람으로 통증이 없으면서 눈이 부신 경우를 치료하니, 이때는 냉약(涼藥)을 복용할 수 없다. 눈이 부시면서 눈 속이 아프고 흰자위가 은은히 붉으며 항상 맑은 콧물과 눈물이 흐르며 사물이 흐리멍덩하게 보이면 이 약을 하루에 2~3번씩 복용시킬 수 있으며, 결명자산(決明子散), 선화산(蟬花散)과 함께 이 세 처방의 치료 효과가 같다.

#### 2.19.1.9. 省風湯 | 성풍탕

治一切肝氣有餘, 瞳人鎖緊, 或成乾缺, 視物不能明, 繚亂白仁淡紅, 瞳人焦小黃色,  
夜見五色烽光者, 此方能除肝膽極熱.

일체의 간기(肝氣)가 유여(有餘)하여 동공이 오그라들거나 동인건결(瞳人乾缺)이 된 것, 물체가 또렷이 보이지 않고 흰자위에 담홍색이 어지럽게 얹혀있는 것, 눈동자가 작게 오그라들고 황색을 띠며 밤에 오색의 불빛이 보이는 것

을 치료하니, 이 처방이 능히 간담(肝膽)의 극심한 열을 제거한다.

#### 2.19.1.10. 久<sup>273</sup>仙飲 | 구선음

治年老之人, 眼赤不退, 帶紫紅白色. 若有蠹 紅者, 以暴發客熱<sup>274</sup>類推之.

노인이 눈에 붉은색이 가시지 않고 자색, 흥색이나 백색을 띠는 것을 치료한다. 만일 황적색이 나타나면 폭발객열(暴發客熱)에 준하여 치료한다.

#### 2.19.1.11. 洗肝散 | 세간산

治眼肝氣有餘, 風輪變色, 焦枯或疼痛, 外生赤翳, 此方能除火退肝熱.

눈병 중에 간기(肝氣)가 유여(有餘)하여 검은자위의 색이 변하고, 바짝 마르며 혹은 아프고, 밖으로 붉은 예(翳)가 생기는 것을 치료하니, 이 처방은 능히 화(火)를 없애고 간열(肝熱)을 물리친다.

#### 2.19.1.12. 紫金丸 | 자금환

治外障生雲膜血翳, 服涼藥不退, 而不多痛者可用.

외장(外障)으로 구름 같은 막(膜)과 혈예(血翳)가 생긴 것을 치료하니, 량약(涼藥)을 복용해도 없어지지 않으며 통증이 많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다.

#### 2.19.1.13. 夜光柳紅丸 | 야광유홍환

治風毒上攻眼, 虛腫, 頗有紫紅, 或癢 或痛, 生翳 年久, 服諸藥不效可用.

풍독(風毒)이 위로 눈을 침범하여 무르게 붓고 약간 자홍색을 띠면서 혹은 가렵고 혹은 아픈 것을 치료하니, 예(翳)가 생긴 지 오래되어 어떤 약을 복용해 도 효과가 없을 때 쓸 수 있다.

#### 2.19.1.14. 修肝散 | 수간산

治暴發眼, 及發不時, 疼痛甚者, 热服肝氣上升, 淚出汪汪. 內有鮮紅可用, 至如痛止血散不用.

갑자기 발생한 눈병 및 발작이 일정하지 않고 통증이 심한 경우를 치료하니, 뜨겁게 복용하여 간기(肝氣)가 상승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난다. 안으로 선홍색이 있을 때 쓸 수 있으나, 통증이 멎고 피가 흘어지면 쓰지 않는다.

### 2.19.1.15. 補肝重明丸 | 보간중명환

治諸眼服涼藥, 表裏愈後失神光者, 其眼無羞明用之, 能補養肝血. 還睛丸亦可用之.

모든 눈병에 량약(涼藥)을 복용하여 표리(表裏)가 나은 후 신광(神光)이 없어진 것을 치료하는데, 눈이 부신 증상이 없으면 사용하며 능히 간혈(肝血)을 보양(補養)한다. 환정환(還睛丸)도 쓸 수 있다.

### 2.19.1.16. 當歸龍膽湯 | 당귀용담탕

治眼中黃仁生白翳, 從下而上. 此候多是火旺也. 人有此患, 此藥瀉熱退火, 用能退翳 消紅腫.

눈의 황인(黃仁)에 흰 예(翳)가 아래로부터 생겨 올라오는 것을 치료한다. 이러한 증후는 대부분 화(火)가 왕성한 것이다. 이 병이 있을 때는 이 약이 열(熱)을 없애고 화(火)를 물리치니, 예(翳)를 없애고 벌겋게 부은 것을 가라앉힐 수 있다.

264. 宜寒涼, 辛辣則可也 : ‘宜寒涼’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寒涼藥이 적합하다’는 뜻으로 보면 文義가 순조롭지 않으니, ‘寒涼’이 藥性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거나 脫字가 있는 듯하다. ↪

265. 久注不開 : 앞의 「兩臉粘睛」과 「胞肉膠凝」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胞肉膠凝」에서는 ‘眼久注不開’라 하였으므로 ‘久注’가 邪氣의 注入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어떻게 보아도 석연치 않은 점이 남지만, ‘注’가 ‘接觸’의 뜻으로 쓰이는 예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눈을 오래 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266. 當苦湯 : 本書에 처방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다른 醫書에도 이와 같은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글에 脱誤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앞의 「眼科常用處方」에 나온 救苦湯이거나 혹은 처방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
267. 利藥 :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혹시 이 當苦湯이 앞의 救苦湯을 말하는 것이라면, 앞에서 ‘用裏 不能退熱亦赤’이라 하고 여기에서 ‘服利藥未效’이라 한 것이 서로 비슷한 내용이겠으나, 양쪽 모두 文義가 분명하지 않아 확증할 수 없다. ↵
268. 退 :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아래 조의 ‘此藥能瀉火退熱’과 혼동하여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
269. 桑螵蛸 酒調散 : 集成本에는 이 처방명이 이하 내용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
270. 鬱金酒 : 처방구성이 나와 있지 않은데, 鬱金으로 담근 술이거나 鬱金酒調散일 수 있겠다. 증상으로 ‘內壅突起’를 언급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병증인 旋螺尖起 조문에서 鬱金酒調散을 쓴다고 하였다. ↵
271. 腫 : [集成] 鼎本에는 ‘眼’으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272. 眼上珠 : ‘眼珠上’의 잘못인 것 같다. ↵
273. 久 : [集成] 鼎本에는 ‘九’로 되어 있다. ↵
274. 暴發客熱 : 本書에 이러한 병증명이 없고 다른 醫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本書에 실린 병증명은 ‘暴風客熱’이다. ↵

## 2.20. 審症應驗口訣 | 증을 살펴 효험을 얻는 구결

如男子婦人患偏正頭痛者, 先審熱甚用雙解散二三帖, 大通之後, 服川芎茶調散加涼劑, 點用九一丹. 冷痛者用桑螵蛸酒調散, 大通之後, 用川芎散神清散主之, 點用清涼散少加腦, 入些薑粉, 無不效矣.

남자와 부인이 편정두통(偏正頭痛)을 앓는 경우, 먼저 살펴보아서 열(熱)이 심하면 쌍해산(雙解散) 2~3첩을 써서 크게 통한 후에 천궁다조산(川芎茶調散)에 서늘한 약들을 더하여 복용하고,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냉통(冷痛)이면 상표초주조산(桑螵蛸 酒調散)을 써서 크게 통한 후에 천궁산(川芎散), 신청산(神清散)으로 치료하고, 점안약으로는 청량산(清涼散)에 용뇌를 조금 더하고 생강가루를 약간 넣어서 쓰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烏輪赤暉, 刺痛浮漿, 此肝熱也. 治法, 宜用酒調洗肝散加麻黃赤芍, 或瀉肝散修肝散, 收功生地黃散, 點用清涼間九一丹.

검은자위에 붉은 테가 둘리고 찌르는 듯 아프며 물기가 어리면 이것은 간열(肝熱)이다. 치법은 마땅히 주조세간산(酒調洗肝散)에 마황, 적작약을 더하여 사용하거나 사간산(瀉肝散), 수간산(修肝散)을 쓰고, 마무리로 생지황산(生地黃散)을 사용하며, 점안약으로는 청량산(清涼散), 간간이 구일단(九一丹)을 쓴다.

眼生清淚, 枯黃繞睛, 此肝虛也. 治法, 用止淚補肝散, 點用九一丹. 後服補腎丸, 此乃滋母益子也.

맑은 눈물이 나오면서 윤기 없는 누런빛이 눈알을 두르면 이는 간허(肝虛)이다. 치법은 지루보간산(止淚補肝散)을 사용하고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후에 보신환(補腎丸)을 복용하니, 이는 어미를 자양하여 자식을 북돋는 것이다.

瞳人開大淡白偏斜者, 此腎虛也. 治方服補腎丸, 補腎明目丸, 駐景丸, 點用九一丹, 多服少點.

동공이 크게 열리고 희끄무레하며 한쪽으로 비뚤어진 것은 신허(腎虛)이다.  
치료하는 처방은 보신환(補腎丸), 보신명목환(補腎明目丸), 주경환(駐景丸)을  
복용하고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하는데, 복용은 많이 하고 점안은 적게 한다.

瞳人焦小或帶微黃, 此腎熱也. 治法, 先服五瀉湯著風<sup>275</sup>之類, 後收功用補腎明目  
丸, 久服甚效.

눈동자가 작게 오그라들고 흑 미황색을 띠는 것은 신열(腎熱)이다. 치법은 먼저  
오사탕(五瀉湯)이나 성풍탕(省風湯) 등을 복용하고, 나중에 마무리로 보신  
명목환(補腎明目丸)을 사용하니, 오래 복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瞳青胞白, 癢而清淚, 不赤不痛, 是謂之風眼. 治法, 服羌活除風湯, 點九一丹間二  
八, 入些薑粉效.

동공이 푸르고 눈꺼풀이 희며, 가려우면서 맑은 눈물이 흐르는데 붉지도 아프  
지도 않으면 이것을 풍안(風眼)이라 한다. 치법은 강활제풍탕(羌活除風湯)을  
복용하고 점안약으로는 구일단(九一丹), 간간이 이팔단(二八丹)을 쓰며, 생강  
가루를 약간 넣으면 효과가 좋다.

烏輪突起, 胞硬瞳紅, 眇淚濕漿, 裏熱則痛, 是謂之熱眼.<sup>276</sup> 治法, 用雙解散加涼大  
通之劑, 瞳痛止用生地黃散, 點用清涼散間九一丹點之, 隨人治法用之.

검은자위가 솟고 눈꺼풀이 단단해지며 동공이 붉고 눈곱과 눈물이 늑진거리  
며 속이 뜨거우면 아픈 것을 열안(熱眼)이라 한다. 치법은 쌍해산(雙解散)에  
서늘하고 크게 통하게 하는 약을 더하여 쓰고, 눈동자가 아픈 것이 그치면 생  
지황산(生地黃散)을 쓰며, 점안약으로는 청량산(清涼散)을 쓰고 구일단(九一  
丹)도 간간이 점안하니, 사람에 따라 치법을 사용한다.

眼渾如淚, 胞腫而軟, 上壅朦朧, 酸渣<sup>277</sup>微赤, 是謂之氣眼. 服桑螵蛸酒調散, 後服  
明目流氣飲, 當歸湯主之.

눈이 흐려 눈물이 난 것 같고, 눈꺼풀은 부었으나 연하며 위에서 막혀 흐리멍덩하고, 시큰거리며 깔깔하며 약간 붉으면 이를 기안(氣眼)이라 한다. 상표초주조산(桑螵蛸 酒調散)을 복용하한 뒤에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 당귀탕(當歸湯)을 복용하여 치료한다.

其或風與熱並, 則癢而浮赤, 風與氣搏, 則癢澁昏沈. 點用九一丹間二八丹, 服羌活除風湯.

풍(風)과 열(熱)이 어우러지면 가렵고 부으면서 붉어지고, 풍(風)과 기(氣)가 부딪치면 가렵고 깔깔하며 어둡고 침침하다.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하고 간간이 이팔단(二八丹)을 점안하며, 강활제풍탕(羌活除風湯)을 복용한다.

血熱交聚, 故生淫膚<sup>278</sup> 栗肉<sup>279</sup> 紅縷<sup>280</sup> 偷針<sup>281</sup> 之類, 服用瀉脾湯, 瀉心湯主之, 點用清涼散, 有淫膚栗肉可剷洗, 至平洗止.

혈(血)과 열(熱)이 함께 모여들어 음부(淫膚), 속육(栗肉), 홍루(紅縷), 투침(偷針)등이 생기니, 사비탕(瀉脾湯), 사심탕(瀉心湯)을 복용하여 치료하고 청량산(清涼散)을 점안한다. 음부(淫膚), 속육(栗肉)이 있으면 살짝 찌르고 씻어낼 수 있으며, 평평해지면 씻는 것을 그친다.

眼熱經久, 復有風冷所乘, 則赤爛, 點用清涼散, 服用瀉心湯洗肝散主之, 洗用綿裹散, 其效甚捷.

눈의 열(熱)이 오래된 데다 또 풍랭(風冷)이 침입하면 붉게 짓무르는데, 청량산(清涼散)을 점안하고, 사심탕(瀉心湯)과 세간산(洗肝散)을 복용하여 치료하며, 면과산(綿裹散)으로 씻으면 그 효과가 아주 빠르다.

眼中不痛而赤, 但爲痰飲所注則作痛, 服用半夏二陳湯三四貼, 後服明目流氣飲, 不用點藥.

눈 속이 아프지는 않으면서 붉은데 다만 담음(痰飲)이 흘러 들어가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반하이진탕(半夏二陳湯)을 3~4첩 복용한 다음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을 복용하고, 점안약은 쓰지 않는다.

肝氣不順而挾熱, 所以羞明, 服用洗肝散二三貼加麻黃, 後服密蒙花散五七貼, 補腎主之. 點用九一丹加清涼散, 初不可重藥.

간기(肝氣)가 불순(不順)한데다 열(熱)을 끼어서 눈이 부시면 세간산(洗肝散) 2~3첩에 마황(麻黃)을 더하여 복용하고, 후에 밀몽화산(密蒙花散) 5~7첩을 복용하며 보신(補腎)을 주로 한다. 점안약으로는 구일단(九一丹)에 청량산(清涼散)을 더하여 쓰는데, 초기에는 중약(重藥)을 사용할 수 없다.

白睛帶赤或紅筋者, 其熱在肺. 服洗肺湯, 除熱飲, 洗肝散, 點用清涼藥<sup>282</sup> 九一丹.

흰자위가 붉은색을 띠거나 핏발이 돋는 경우 그 열(熱)은 폐(肺)에 있다. 세폐당(洗肺湯), 제열음(除熱飲), 세간산(洗肝散)을 복용하고, 청량약(清涼藥)과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上胞下瞼或目唇間, 如疥點者, 其熱在脾. 治法, 服泄脾湯, 泄脾除熱飲, 三黃丸主之, 可剉可洗. 用清涼散點, 有淚翳者九一丹點之.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 혹은 그 맞닿는 곳에 옴 같은 것이 돋았으면 그 열(熱)은 비(脾)에 있다. 치법은 설비탕(泄脾湯), 설비제열음(泄脾除熱飲), 삼황환(三黃丸)을 복용하여 치료하며, 살짝 찌르고 씻을 수 있다. 청량산(清涼散)을 점안하고, 눈물이 나고 예(翳)가 있으면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因風則散之, 九一丹入些薑粉, 熱則清涼散點之, 氣結則調順之, 將前藥間點. 因風者可用防風散, 通聖散即名雙解散, 後服羌活除風湯. 熱者洗肝散, 修肝散, 氣結者服流氣飲, 黃芪湯主之.

풍(風)으로 인한 경우는 흘어주니 구일단(九一丹)에 생강가루를 약간 넣고, 열(熱)이면 청량산(清涼散)을 점안하며, 기(氣)가 맺혔으면 조절하여 고르게 해주면서 앞의 약들을 간간이 점안한다. 풍(風)으로 인한 경우 방풍산(防風散)과 통성산(通聖散), 즉 쌍해산(雙解散)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강활제풍당(羌活除風湯)을 복용한다. 열(熱)인 경우에는 세간산(洗肝散)과 수간산(修肝散), 기결(氣結)이면 유기음(流氣飲)과 황기탕(黃芪湯)으로 치료한다.

白陷魚鱗之症, 多因肝腎俱實, 血衰成陷. 治法, 服酒調散二貼後, 服蟬花散, 密蒙花散, 相間服之效. 點用二八丹, 調乳汁點, 間九一丹點之.

백함어린(白陷魚鱗)은 대부분 간신(肝腎)이 모두 실(實)하여 혈(血)이 쇠약하고 꺼진 것이다. 치법은 주조산(酒調散) 2첩을 복용한 후 선화산(蟬花散)과 밀몽화산(密蒙花散)을 번갈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점안약으로는 이팔단(二八丹)을 젖에 타서 쓰며, 간간이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突起睛高, 旋螺尖起, 險峻利害之症也. 又有一法, 與他取平之效. 將鋒針針入三分, 以鳳屎<sup>283</sup>點針口, 所以毒攻毒. 或陰丹蘸點亦可. 先服鬱金酒調散四五貼後, 可動針. 此乃平之法, 無光之效也<sup>284</sup>.

돌기정고(突起睛高), 선라첨기(旋螺尖起)는 험악하고 몹시 해로운 병증이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평평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 봉침(鋒針)으로 3푼을 찌르고 침을 찌른 구멍에 봉시(鳳屎)를 바르니, 독으로써 독을 공격하는 것이다. 혹은 음단(陰丹)을 찍어 바르는 것도 괜찮다. 먼저 울금주조산(鬱金酒調散) 4~5첩을 복용한 후에 침을 쓸 수 있다. 이것은 평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 대단한 효과는 없다.

又有一症, 遷年月眼內癢 極, 紘曰諸痛爲實, 諸癢爲虛. 人之患眼, 虛腫及眼眶骨, 此痰飲爲患. 治法, 用明目流氣飲加半夏陳皮厚朴三味, 用薑二片同煎, 連服四五貼, 其痛即除. 另將二陳湯, 丹藥亦可點用. 治之隨輕重所施, 治法在人意耳.

또 어떤 증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눈 속이 아주 가려운데, 비전(秘傳)에서 말하기를, 모든 아픈 것은 실(實)한 것이며, 모든 가려운 것은 허(虛)한 것이라 하였다. 사람이 눈병을 앓는데 무르게 부은 것이 눈언저리 뼈에 미치면 이것은 담음(痰飲)이 병이 된 것이다. 치법은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에 반하, 진피, 후박 세 가지를 더하여 생강 2쪽과 함께 달여서 4~5첩을 연속하여 복용하면 통증이 곧 없어진다. 별도로 이진탕(二陳湯)을 쓰거나 단약(丹藥)을 점안할 수도 있다. 치료는 병의 경증(輕重)에 따라 다르게 하며, 치법은 사람의 마음에 있을 뿐이다.

## 2.20.1. 頭風 | 두풍

冷痛 热痛 風痛 痰厥痛《系偏風》陽明頭痛

냉통, 열통, 풍통, 담궐통《편풍과 관계됨》양명두통.

### 2.20.1.1. 眼淚 | 눈물

熱淚 冷淚 虛淚 風淚 濕淚

열루, 냉루, 허루, 풍루, 습루.

275. 著風 : 本書의 「瞳人乾缺」에 五瀉湯과 省風湯, 补腎明目丸을 쓴다고 하였으나, 여기의 '著風'은 '省風'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

276. 烏輪突起.....是謂之熱眼 : 이하의 몇 절에 걸쳐서 증을 감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治方을 제외하면 本書 첫머리의 「銀海精微序」에 나오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일일이 주석하지 않는다. ↪

277. 澈 : 集成本과 四庫全書本에 모두 이와 같은데, 「銀海精微序」와 『仁齋直指』에는 '濾'으로 되어 있다. ↪

278. 淫膚 : 문드려진 살이나 군살 등을 말한다. ↵
279. 粟肉 : 좁쌀처럼 오툴도톨하게 생긴 군살. ↵
280. 紅縷 : 실오라기처럼 얹힌 실핏줄이 드러나 보이는 것. ↵
281. 偷針 : 다래끼. ↵
282. 清涼藥 : 本書 중 다른 곳의 點眼藥 사용례를 보면 清涼散일 것으로 생각된다. ↵
283. 鳳屎 :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
284. 無光之效也 :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突起睛高」조에서는 ‘無尤之效也’라 하였다. ↵

## 2.21. 審症秘論 | 증에 따른 비결

暴發眼者, 審他是熱甚, 用雙解散, 救苦湯, 當歸龍膽湯, 修肝散, 洗肝散, 瀉肝散, 鬱金酒調散.

갑자기 발생한 눈병은 살펴보아서 열(熱)이 심하면 쌍해산(雙解散), 구고탕(救苦湯), 당귀용담탕(當歸龍膽湯), 수간산(修肝散), 세간산(洗肝散), 사간산(瀉肝散), 울금주조산(鬱金酒調散)을 사용한다.

有是風熱火病, 服涼藥不退者, 用明目細辛湯, 助陽活血湯, 紫金川芎茶調散, 明目流氣飲, 桑螵蛸酒調散.

풍열(風熱)과 화(火)의 병인데 냉약(涼藥)을 복용해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명목세신탕(明目細辛湯), 조양활혈탕(助陽活血湯), 자금천궁다조산(紫金川芎茶調散),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 상표초주조산(桑螵蛸酒調散)을 사용한다.

有是久病血滯風甚, 用當歸和血煎, 神清散, 沒藥散, 卷雲湯. 發歇無時, 用生地黃散, 破血紅花散.

오랜 병으로 혈(血)이 응체되고 풍(風)이 심한 경우에는 당귀화혈전(當歸和血煎), 신청산(神清散), 몰약산(沒藥散), 권운탕(卷雲湯)을 사용한다. 아무 때나 간헐적으로 발작하면 생지황산(生地黃散), 파혈홍화산(破血紅花散)을 사용한다.

有是風毒爲病, 用蟬花散, 如聖散, 川芎茶調散, 神清散, 夜光柳紅丸, 瘰病用清熱半夏二陳湯之類, 老痰用四生湯.

풍독(風毒)으로 병이 된 경우에는 선화산(蟬花散), 여성산(如聖散), 천궁다조산(川芎茶調散), 신청산(神清散), 야광유홍환(夜光柳紅丸)을 사용하고, 담병(痰病)에는 청열반하이진탕(清熱半夏二陳湯)의 부류를 사용하며, 노담(老痰)에는 사생탕(四生湯)을 사용한다.

有是久病, 無表病裏病, 眼內淨了, 用蟬花散, 密蒙花散, 決明子散, 十味還睛丸.

오래된 병에 표병(表病)이나 리병(裏病)이 없고 눈 속이 깨끗하다면 선화산(蟬花散), 밀몽화산(密蒙花散), 결명자산(決明子散), 십미환정환(十味還睛丸)을 사용한다.

若內病俱無, 但是外病, 可次第依法, 不須服藥, 有翳 只是去翳 藥加減療之.

안의 병은 전혀 없이 단지 겉의 병이라면 차례로 법도에 따라 하되 꼭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으며, 예(翳)가 있는 경우에는 다만 예(翳)를 없애는 약을 가감하여 치료한다.

## 2.22. 辨眼經脈交傳病症論 | 눈의 경맥(經脈)이 서로 전(傳)한 병증을 변별하는 논설

有人問於予曰, 人之眼目, 乃五臟六腑之精, 苟有患傷於內腑, 其理何哉. 然則<sup>285</sup> 又有左病而不傳右, 右病而不傳左, 左右俱病, 未審其詳, 請而言之. 予應之曰, 噫, 非精於岐黃龍木之奧者, 莫明乎此也. 夫眼者乃五臟之專精也, 目者乃心之竅也. 瞳人者, 腎之精也. 宗精之水所以不出行, 血裹之, 氣輔之, 共湊於目.<sup>286</sup> 頭者諸陽之所聚也. 足太陽膀胱之脈, 起於目之銳眦,<sup>287</sup> 通頂入腦, 正屬目本, 名曰眼系,<sup>288</sup> 督脈陽柔之會<sup>289</sup>, 首循風府而出, 則入系腦, 則爲目風.<sup>290</sup> 廓肝脈上出額, 督會於巔頂, 其別交者, 從目系,<sup>291</sup> 風相搏, 故目>目+荒>>目+荒>無所見. 頂中風府兩筋之間乃別, 陰陽交於目內銳眦, 陰氣盛則目膜, 陽氣盛則目瞑.<sup>292</sup> 痘而不得臥者, 衛氣不得入於陰, 故陽氣滿而陰氣虛, 故目不瞑, 而不得視者, 衛氣流於陰不得於陽, 陽氣虛, 故目閉.<sup>293</sup> 故病猶有偏勝之理, 且飲食之中有五味, 天地之氣有六淫, 人身之中有七情, 皆能生病. 更有賊微正邪之別, 氣與味也皆無形之物, 能傷於有形之質, 何患不生於病. 況眼科之中又有大方之不同, 治之各有異, 亦宜審其受病之因, 視其內外淺深之症. 假若一概治療, 不無抱薪之患, 良可惜哉. 予因幼耽疾苦, 求醫療治, 迄今數年, 於是熟玩諸家之書, 可知玄妙之旨. 訪尋師友, 廣博方書, 采集百端, 推原其本, 凡有疑難之間, 不恥下問, 務究奧旨. 子能潛心注意, 雖不登岐黃龍木之岸, 亦可謂醫中魁者也.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사람의 눈은 곧 오장육부의 정(精)인데, 안의 부(腑)를 상한 병이 있다면 그 이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또 왼쪽이 병들었는데 오른쪽으로 전하지 않은 것과 오른쪽이 병이 들었는데 왼쪽으로 전하지 않은 것, 좌우가 모두 병든 것이 있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니 말해주기 바란다.” 내가 대답하기를, “아! 기백(岐伯)과 황제(黃帝)와 용목(龍木)의 오의(奧義)에 정통한 자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밝힐 수가 없다. 무릇 눈은 곧 오장(五臟)의 순정한 정화이고, 눈은 곧 심(心)의 규이며, 눈동자는 신(腎)의 정(精)이다. 종정(宗精)의 수(水)가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혈(血)이 감싸고 기(氣)가 도와 함께 눈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머리는 모든 양(陽)이 모이는 곳이다. 족태양방광(足太陽膀胱)의 맥(脈)은 눈구석에서 일어나 목덜미에 통하고 뇌

(腦)로 들어가 바로 목본(日本)에 속하니, 이름을 안계(眼系)라 한다. 독맥(督脈)과 양유(陽柔)가 만남에 먼저 풍부(風府)를 따라 나오니, 침입하여 뇌(腦)에 이어지면 목풍(目風)이 된다. 족궐음간맥(足厥陰肝脈)은 올라가 이마로 나와서 독맥과 정수리에서 만나며, 그 별도로 교회하는 것은 목계(目系)를 따르니, 풍(風)과 서로 다투므로 눈이 아찔하여 보이는 것이 없다. 목덜미 가운데 풍부 혈(風府穴)인 두 근(筋)의 사이에서 비로소 갈라지고, 눈구석과 눈초리에서 음양(陰陽)이 서로 만나니, 음기(陰氣)가 왕성하면 눈을 감고 양기(陽氣)가 왕성하면 눈을 부릅뜬다. 병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은 위기(衛氣)가 음(陰)에 들어 가지 못하므로 양기가 그득하고 음기가 허하여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위기가 음(陰)에 흘러들고 양(陽)으로는 행하지 못하여 양기가 허하므로 눈이 닫힌다. 따라서 병에는 치우쳐 왕성한 이치가 있으며, 또 음식 중에 오미(五味)가 있고 천지(天地)의 기운에 육음(六淫)이 있으며 사람의 몸에 칠정(七情)이 있어서 모두 병을 낳는다. 게다가 적사(賊邪), 미사(微邪), 정사(正邪)의 구별이 있으며, 기(氣)다, 미(味)다 하는 것이 모두 무형(無形)의 물(物)이로되 능히 유형(有形)의 질(質)을 상하게 하니, 어떤 문제인들 병을 낳지 않겠는가. 더구나 안과(眼科) 중에 또한 큰 원칙상의 같지 않음이 있고 치료하는 것에도 각각 다름이 있으니, 역시 그 병을 받은 원인을 살피고 그 안과 밖, 얹고 깊은 증을 보아야 한다. 만약 일률적으로 치료한다면 섶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재앙이 없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로다. 나는 어려서부터 질고(疾苦)에 빠져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하곤 한 것이 여러 해 되었는데, 이제 제가(諸家)의 책을 깊이 완미해보니 현묘(玄妙)한 뜻을 알겠다. 스승과 벗을 찾고 방서(方書)를 널리 구하며 온갖 방법들을 채집하여 그 근본을 추구하였으며, 무릇 의심스럽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오한 뜻을 탐구하기에만 힘썼다. 그대가 능히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집중하면 비록 기백(岐伯)과 황제(黃帝)와 용목(龍目)의 높은 경지에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의사 중에 으뜸이라 할 만할 것이다.”

凡看眼法, 先審瞳人神光, 次看風輪, 再察白仁, 四辨胞臉二毗, 此四者眼科之大要, 看眼之時, 令其平身正立, 緩緩舉手, 輕擰開眼皮. 先審瞳人, 若有神光則開合猛烈. 次看風輪若展縮雄健, 則魂魄無病. 三察氣輪無病澤潤光滑, 四辨其肉輪, 若好則開合有力, 二毗不蠹赤矣.

무릇 눈을 보는 법은 먼저 눈동자의 신광(神光)을 살피고, 다음으로 풍륜(風輪)을 보고, 다시 흰자위를 살피고, 넷째로 눈꺼풀과 눈구석, 눈초리를 분별하니, 이 네 가지가 안과(眼科)의 대요(大要)이다. 눈을 볼 때는 몸을 반듯이 하여 똑바로 서게 하고, 천천히 손을 들어서 가볍게 눈꺼풀을 떠받쳐 연다. 먼저 동공을 살피는데 만약 신광(神光)이 있으면 열고 닫는 것이 맹렬하다. 다음으로 풍륜(風輪)을 보는데 신전과 수축이 웅건(雄健)하면 혼백(魂魄)에 병이 없다. 셋째로 기륜(氣輪)을 살피는데 병이 없으면 윤택하고 매끄럽다. 넷째로 육륜(肉輪)을 분별하니 만약 양호하면 눈을 뜨고 감는 것이 힘이 있으며, 눈구석과 눈초리가 황적색을 띠지 않는다.

凡察翳法, 久年翳膜能去者, 其翳浮虛爛紅, 其眼不張. 若近年發歇眼, 其翳紅白色浮厚者, 有些紅未退, 有淚者易散, 看其中多有死釘不能去. 若散翳其紅霞色者易退, 若因頭痛起因有死白翳者難退. 又有一樣, 厚翳去盡, 其眼全瘡, 黑睛有些微雲, 薄薄帶淡白色不能去, 名曰冷翳.

무릇 예(翳)를 관찰하는 법은, 오래된 예막(翳膜)으로서 없앨 수 있는 경우는 그 예(翳)가 얇으면서 떠있고 문드러지며 붉고 그 눈을 크게 뜨지 못한다. 만일 근년에 생겨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눈병으로서 그 예(翳)가 흥백색이며 두텁고 떠있는 경우에는, 붉은빛이 아직 가시지 않고 눈물이 나는 경우는 쉽게 흩어지며, 그 속을 들여다보아서 사정(死釘)이 많이 있으면 없애지 못한다. 산예(散翳)로서 노을처럼 붉으면 쉽게 없앨 수 있고, 만약 두통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또 사백예(死白翳)가 있는 경우는 물리치기 어렵다. 또 한 종류가 있는

데, 두터운 예(翳)가 다 없어지고 그 눈이 완전히 나았으나 검은자위에 실구름 같은 것이 가려져 얇팍하면서 희끄무레한 것은 없애지 못하니, 이름을 냉예(冷翳)라고 한다.

凡烙法, 將烙時可安心定志將眼擰開, 用濕紙敷定, 只留要烙處許大. 將匙燒紅, 於細綿上開過即烙之, 不可傷四弦. 烙乾用和解藥外敷之, 使其拔出火氣.

무릇 지지는 법은, 지지려고 할 때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 다음 눈을 열어 붙들고, 습지(濕紙)를 펴서 지질 곳의 크기만큼만 남기고 붙여 가린다. 숟가락을 빨갛게 달구어 고운 헝겊 위에 잠시 두었다가 곧 지지는데, 눈의 둘레를 상해서는 안 된다. 지져서 마르면 화해(和解)하는 약을 곁에 붙여서 화기(火氣)를 뽑아내도록 한다.

285. 然則 : 文義가 순조롭지 않은데, 빠진 글자가 있는 것 같다. ↩

286. 夫眼者乃五臟之專精也.....共湊於目 : 『素問、解精微論』“夫心者, 五藏之專精也, 目者, 其竅也, 華色者, 其榮也. 是以人有德也, 則氣和於目, 有亡, 憂知於色. 是以悲哀則泣下, 泣下水所由生. 水宗者, 積水也, 積水者, 至陰也, 至陰者, 腎之精也. 宗精之水所以不出者, 是精持之也, 輔之裹之, 故水不行也. 夫水之精爲志, 火之精爲神, 水火相感, 神志俱悲, 是以目至水生也. 故諺言曰, 心悲名曰志悲, 志與心精共湊於目也.” ↩

287. 足太陽膀胱之脈, 起於目之銳眦 : 『靈樞、經脈』“膀胱足太陽之脈, 起於目內眥.” ↩

288. 通頂入腦, 正屬目本, 名曰眼系 : 『靈樞、寒熱病』“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

289. 督脈陽柔之會 :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陽柔’는 ‘陽維’ 혹은 ‘陽脈’의 잘 못일 수 있겠다. ↩

290. 首循風府而出, 則入系腦, 則爲目風 :『素問、風論』“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 風入係頭, 則爲目風眼寒.” ↪

291. 厥肝脈上出額, 督會於巔頂, 其別交者, 從目系 :『靈樞、經脈』“肝足厥陰之脈, ..... 連目系, 上出額, 與督脈會於巔. 其支者, 從目系.....” ↪

292. 頂中風府兩筋之間乃別.....陰氣盛則目膜, 陽氣盛則目瞑 :‘膜’은 ‘瞼’의 잘못이고 ‘瞑’과 위치가 바뀐 것 같다.『靈樞、寒熱病』“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銳眥.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 ↪

293. 痘而不得臥者.....故目閉 :『靈樞、大惑論』“黃帝曰, 痘而不得臥者, 何氣使然. 岐伯曰, 衛氣不得入於陰, 常留於陽, 留於陽則陽氣滿, 陽氣滿則陽蹻盛, 不得入於陰則陰氣虛, 故目不瞑矣. 黃帝曰, 痘目而不得視者, 何氣使然. 岐伯曰, 衛氣留於陰, 不得行於陽, 留於陰則陰氣盛, 陰氣盛則陰蹻滿, 不得入於陽則陽氣虛, 故目閉也.” ↪

## 2.23. 用夾法 | 집게를 사용하는 법

夾時先番轉看上下胞瞼, 有瘀血處可剗, 剗至平血盡, 方可夾上夾子. 其夾不可高大, 只在重弦上, 仔細看其睫毛, 轉又要平正, 方可著力扯緊. 其夾肉處用小艾團灸三個, 不可多灸, 灸多恐潰夾決目. 夾肉若未乾, 可再催用淡淡丹藥, 去其餘翳, 此眼縱有厚翳, 不可用重藥.

집을 때에는 먼저 위아래 눈꺼풀을 뒤집어 보아서 어혈(瘀血)이 있는 곳을 찌르니, 찔러서 평평해지고 피가 다 나오면 비로소 집게로 집어 올릴 수 있다. 집는 것이 높고 커서는 안 되며, 단지 눈시울 위에 얹기만 한 채 속눈썹을 자세히 보아, 돌려가며 평평하고 반듯하게 하고서야 비로소 힘을 주어 바짝 잡아당긴다. 그 살을 집은 곳에는 작은 쑥뜸을 3개 뜨는데, 많이 떠서는 안 되니, 뜰을 많이 뜨면 집은 부위가 헐어서 눈꺼풀이 뚫릴 염려가 있다. 집은 살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면 다시 아주 묽은 단약(丹藥)으로 촉진하여 그 남은 예(翳)를 없앨 수 있으니, 이러한 눈병에는 비록 두터운 예(翳)가 있더라도 중약(重藥)을 사용할 수 없다.

用金針撥光了之時, 將蓉花葉末調水護之, 一日一換, 宜服謹翳 丸等方.

금침(金針)으로 발라내어 눈이 밝아지고 나서는 부용화엽(芙蓉花葉)을 가루를 물에 개어서 감싸주는데 하루에 한 번씩 바꾸고, 근예환(謹翳 丸) 등의 처방을 복용해야 한다.

凡撥金針者, 看人肥瘦, 就手撥之, 肥狀者先宜服退氣散血, 和其五臟, 後可撥之.

무릇 금침(金針)은 사람의 비수(肥瘦)를 살피고서야 손을 써서 발라내니, 살진 경우에는 먼저 퇴기산혈(退氣散血)하는 약을 복용하여 오장(五臟)을 조화시킨 후에 발라낼 수 있다.

### 2.23.1. 退氣散血方 | 퇴기산혈방

大黃《末, 二錢五分》當歸《末, 二錢五分》穿山甲《一分二厘》連翹《二分二厘》白芷  
《一分二厘》乳香《一分二厘》沒藥《一分二厘》

대황《가루, 2돈 5푼》당귀《가루, 2돈 5푼》천산갑《1푼 2리》연교《2푼 2리》백  
지《1푼 2리》유향《1푼 2리》몰약《1푼 2리》.

## 2.24. 開金針法 | 금침으로 눈을 열어주는 법

凡開金針, 須擇吉日, 靜風日暖, 須待日午之時, 焚香請呼龍樹醫王, 觀音菩薩, 然後方靜坐片時, 定自己之氣息. 令人取木凳一條, 以綿被貼軟. 同患者坐於凳被上, 騎馬對坐面與我對平, 勿使高低. 緩緩用銅簪脚於開縫處點計之. 次看鋒針口, 與瞳人三分之下, 要憑口訣使高低遠近. 方將鋒針令其入眼, 轉看數遍足了, 方按鋒針三四下, 看透了即取起, 有些血出, 用綿紙拭乾其血後, 方用地方<sup>294</sup>令針緩緩捻訊, 若透, 此針取出. 然後依法, 用天字針<sup>295</sup>, 再進取翳, 其翳若好撤開裹針, 緩緩收下, 停針畢方落在後去紙舉物. 與他看之, 即風, 不可與他人久視, 即用濕紙重重封固, 太陽用水膏塗之. 至次早方開看, 再換濕紙再封. 如此七日, 斜臥不可憑他翻身轉側, 七日後方開封, 與起無妨矣.

무릇 금침(金針)으로 열어줄 때에는 모름지기 길일을 택하여, 바람이 고요하고 따뜻한 날에 해가 남중할 때를 기다려 향을 살라서 용수의왕(龍樹醫王)과 관음보살(觀音菩薩)을 부르고, 그런 다음 잠시 고요히 앓아 자신의 호흡을 다스린다. 사람을 시켜 나무 걸상을 하나 가져오게 하고 솜이불을 덮어 푹신하게 만든다. 환자와 함께 걸상의 이불 위에 앉는데, 말을 탓 자세로 마주 대하여 앓아, 얼굴높이가 나와 수평을 이루고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한다. 차근차근 구리비녀 끝으로 찌를 자리를 찍어가며 헤아린다. 다음은 봉침(鋒針)으로 찌를 자리가 동공의 3푼 아래쯤에 오도록 하는데, 구결(口訣)에 의하여 높낮이와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막 봉침(鋒針)을 눈에 넣으려고 할 때에 눈을 이리저리 굴려서 몇 번 충분히 하고 나면 비로소 봉침(鋒針)을 3~4번 찌르다가, 완전히 뚫리면 곧 들어 올리는데, 출혈이 약간 있으면 면지(綿紙)로 그 피를 닦아낸 후, 지방(地方)을 써서 침을 천천히 돌리다가 뚫리면 이 침은 빼낸다. 그런 다음 법(法)에 따라 천자침(天字針)을 써서 다시 시행하여 예(翳)를 떼어내는데, 그 예(翳)가 만약 잘 흩어져서 침을 감싸면 서서히 거두어 내려서 침을 고정해두고, 변두리에 떨어진 것들은 이후에 종이를 제거하면서 들어낸다. 남아 보게 하면 곧 풍(風)이 들어가니 다른 사람들과 오래도록 보아서는 안 되며, 곧 습지(濕紙)를 겹겹이 하여 단단히 봉하고 태양혈(太陽穴)에 수고(水膏)를 바른다.

다음날 아침에 이르러 비로소 열어서 보고 다시 습지(濕紙)를 갈아서 또 봉한다. 이와 같이 7일을 하는데, 비스듬히 눕되 다른 데에 기대거나 몸을 뒤집고 돌려서는 안 되며, 7일 후에 비로소 봉한 것을 열고 일어나도 무방하다.

念觀音呪七遍, 方取出金針, 看其翳不浮起, 即用濕紙封片時, 方去紙, 舉手動之.

관음주(觀音呪)를 7번 암송하고 나서 금침(金針)을 빼내는데, 살펴보아 그 예(翳)가 잘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습지로 잠시 봉해 두었다가 종이를 제거하고 손을 들어 (침을) 움직인다.

---

294. 地方 : 針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手技法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295. 天字針 : 어떤 침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

## 2.25. 觀音呪 | 관음주

願眼紫金燈, 灑灑水離易, 黃沙滿藏經, 千眼千首千龍王, 文殊大士騎獅子, 普賢菩薩乘象王, 日裏夜裏雲膜盡, 翳膜消磨, 強中強, 吉中吉, 眼中當願得光明, 清淨般若波羅密.

눈이 보배로운 등불처럼 밝아지고 물을 뿌린 듯 씻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황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의 법(法), 천 명의 용왕을 거느리신 천수천안(千手千眼)의 관세음보살, 사자를 탄 문수보살,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시여, 낮이나 밤이나 구름막이 다 없어지고 예막(翳膜)이 사라지리니, 강한 중에 가장 강하시고 길한 중에 가장 길하십니다. 눈 속의 광명이 얻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청정반야바라밀.

## 2.26. 眼科用藥次第法 | 안과에서 약을 쓰는 차례와 법도

夫眼疾之醫, 雖分症類, 而其中病源, 不可不深思而熟視也. 夫疾有久新, 症有輕重, 須分表裏風熱氣熱濕熱實熱, 而新病者, 皆因內積熱毒之輕, 循經絡而上頭目.

무릇 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비록 증(症)의 유형을 나누었더라도 그 안에서 병의 근원을 깊이 생각하고 잘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질병에는 오래된 것과 새로 생긴 것이 있고 증(症)에는 가벼운 것과 중한 것이 있으니, 모름지기 표리(表裏), 풍열(風熱), 기열(氣熱), 습열(濕熱), 실열(實熱)을 나누어야 하는데, 새로 생긴 병은 모두 안에 쌓인 열독(熱毒)이 가벼워 경락(經絡)을 따라 머리와 눈으로 올라간다.

遇外風寒所觸而發者, 必須先發表風邪, 後乃遠其火熱, 黃連, 黃芩以瀉火, 防風, 薄荷以疏風, 兼以麻黃, 蒼朮之類.

밖으로부터 풍한(風寒)의 침범을 만나 발생한 병은 반드시 먼저 표(表)의 풍사(風邪)를 발산한 후에야 그 화열(火熱)을 물리칠 수 있으니, 황련, 황금으로 사화(瀉火)하고 방풍, 박하로써 풍(風)을 소산시키며, 마황, 창출 등을 겸하여 쓴다.

如無風寒所逼, 惟血壅上, 宜用大黃當歸防己墜下之劑.

만약 풍한(風寒)이 팍박한 바가 없고 오직 혈(血)이 차오르면 대황, 당귀, 방기처럼 떨어뜨리고 내려주는 약을 사용한다.

久眼昏蒙所曉, 宜用當歸地黃防風羌活之類.

오랫동안 눈이 흐리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려면 당귀, 지황, 방풍, 강활 등을 쓴다.

有翳 膜加木賊, 菖 藜, 蟬蛻, 決明等劑.

예막(翳膜)이 있으면 목적, 질려, 선태, 결명자 등의 약을 더한다.

如胞合眼皮不開, 此乃寒邪之氣傷胞, 宜行氣之藥青皮黃芪 香附, 兼以風藥佐之.

만약 눈꺼풀이 서로 붙어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것은 한사(寒邪)의 기(氣)가 눈꺼풀을 상한 것이니, 행기(行氣)하는 약인 청피, 황기, 향부자를 사용하고 겸하여 풍약(風藥)으로써 돋는다.

血滯者宜調血, 赤芍歸尾鼠粘.

혈(血)이 응체된 경우 혈을 고르게 해야 하니, 적작약, 당귀미, 우방자를 쓴다.

如頭痛者, 羌活白芷蔓荊蒿本川烏之類, 佐以風藥防風荆芥玄參柴胡細辛, 用之必當也.

머리가 아프면 강활, 백지, 만형자, 고본, 천오 등에 풍약(風藥)인 방풍, 형개, 현삼, 시호, 세신으로 보좌하니, 이렇게 쓰면 반드시 들어맞는다.

如眼眩暉昏潰, 十分作痛, 但虛腫痛及眼眶, 此乃痰飲所患, 宜服二陳湯, 兼佐以風藥.

눈이 어질어질하고 흐리며 짓무르면 모두 통증이 발생하는데, 다만 무르게 붓고 아픈 것이 눈언저리까지 미친다면 이는 담음(痰飲)으로 병이 된 것이니, 이 진탕(二陳湯)을 복용하고 겸하여 풍약(風藥)으로 보좌한다.

如腫脹暗痛, 熱淚難禁者, 苦寒之藥宜然, 但視人之形氣虛實, 體之盛衰, 務究其內外淺深, 不可專書全在人之活法. 方書者乃前人立法之規, 使後無失其序, 如歸於症者則緩可以尋方, 倘 暴發者變動於頃刻, 苛不明於藥性寒溫, 痘勢之緩急, 而使之療, 非徒無益而反害之矣. 予掇拾諸家之方, 賢成歌括六十餘首, 此一昔應驗之神方也, 若用意熟記, 則不思忖而了然矣. 若能知抽添之工夫, 加減之意趣, 真可謂眼科中之至寶哉. 後之學人, 當以予之用心, 珍之重之, 傲術不輕而身不賤矣. 內障一書, 乃心授之法, 故不形於紙筆, 如若泛泛, 豈仁人君子哉.

눈이 붓고 어두우면서 아프고 열루(熱淚)를 금치 못하는 경우에는 고한(苦寒)한 약이 마땅하지만, 환자의 형기(形氣)의 허실(虛實)과 몸의 성쇠(盛衰)를 보고 그 내외(內外), 천심(淺深)을 힘써 궁구할 것이니, 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사람이 응용하는 법에 달려있다. 방서(方書)는 곧 앞선 사람들이 법을 세운 규모로서 뒷사람들로 하여금 그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증(症)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천천히 처방을 찾을 수 있지만, 별안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은 순식간에 변동하니, 만약 약성의 한온(寒溫)과 병세의 완급(緩急)에 밝지 못한데 치료하게 한다면 단지 유익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친다. 내가 제가(諸家)의 처방을 거두어 모으고 덧붙여서 60여수의 가괄(歌括)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효힘이 있는 신방(神方)이니, 주의를 기울여 숙지해둔다면 생각하고 헤아리지 않아도 명료할 것이다. 만약 빼고 넣는 수법과 더하고 줄이는 취지를 잘 안다면, 진실로 안과(眼科)의 지극한 보물이라 할 수 있으리라. 후대의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내가 마음을 쏟은 이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의술이 가볍지 않고 몸이 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장(內障)에 관한 것은 심법(心法)으로 전수하는 것이라 종이와 붓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 만약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어찌 인인군자(仁人君子)이겠는가?

## 2.27. 金針眼科經驗方藥詩括 | 금침안과경험방약시괄

酒調散歸及麻蒼, 赤芍菊甘羌大黃, 芫蔚桑螵共十味, 暴風腫痛用之良.

주조산(酒調散)은 당귀, 마황, 창출, 적작약, 국화, 감초, 강활, 대황, 충울자, 상표초로 모두 10개의 약재이니, 폭풍(暴風)으로 붓고 아플 때 쓰면 좋다.

酒煎散內歸芎苓, 赤芍木通山梔仁, 龍膽大黃鬱金入, 防風加上效如神.

주전산(酒煎散)에는 당귀, 천궁, 복령, 적작약, 목통, 산치인, 용담초, 대황, 울금이 들어가고, 방풍이 더해지니 효과가 매우 좋다.

酒調洗肝有黑參, 知母大黃芩桔梗, 梔子朴硝共七味, 睛痛淚出用之痊.

주조세간산(酒調洗肝散)에는 흑삼, 지모, 대황, 황금, 길경, 치자, 박초가 있어 모두 7개의 약재이니, 눈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 사용하면 낫는다.

四順當歸與大黃, 更兼甘草赤芍良, 不拘疾眼經年久, 一服交君便可康.

사순탕(四順湯)은 당귀와 대황에 다시 감초, 적작약을 겸하여 좋다. 해묵은 안병이라도 상관없이, 한 번 복용케 하면 곧 건강해질 수 있다.

八正車前與瞿麥, 扁芎滑石山梔仁, 大黃木通同甘草, 燈心竹葉效如神.

팔정산(八正散)은 차전자와 구맥, 편축, 천궁, 활석, 산치인, 대황, 목통에 감초, 등심초, 죽엽을 함께 하니, 효과가 매우 좋다.

雙解防風將軍芍, 薄荷芎歸草朴硝, 梔翹梗芩膏麻黃, 茉莉白朮滑石良.

쌍해산(雙解散)은 방풍, 대황, 작약, 박하, 천궁, 당귀, 감초, 박소, 연교, 길경, 황금, 석고, 마황, 형개, 백출, 활석이니, 좋다.

當歸活血煎黃芪, 薄荷蒼朮麻黃宜, 川芎羌活菊花等, 熟黃荊芥沒藥醫.

당귀활혈전(當歸活血煎)은 황기, 박하, 창출, 마황이 마땅하고 천궁, 강활, 국화 등과 숙지황, 형개, 몰약이 치료한다.

大黃當歸散菊花, 薄荷黃芩川芎佳, 壓腫血凝生赤翳, 頻頻服藥再連渣.

대황당귀산(大黃當歸散)은 국화, 박하, 황금, 천궁이 좋으니, 딴딴히 부으며 혈(血)이 엉겨 적예(赤翳)가 생겼으면 자주자주 복용하고 건더기를 다시 쓴다.

七寶洗心當歸芍, 黃連荊芥及麻黃, 桔子大黃共七味, 眼疼赤痛正相當.

칠보세심산(七寶洗心散)은 당귀, 작약, 황련, 형개와 마황, 치자, 대황으로 모두 7개의 약재이니, 눈이 쑤시고 붉으며 아픈 데에 꼭 알맞다.

九仙飲治眼通紅, 赤芍當歸與木通, 白芷黃芩同甘草, 菊花荊芥與川芎.

구선음(九仙飲)은 눈이 온통 붉은 것을 치료하며, 적작약, 당귀와 목통, 백지, 황금과 감초, 국화, 형개와 천궁으로 되어 있다.

治眼散有密蒙花, 歸菊荊蟬枝子加, 木賊防風甘草朮, 更兼赤白芍無差.

치안산(治眼散)에는 밀몽화가 있고, 당귀, 국화, 형개, 선태, 치자가 더해지고, 목적, 방풍, 감초, 출에 다시 적작약이나 백작약을 가리지 않고 겸한다.

蒼朮散能止昏淚, 夏枯木賊甘香附, 痰 藜白芷芎防風, 蟬蛻 天蠶蔓荊助.

창출산(蒼朮散)은 흐리고 눈물이 나는 것을 그치니, 하고초, 목적, 감초, 향부자, 질려, 백지, 천궁, 방풍, 선태, 백강감, 만형자로 돋는다.

修肝散有當歸芩, 薄荷連翹山梔仁, 甘草防風加蜜烹, 肝虛目暗用之靈.

수간산(修肝散)은 당귀, 황금, 박하, 연교, 산치인, 감초, 방풍에 꿀을 더해 달이며, 간허(肝虛)로 눈이 어두운 데에 쓰면 영험하다.

瀉肝散內有桔梗, 大黃知母與黑參, 朴硝黃芩連十味, 眼痛暴發霎時平.

사간산(瀉肝散) 안에는 길경, 대황, 지모와 흑삼, 박초, 황금, 황련의 열 개의 약물이 있으니, 눈의 통증과 갑작스런 눈병이 삽시간에 가라앉는다.

加味修肝散芥歸, 菊花羌活甘蒺藜, 大黃連翹薄荷梗, 赤芍黃風莫改移.

가미수간산(加味修肝散)은 형개, 당귀, 국화, 강활, 감초, 백질려, 대황, 연교, 박하경, 적작약, 황금, 방풍이니 고치지 말라.

涼隔連翹梔子仁, 大黃甘薄朴硝芩, 更加黃連赤芍藥, 服之熱毒化爲塵.

양격산(涼膈散)은 연교, 치자인, 대황, 감초, 박하, 박초, 황금에 다시 황련, 적작약을 더하니, 복용하면 열독(熱毒)이 티끌처럼 사라진다.

茶調散內菊薄荷, 羌活川芎荊芥和, 石決石膏甘草少<sup>296</sup>, 防風木賊去沈疴.

다조산(茶調散)은 국화, 박하, 강활, 천궁, 형개와 석결명, 석고, 감초 조금에 방풍, 목적이며, 고질병을 치료한다.

眼中淚出如何得, 四物補肝<sup>297</sup> 加木賊, 蒼朮防風白蒺藜, 川芎羌活甘草炙.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물보간탕(四物補肝湯)에 목적, 창출, 방풍, 질려, 천궁, 강활, 자감초를 더한다.

明目細辛藁木<sup>298</sup> 芎, 紅花歸蔓荊防風, 生黃椒茯麻根入, 羌活蒙花共奏功.

명목세신탕(明目細辛湯)은 고본, 천궁, 흥화, 당귀, 만형자, 방풍, 생지황, 천초, 백복령, 마황근을 넣고, 강활, 밀몽화이니, 모두 모여서 효과를 낸다.

救苦湯內桔翹辛, 羌活川藁柴歸身, 龍膽知母荊防草, 黃芩<sup>299</sup> 連柏生地升.

구고탕(救苦湯)은 길경, 연교, 세신, 강활, 천궁, 고본, 시호, 당귀신, 용담초, 지모, 형개, 방풍, 감초, 황금, 황련, 황백, 생지황, 승마이다.

撥雲菊花及蟬蛻, 白蒺 川芎荊芥配, 羌活防風桑白皮, 掃除熱翳 眞無僞.

발운산(撥雲散)은 국화와 및 선태에 백질려, 천궁, 형개를 배합하고, 강활, 방풍, 상백피이니, 열예(熱翳)를 없애는 데에 들어맞아 틀림이 없다.

肝風衝眼淚昏蒙, 羌活黃芪 及扶芎<sup>300</sup>, 甘草蒺藜荊芥穗, 何愁翳膜障雙睛.

간풍(肝風)이 눈을 치받아 눈물이 나오고 흐리며 어두우면 강활, 황기 및 무궁, 감초, 질려, 형개수로 도우니 어찌 예막(翳 膜)이 두 눈을 가리는 것을 근심하랴.

密蒙花散有菊花, 木賊石決明莫差, 白芍甘草白蒺藜, 細研爲末用清茶.

밀몽화산(密蒙花散)은 국화, 목적, 석결명, 백자약, 감초, 백질려이니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찻물에 복용한다.

連翹散內有黃芩, 羌活菊花草決明, 白蒺密蒙龍膽草, 更兼甘草去羞明.

연교산(連翹散)에는 황금, 강활, 국화, 초결명, 백질려, 밀몽화, 용담초가 있고 다시 감초를 겸하니 눈이 부신 것을 없애준다.

川芎羌活治頭疼, 藁本細辛白芷增, 更有蔓荊防風佐, 教君一服便安寧.

천궁강활산(川芎羌活散)은 머리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고본, 세신, 백지를 늘리고 다시 만형자, 방풍이 있어 보좌하니 한 번 복용케 하면 곧 편안해진다.

暖肝湯內有防風, 菖蔚藁甘及川芎, 五味細辛知母等, 黃芩若治最多功.

난간탕(暖肝湯)에는 방풍이 있고, 충울자, 고본, 감초 및 천궁, 오미자, 세신, 지모 등과 황금이니, 치료하자면 가장 많은 효과가 있다.

省味修肝<sup>301</sup>用當歸, 赤芍防風白蒺藜, 蟬蛻大黃川芎使, 更加木賊是其宜.

생미수간산(省味修肝散)은 당귀를 쓰고 적작약, 방풍, 백질려, 선태, 대황, 천궁으로 보조하며 다시 목적을 더하니 이것이 마땅하다.

復明散內石決明, 菖蔚青葙甘蔓荊, 木賊人參夏枯草, 白芷芎蒺草決明.

복명산(復明散)은 석결명, 충울자, 청상자, 감초, 만형자, 목적, 인삼, 하고초, 백지, 천궁, 백질려, 초결명이다.

人參羌活散獨活, 甘草茯苓桔梗芍, 枳殼天麻地骨皮, 柴胡前胡川芎藥.

인삼강활산(人參羌活散)은 독활, 감초, 복령, 길경, 작약, 지각, 천마, 지골피, 시호, 전호, 천궁이다.

洗心散內七般藥, 甘草當歸同芍藥, 荊芥蒼朮麻大黃, 眼腫服之如捻却.

세심산(洗心散)에는 7가지 약으로 감초, 당귀와 함께 적작약, 형개, 창출, 마황, 대황이 있으니, 눈이 부었을 때 복용하면 금방 낫는다.

退赤散內有大黃, 黃連白芷赤芍詳, 當歸蒺藜蔥去白, 何愁淚出自如湯.

퇴적산(退赤散) 안에는 대황이 있고 황련, 백지, 적작약이 갖추어졌으며, 당귀, 백질려, 흰 부분을 제거한 대파이니, 눈물이 나오는데 맑으면서 뜨거운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小菊花散只五味, 蒺藜木賊五味是, 羌活爲末用茶調, 專治羞明並澁淚.

소국화산(小菊花散)은 단지 5개의 약물이니, 백질려, 목적, 오미자가 이것이요, 강활을 갈아서 찻물에 복용하며, 오로지 눈이 부신 것과 깔깔하고 눈물 나는 것을 치료한다.

防風湯內用蟬蟲, 薄荷當歸及川芎, 羌活大黃梔子草, 熱衝眼目並頭風.

방풍탕(防風湯)은 선충, 박하, 당귀 및 천궁, 강활, 대황, 치자, 초결명이니, 열이 눈을 치받은 것과 두통을 치료한다.

蟬花散內菊芩風, 羌活山梔白蒺 蔴, 木賊蔓荊決明子, 穀精荊芥草密蒙.

선흐산(蟬花散)은 국화, 황금, 방풍, 강활, 산치자, 백질려, 천궁, 목적, 만형자, 결명자, 곡정초, 형개, 초결명, 밀몽화이다.

省風湯內有羚羊, 羌活黑參麻大黃, 知母當歸升桔梗, 密蒙甘草是奇方.

성풍탕(省風湯)에는 영양각, 강활, 흑삼, 마황, 대황, 지모, 당귀, 승마, 길경, 밀몽화, 감초가 있으니, 이것은 기방(奇方)이다.

補血當歸<sup>302</sup>熟地黃, 白朮芎芷白芍防, 車菊辛羌甘白茯, 桔梗茺蔚蒺藜大黃.

보혈당귀산(補血當歸散)은 숙지황, 백출, 천궁, 백지, 백작약, 방풍, 차전자, 국화, 세신, 강활, 감초, 백복령, 길경, 충울자, 백질려, 대황으로 구성된다.

活血當歸散木通, 黃芩生地與撫芎, 白蒺當歸生梔子, 赤芍甘草菊花同.

활혈당귀산(活血當歸散)은 목통, 황금, 생지황과 무궁, 백질려, 당귀, 생치자, 적작약, 감초, 국화를 함께 쓴다.

破血當歸劉寄菊, 玄明赤芍紅蘇木, 黃芩歸尾羌連翹, 木賊甘草生地熟.

파혈당귀산(破血當歸散)은 유기노, 국화, 현명분, 적작약, 홍화, 소목, 황금, 당귀미, 강활, 연교, 목적, 감초, 생지황, 숙지황으로 구성된다.

菩薩散藥只五味, 甘草防風白蒺藜, 蒼朮荊芥治羞明, 效若靈丹故名是.

보살산(菩薩散)의 약물은 단 5가지이니, 감초, 방풍, 백질려, 창출, 형개로 눈이 부신 것을 치료한다. 효과가 영단(靈丹)과 같아서 이와 같이 이름 하였다.

明目流氣飲牛蒡, 荊玄梔藜細防風, 甘草大黃再添入, 眼中赤澁不來攻.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은 우방자, 형개, 현삼, 치자, 백질려, 세신, 방풍에 감초, 대황을 다시 첨가하는데, 눈 속이 붉고 깔깔한 증상이 들이닥치지 않는다.

蔓荊散內有黃芪, 甘草人參白芍宜, 黃柏倍加將酒炒, 昏蒙虛氣用之宜.

만형산(蔓荊散)에는 황기가 있으며, 감초, 인삼, 백작약이 마땅하고, 황백은 배로 더하되 술로 볶아서 쓰니, 눈이 흐리고 어두우며 기(氣)가 허(虛)할 때에 사용한다.

川芎茶調散薄荷, 白芷防風甘草和, 更有細辛兼羌活, 荊茶同煎用者多.

천궁다조산(川芎茶調散)은 박하, 백지, 방풍에 감초로 조화하며 다시 세신이 있고 강활, 형개, 찻잎을 함께 달이니, 사용할 경우가 많다.

助陽和血補氣湯, 甘草當歸白芷防, 蔓荊升麻柴胡使, 黃芪 加上水煎嘗.

조양화혈보기탕(助陽和血補氣湯)은 감초, 당귀, 백지, 방풍이요, 만형자, 승마, 시호로써 돋고, 황기를 더해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省風百解荆芥參, 甘草陳皮白茯苓, 僵蠶芎藭 防風藿, 蟬蛻 厚朴羌活葶.

성풍백해(省風百解)는 형개, 인삼, 감초, 진피, 백복령, 백강잠, 천궁, 방풍, 곽향, 선태, 후박, 강활, 정력자이다.

散熱飲子用黃連, 防風羌活黃芩兼, 大黃當歸生地入, 腫痛暴發即時痊.

산열음자(散熱飲子)는 황련, 방풍, 강활, 황금을 사용하고 겸하여 대황, 당귀, 생지황을 넣으니, 볶고 아프고 갑작스런 눈병이 즉시 낫는다.

龍膽散有乾菊花, 川芎香附木賊加, 草決明中加甘草, 迎風冷淚卻無些.

용담산(龍膽散)에는 건국화가 있고, 천궁, 향부자, 목적을 더하며 초결명에다 감초를 더하니, 영풍냉루(迎風冷淚)가 온데간데없다.

芎藭 散內荊芥多, 甘草菊花及薄荷, 蒼朮一味米泔 浸, 研爲細末任調和.

궁궁산(芎藭 散) 안에는 형개가 많고 감초, 국화와 박하가 있으며, 창출 한 가지는 쌀뜨물에 담가서 쓰니 갈아서 곱게 가루로 만들고 임의로 섞어 복용한다.

神仙退翳 羌活歸, 甘草蒙花荊賊藜, 地骨枯 蔓枳實, 椒連蟬菊薄蛇皮.

신선퇴예산(神仙退翳 散)은 강활, 당귀, 감초, 밀몽화, 형개, 목적, 백질려, 지골피, 과루근, 만형자, 지실, 천초, 황련, 선태, 국화, 박하, 사피로 구성된다.

當歸龍膽升麻草, 赤芍柴胡五味藁, 羌活石膏同黃芪, 黃柏連翹酒炒好.

당귀용담탕(當歸龍膽湯)은 승마, 감초, 적작약, 시호, 오미자, 고본, 강활, 석고와 황기, 황백, 연교를 쓰고, 술로 볶아서 쓰면 좋다.

洗心眼散治退紅,<sup>303</sup> 羌活升麻草木通, 桃子大黃赤芍藥, 黃芩九味湊防風.

세심산(洗心散)은 눈을 치료하여 붉은빛을 없앤다. 강활, 승마, 감초, 목통, 치자, 대황, 적작약, 황금에 방풍까지 하여 9가지 약물이다.

偏正頭痛用清空, 黃連酒炒及川芎, 柴胡羌活黃芩草, 細辛少使配防風.

편정두통(偏正頭痛)엔 청공고(清空膏)를 쓰는데, 황련을 술로 볶은 것과 천궁, 시호, 강활, 황금, 감초이며 세신 약간으로 보좌하고 방풍을 배합한다.

菊花茶調散川芎, 莊芥細辛草防風, 白芷薄荷羌活劑, 僵蠶蟬蛻治頭風.

국화다조산(菊花茶調散)은 천궁, 형개, 세신, 감초, 방풍, 백지, 박하, 강활을 배합하고 백강잠, 선태를 넣어 두통을 치료한다.

打撲疹痘紅花散, 升麻生地羌活草, 大黃連翹赤芍藥, 更加當歸尾國老.

타박상과 진두(疹痘)에 흥화산(紅花散)을 쓰니, 승마, 생지황, 강활, 자초, 대황, 연교, 적작약에 다시 당귀미, 감초를 더한다.

小防風湯梔子仁, 羌活甘草當歸身, 赤芍大黃水煎服, 小兒熱毒用之神.

소방풍탕(小防風湯)은 치자인, 강활, 감초, 당귀신, 적작약, 대황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며, 소아의 열독(熱毒)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小承氣湯薄荷蟬, 甘草杏仁及防風, 羌活天麻當歸是, 大黃赤芍水煎同.

소승기탕(小承氣湯)은 박하, 선태, 감초, 행인 및 방풍, 강활, 천마, 당귀에 대황, 적작약으로, 물에 함께 달인다.

菊花膏內用大黃, 莊芥黃芩尤草蒼<sup>304</sup>, 羌活防風黃連佐, 細辛爲末蜜調嘗.

국화고(菊花膏) 안에는 대황을 쓰고, 형개, 황금, 감초, 창출, 강활, 방풍, 황련으로 돋고 세신을 넣고 가루로 만들어 꿀에 타서 복용한다.

糖煎散有龍膽草, 防己防風同甘草, 赤芍川芎荊芥歸, 服之奇效如神好.

당전산(糖煎散)에는 용담초, 방기, 방풍과 감초, 적작약, 천궁, 형개, 당귀가 함께 있으니, 복용하면 기이한 효과가 나니 아주 좋다.

蟬花無比有茯苓, 羌活防風當歸身, 赤芍蒺藜同甘草, 川芎蒼朮草決明.

선화무비산(蟬花無比散)에는 복령, 강활, 방풍, 당귀신, 적작약, 백질려와 감초, 천궁, 창출, 초결명이 함께 있다.

退翳撥雲黃連芩, 菊花龍膽羌活荊, 大黃石羔甘白芷, 石決防風草決明.

퇴예발운산(退翳撥雲散)은 황련, 황금, 국화, 용담초, 강활, 형개, 대황, 석고, 감초, 백지, 석결명, 방풍, 초결명으로 구성된다.

以上六十一方, 隨手作效.

이상의 61방은 손 가는대로 효과를 낸다.

296. 少 : 이 茶調散은 川芎茶調散인데, 앞에 자세히 나온 곳을 살펴보면 약물의 용량이 모두 각 1냥이므로 ‘少’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石膏를 炒해 서 쓴다고 하였으니 혹시 ‘少’가 ‘炒’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

297. 四物補肝 : 처방명으로 ‘四物補肝’이라 한 곳은 『醫宗金鑑』의 四物補肝湯이 거의 유일하다. 產後의 눈병에 쓰는 처방으로, 香附, 川芎, 夏枯草, 熟地黃, 當歸身, 白芍藥, 甘草로 구성된다. 여기서의 ‘四物補肝’이 이러한 처방인지는 알 수 없고, ‘補肝하는 四物湯’의 의미일 가능성도 있다. ↪

298. 藁木 : [集成] 鼎本에는 ‘藁本’으로 되어 있다. [역주] 藥名이므로 鼎本이 읊음은 당연하다. 四庫全書本도 鼎本과 같다. ↪

299. 蓼 : [集成] 원래 ‘蓼’으로 되어 있던 것을 鼎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 四庫全書本에는 ‘蓼’으로 되어 있다. ↪

300. 扶芎 : ‘扶 蔴’의 잘못이다. ‘扶’는 ‘撫’의 이체자이며, 四庫全書本에는 ‘撫

芎'으로 되어 있다. 撫芎은 川芎과 비슷하여 훈용하는 약재이다. ←

301. 省味修肝 : ‘修肝散에서 藥味를 덜어내었다’는 뜻이며, 이 처방은 本書의 다른 곳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修肝散의 구성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藥味가 많고, 加味修肝散과 비교하면 여러 藥味가 생략되고 蟬蛻 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

302. 補血當歸 : 本書 앞부분에서 나오는 當歸補血散과 구성이 일치한다. ←

303. 洗心眼散治退紅 : ‘洗心散治眼退紅’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

304. 尤草蒼 : ‘草蒼尤’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本書에 실린 小菊花膏丸의 처방 구성이 이것과 거의 같은데, 蒼朮만 있고 白朮은 들어 있지 않다. ←

## 2.28. 丹藥和論 | 단약(丹藥)의 배합에 대하여

對交丹<sup>305</sup> 四六丹, 可吹久年翳膜, 虛厚未堅實者. 不見人物者, 可三日一次, 九一丹解之, 其翳即消散如水, 厚薄至效. 如是對交四六不可用也, 後可用珍珠散間九一丹點之.

대교단(對交丹)과 사륙단(四六丹)은 오래된 예막(翳膜)이 흐물거리고 두터우며 견실(堅實)하지 않은 경우에 불어넣을 수 있다. 사람과 사물을 보지 못하면 3일에 한 번씩 구일단(九一丹)으로 풀어주면 그 예(翳)가 곧 물처럼 사그라져 흘어지니, 예가 두텁거나 얕거나 지극한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교단과 사륙단을 쓰지 못하고, 나중에 진주산(珍珠散)을 쓸 수 있으며 간간이 구일단(九一丹)을 점안한다.

三七丹施於年久眼. 凡經曰<sup>306</sup> 翳, 不拘下生上上生下, 厚極者可二日一次, 以淡淡丹和解之.

삼칠단(三七丹)은 오래된 눈병에 사용한다. 모든 붉고 흰 예(翳)는 아래에서 생겨 올라오는 위에서 생겨 내려오는 간에, 많이 두터운 것은 이를에 한번 묽게 만든 단약으로 화해(和解)한다.

二八丹理三五年發歇眼. 有紅絲, 略有疼痛癢澁, 共翳帶紅白色, 可一夜一次, 輕藥和之.

이팔단(二八丹)은 3~5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눈병을 다스린다. 실핏줄이 얹혀 있고, 약간 아프고 가려우며 깔깔하고 또 예(翳)가 홍백색을 띠면 밤마다 한 번씩 경약(輕藥)으로 화해한다.

九一丹治眼時常發歇, 眼目生翳, 或疼痛可點. 若無疼痛只用清涼散間九一丹點之, 若有淡翳似飛雲霧者, 只用碧雲丹清涼散吹點.

구일단(九一丹)은 늘 간헐적으로 발작하는 눈병을 치료하니, 눈에 예(翳)가 생기거나 아픈 데에 점안할 수 있다. 만약 동통이 없으면 단지 청량산(清涼散)을 쓰면서 간간이 구일단을 점안하며, 만약 엷은 예(翳)가 있어 떠다니는 운무(雲霧)와 같으면 단지 벽운단(碧雲丹), 청량산을 불어넣고 점안한다.

又有一切冷眼, 不受寒藥者, 只用清涼散少加片腦, 入些薑粉, 時時點之效.

또 일체의 냉안(冷眼)으로 성질이 찬 약이 듣지 않는 경우는 다만 청량산(清涼散)에 편뇌를 약간 더하고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 때때로 점안하면 효과가 있다.

又有一切眼不受納藥者, 看去翳若去得, 將各樣膏丹少少調乳汁, 時時少少點之. 更不受者, 用淨三黃陽丹, 不用腦點亦能消翳.<sup>307</sup> 吹去膏亦可主之.

또 일체의 눈병에 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翳)를 긁어보아서 없앨 수 있다면 여러 고약(膏藥)과 단약(丹藥)을 조금씩 유즙(乳汁)에 타서 때때로 조금씩 점안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깨끗한 황련, 황금, 황백과 양단(陽丹)을 쓰고 용뇌는 쓰지 말고 점안하면 또한 예(翳)를 없앨 수 있다. 취운고(吹雲膏)로도 치료할 수 있다.

又有一樣, 受不得煎藥, 只將陽丹不用腦射硼砂點之.

또 어떤 경우 탕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만 양단(陽丹)에 용뇌, 사향, 봉사를 넣지 말고 점안한다.

又有一樣眼, 諸丹藥點不服, 將雞子檳榔磨冷水, 將雞翎點, 亦能退翳.

또 어떤 눈병에 모든 단약(丹藥)을 눈에 점안해도 듣지 않는 경우, 달걀과 빈랑을 냉수에 갈아서 닭털로 찍어 바르면 또한 예(翳)를 없앨 수 있다.

又有一樣眼, 不用丹藥, 將青鹽及食鹽火燒過, 冷水調, 雞毛點, 亦能退翳.

또 어떤 눈병에 단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 청염과 식염을 태우고 냉수에 타서 닭털로 점안하면 또한 예(翳)를 없앨 수 있다.

又有一樣眼, 人丟 刺在眼不得出者, 將葱捶 碎敷之. 又將五倍子捶 碎敷刺亦出, 又將蟻 蟑 即 噴屎蟲研碎敷之, 刺亦出.

또 한 가지 눈병으로, 남이 던진 가시가 눈에 들어가 빠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를 짓찧어서 가시에 붙인다. 또 오배자를 짓찧어 가시에 붙여도 빠지며, 또 강랑 즉 쇠똥구리를 갈아 부수어 가시에 붙여도 가시가 빠져나온다.

### 2.28.1. 煉爐甘石浸藥水方 | 노감석(爐甘石)을 제련할 때 담금질하는 약수(藥水)의 처방

防風 黃芩 大黃 當歸 龍膽草 黃柏《各一兩》生地黃 羌活 川芎 白芷 細辛 菊花《各八錢》麻黃赤芍藥 蒼朮 木賊《各六錢》黃連《一兩五錢》荊芥《五錢》山梔子 薄荷《各七錢》草烏《此以下新增》柏子仁 柴胡 密蒙花

방풍, 황금, 대황, 당귀, 용담초, 황백《각 1냥》생지황, 강활, 천궁, 백지, 세신, 국화《각 8돈》마황, 적작약, 창출, 목적《각 6돈》황련《1냥 5돈》형개《5돈》산치자, 박하《각 7돈》초오《이하는 새로 더한 것이다》백자인, 시호, 밀몽화.

上將二十四味俱選新鮮的, 細切如麻豆, 一咀用冷水四五碗銅盆內浸三四夜. 若春夏浸二宿, 秋五冬七日, 常以手擦過, 使其味出, 用細布濾過之.

위의 24개의 약재를 모두 신선한 것으로만 골라서 마두(麻豆) 크기로 잘게 썰고, 한 차례 사용할 분량을 4~5사발의 냉수로 구리그릇에다 3~4일 밤 담근다. 봄, 여름이면 이틀을 담그고, 가을에는 5일, 겨울에는 7일을 담그며, 늘 손으로 비벼서 미(味)가 우러나도록 하여 고운 헝겊으로 거른다.

### 2.28.2. 煉爐甘石法 | 노감석(爐甘石)을 제련하는 방법

其甘石須選帶隔, 又要輕或帶淡天青色可也. 打碎用燒過銀鍋內貯滿, 一仰一蓋, 頓丹爐內, 煉至極紅透, 鈐出淬 藥水內, 其吃過藥傾撇. 仍將甘石置火內, 依前淬, 如此者三. 凡一次須煉及紅, 不透恐甘石變色黑. 淬三次已定, 將甘石通打碎. 又用新藥水浸一宿去火毒, 次日傾盡藥水晒乾, 研末, 有石者作一處, 無石者作一處, 異研. 又可將藥水濕過晒過, 研細, 極細絹節<sup>308</sup>過, 即爲陽丹.

노감석(爐甘石)은 모름지기 균열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가벼워야 하며, 혹은 연한 하늘색을 띠는 것이 좋다. 두드려 부수고 불에 달군 다음 은(銀) 솔 안에 넣고 은 뚜껑으로 덮어, 단로(丹爐) 안에 안쳐서 온통 아주 붉게 달구어지면 집게로 꺼내어 약수(藥水)에 담그고, 한 번 사용한 약수는 따라 버린다. 다시 노감석을 불에 넣고 앞의 법에 따라 담금질하니, 이와 같이 3번을 한다. 한번 할 때마다 모름지기 붉어질 때까지 불에 달구니, 투철하지 않으면 노감석이 검게 변색될 우려가 있다. 3번 담금질하기를 끝내고 나면 노감석을 완전히 두드려 부순다. 또 새로운 약수에 하룻밤을 담가두어 화독(火毒)을 없애고, 다음날 약수를 따라낸 후 볍에 말려서 가루로 만드는데, 돌이 있는 부분과 돌이 없는 부분을 나누어 따로 간다. 또 약수로 적셨다가 볍에 말려서 곱게 갈고 아주 고운 비단으로 거르니, 곧 양단(陽丹)이다.

### 2.28.3. 修合陰丹法 | 음단(陰丹)을 만드는 방법

煉過甘石《四兩》銅青《七錢五分》硇砂《白的, 二錢半》青鹽《二錢半》彌陀僧《一錢》

제련한 노감석《4냥》동청《7돈 5푼》요사《하얀 것 2돈 반》청염《2돈반》밀타승《1돈》.

上將此五味, 用龍膽草及黃連二味浸過的水, 通將五味和勻, 濕過>石+禹>碗內, 研得如泥, 至膩方可. 晒乾再研, 方入別藥.

이상의 다섯 가지 약물에 용담초와 황련 담갔던 물을 써서, 다섯 약물을 모두 고르게 섞고 적셔서 사발 안에 넣어 진흙처럼 갈되, 아주 매끄럽게 되어야만 좋다. 볶에 말려서 다시 간 다음 별도의 약들을 넣는다.

又入六味.

다음 6개의 약물을 넣는다.

黃連《二錢五分, 爲末》細辛《末, 二錢, 去葉》草烏《末, 二錢》薄荷葉《八分》乳香《製過, 一錢五分》沒藥《製過, 一錢, 合乳香, 製法在後》

황련《2돈 5푼, 가루로》세신《가루, 2돈, 잎은 제거》초오《가루, 2돈》박하엽《8푼》유향《법제한 것, 1돈 5푼》몰약《법제한 것, 1돈, 유향과 합하는데 제법은 뒤에 나온다》.

上將此六味研至極細膩, 方入別諸藥.

이상 여섯 약물을 아주 곱고 매끄럽게 갈고서 별도의 여러 약들을 넣는다.

後藥味.

이후에 넣는 약들은 다음과 같다.

硼砂《明者, 一錢五分》膽礬《三分》雄黃《要黃明者, 七分》輕粉《七分》黃丹《五分, 以水淘去沙, 將沈丹, 用晒乾》朱砂《五分》牙硝《五分》海螵蛸《七分, 火煅, 味淡白色者不用》白丁香《五分, 即小雀屎, 立軟者》血竭《五分》明礬《一錢, 火枯》薑粉《七分, 薑汁濾細晒乾》片腦《少許》麝香《少許》

봉사《빛나는 것, 1돈 5푼》담반《3푼》웅황《노랗고 빛나는 것, 7푼》경분《7푼》황단《5푼, 물에 일어서 모래를 제거하고 황단을 물에 가라앉힌 후 볶에 말린다》주사《5푼》아초《5푼》해표초《7푼, 불로 구운 것, 맛이 담담하고 흰색인 것은 쓰지 않는다》백정향《5푼, 즉 참새의 똥, 볼록하고 무른 것》혈갈《5푼》명반《1돈, 불에 말린 것》강분《7푼, 생강즙을 걸러내고 볶에 말린 것》편뇌《약간》사향《약간》.

除片腦及麝香隨時加減外, 其餘藥二十三味, 通共一處, 並研至細膩, 細絹篩過, 賦作一罐, 謂之卷雲丹, 即陰丹也. 惟此一料卷雲丹, 以陰陽動靜用之, 或可加可減, 斟酌膜之厚薄, 鬪之遠近, 假如年久麝膜厚者, 加以陰丹減陽丹, 若使麝膜薄者, 或乍發不久者, 又加以陽丹減以陰丹. 外障諸症不出此藥, 百試百驗, 無不效, 眞乃濟世之靈寶也.

편뇌와 사향은 때에 따라 가감하고, 그 외에 나머지 23가지는 다 한데 합쳐서 아주 매끄러울 정도로 갈아 고운 비단으로 거른 후 한 단지에 저장하니, 권운단(卷雲丹)이라 하며 곧 음단(陰丹)이다. 이 권운단은 음양(陰陽)의 동정(動靜)에 따라 더할 수도 줄일 수도 있으니, 막(膜)의 두께와 예(麝)를 얇은 기간을 참작하여, 오래되고 예막(麝膜)이 두터우면 음단(陰丹)을 늘리고 양단(陽丹)을 줄이며, 예막(麝膜)이 얕거나 갑자기 발생하여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양단을 늘리고 음단을 줄인다. 외장(外障)의 모든 병증이 이 약에서 벗어나지 않아, 백번 시험하여 백번 효험이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함이 없었으니, 진실로 세상을 구제하는 영보(靈寶)이다.

### 2.28.3.1. 珍珠散 | 진주산

治一切膜障眼.

일체의 막(膜)이 눈을 가리는 것을 치료한다.

乳香《製過》沒藥《製過》珍珠《製過, 以上各一錢五分》硼砂《枯過, 一錢》輕粉《一分半》麝香《七厘》銅青《五分》牙硝《二分半》朱砂《一錢五分》片腦《二分》血竭《五分》膽礬《二分半》枯礬《二分半》白丁香《二分》蕤仁《二錢, 新竹筒盛, 於文武火煅, 去殼油, 筒兩頭亦要紙封固, 取出去白皮, 乃去油, 研用》琥珀《八分, 買時以一點研將礬脚, 點放火上燒化爲青煙者, 氣倣松香, 其色蠹紅乃爲眞也》

유향《법제한 것》몰약《법제한 것》진주《법제한 것, 이상 각 1돈 5푼》봉사《불에 말린 것, 1돈》경분《1푼 반》사향《7리》동청《5푼》아초《2푼 반》주사《1돈 5푼》편뇌《2푼》혈갈《5푼》담반《2푼 반》고반《2푼 반》백정향《2푼》유인《2돈,

새 죽통에 채워서 적당한 불에 구워 껌질과 기름을 제거하는데, 통의 양쪽 끝은 또한 종이로 단단하게 봉해야 하며, 꺼내어서 흰 껌질을 제거한 후 비로소 기름을 제거하고 갈아서 쓴다》호박《8푼, 살 때에 조금 갈아서 비녀 끝에 묻혀 불에 위에 두고 태워보아서 푸른 연기가 나는데 연기가 소나무 향을 내며 그 색이 황적색인 것이 진품이다》

上精製爲極細末. 配童子小便浸三黃水煮. 甘石爲陽丹聽用. <sup>309</sup>

이상을 정제하여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다. 동변(童便)에 담갔던 황련, 황금, 황백을 물에 삶은 것과 배합한다. 감석(甘石)은 양단(陽丹)이니 그대로 쓴다.

怕 日羞明多淚, 並 皆治之. 卻 將黃連末熊膽牛黃蕤 仁四件, 用長流水 <sup>310</sup> 一大碗, 於磁器內熬至半碗, 用重棉布濾去渣. 量意入蜜二兩, 文武火熬至紫色, 蘸 起牽絲爲度, 不可太過不及. 將方龍腦硼砂收貯在磁器封固, 土埋七日出火毒. 用時將銅簪蘸 點於眼內少許, 日點三次, 忌動風之物.

눈이 부셔 핫빛을 꺼리며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을 모두 치료한다. 또 황련 가루와 응담, 우황, 유인 4가지를 큰 사발 하나 분량의 장류수(長流水)와 함께 사기 그릇 안에 넣고 물이 반 사발로 줄도록 졸이며, 겹친 면포로 걸러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살펴 가며 꿀 2냥을 넣고,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불로 자색이 될 때 까지 졸이니, 찍어 보았을 때 실처럼 당겨 올라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과하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용뇌, 봉사와 함께 사기그릇에 담고 단단히 봉하여 땅에 7일간 묻어서 화독(火毒)을 빼낸다. 사용할 때는 구리비녀로 찍어서 눈 속에 조금씩 점안하는데, 하루에 3차례씩 점안하고 풍(風)을 동(動)하게 하는 음식을 피한다.

### 2.28.3.2. 灵妙應痛膏 | 영사응통고

此膏治眼疼痛暴發不可忍者.

이 고약(膏藥)은 눈의 통증이 갑자기 발작하여 참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蕤仁《一百粒, 去皮油》朱砂《飛, 一錢》片腦《一字<sup>311</sup>》乳香《如棗核大》硼砂《一錢》

유인《100개, 껍질과 기름을 제거》주사《수비한 것, 1돈》편뇌《1자(字)》유향  
《대추씨만 한 것》봉사《1돈》.

上將前藥俱爲細末, 調蜂蜜爲膏子, 以銅簪點之, 一二次其痛即止.

이상의 약들을 모두 곱게 갈아서 벌꿀에 개어 고(膏)를 만들며, 구리비녀로 점안하는데, 1~2차례 넣으면 통증이 그친다.

#### 2.28.3.3. 神仙碧霞丹 | 신선벽하단

銅綠<sup>312</sup>《一兩》當歸《二錢》沒藥《二分, 製過》麝香《二分》馬牙硝《五分》乳香《五分, 製過》黃連《末, 二錢》片腦《二分》白丁香《二分》一方無後二味.

동록《1냥》당귀《2돈》몰약《2푼, 법제한 것》사향《2푼》마아초《5푼》유향《5푼, 법제한 것》황련《가루, 2돈》편뇌《2푼》백정향《2푼》. 어떤 처방에는 뒤에 두 약물이 없다.

上將前藥俱研爲末, 煎黃連膏子爲丸, 如龍眼核大. 用時將一丸涼水化開, 日點二次, 六次效.

이상의 약물 중 앞의 것들을 모두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황련은 졸여서 고(膏)를 만들어, 용안핵(龍眼核) 크기의 환을 빚는다. 사용할 때에 1환을 냉수에 녹여 하루에 2번 점안하며, 6번이면 효과가 있다.

#### 2.28.3.4. 吹雲丹<sup>313</sup> | 취운단

治目中淚及迎風, 並羞明怕日, 常欲閉目在暗室, 塞其牖竅, 成歲久遮睛, 此藥多點神效.

눈물이 나거나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것과 눈이 부셔 햇빛을 꺼리는 것을 치료하니, 항상 눈을 감고 어두운 방에서 창문을 가리고 있으려 드는 경우, 오래되어 눈알이 다 가려졌을 때 이 약을 많이 점안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細辛 升麻 薤仁《各二分》青皮 連翹 防風《各四兩》柴胡《五分》甘草 當歸《各六錢》  
揀黃連《三錢》荊芥穗《一錢, 絞取濃汁》生地黃《一錢五分》

세신, 승마, 유인《각 2푼》청피, 연교, 방풍《각 4냥》시호《5푼》감초, 당귀《6돈》추려낸 황련《3돈》형개수《1돈, 짜서 진한 즙을 취한다》생지황《1돈 5푼》.

上將咬咀, 除連翹外, 用淨水二碗, 先熬餘藥, 重半碗入連翹同煎. 至大盞許去渣, 入銀石器內, 文武火熬, 至滴水內成珠不散爲度, 煉熟蜜少許熬用之.

이상을 썰어서, 연교를 제외한 나머지 약들을 깨끗한 물 두 사발에 먼저 달여 서 반 사발이 되면 연교를 넣어 함께 달인다. 큰 잔 하나 분량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은그릇이나 돌그릇 안에 넣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불로 졸여, 물속에 떨어뜨려보면 구슬처럼 맷혀 흘어지지 않는 정도가 되도록 하고, 숙성된 꿀을 끓여서 약간 넣고 졸여서 쓴다.

### 2.28.3.5. 摳鼻散<sup>314</sup> | 후비산(흑비산)

黃柏 黃芩 黃連

황백, 황금, 황련.

煉煮罐內三黃同便以乾爲度, 取出. 又以龍膽草水洗浸一宿晒乾. 甘石即三黃丹聽用<sup>315</sup>. 以前珍珠散藥末爲極細末, 再不必用製, 配合三黃聽用.

황백, 황금, 황련을 동변과 함께 항아리에 담아 푹 삶아서 마르면 꺼낸다. 또 용담초 달인 물에 씻고 담가 하룻밤 묵힌 후 볶에 말린다. 감석(甘石)은 즉 삼황단(三黃丹)이니 그대로 쓴다. 앞의 진주산(珍珠散) 약가루는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었으니 다시 손질할 필요가 없고 황백, 황금, 황련을 배합하여 그대로 쓴다.

### 2.28.3.6. 珍珠散 | 진주산

此能退翳, 翳厚者點之. 合此藥硼砂要枯過用.

이것은 예(翳)를 없앨 수 있으니, 예(翳) 가 두터운 경우에 점안한다. 이 약을 만들 때 봉사는 불에 말려서 쓴다.

一倍三黃丹, 一倍珍珠散, 腦麝硼砂臨時放量度下.

삼황단(三黃丹)과 진주산(珍珠散)을 같은 양으로 하고, 용뇌, 사향과 봉사는 사용할 때에 적당히 헤아려 넣는다.

如要輕些, 一倍三黃丹, 一倍珍珠散, 腦麝硼砂如前.<sup>316</sup>

가볍게 하려는 경우에는 삼황단과 진주산을 같은 양으로 하고, 용뇌, 사향, 봉사를 앞의 방법대로 한다.

再要輕些, 陽丹一倍, 三黃丹一倍, 珍珠散一倍, 上三樣共合腦麝硼砂亦要.

더욱 가볍게 하려면 양단(陽丹), 삼황단, 진주산을 같은 양으로 하니, 이상 세 가지를 모두 합하고 용뇌, 사향, 봉사도 필요한대로 넣는다.

305. 對交丹 : 陽丹과 陰丹을 1:1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의 九一, 二八 등 도 모두 양단 : 음단의 배합 비율을 나타낸다. ↪

306. 經曰 : [集成] : 鼎本에는 ‘紅白’으로 되어 있다. (역주) ‘經曰’로 보면 文義가 불분명하므로 鼎本을 따라 번역하였다. ↪

307. 吹去膏 : 四庫全書本에는 ‘吹雲膏’로 되어 있다. 吹雲膏은 『蘭室秘藏』에 나오는 點眼藥이다. 本書에도 뒤에 吹雲丹이 나오는데 구성이 吹雲膏와 일치하니, ‘去’는 ‘雲’의 잘못일 것이다. ↪

308. 節 : 문맥으로 보아 ‘篩’의 잘못이다. ↪

309. 甘石爲陽丹聽用 : 甘石, 陽丹과 珍珠散의 관계를 직접 서술하지 않았으므로 이 구절은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없다. ←

310. 長流水 : 큰 강줄기 등의 멀리서 흘러온 물. ←

311. 字 : 중량의 단위. 1字는 1錢의 1/4이다. ←

312. 銅綠 : 구리에 슨 녹. 銅青과 같다. ←

313. 吹雲丹 : 『蘭室秘藏』에 나오는 吹雲膏와 같다. ←

314. 搗鼻散 : 구성은 다르나 앞에도 같은 처방명이 나왔다. 여기서는 따로 복용법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앞의 처방과 마찬가지로 이름 자체가 ‘코로 들이마시는 처방’이라는 뜻이라면 ‘嚙鼻散’으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

315. 甘石即三黃丹聽用 : 이 구절은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없다. ←

316. 如要輕些.....腦麝硼砂如前 : 앞의 방법과 다른 점이 전혀 없으니, 脫誤가 있는 것 같다. ←

## 2.29. 合丹日切要法 | 단약(丹藥)을 만들 때의 긴요한 법도

其合丹之日, 要天清日朗. 更擂 諸藥要細, 篩而又篩方妙.

단(丹)을 만드는 날은 날씨가 맑고 환해야 한다. 또 모든 약들은 곱게 갈아야 하니, 체에 내리고 또 내려야만 효과가 좋다.

九一丹 九匙陽丹 一匙陰丹

구일단(九一丹) : 9 숟가락의 양단(陽丹), 1 숟가락의 음단(陰丹)

二八丹 八匙陽丹 二匙陰丹

이팔단(二八丹) : 8 숟가락의 양단(陽丹), 2 숟가락의 음단(陰丹)

三七丹 七匙陽丹 三匙陰丹

삼칠단(三七丹) : 7 숟가락의 양단(陽丹), 3 숟가락의 음단(陰丹)

四六丹 六匙陽丹 四匙陰丹

사육단(四六丹) : 6 숟가락의 양단(陽丹), 4 숟가락의 음단(陰丹)

以上丹藥俱腦麝硼砂枯煅 過, 臨時量度加減放.

이상의 단약(丹藥)에는 모두 편뇌, 사향과 불에 말린 봉사를 때에 따라 가감하여 넣는다.

假如二八丹, 陽丹八匙, 陰丹二匙, 用片腦三厘, 枯過硼砂四厘, 射香二厘.

가령 이팔단(二八丹)은 양단 8숟가락에 음단 2숟가락인데, 편뇌 3리와 불에 말린 봉사 4리, 사향 2리를 넣는다.

九一丹, 陽丹九匙, 陰丹一匙, 枯過硼砂五厘, 片腦三厘, 麝香一厘, 能止淚去翳.

구일단(九一丹)은 양단 9숟가락에 음단 1숟가락인데, 불에 말린 봉사 5리, 편뇌 3리, 사향 1리를 넣으면 눈물을 멎게 하고 예(翳)를 없앨 수 있다.

### 2.29.1. 淸涼散 | 청량산

即 陽丹十匙, 硼砂六厘生用, 片腦三四厘, 射香三厘, 其腦麝硼砂, 點時合丹量度下.

곧 양단(陽丹) 10숟가락에 봉사 생것 6리, 편노 3~4리, 사향 3리를 넣은 것인데, 편노, 사향, 봉사는 점안할 때에 단약(丹藥)을 배합하면서 알맞게 넣는다.

### 2.29.2. 碧雲丹 | 벽운단

即 清涼散加銅綠, 亦要腦射, 或加枯礬少許. 能去翳膜用.

곧 청량산(淸涼散)에 동록을 더한 것인데, 편노, 사향은 필요하고 고반을 약간 더하기도 한다. 예막(翳膜)을 없애고자 하는데 쓴다.

### 2.29.3. 卷雲丹 | 권운단

即 陰丹, 如遇眼勾剪大小眦, 頭暉, 可將藥調液點, 退血.

곧 음단(陰丹)이니, 만약 눈구석과 눈초리가 갈라지고 찢어지며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 이 약을 액체에 타서 눈에 넣을 수 있으니, 악혈(惡血)을 없앤다.

又有一丹. 點能退翳.

또 다른 단약(丹藥). 점안하여 예(翳)를 없앨 수 있다.

卷雲丹《一匙》陽丹《半匙》薑粉《三分》飛礬《半分》燒過鹽《一分半》共合點之.

권운단(卷雲丹)《한 숟가락》양단(陽丹)《반 숟가락》생강가루《3푼》수비(水飛)한 백반《반 푼》불에 태운 소금《1푼 반》을 모두 합하여 점안한다.

### 2.29.4. 七寶散 | 칠보산

琥珀 珍珠《各三錢》硼砂《五分》珊瑚《一錢五分》朱砂 硼砂《各五分》玉屑《一錢》  
蕤仁《三十粒》片腦 麝香《各一分》

호박, 진주《각 3돈》봉사《5푼》산호《1돈 5푼》주사, 요사《각 5푼》옥 부스러기  
《1돈》유인《30개》편뇌, 사향《각 1푼》.

上將前藥俱細研>石+禹>如塵埃, 方入麝香, 片腦, 蔡仁三件, 再研熟, 官絹篩過於  
罐內, 臨臥時, 以銅簪挑一米大許, 點於有翳膜處.

이상의 약 중 앞의 것들을 모두 곱게 갈아 티끌과 같이 되면 사향, 편뇌, 유인 3  
가지를 넣어 다시 충분히 갈며, 좋은 비단으로 항아리 안에 체로 내려서, 잠자  
리에 들 때 구리비녀로 쌀 한 틀만큼 떠서 예막(翳膜)이 있는 데에 묻힌다.

## 2.29.5. 撥雲散 | 발운산

爐甘石《煉過, 二兩》黃丹《製過, 二兩》川烏《一兩五錢》犀角《一兩》乳香 沒藥 硼  
砂 青鹽《各一錢五分》硼砂 血竭 輕粉 鷹屎《各二錢》片腦《五分》麝香《五分》蕤仁  
《去殼, 一錢五分》

노감석《제련한 것, 2냥》황단《법제한 것, 2냥》천오《1냥 5돈》서각《1냥》유향,  
몰약, 요사, 청염《1돈 5푼》봉사, 혈갈, 경분, 매의 뚉《각 2돈》편뇌《5푼》사향  
《5푼》유인《껍질을 제거, 1돈 5푼》.

上將前藥如法精製, 共研和勻極膩, 以羊角罐<sup>317</sup>收貯. 但有翳膜者, 以銅簪每夜臨  
臥點二次, 極厚者亦能去也.

앞의 약들은 법에 따라 정제하고, 모두 갈아서 고르게 섞이고 아주 매끄럽도록  
하여 양각관(羊角罐)에 담아둔다. 예막(翳膜)이 있는 경우에만 구리비녀로 매  
일 잠자리에 들 때 2번씩 눈에 넣으니, 아주 두터운 것도 없앨 수 있다.

317. 羊角罐 : 밑이 불룩하고 목은 잘록하며 양의 뿔처럼 양옆에 구부러진 손

잡이가 있는 항아리이다. ↵

## 2.30. 治諸眼一切點眼膏藥 | 모든 눈병을 치료하는 일체의 점안고약

### 2.30.1. 千金勝極膏 | 천금승극고

爐甘石《煉過》黃連《末, 六錢》川烏《泡去皮, 六錢》銅青《好的, 二錢》川薑《煨去皮, 六錢》鷹屎《二錢》沒藥《製過》黃丹《各一錢》乳香《製過, 一錢》血竭《一錢》硼砂《五分》龍腦《五分》麝香《二分》蕤仁《去皮油淨, 六錢》

노감석《제련한 것》황련《가루, 6돈》천오《물에 불려 껍질 제거, 6돈》동청《좋은 것, 2돈》천강《싸서 구워 껍질 제거, 6돈》응시《2돈》몰약《법제한 것》황단《각 1돈》유향《법제한 것, 1돈》혈갈《1돈》봉사《5푼》용뇌《5푼》사향《2푼》유인《껍질과 기름을 깨끗이 제거, 6돈》.

上將前藥俱爲末. 冬蜜一斤, 沙罐內溶開, 生絹濾過去蠟煎熬, 用棍棒不住手攢熬至紫色, 滴水不散, 將前藥末入內攢勻. 取出於青石上鐵捶可打千餘下, 或爲錠子, 或爲丸子, 不拘作法. 遠年近日疼痛風濕難開諸症, 將一丸溫水化開, 或點眼, 或作錠子磨水點之極效. 又或爲膏於紙上貼兩太陽穴, 散血尤妙.

이상 앞의 약들을 모두 가루로 만든다. 겨울에 채취한 꿀 한 근을 사기항아리에 녹이고, 삶지 않은 실로 짠 거친 비단에 걸러 밀랍을 제거하고 끓이는데, 막 대기로 쉬지 않고 저으면서 자색이 되도록 졸여 물에 떨어뜨렸을 때 흘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앞의 약 가루를 넣고 고루 휘젓는다. 청석(青石)위에 꺼내 놓고 쇠방망이로 천 번 남짓 짚어서, 정제(錠劑)로 만들거나 혹은 환제(丸劑)로 하니, 만드는 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오래되었거나 근래에 생긴 통증과 풍습(風濕)으로 눈을 뜨기 어려운 모든 증상에 1환을 더운물로 녹여서 점안하거나 혹은 정(錠)으로 만든 것에 물을 넣고 갈아서 점안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 또는 고(膏)를 만들어 종이에 펴발라서 양쪽 태양혈(太陽穴)에 붙이면 혈(血)을 흘리는 데에 더욱 좋다.

### 2.30.2. 熊膽膏 | 웅담고

熊膽《一錢, 眞者, 其色如砂糖樣帶潤濕色, 吃在口內味苦又涼, 即 真者》牛黃《一錢》龍膽《五分, 即 蘇州薄荷, 其葉三四指, 大如羊葉<sup>318</sup> 相似》蕤仁《去油, 一錢》硼砂《一錢》黃連《爲末, 二兩》

웅담《1돈, 진품은 그 색이 설탕처럼 윤기 있고 촉촉한 빛을 띠며, 먹으면 입안에서 맛이 쓰면서 또한 서늘한 것이 진품이다》우황《1돈》용담《5푼, 곧 소주박하인데 그 잎은 3~4갈래이며 크기는 양엽(羊葉)과 비슷하다》유인《기름을 제거, 1돈》봉사《1돈》황련《가루로, 2냥》.

此膏治男女遠年近日內外障膜赤爛, 天行時氣, 暴發赤腫.

이 고약(膏藥)은 남자나 여자의 오래되었거나 근래에 생긴 안팎의 장막(障膜)과 붉게 짓무른 것,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사기(邪氣)로 갑자기 벌겋게 부은 것을 치료한다.

### 2.30.3. (無名) | (처방명이 없음)

治眼腫紅, 痛澁難開. 若用剉洗之後, 可吹鼻中, 先含水一口, 然後吹之, 以通其氣, 散其風邪.

눈이 붓고 붉으며 아프고 깔깔하여 뜨기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 찌르고 씻기를 행한 후에는 콧속에 불어넣을 수 있으니, 먼저 물을 한 입 머금은 후에 불어넣어 그 기(氣)를 통하여 함으로써 풍사(風邪)를 흩어낸다.

鵝不吃草<sup>319</sup>《二兩》川芎 白芷 石菖蒲 蔓荊子《各三錢》細辛 牙皂 全蠍《各一錢》鬱金《三錢》

아불식초《2냥》천궁, 백지, 석창포, 만형자《각 3돈》세신, 조각, 전갈《각 1돈》울금《3돈》.

上爲細末, 罐內收貯, 勿令泄氣, 以備後用.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항아리에 담아서 기운이 새지 않도록 저장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

#### 2.30.4. 五黃膏 | 오황고

治目腫痛澁, 欲以冷洗應驗.

눈이 붓고 아프며 깔깔한 것을 치료하며, 찬물로 씻으려 드는 경우 효과가 있다.

好黃連 黃芩 黃柏 大黃 黃丹

좋은 황련, 황금, 황백, 대황, 황단.

上爲細末, 以芙蓉葉, 用冷水或煎茶調, 貼二太陽穴.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냉수나 찻잎 끓인 물에 개어 부용엽에 발라서 양쪽 태양혈(太陽穴)에 붙인다.

#### 2.30.5. 白斂膏 | 백렴고

好白芨 小白芷 白斂

좋은 백芨, 작은 백지, 백렴.

上爲末, 牛脂熬成膏, 如前敷貼.

이상을 가루로 만들고 쇠기름에 볶아서 고를 만들어, 앞의 방법대로 붙인다.

#### 2.30.6. 四生散 | 사생산

治眼目被物刺傷或摸損.

눈이 찔리거나 쓸려서 다친 것을 치료한다.

生地黃 生薄荷 生艾葉 生當歸 朴硝

생지황, 생박하, 생애엽, 생당귀, 박초.

上共搗爛, 貼眼眶並 患處.

이상을 모두 짓찧어서 눈언저리 및 환부에 붙인다.

### 2.30.7. 神仙散 | 신선산

治頭目昏眩, 偏風痛極.

머리와 눈이 어둡고 어지러우며 편풍(偏風)으로 통증이 극심한 것을 치료한다.

甜 瓜蒂 焰硝 蒼耳子 川芎 薄荷 藜蘆 鬱金 雄黃

참외꼭지, 염초, 창이자, 천궁, 박하, 여로, 울금, 응황.

上將前爲末, 口含水吹一字<sup>320</sup>入鼻中. 令患者含水一口, 方吹藥入患者鼻中.

이상의 약들을 가루로 만들고, 입에 물을 머금고 1자(字)를 콧속으로 불어넣는다. 환자로 하여금 물을 한 입 머금게 하고서 비로소 약을 환자의 콧속으로 불어넣어준다.

### 2.30.8. 碧天丹 | 벽천단

專治遠年近日爛弦風眼.

오로지 오래되거나 근래에 발생한 난현풍안(爛弦風眼)을 치료한다.

銅青《五錢》明礬《四錢》五倍子《一錢》白墡 土《一錢》海螵蛸《一錢》薄荷葉《五分》

동청《5돈》명반《4돈》오배자《1돈》백선토《1돈》해표초《1돈》박하엽《5푼》.

上將此六味俱爲末, 用老薑汁攪和爲丸, 如圓眼核<sup>321</sup>大. 要用時將一丸淡薑湯一盞泡散, 洗眼弦, 次日再洗, 依此洗三四次即愈.

이상의 6가지 약을 모두 가루로 만들고, 묵은 생강의 즙에 섞어 용안핵(龍眼核) 크기의 환을 만든다. 사용할 때에 1환을 묵은 생강탕 한 잔에 풀어서 눈시울을 씻고 다음날 다시 씻어서 이와 같이 3~4차례 씻으면 곧 낫는다.

### 2.30.9. 八仙丹 | 팔선단

治爛眼弦風有蟲癢 甚效.

난현풍(爛弦風)을 치료하며, 헐고 가려운 것이 있을 때 효과가 아주 좋다.

當歸《七分》銅綠《一錢》薄荷《七分》白礬《一錢》黃連 五倍子 焰硝《各五分》輕粉《二分》

당귀《7푼》동록《1돈》박하《7푼》백반《1돈》황련, 오배자, 염초《각 5푼》경분《2푼》.

上爲極細末, 以絹篩, 用絹包約龍眼核大, 泡洗日三五次.

이상을 아주 곱게 갈아서 비단으로 체를 치고, 비단으로 싸서 용안핵 크기가 되도록 묵는다.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하루에 3~5차례 씻는다.

318. 羊葉 :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

319. 鵝不吃草 : 鵝不食草. ↵

320. 字 : 중량의 단위. 1字는 1/4錢이다. ↵

321. 圓眼核 : ‘龍眼核’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



## 2.31. 藥性論 | 약성론

### 2.31.1. 當歸 | 당귀

味甘性溫, 入心肝二經. 尾能破血, 頭養血, 全用活血, 热者不可用, 製用酒洗.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심경(心經)과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꼬리는 어혈(瘀血)을 깨뜨리고 머리는 혈(血)을 기르며, 전체를 쓰면 혈(血)을 원활하게 한다. 열(熱)이 있으면 쓰지 못하고, 법제는 술로 씻는다.

### 2.31.2. 川芎 | 천궁

味辛性溫, 入肝經. 上行頭角, 助陽氣止痛, 下行血海, 能養血, 如氣旺者不可用.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두각(頭角)으로 올라가서 양기(陽氣)를 도와 통증을 멎게 하며, 혈해(血海)로 내려가서 혈(血)을 기르니, 기(氣)가 왕성한 경우에 써서는 안 된다.

### 2.31.3. 赤芍藥 | 적작약

味苦辛性寒, 入肝經. 能散血<sup>322</sup>行血, 去赤膚止痛.

맛은 쓰고 매우 차고 성질은 차고,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혈(血)을 흘리고 운행 시켜서 피부가 벌겋게 된 것을 없애고 통증을 멎게 한다.

### 2.31.4. 白芍藥 | 백작약

味苦酸性寒, 入肝經. 能補脾損肝氣, 能養肝血瀉肝火, 如肝虛火衰者不可用.

맛은 쓰고 시며 성질은 차고,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비(脾)를 보(補)하고 간기(肝氣)를 덜며, 간혈(肝血)을 기르고 간화(肝火)를 내리니, 간(肝)이 허(虛)하고 화(火)가 쇠약하면 쓰지 못한다.

#### 2.31.5. 熟地黃 | 숙지황

味甘性溫, 入心經肝經. 補血. 如熱者不可用. 用酒蒸, 杵爛爲餅, 晒乾, 研爲末作丸, 如不作丸勿蒸.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심경(心經)과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혈(血)을 보(補)한다. 열이 있으면 쓰지 못한다. 술에 찌고 짓찧어 떡을 만들어서 볶에 말린 후 갈아서 환을 빚는데, 환을 만들지 않을 경우는 찌지 않는다.

#### 2.31.6. 黃柏 | 황백

味苦寒, 入腎經. 補腎降相火, 如火衰不可用.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신(腎)을 보(補)하여 상화(相火)를 내리니 화(火)가 쇠약하면 쓰지 못한다.

#### 2.31.7. 龍膽草 | 용담초

味苦性涼, 入肝經. 益肝膽氣, 治目赤腫, 除胃家伏熱.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하며,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간담(肝膽)의 기(氣)를 북돋아 눈이 벌겋게 붓는 것을 치료하고, 위(胃)에 잠복한 열(熱)을 제거한다.

#### 2.31.8. 半夏 | 반하

除濕化痰和胃氣, 利胸膈, 治太陰頭痛. 製用薑汁炒.

습(濕)을 없애고 담(痰)을 낙이며, 위기(胃氣)를 조화롭게 하고 흉격(胸膈)을 원활하게 하며, 태음두통(太陰頭痛)을 치료한다. 법제는 생강즙에 볶는다.

### 2.31.9. 羌活 | 강활

入膀胱經. 治頭痛, 去風邪, 降肝氣. 肝虛不用.

방광경(膀胱經)으로 들어간다. 두통을 치료하고 풍사(風邪)를 제거하며 간기(肝氣)를 내린다. 간허(肝虛)하면 쓸 수 없다.

### 2.31.10. 防風 | 방풍

味甘辛性熱, 入膀胱經. 以體用通療諸風, 以氣味能瀉肺經.

맛은 달고 매우며 성질은 뜨겁고, 방광경(膀胱經)으로 들어간다. 체용(體用)으로써 모든 풍(風)을 치료하고 기미(氣味)로써 폐경(肺經)을 사(瀉)한다.

### 2.31.11. 黃連 | 황련

味苦寒, 入心經. 能瀉心火, 凉血, 去中焦熱, 厚腸胃.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심화(心火)를 사(瀉)하고 혈(血)을 서늘하게 하며, 중초(中焦)의 열(熱)을 없애고 장위(腸胃)를 튼튼하게 한다.

### 2.31.12. 大黃 | 대황

味苦寒, 入胃經. 有推牆倒壁之功, 能消腫, 去其皮膚之熱. 實者生用, 虛者酒蒸, 久患虛腫者勿用.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위경(胃經)으로 들어간다. 막힌 것을 밀어내어 뚫는 작용이 있어 부은 것을 가라앉히며 피부의 열을 없앤다. 실(實)한 사람은 생으로 쓰고 허(虛)한 사람은 술에 쪄서 쓰며, 오래 앓았거나 허하여 부은 경우에는 쓸 수 없다.

### 2.31.13. 生地黃 | 생지황

入心經. 治血熱, 生新血, 散瘀血, 凉血. 血寒者勿用.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혈열(血熱)을 치료하고 새 혈(血)을 만드니, 어혈(瘀血)을 흡고 혈(血)을 서늘하게 한다. 혈(血)이 찬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 2.31.14. 麻黃 | 마황

入肺經. 去風寒, 退邪熱, 開九竅發表.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풍한(風寒)을 없애고 사열(邪熱)을 물리치며 구규(九竅)를 열고 표(表)의 사기(邪氣)를 발산시킨다.

### 2.31.15. 白芷 | 백지

味辛性熱, 入腸經<sup>323</sup>. 去風止痛, 治足陽明頭痛, 去肺肝二經發熱.

맛은 맵고 성질은 뜨거우며, 대장경(大腸經)으로 들어간다. 풍(風)을 없애고 통증을 멎게 하며, 족양명(足陽明)의 두통을 치료하고, 폐경(肺經)과 간경(肝經)에서 나는 열을 제거한다.

### 2.31.16. 細辛 | 세신

味辛性熱, 入心經. 能去風止淚, 頭痛, 益肝膽通竅. 去葉用.

맛은 맵고 성질은 뜨거우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풍(風)을 없애고 눈물을 멎게 하며, 두통에 간담(肝膽)을 복돋아 칠규(七竅)를 통하게 한다. 잎은 떼고 사용한다.

### 2.31.17. 山梔子 | 산치자

味苦, 入肺經. 瀉肺火, 除五臟熱. 目熱赤腫宜用, 要炒.

맛은 쓰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폐화(肺火)를 사(瀉)하고 오장(五臟)의 열(熱)을 제거한다. 눈에서 열이 나면서 벌겋게 붓는 데에 적합하며, 초(炒)해야 한다.

### 2.31.18. 木賊 | 목적

味甘, 入肺經. 去膜翳, 益肝膽, 明目去風, 通竅止淚.

맛은 달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예막(翳 膜)을 없애고 간담(肝膽)을 복돋아 눈을 밝게 하고 풍(風)을 없애며, 칠규(七竅)를 통하게 하고 눈물을 멎게 한다.

### 2.31.19. 蒼朮 | 창출

味辛性溫, 入胃經. 平胃氣去風邪, 去濕止淚, 發散, 用米泔 水浸, 一日一換, 水浸炒乾用.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위경(胃經)으로 들어간다. 위기(胃氣)를 안정시키고 풍사(風邪)를 제거하며, 습(濕)을 없애 눈물을 멎게 하고, 발산시킨다. 쌀뜨물에 담가 하루에 한 번씩 쌀뜨물을 갈아주며, 물에 담갔다가 볶아 말려서 쓴다.

### 2.31.20. 瞽麥 | 구막

味苦, 入小腸經. 去膀胱熱, 養腎氣, 明目利小便.

맛은 쓰며, 소장경(小腸經)으로 들어간다. 방광(膀胱)의 열(熱)을 없애고 신기(腎氣)를 기르며, 눈을 밝게 하고 소변을 원활하게 한다.

### 2.31.21. 黃芪 | 황기

味甘性溫, 入脾經. 行氣固表虛, 血滯不行. 宜用蜜浸火炙, 研爲末作丸. 如不作丸, 勿如此.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비경(脾經)으로 들어간다. 기(氣)를 운행시키고 표(表)가 허(虛)한 것을 굳게 하며 혈(血)이 막히고 잘 돌지 못하는 것에 쓴다. 꿀에 담갔다가 불에 구워서 사용해야 하며, 갈아서 가루를 내어 환을 만든다. 환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 2.31.22. 滑石 | 활석

入小腸經. 能降上炎之火, 通九竅利小便.

소장경(小腸經)에 들어간다. 타오르는 화(火)를 내리고 구규(九竅)를 통하게 하며 소변을 원활하게 한다.

### 2.31.23. 車前子 | 차전자

味甘鹹性寒, 入小腸經. 清利小便, 去肝經風熱.

맛은 달고 짜며 성질은 차고, 소장경(小腸經)으로 들어간다. 소변을 맑고 원활하게 하며 간경(肝經)의 풍열(風熱)을 없앤다.

#### 2.31.24. 石決明 | 석결명

入肝經. 去目障明目, 有沈墜之功. 肝虛者不用. 火煅 極紅爲度.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눈의 장(障)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하며,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다. 간(肝)이 허(虛)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새빨갛게 될 때까지 불에 달군다.

#### 2.31.25. 靑葙 子 | 청상자

性微寒, 入肝經. 瀉熱上衝, 去赤障, 肝虛不用. 製用酒洗.

성질은 약간 차고,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열(熱)이 위로 치받는 것을 사(瀉)하고 붉은 예장(翳 障)을 없애는데, 간허(肝虛)하면 쓰지 않는다. 법제는 술로 씻는다.

#### 2.31.26. 草決明 | 초결명

入肝經. 治肝熱, 热痛淚出, 明目, 肝虛不用.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간열(肝熱)로 화끈거리고 아프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 간허(肝虛)하면 쓰지 않는다.

#### 2.31.27. 白蒺 蕺 | 백질려

不入湯藥, 宜丸. 入肝經. 明目去風止癢. 炒杵去刺用.

탕약에는 넣지 않고, 환약에 적합하다.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눈을 밝게 하고 풍(風)을 없애며 가려움을 멎게 한다. 볶은 다음 찧어서 가시를 제거하고 쓴다.

### 2.31.28. 牧丹皮 | 목단피

味苦寒, 入腎經. 瀉陰火陽火, 能涼心血, 能行滯血, 止痛.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우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음화(陰火)와 양화(陽火)를 사(瀉)하고 심혈(心血)을 식히며 막힌 혈(血)을 운행시키고 통증을 멎게 한다.

### 2.31.29. 地骨皮 | 지골피

味苦寒, 入腎經. 退熱除蒸, 瀉肺熱宜用.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증열(蒸熱)을 없애니, 폐열(肺熱)을 사(瀉)할 때 적합하다.

### 2.31.30. 桑白皮 | 상백피

味甘, 入肺經. 除肺熱, 瀉肺氣. 肺寒不用.

맛은 달고, 폐경(肺經)에 들어간다. 폐열(肺熱)을 없애고 폐기(肺氣)를 사(瀉)한다. 폐(肺)가 찬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31.31. 麥門冬 | 맥문동

味甘寒, 入肺經. 治肺熱, 去肺腑火, 又清心竅.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폐열(肺熱)을 다스리고 폐부(肺腑)의 화(火)를 제거하며, 또한 심규(心竅)를 맑게 한다.

### 2.31.32. 密蒙花 | 밀몽화

味甘, 入肝經. 去目中赤脈眵淚, 能明目.

맛은 달고,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눈의 핏발과 눈곱, 눈물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한다.

### 2.31.33. 烏藥 | 오약

入肝經. 能順氣行氣去風.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기(氣)를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고 풍(風)을 없앤다.

### 2.31.34. 胡黃連 | 호황련

味苦寒, 入肝經. 退骨熱潮熱, 補肝膽明目. 能治小兒疳傷不下食, 霍亂熱痢疾, 小兒藥多用之.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우며,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골열(骨熱)과 조열(潮熱)을 물리치고 간(肝)과 담(膽)을 보(補)하여 눈을 밝게 한다. 소아가 감병(疳病)으로 음식을 내려보내지 못하는 것, 꽉란(霍亂)과 열(熱), 이질(痢疾)을 치료하니 소아의 약에 많이 사용한다.

### 2.31.35. 蔓荊子 | 만헝자

味苦寒, 入三焦. 治頭疼, 眼睛痛, 能明目, 開鬱降火.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삼초(三焦)로 들어간다. 머리가 아프고 눈동자가 아픈 것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하며 울체된 것을 열고 화(火)를 내릴 수 있다.

### 2.31.36. 枸杞子 | 구기자

味甘, 入腎經. 补腎明目, 去目中赤膜遮睛. 酒洗用.

맛은 달고,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신(腎)을 보(補)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적막(赤膜)이 눈을 덮은 것을 없앤다. 술로 씻어서 쓴다.

### 2.31.37. 何首烏 | 하수오

味苦, 入心經. 去風寒, 治陽明頭疼.

맛은 쓰고,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풍한(風寒)을 없애고 양명두통(陽明頭痛)을 치료한다.

### 2.31.38. 蟬蛻 | 선태

入肝經. 去風解毒, 脫目翳, 止淚散寒邪.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풍(風)을 없애고 독을 풀며, 눈의 예(翳)를 벗겨내고 눈물을 그치게 하며 한사(寒邪)를 흩는다.

### 2.31.39. 白朮 | 백출

味苦溫, 入脾胃經. 能健脾胃, 生津液, 去胞臉濕熱. 氣喘者勿用, 又能助氣.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비경(脾經)과 위경(胃經)으로 들어간다. 비위(脾胃)를 튼튼하게 하고 진액(津液)이 생기게 하며 눈꺼풀의 습열(濕熱)을 없앤다. 숨을 헐떡이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氣)를 돋는다.

### 2.31.40. 香附米 | 향부미

味苦辛. 能行氣, 助胃氣, 止淚去濕. 用之炒去毛杵淨.

맛이 쓰고 맵다. 기(氣)를 운행시키고 위기(胃氣)를 도우며, 눈물을 멎게 하고 습(濕)을 없앤다. 사용할 때 볶아서 털을 제거하고 찧어, 깨끗하게 한다.

#### 2.31.41. 夏枯草 | 하고초

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 能止淚去風, 以陽補陰之理.

순양(純陽)의 기(氣)를 받았으므로 음기(陰氣)를 만나면 마른다. 눈물을 멎게 하고 풍(風)을 없애니, 양(陽)으로써 음(陰)을 보(補)하는 이치이다.

#### 2.31.42. 千里光 | 천리광

入心經. 去風解毒熱, 明目, 亦能行氣. 即 夜明砂, 水淘去屎留砂.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풍(風)을 없애고 독열(毒熱)을 풀며 눈을 밝게 하고, 또한 기(氣)를 운행시킨다. 곧 야명사(夜明砂)이니, 물에 일어 뜰을 제거하고 모래를 남긴다.

一種草藥名千里光<sup>324</sup>, 采其嫩葉, 淨洗搗汁, 煎成膏, 單用點眼, 退翳明目, 恐即此也, 前注恐非.

어떤 초약(草藥)의 이름이 ‘千里光’인데, 그 어린잎을 채취하여 깨끗이 씻고 찧어서 즙을 내어 줄여서 고를 만들며, 단독으로 점안하여 예(翳)를 없애고 눈을 밝게 하니, 아마도 이것이 맞고 앞의 주석은 틀린 것 같다.

#### 2.31.43. 遠志 | 원지

味苦氣溫, 入心經. 定心益志, 利竅安魂魄.

맛은 쓰고 기운은 따뜻하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심(心)을 안정시키고 지(志)를 북돋우며, 칠규(七竅)를 원활하게 하고 혼백(魂魄)을 편안하게 한다.

#### 2.31.44. 서각 犀角

入心經. 涼血解心熱, 清頭目. 鐵銚銚 碎用, 或水磨服.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혈(血)을 서늘하게 하고 심열(心熱)을 풀어주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한다. 철로 된 쟈도(銚 刀)로 깎아서 부수어 쓰거나 물에 갈아서 복용한다.

#### 2.31.45. 羚羊角 | 영양각

入肝經. 淸肺肝火, 清心明目, 肝虛不用.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폐(肺)와 간(肝)의 화(火)를 식히며 심(心)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간(肝)이 허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31.46. 石膏 | 석고

入胃經. 泄胃火伏熱, 有鎮之功. 胃虛不用.

위경(胃經)으로 들어간다. 위화(胃火)와 잠복한 열(熱)을 빼내며, 눌러주는 작용이 있다. 위(胃)가 약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31.47. 乾葛 | 건갈

味甘平, 入胃經. 解肌發表, 退熱. 升提胃氣.

맛은 달고 화평하며, 위경(胃經)으로 들어간다. 기육(肌肉)을 풀고 표(表)의 사기(邪氣)를 내보내며 열(熱)을 물리친다. 위기(胃氣)를 끌어 올린다.

#### 2.31.48. 藜本 | 고본

味辛, 入膀胱經. 去顛頭痛, 引藥上行.

맛은 맵고, 방광경(膀胱經)으로 들어간다. 정수리 부위의 두통을 없애고, 약기운을 끌어서 상행하게 한다.

#### 2.31.49. 使君子 | 사군자

味甘, 入胃經. 殺疳蟲, 利小便.

맛은 달며, 위경(胃經)으로 들어간다. 감충(疳蟲)을 죽이고 소변을 원활하게 한다.

#### 2.31.50. 薄荷 | 박하

味辛寒, 入肝經. 去賊風, 發表, 利關節, 止痛.

맛은 신한(辛寒)하고,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적풍(賊風)을 없애고 표사(表邪)를 발산하며 관절을 원활하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

#### 2.31.51. 菊花 | 국화

味苦甘, 微寒, 入肝經. 明目, 清頭風, 去目翳, 發表.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약간 차고,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눈을 밝게 하고 두풍(頭風)을 없애고 눈의 예(翳)를 제거하며 표사(表邪)를 발산한다.

#### 2.31.52. 蕤蔚子 | 충울자

味甘辛, 入眼經. 除血熱, 明目去風.

맛은 달고 매우며, 눈의 경락(經絡)으로 들어간다. 혈열(血熱)을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하며 풍(風)을 없앤다.

### 2.31.53. 甘草 | 감초

味甘, 生寒熟溫, 入脾經. 生用能瀉火解毒, 炙者能助胃和平.

맛은 달며, 생것은 성질이 차고 익힌 것은 따뜻하며, 비경(脾經)으로 들어간다.  
생것은 화(火)를 사(瀉)하고 해독(解毒)하며, 구운 것은 위(胃)가 화평하도록  
돕는다.

### 2.31.54. 桑螵蛸 | 상표초

補腎去風, 通五淋, 利小便. 明目散翳.

신(腎)을 보(補)하고 풍(風)을 없애며, 오림(五淋)을 통하게 하고 소변을 원활  
하게 한다. 눈을 밝게 하고 예(翳)를 흘는다.

### 2.31.55. 槐花 | 고희

味苦寒, 入心經. 去心赤<sup>325</sup>, 瀉血, 瀉大腸熱.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심화(心火)를 제거하고 혈  
(血)을 사(瀉)하며 대장(大腸)의 열(熱)을 사(瀉)한다.

### 2.31.56. 鬱金 | 울금

味苦寒, 入心經. 治血鬱於目, 能涼能破心下氣, 開鬱.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우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혈(血)이 눈에 울체된  
것을 치료하고, 심하(心下)의 기(氣)를 식히고 깨뜨리며 울체된 것을 풀어낸  
다.

### 2.31.57. 黑參 | 흑삼

味苦鹹, 入腎經. 補腎氣明目, 得黃芩瀉肝火, 除肝熱.

맛은 쓰고 짜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신기(腎氣)를 보(補)하고 눈을 밝게 한다. 황금(黃芩)과 함께 사용하면 간화(肝火)를 사하고 간열(肝熱)을 없앤다.

### 2.31.58. 知母 | 지모

味苦寒, 入腎經. 補腎水, 瀉腎火三焦火.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우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신수(神水)를 보(補)하고 신화(腎火)와 삼초(三焦)의 화(火)를 사(瀉)한다.

### 2.31.59. 桔梗 | 길경

味苦溫, 入肺經. 治肺熱, 為諸藥之舟楫, 乃肺部之引經.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폐열(肺熱)을 다스리며 모든 약에 대하여 배의 노와 같은 역할을 하니, 바로 폐(肺)의 인경약(引經藥)이다.

### 2.31.60. 芒硝 | 망초

治積聚熱疾, 利大便不通.

적취(積聚)와 열병을 치료하며, 대변이 통하지 않는 것을 원활하게 해준다.

### 2.31.61. 漢防己 | 한방기

味辛苦寒. 通行諸經, 去風寒, 有走達之功.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차갑다. 모든 경맥(經脈)을 다 돌아다니며 풍한(風寒)을 없애니, 달려가고 통달하는 작용이 있다.

### 2.31.62. 蒲黃 | 포황

味甘性平, 入心經. 能消瘀血, 破血, 消腫. 炒用.

맛은 달고 성질은 화평하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어혈(瘀血)을 삭여 없애고 혈(血)을 깨뜨리며 부은 것을 가라앉힌다. 볶아서 사용한다.

### 2.31.63. 連翹 | 연교

瀉心火, 解脾胃濕熱, 除心經客熱.

심화(心火)를 사(瀉)하고 비위(脾胃)의 습열(濕熱)을 풀며 심경(心經)에 침입한 열(熱)을 없앤다.

### 2.31.64. 五味子 | 오미자

味酸性溫, 入腎經肺經. 補腎滋肺益肝.

맛은 시고 성질은 따뜻하며, 신경(腎經)과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신(腎)을 보(補)하고 폐(肺)를 자양하며 간(肝)을 보(補)한다.

### 2.31.65. 獨活 | 독활

味苦溫, 走諸經. 去外受賊風, 無分新舊.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다. 모든 경맥(經脈)으로 달려가 밖에서 받은 적풍(賊風)을 없애는데, 새로 받은 것과 오래된 것을 가리지 않는다.

### 2.31.66. 楮實子 | 저실자

味苦寒, 入肺經. 升陽上行, 能去風治頭痛.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양(陽)을 끌어올려 상행시키며 풍(風)을 없애 두통을 치료한다.

### 2.31.67. 蓉 | 육종용 肉蓴

味酸鹹, 性溫, 入腎經. 補腎生精. 用酒洗, 相火旺不用.

맛은 시고 짜며 성질은 따뜻하고,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신(腎)을 보(補)하고 정(精)이 생기게 한다. 술에 씻어서 사용하며, 상화(相火)가 왕성하면 쓰지 않는다.

### 2.31.68. 川椒 | 천초

味辛熱, 用之於上, 退六腑之沈寒, 用之於下, 去目中障盲.<sup>326</sup> 去目, 炒去汗用.

맛은 맵고 성질은 뜨겁다. 하부에 사용하면 육부(六腑)에 쌓인 찬 기운을 물리치고, 상부에 사용하면 눈을 다 가린 예장(翳 障)을 없앤다. 알맹이는 빼버리고 볶아서 배어나온 즙을 닦아내고 쓴다.

### 2.31.69. 人參 | 인삼

味甘性溫, 無毒, 入肺經. 補氣不足, 安魂魄, 生精開心竅通血. 肺寒可用, 肺熱傷肺.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고,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기(氣)가 부족한 것을 보(補)하고 혼백(魂魄)을 안정시키며, 정(精)이 생기게 하고 심규(心竅)를 열며 혈(血)을 통하게 한다. 폐(肺)가 차면 쓸 수 있으나, 폐가 뜨거운 경우는 폐를 상하게 한다.

### 2.31.70. 白茯苓 | 백복령

味甘溫, 入肺經. 安魂定魄, 补心虛, 養神, 利小便.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혼백(魂魄)을 안정시키고 심(心)이 허(虛)한 것을 보(補)하며 신(神)을 기르고, 소변을 원활하게 한다.

### 2.31.71. 旋複花 | 선복화

味甘, 入肺經. 清痰明目, 治頭風.

맛은 달고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담(痰)을 맑히고 눈을 밝게 하며 두풍(頭風)을 치료하다.

### 2.31.72. 菟 絲子 | 토사자

味辛甘, 入腎經. 补腎明目, 能去目黑花. 酒洗蒸餅, 晒乾爲丸, 不做丸勿製.

맛은 맵고 달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신(腎)을 보(補)하고 눈을 밝게 하며, 눈에 검은 꽃이 아른거리는 것을 없앤다. 술로 씻고 짜서 떡을 만든 다음 볶에 말려 환을 빚으며, 환을 빚지 않을 때는 법제하지 않는다.

### 2.31.73. 濤瀉 | 택사

味甘寒, 入膀胱. 利水通淋, 补陰不足, 明目.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방광(膀胱)으로 들어간다. 물길을 원활하게 하여 임병(淋病)을 통하게 하며, 음(陰)이 부족한 것을 보(補)하고 눈을 밝게 한다.

### 2.31.74. 黑附子 | 흑부자

味辛大熱, 入三焦. 主陽, 散風去寒邪, 火旺者不用. 即 大附子, 去粗皮.

맛은 맵고 성질은 매우 뜨거우며, 삼초(三焦)로 들어간다. 양(陽)을 주관하여 풍(風)을 흘고 한사(寒邪)를 없애니, 화(火)가 왕성하면 쓰지 않는다. 곧 대부자(大附子)이며, 겉껍질을 제거한다.

### 2.31.75. 木香 | 목향

味苦性溫, 入心經. 主治心痛, 泄胞腹中滯寒冷氣. 不必過火, 磨入藥中服.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가슴이 아픈 것을 주로 치료하고 포(胞)와 뱃속에 응체된 차가운 기운을 빼낸다. 불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갈아서 약에 넣어 복용한다.

### 2.31.76. 牛膝 | 우슬

能引諸藥下行. 凡用土牛膝, 春夏用葉, 冬用根, 惟葉之效尤速, 能益精. 又治竹木刺入肉, 敷之即出.

모든 약을 이끌어 하행시킨다. 대개 토우슬(土牛膝)을 쓰는데, 봄과 여름에는 잎을 쓰고 겨울에는 뿌리를 쓰지만, 잎의 효과가 더욱 빠르며 정(精)을 북돋운다. 또 대나무나 나무의 가시가 살에 박힌 것을 치료하니, 붙이면 곧 나온다.

### 2.31.77. 石斛 | 석곡

味甘性溫, 入腎經. 去胃熱, 補陰血, 益精壯筋骨.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위열(胃熱)을 없애고 음혈(陰血)을 보(補)하며, 정(精)을 북돋아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한다.

### 2.31.78. 紅花 | 홍화

味甘苦, 入心經. 能破血行滯血, 少用又養血.

맛은 달고 쓰며 심경(心經)으로 들어간다. 혈(血)을 깨뜨리고 막힌 혈(血)을 운행시키며, 조금 사용하면 또한 혈(血)을 기른다.

### 2.31.79. 天門冬 | 천문동

味苦氣寒, 入肺經. 瀉肺火, 定肺氣, 利小便, 凉血. 去心杵爲餅, 晒乾爲丸, 如不做分研.

맛은 쓰고 기운은 차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폐화(肺火)를 사(瀉)하고 폐기(肺氣)를 안정시키며 소변을 원활하게 하고 혈(血)을 식힌다. 심을 빼고 찔어서 떡을 만들고 양지에 말려서 환을 빚으며, 환을 빚지 않으면 찢어서 간다.

### 2.31.80. 石菖蒲 | 석창포

味辛性熱, 入腎經. 補腎, 能開心竅明目.

맛은 맵고 성질은 뜨거우며,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신(腎)을 보(補)하며, 심규(心竅)를 열고 눈을 밝게 한다.

### 2.31.81. 柴胡 | 시호

味苦寒, 入肝經. 能除往來結熱積於胸中, 除肝熱. 又得黃芩能瀉肝火.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열(熱)이 오락가락하며 맷혀서 가슴속에 쌓인 것을 없애고 간열(肝熱)을 제거한다. 또 황금(黃芩)과 함께 쓰면 간화(肝火)를 사(瀉)한다.

### 2.31.82. 黃芩 | 황금

味苦寒, 入肺經. 枯者瀉肝火, 實者退膀胱熱.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우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속이 마르고 빈 것은 간화(肝火)를 사(瀉)하고, 속이 충실한 것은 방광열(膀胱熱)을 물리친다.

### 2.31.83. 巴戟 | 파극

能補腎益精, 療陰萎, 引氣上行.

신(腎)을 보(補)하고 정(精)을 북돋우며 음위(陰萎)를 치료하고, 기(氣)를 이끌어 상행한다.

### 2.31.84. 陳皮 | 진피

去白者消痰利氣, 留白者補胃和中.

흰 부분을 제거한 것은 담(痰)을 삼이고 기(氣)를 원활하게 하며, 흰 부분을 그대로 둔 것은 위(胃)를 보(補)하고 속을 조화롭게 한다.

### 2.31.85. 莖虧 | 정력

味苦寒, 入肺經. 瀉肝喘, 利水下肺氣. 炒用.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간(肝)의 문제로 숨을 헐떡이는 것을 사(瀉)하고, 물길이 잘 통하게 하며 폐기(肺氣)를 내린다. 볶아서 쓴다.

### 2.31.86. 莚蔚 | 궁궁

入腦, 治頭痛. 血虛者去頭風, 養血.

| 뇌(腦)로 들어가 두통을 치료한다. 혈허(血虛)한 사람의 두풍(頭風)을 제거하니, 혈(血)을 기른다.

### 2.31.87. 白附子 | 백부자

一名兩頭尖, 去風痰, 止頭痛. 去粗皮用.

| 일명 양두첨(兩頭尖)이라 하며, 풍담(風痰)을 없애고 두통을 멎게 한다. 겉껍질을 벗기고 쓴다.

### 2.31.88. 天麻 | 천마

主頭風, 去風疾, 利四肢濕痺.

| 두풍(頭風)을 주로 치료하고 풍질(風疾)을 없애며, 팔다리가 습(濕)으로 저린 것을 원활하게 한다.

### 2.31.89. 枳殼 | 지각

寬腸下氣, 祛風化痰, 治風邪作痛.

| 장(腸)을 편안하게 하고 기(氣)를 내리며, 풍(風)을 없애고 담(痰)을 삭이며, 풍사(風邪)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치료한다.

### 2.31.90. 栀 薤根 | 과루근

即 天花粉. 入肺經. 去痰火, 解熱毒, 又能除酒毒. 肺寒者不用, 冷痰者不可過用, 有熱藥, 此宜亦可用之.

곧 천화분(天花粉)이다.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담화(痰火)를 없애고 열독(熱毒)을 풀며, 또 주독(酒毒)을 없앤다. 폐(肺)가 차가우면 쓰지 않고 냉담(冷痰)의 경우에 과용해서는 안 되는데, 열약(熱藥)과 함께 쓴다면 괜찮다.

### 2.31.91. 扁蓄 | 편축

利小腸經熱閉.

소장경(小腸經)이 열(熱)로 막힌 것을 원활하게 한다.

### 2.31.92. 小茴香 | 소회향

味辛氣平. 開胃行氣, 止嘔吐, 膀胱冷氣腫痛, 入藥炒.

맛은 맵고 기운은 화평하다. 위(胃)를 열어주고 기(氣)를 운행시키며, 구토를 멎게 하고, 방광(膀胱)의 냉기(冷氣)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약에 넣을 때 볶아서 쓴다.

### 2.31.93. 南星 | 남성

去風痰, 消腫毒. 用薑汁煮過.

풍담(風痰)을 제거하고 종독(腫毒)을 없앤다. 생강즙에 삶아서 쓴다.

### 2.31.94. 草烏 | 초오

走筋骨敗血, 去風止痛. 薑汁煮用.

근골(筋骨)의 패혈(敗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며, 풍(風)을 없애고 통증을 멎게 한다. 생강즙에 삶아서 쓴다.

### 2.31.95. 川烏 | 천오

去風寒作痛, 助陽.

| 풍한(風寒)으로 통증이 발생한 것을 없애고, 양(陽)을 돋는다.

### 2.31.96. 荊芥 | 형개

去皮風邪發.

| 피부의 풍사(風邪)를 발산시켜 제거한다.

### 2.31.97. 雄黃 | 웅황

解熱毒, 散血止痛.

| 열독(熱毒)을 풀고, 혈(血)을 흘으며 통증을 멎게 한다.

### 2.31.98. 乳香 | 유향

調血氣, 利諸經之痛. 製用厚箬 三片夾藥在中, 煎 斗火煎 去油, 研末用.

| 혈(血)과 기(氣)를 고르게 하고, 모든 경맥(經脈)의 통증을 원활하게 한다. 법 제하는 방법은, 두꺼운 대껍질 3조각에 약을 끼우고 인두로 지져서 기름을 제거한 다음 가루로 만들어 쓴다.

### 2.31.99. 没藥 | 몰약

破血止痛, 去目翳 暈, 同前製法.

혈(血)을 깨뜨리고 통증을 멎게 하며, 눈의 예(翳)나 어른거리는 것을 없앤다.  
유향(乳香)과 같은 방법으로 법제한다.

### 2.31.100. 血竭 | 혈갈

破積血止痛, 去赤膚.

쌓인 혈(血)을 깨뜨리고 통증을 멎게 하며 피부가 벌겋게 된 것을 없앤다.

### 2.31.101. 木通 | 목통

利小腸經結熱, 降心火.

소장경(小腸經)에 열(熱)이 맺힌 것을 소통시키고, 심화(心火)를 내린다.

### 2.31.102. 牛蒡子 | 우방자

去風明目行血.

풍(風)을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하며 혈(血)을 운행시킨다.

### 2.31.103. 蛤粉 | 합분

能消痰火, 凉血, 解肌表極熱.

담화(痰火)를 삭이고 혈(血)을 식히며 기표(肌表)의 극심한 열(熱)을 푼다.

### 2.31.104. 蛇蛻 | 사태

即蛇皮. 去風毒, 止淚癢 痛.

곧 사피(蛇皮)이다. 풍독(風毒)을 제거하고, 눈물이 나며 가렵고 아픈 것을 멎게 한다.

### 2.31.105. 全蠍 | 전갈

消風毒, 破風痰. 尾更佳, 去四足.

풍독(風毒)을 없애고 풍담(風痰)을 깨뜨린다. 꼬리가 더욱 좋으며, 다리는 제거한다.

### 2.31.106. 蕁香 | 곽향

開胃氣, 結痰利之.

위기(胃氣)를 열어주고, 맷힌 담(痰)을 소통시킨다.

### 2.31.107. 蟲蛻 | 잠태

去風消痰, 明目去翳膜. 即 晚蟲砂.

풍(風)을 없애고 담(痰)을 삭이며, 눈을 밝게 하고 예막(翳膜)을 없앤다. 곧 만잠사(晚蟲砂)이다.

### 2.31.108. 龍腦<sup>327</sup> | 용뇌

即 薄荷. 性熱. 能通利寒熱<sup>328</sup>, 去風, 消目赤.

곧 박하(薄荷)이다. 성질은 뜨겁다. 한열(寒熱)을 통리(通利)하고 풍(風)을 없애며 눈이 붉어진 것을 가라앉힌다.

### 2.31.109. 甘松 | 감송

味甘性溫. 去風下氣, 治心腹痛, 辟惡風.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다. 풍(風)을 없애고 기(氣)를 내리며, 명치가 아픈 것을 다스리고 악풍(惡風)을 물리친다.

### 2.31.110. 朱砂 | 주사

鎮心, 安魂魄, 凉血.

심(心)을 진정시키고 혼백(魂魄)을 안정시키며 혈(血)을 식힌다.

### 2.31.111. 肉桂 | 육계

引太陽經. 止頭痛, 去寒邪, 利肝膽氣.

태양경(太陽經)으로 인경(引經)한다. 두통을 멎게 하고 한사(寒邪)를 없애며 간담(肝膽)의 기(氣)를 소통시킨다.

### 2.31.112. 白蘞 | 백령

散結氣, 除目赤熱.

맺힌 기(氣)를 흘으며, 눈이 붉고 화끈거리는 것을 없앤다.

### 2.31.113. 藜蘆 | 여로

吐氣風痰, 快膈. 去蘆用, 根有大毒, 用宜斟酌.

기담(氣痰)과 풍담(風痰)을 토하게 하고 흉격(胸膈)을 시원하게 한다. 뿌리 꼭지를 떼고 쓰며, 뿌리에 강한 독이 있으니 참작해서 써야 한다.

### 2.31.114. 白芨 | 백급

去賊風, 解中風熱閉.

| 적풍(賊風)을 제거하고, 중풍(中風)에 열(熱)이 막힌 것을 풀어낸다.

### 2.31.115. 豬 牙皂 角 | 저아조각

去風痰, 解表利氣. 炙去皮弦.

| 풍담(風痰)을 제거하고, 표(表)를 풀고 기(氣)를 원활하게 한다. 구워서 깍지를 제거한다.

### 2.31.116. 香白芷 | 백지

去皮膚風熱瘡癢.

| 피부가 풍열(風熱)로 헐고 가려운 것을 없앤다.

### 2.31.117. 杏 仁 | 행인

潤肺氣, 去痰行血.

| 폐기(肺氣)를 윤택하게 하고 담(痰)을 없애며 혈(血)을 운행시킨다.

### 2.31.118. 紫蘇 | 자소

消痰解表利氣.

| 담(痰)을 삭이고 표(表)를 풀며 기(氣)를 소통시킨다.

### 2.31.119. 夜明砂 | 야명사

明目去風.

눈을 밝게 하고 풍(風)을 없앤다.

### 2.31.120. 山茱萸 | 산수유

入腎經. 除頭暉, 補虛生精. 去核.

신경(腎經)으로 들어간다.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없애며, 허(虛)한 것을 보(補)하고 정(精)이 생기게 한다. 씨를 제거한다.

### 2.31.121. 天麻子 | 천마자

去風補腎明目. 碎研入煎藥.

풍(風)을 없애고 신(腎)을 보(補)하며 눈을 밝게 한다. 부수고 갈아서 달여진 약에 넣는다.

### 2.31.122. 熊膽 | 웅담

退熱降火, 去目赤熱. 試真假, 用水一碗, 撒灰在內, 將熊膽放水中, 分灰水各開兩邊爲真者, 其色潤黑.

열(熱)을 물리치고 화(火)를 내리며, 눈이 붉고 화끈거리는 것을 없앤다. 진품 인지를 시험하는 법은, 물 한 사발에 재를 풀고 웅담(熊膽)을 물속에 넣으면 재 와 물을 분리시켜 각각 나뉘는 것이 진품이며, 색은 윤택한 검은색이다.

### 2.31.123. 山藥 | 산약

補腎不足, 生精.

| 신(腎)이 부족한 것을 보(補)하고, 정(精)이 생기게 한다.

### 2.31.124. 牛黃 | 우황

去熱痰, 能安魂魄, 凉血清心.

| 열담(熱痰)을 없애고 혼백(魂魄)을 편안하게 하며 혈(血)을 식히고 심(心)을 맑힌다.

### 2.31.125. 石燕<sup>329</sup> | 석연

通血, 利小便, 治淋.

| 혈(血)을 통하게 하고 소변을 원활하게 하여 임병(淋病)을 치료한다.

### 2.31.126. 仁 | 유인 蕤

去目中赤痛風癢, 去翳. 製法去殼用仁, 以竹筒盛在內, 於紅火煨藥, 紙乾取出, 可去油聽用.

| 눈 속이 붉고 아프며 가려운 것을 없애고 예(翳)를 제거한다. 법제는, 껌질을 제거하고 알맹이만 죽통(竹筒)에 채우고 잣불에 묻어 구워서 종이가 마르면 꺼내어 기름을 제거하고 쓴다.

### 2.31.127. 珍珠 | 진주

清心明目去目翳. 製法, 用豆腐一塊, 入珠於腐內, 蒸過取出, 用洗淨白棉布兩三重包珠, 石上杵爛, 用細末.

심(心)을 맑히고 눈을 밝게 하며 눈의 예(翳)를 없앤다. 법제는, 두부 한 덩이에 진주를 넣어서 찐 다음 꺼내어, 깨끗이 빤 흰 면포로 진주를 두세 겹 싸고 돌 위에서 짓찧어 고운 가루를 쓴다.

### 2.31.128. 玄精石<sup>330</sup> | 현정석

安魂魄, 有氣<sup>331</sup>之功.

혼백(魂魄)을 편안하게 하며, 기(氣)를 굳세게 하는 작용이 있다.

### 2.31.129. 沙魚皮<sup>332</sup> | 사어피

解風毒止淚.

풍독(風毒)을 풀고 눈물을 멎게 한다.

### 2.31.130. 威靈仙 | 위령선

去風邪.

풍사(風邪)를 없앤다.

### 2.31.131. 青皮 | 청피

能下氣快膈, 消痰濁氣. 升於至高者<sup>333</sup>而能下氣, 虛者不用.

기(氣)를 내리고 흉격(胸膈)을 시원하게 하며 담(痰)과 탁기(濁氣)를 삭인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기(氣)를 내리니, 허(虛)하면 쓰지 않는다.

### 2.31.132. 青鹽<sup>334</sup> | 청염

補腎, 引至下部. 水磨花<sup>335</sup>, 銅鍋熬成鹽聽用.

신(腎)을 보(補)하고, 이끌어 하부에 이르게 한다. 물에 갈아서 녹이고 구리 솔에 졸여 결정을 만들어 쓴다.

### 2.31.133. 川棟子 | 천련자

明目退熱補腎. 去核用.

눈을 밝게 하고 열(熱)을 물리치며 신(腎)을 보(補)한다. 씨를 빼고 쓴다.

### 2.31.134. 沈香 | 침향

補右尺命門, 壯元陽, 散滯血.

우척(右尺)의 명문(命門)을 보(補)하고 원양(元陽)을 굳세게 하며 응체된 혈(血)을 흘려준다.

### 2.31.135. 一方點藥 | 또 하나의 점안약(點眼藥) 처방

#### 2.31.135.1. 撥翳膏<sup>336</sup> | 발예고

蕤仁《去皮殼》麝香《四分, 另研》珍珠《一錢, 放豆腐內蒸過》琥珀《一錢, 另研》石蟹<sup>337</sup>《一錢, 煥》片腦《五分, 另研》硼砂《一錢, 另研》青鹽《八分, 另研》白丁香<sup>338</sup>《五分, 水澄》紅珊瑚 石燕<sup>339</sup>《煅》滴乳香<sup>340</sup>《炙》熊胆《微炙乾》辰砂 血竭 金精石<sup>341</sup>《滾水泡》銀精石<sup>342</sup>《滾水泡, 各一錢》爐甘石《火煅, 黃連水淬, 淬七次, 用五錢或七錢》硇砂《一錢, 明者, 將紙七重包煨, 另研包起, 遇有翳厚者, 加入. 无翳者不用》

유인《딱딱한 껌질을 제거》사향《4푼, 따로 간다》진주《1돈, 두부 속에 넣어 찐 것》호박《1돈, 따로 간다》석해《1돈, 싸서 구운 것》편뇌《5푼, 따로 간다》봉사《1돈, 따로 간다》청염《8푼, 따로 간다》백정향《5푼, 맑은 물로 거른 것》붉은 산호, 석연《불에 달군 것》적유향《불에 구운 것》옹담《살짝 구워 말린 것》진사, 혈갈, 금정석《끓는 물에 녹인 것》은정석《끓는 물에 녹인 것, 각 1돈》노감석《불에 달구고 황련수(黃連水)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한 것, 5돈이나 7돈 사용》요사《1돈, 밝은 것, 종이로 7겹 싸서 불에 굽고 별도로 갈아서 싸두었다가 두터운 예(翳)가 있는 경우에 넣고, 예(翳)가 없으면 쓰지 않는다》.

上爲細末, 和勻, 用磁器罐盛起. 一半乾點, 一半入後藥內爲膏子點.

이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고르게 섞어서 자기 항아리에 담아둔다. 반은 마른 채로 점안하고, 반은 아래의 약을 넣어 고제(膏劑)로 만들어서 점안한다.

當歸尾 生地黃 赤白芍 防風 蔓荊子 羌活 連翹 黃芩 薄荷

당귀미, 생지황, 적작약, 방풍, 만형자, 강활, 연교, 황금, 박하.

各用五錢, 剖細, 用雪水或臘月水兩大盞, 石器內煮藥至一盞, 去渣. 用真正好白蜜三兩, 再用文武火熬三四沸, 以新絹袋濾出, 收入磁罐內. 却將前藥末共作一處攪勻, 用清油紙縛住, 常常旋取點用. 此藥收八九年亦好不壞, 此仙傳方也.

각각 5돈씩을 곱게 빻고, 큰 잔 두 개 분량의 눈 녹은 물이나 섣달의 물로 돌그릇에 달여 한 잔으로 줄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다시 아주 좋은 꿀 3냥으로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불에 3~4번 끓도록 졸여서, 새 비단 주머니에 걸러내어 자기 항아리 담는다. 앞의 약 가루와 한데 모아 고루 휘저어서 참기름을 먹인 종이로 싸매어 두었다가, 항상 섞어서 취하여 점안한다. 이 약은 조제한 지 8~9년이 지나도 역시 좋으며 상하지 않으니, 이는 신선이 전해준 처방이다.

322. 散血 :〔集成〕鼎本에는 ‘破血’로 되어 있다. (역주) 四庫全書本도 鼎本

과 같다. ↵

323. **腸經** : 四庫全書本에 ‘大腸經’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라 번역하였다. ↵

324. **千里光** : 국화과 식물 千里光의 풀 전체.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초이다. ↵

325. **心赤** :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心火의 잘못이 아닌지 의심된다. ↵

326. **用之於上, 退六腑之沈寒, 用之於下, 去目中障盲** : 문맥으로 보아 ‘上’과 ‘下’가 뒤바뀌었다. ↵

327. **龍腦** : 본문에 ‘即 薄荷’라 하였는데, 앞의 「治諸眼一切點眼膏藥」에서 熊膽膏의 구성약물 중 龍膽에 대하여 ‘即 蘇州薄荷’라 하였으니, 여기의 ‘龍腦’는 혹 ‘龍膽’의 잘못일 수 있겠다. 그러나 본문에서 ‘性熱’이라 한 것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脫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328. **通利寒熱** : 어떤 작용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329. **石燕** : 고생대의 완족류 동물인 石燕의 화석. ‘燕子石’이라고도 한다. ↵

330. **玄精石** : 오래 묵은 石膏 조각. ↵

331. **有氣** : 四庫全書本에 ‘壯氣’로 되어 있는 것을 따르면 文義가 보다 명확하다. ↵

332. **沙魚皮** : 상어의 껍질. ↵

333. **至高者** :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문맥상 脊上胸中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 『此事難知』에 “至高者, 肺也”라 한 것과도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겠다.

↵

334. **青鹽** : 戎鹽 즉 岩鹽이다. ↵

335. **花** : 四庫全書本에 ‘化’로 되어 있는 것을 따르면 文義가 보다 명확하다.

↔

336. **撥翳膏** : 集成本에는 앞의 ‘點藥’과 이어서 ‘點藥撥翳膏’를 처방명으로 표기하였으나, 문맥상 ‘點藥’은 이 처방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

337. **石蟹** : 고생대 절지동물 石蟹의 화석. ↔

338. **白丁香** : 참새의 똥. ↔

339. **石燕** : 고생대의 완족류 동물인 石燕의 화석. ‘燕子石’이라고도 한다. ↔

340. **滴乳香** : 乳香. 樹脂가 굳어진 덩어리가 물방울 모양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

341. **金精石** : 水金雲母. 우리나라에 없는 광물이다. ↔

342. **銀精石** : 雲母. ↔

### 3.1 해제

#### 3.1.1. 저자(著者)와 성서연대(成書年代) 불명

『은해정미(銀海精微)』는 손사막(孫思邈)을 탁명(托名)한 안과 서적이다. ‘은해(銀海)’란 도가(道家)에서 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책 첫머리의 <은해정미인(銀海精微引)>에서 “은해(銀海)라는 이름은 도가(道家)의 책에서 따온 것”이라 하였으며,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은해정미제요(銀海精微提要)>에 의하면 “소식(蘇軾)의 시에 나오는 ‘凍合玉樓寒起粟, 光搖 銀海眩生花’라는 구절에 대하여 『영규율수(瀛奎律髓)』에서는 왕안석(王安石)의 견해를 인용하여 ‘도가(道家)의 책에서 어깨를 옥루(玉樓)라 하고 눈을 은해(銀海)라 한다’고 하였다.”

병증을 논한 것이 상세하며 다양한 치법(治法)과 방약(方藥)을 제시하고 있어, 분과 전문의서로서 손색없는 규모를 갖추었다.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은해정미제요(銀海精微提要)>에서는 “여러 증(證)을 변론한 것이 자못 명석하며, 그 법(法)은 보사(補瀉)를 겸하여 시행하고 한온(寒溫)을 엿섞어 사용하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폐단이 없어 의사들이 많이 의지한다”고 하였다. 과연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듯, 전해지는 판본도 적지 않다. 가장 이른 명(明)나라 가정(嘉靖) 연간의 판본을 위시하여 현존하는 명대(明代)와 청대(清代)의 판본이 24종이며, 아래 각주 3), 4)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현대의 인쇄본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다.

이 책의 정확한 성서연대(成書年代)는 알 수 없고, 실제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다. 명나라 가정 연간의 판본에는 손사막(孫思邈)이 당태종(唐太宗)에게 안약(眼藥)을 바칠 때 올렸다는 표문(表文)까지 붙어 있으나, 본문에 ‘옛날 당나라 때’, ‘손진인(孫眞人)’ 등의 말이 등장하므로 손사막의 저작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선행연구에서 는 『경악전서(景岳全書)』에서 ‘양인재론(楊仁齋論)’이라 하여 인용해 놓은 것이

『은해정미』서문(序文)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자가 양사영(楊士瀛)일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고, 来雅庭. 《銀海精微》成书 年代及作者考. 河南中医. 1988年04期.

여러 문헌에 나타난 팔각(八廓) 학설을 계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 책의 성서연대를 원(元)나라 손윤현(孫允賢)의 『의방대성(醫方大成)』(1321년) 이후, 명나라 가정연간(1522~1565년)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高健生. 《銀海精微》成书 年代考. 中国 中医 眼科杂志. 1996年04期.

일부 내용의 출전(出典)으로 여겨지는 문헌들의 알려진 저작시기를 따져보아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일치하여, 적어도 송원대(宋元代)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문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이 책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기획되고 저술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과정에서 재편(再編)과 증보(增補)를 거친 흔적이 뚜렷하다. 따라서 최초의 저자나 저작시기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도 않겠거니와, 현전하는 『은해정미』의 의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그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도 없다. 사고전서의 <은해정미제요>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초(本草)는 신농(神農)을 칭하고 소문(素問)은 황제(黃帝)를 말하듯 본디 일일이 파고들어 밝힐 수 없는 것이니, 다만 책에 나아가 책을 논하는” 것이 이 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다.

### 3.1.2. 체재와 주요내용

『은해정미』는 上·下 2권으로 되어 있으며, 서(序), 인(引), 표(表)가 실린 도입부와 총론, 각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총론과 각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서(序)>와 <표(表)>의 논설 일부가 각론에 다시 나타나고 부연(敷衍)된다.

#### 3.1.2.1. 서(序), 인(引), 표(表)

### 3.1.2.1.1. 은해정미서(銀海精微序)

〈은해정미서(銀海精微序)〉는 서문이라기보다 눈의 생리와 병리, 치료원칙을 논한 종론적 성격이 짙은데, 그 내용은 양사영(楊士瀛)의 『인재직지(仁齋直指)』에 수록된 〈안목방론(眼目方論)〉과 거의 같다. 다만 글자의 출입이 조금 있고, 『인재직지』에는 끝에 “諺曰眼不點不害, 耳不幹不聾, 請以爲戒”라는 한 문장이 더 있다.

『경악전서(景岳全書)』에도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출전서명은 나와 있지 않고 ‘양인재(楊仁齋)의 논설’이라고만 하였으며, 마지막 문장이 없어 〈은해정미서〉와 일치한다.

또 명대(明代)에 원학연(袁學淵)이 편찬한 『비전안과칠십이증전서(祕傳眼科七十二症全書)』에는 이 글이 ‘전인재은해정미론(田仁齋銀海精微論)’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인재직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 책에도 없다. 원학연이 『은해정미』를 양사영의 저작으로 인식하였음을 암시하는 제목이라 흥미롭지만, 근거한 바를 알 수 없고 그 이상의 고증도 어렵다.

### 3.1.2.1.2. 은해정미인(銀海精微引)

제일경(齊一經)이라는 사람이 『은해정미』를 판각(板刻)하면서 붙인 글로 되어 있으나, 연대(年代)를 밝히지 않았으며 사적(史籍)을 통해서도 제일경이 어느 때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 3.1.2.1.3. 당진인손사막진안약표(唐眞人孫思邈進眼藥表)

손사막(孫思邈)이 당태종(唐太宗)에게 안약(眼藥)을 바치면서 올린 글이라 하여 명(明)나라 가정(嘉靖) 연간의 『은해정미』 판본에 붙어 있는 글이다. 역시 눈병에 대한 종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눈병을 초래하는 양생(養生)의 잘못을 열거하고 경계하였다.

## 3.1.2.2. 총론

〈오륜팔각총론(五輪八廓總論)〉에서 눈의 생리 및 오륜(五輪)과 팔각(八廓)의 이론을 개괄한 다음 〈오륜지도(五輪之圖)〉, 〈오륜도식(五輪圖式)〉, 〈팔각지도(八廓之圖)〉, 〈팔각도식(八廓圖式)〉에서 눈의 각 부위 배속을 도해(圖解)하고 병증과의 관계를 밝혔다.

오륜과 팔각에 대한 내용 뒤에는 오장육부(五臟六腑), 오행생극(五行生克), 오장표리(五臟表裏), 삼음삼양경(三陰三陽經), 칠정(七情), 오장지액(五臟之液), 오미소입(五味所入), 사기(四氣) 등을 기록해 놓았는데, 설명은 없이 간략하게 용어만을 정리해 두었다.

### 3.1.2.3. 각론

#### 3.1.2.3.1. 81개 병증(病證)

『은해정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81개의 안과 병증에 대하여 각각 그림과 함께 병기(病機)를 설명하고 치료원칙과 처방을 제시하였다. 단 ‘소아감상(小兒疳傷)’과 ‘치소아감상(治小兒疳傷)’, ‘소아진두(小兒疹痘)’와 ‘두진입안(痘疹入眼)’ 등 등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명칭은 다르나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병증도 있어, 일부분은 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3.1.2.3.2. 상용처방(常用處方)

100방 가량의 안과(眼科) 상용처방을 모아 주치(主治), 구성약물, 조제법, 복용법을 정리해 두었다. 처방의 이름이 없이 ‘이 경우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고 하여 삽입된 것들이 많으며, 앞의 81개 병증 조문에 나오는 처방이 여기에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문의 처방에 대한 색인이 아니라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다.

#### 3.1.2.3.3. 기타

이하의 내용은 소제목들이 달려 있기는 하나 장절(章節)의 구분이 모호한 곳이 많으며, 전후 배열에서도 일관된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 ① 오장요론(五臟要論) : 오장(五臟)의 열(熱)에 의한 눈병에 각각 상용(常用)할 본초(本草)를 정리해 두었다.
- ② 미성증주방비요(未成症主方秘要) : 앞의 병증 조문에 들어맞지 않거나 통상의 치방(治方)이 듣지 않는 경우 증상별로 적용할 수 있는 처방들을 제시하였다.
- ③ 심증응험구결(審症應驗口訣) : 외증(外症)으로 눈병의 병기(病機)를 판단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정리한 요결(要訣)이다. 치료법을 제외한 내용은 책 첫머리의 <은해정미서(銀海精微序)>에 나온 것과 같다.
- ④ 심증비론(審症秘論) : 증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을 나열하였다. 앞의 심증응험구결(審症應驗口訣)을 보충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되는 처방도 있다.
- ⑤ 변안경맥교전병증론(辨眼經脈交傳病症論) : 눈병의 변증(辨證)과 치료 원칙을 간략히 논하고, 눈의 겉모습과 눈빛, 예장(翳障)의 형태를 살피는 법, 군살을 지져서 없애는 법을 말하였다.
- ⑥ 용협법(用夾法) : 집게로 군살을 집어 올려서 뜰을 뜨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눈꺼풀이 늘어지거나 말려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 군살이 자라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다.
- ⑦ 개금침법(開金針法), 관음주(觀音呪) : 예장(翳障)을 벗겨내는 외과적 처치법과, 이를 시행할 때 외는 주문(呪文)이다.
- ⑧ 안과용약차제법(眼科用藥次第法) : 병인(病因)에 따라 치료원칙을 크게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에 상용하는 약물을 열거하였다.
- ⑨ 금침안과경험방약시괄(金針眼科經驗方藥詩括) : 약 60개 처방의 구성약물을 가괄(歌括)의 형태로 만들어 암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⑩ 단약화론(丹藥和論), 연노감석법(煉爐甘石法), 수합음단법(修合陰丹法) 등 : 노감석(爐甘石)을 제련하고 미리 조제한 약수(藥水)에 담금질하여 단약(丹藥)을 만드는 방법과 이를 응용한 여러 점안약(點眼藥)을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점안약

과 고약(膏藥)들이 나오는데, 편차(編次)가 정연하지 않고 단편적인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다.

⑪ 약성론(藥性論) : 130종 가량의 약물에 대하여 성미(性味), 귀경(歸經), 효능(效能), 적응증(適應症), 사용상의 유의사항 등을 눈병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두었다.

### 3.1.3. 형식상의 특징

#### 3.1.3.1. 증보(增補), 재편(再編)의 흔적

이 책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덧붙여지고 삽입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약성론(藥性論)>의 천리광(千里光)에 대한 설명에서는 먼저 “곧 야명사(夜明砂)이다” 하였다가 다시 “천리광은 초약(草藥)이고, 전주(前注)는 틀린 것 같다”고 하였으니, 시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사람이 수정, 증보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증보와 재편이 거듭된 결과로 앞뒤의 내용이 모순되는 곳도 종종 눈에 띈다.

<오륜팔각총론(五輪八廓總論)>에서 ‘팔각(八廓)은 이름만 있고 부위가 없다’ 하였으나 <팔각도식(八廓圖式)>에서는 눈의 각 부위에 배속한 그림을 제시하였으며, 총론에서는 ‘병증이 72가지’라고 하였으나 각론에 나열된 병증은 81항목이니, 같은 시기에 저술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해정미인(銀海精微引)>에서 범녕(范寧)과 장담(張湛)의 고사(故事)를 언급하면서 ‘이 책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들어 있는 데다, 앞뒤 내용과 이어지지 않아 별도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책 말미의 <약성론(藥性論)> 뒤에 또 하나의 처방이 붙어 있는 것은 책의 격식과 상관없이 비망록의 형태로 기록해둔 것이 원문에 편입되어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문장성분을 생략하거나 구어체(口語體)로 쓴 곳, 처방명 없이 ‘이 경우에는 이 처방을 사용한다’고만 한 곳도 많은데, 역시 별도의 간략한 기록들을 원래 있던 유사한 조문(條文)과 묶어 재편성한 결과일 것이다.

### 3.1.3.2. 필사(筆寫)의 오류

이상과 같이 시간적 격차로 인해 체재가 정연하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한 것 외에, 단순한 필사(筆寫)의 오류도 자주 눈에 띈다. 대부분은 실수라는 것을 곧 알 수 있고 원래의 내용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책만 보아서는 문맥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곳도 종종 있다.

〈소아감상(小兒疳傷)〉 조의 무이환(蕪夷丸) 다음에는 처방구성 없이 복용법만 있는 ‘오감진피탕(五疳陳皮湯)’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의 무이환은 『보제방(普濟方)』에 실린 오감무이환(五疳蕪夷丸)과 같은 것인데, 그 복용법에 ‘如五疳, 陳皮湯下’라고 하였다. 즉 ‘五疳陳皮湯’은 처방명이 아니라 ‘오감(五疳)에는 진피(陳皮) 달인 물로 삼키라’는 말이지만, 짐작컨대 필사한 사람의 착각에 의해 왜곡된 채 전해진 것이다.

또 단약(丹藥)을 조합하여 점안하는 방법을 기술하면서, 먼저 “一倍三黃丹, 一倍珍珠散, 腦麝硼砂臨時放量度下”라 하고 이어서 “如要輕些, 一倍三黃丹, 一倍珍珠散, 腦麝硼砂如前”이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뒤의 방법이 앞의 방법과 다른 점이 전혀 없으므로 탈오(脫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발운퇴예산(撥雲退翳散)은 『보제방』에 나오는 발운퇴예환(撥雲退翳丸)과 같은 처방으로서 환제(丸劑)이므로 처방명이 잘못되었으며, 퇴적산(退赤散)의 구성약물 중 ‘天黃’은 ‘大黃’의 잘못이니, 이와 같이 단순한 오기(誤記)가 매우 많다. 또한 “간기(肝氣)가 유여(有餘)한 병으로 생각하여 간기를 보(補)하는 약을 썼다”고 하거나 ‘上’과 ‘下’가 뒤바뀌는 등 이치에 어긋나는 곳도 적지 않다.

### 3.1.4. 내용상의 특징

#### 3.1.4.1. 오장변증(五臟辨證)을 위주로 하고, 경락(經絡)·침구(鍼灸) 관련 내용이 적음

안병(眼病)에 대한『은해정미』의 접근방법은 오장변증(五臟辨證) 위주이며, 특히 폐(肺)와 간(肝)의 화열(火熱)을 주요 병기(病機)로 강조하였다. 심(心), 위(胃), 신(腎), 담(膽)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화(火)의 발생기전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눈의 생리, 병리에 대하여 경락(經絡)과 관련지어 말한 곳은 거의 없으며, 간혹 경맥(經脈)을 언급하더라도 ‘수태음(手太陰)’이나 ‘족궐음(足厥陰)’이라 하지 않고 모두 ‘폐경(肺經)’, ‘간경(肝經)’으로 표현하였다. <변안 경맥교전병증론(辨眼經脈交傳病症論)>에 조금 보이는 경맥 관련 내용은『내경(內經)』여기저기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것인데, 여러 편의 내용이 난삽하게 뒤섞여 있으며 문맥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치료에 있어서도 경락혈위(經絡穴位)에 침구(鍼灸)를 사용한 예가 거의 없으며, 드물게 혈위(穴位)를 제시하더라도 모두 구법(灸法)을 적용했을 뿐 자침(刺鍼)하는 치료법은 보이지 않는다.

### 3.1.4.2. 다양한 방약(方藥)과 요법(療法)

『은해정미』에 실린 치료법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내복약(內服藥) 외에도 눈에 바르거나 넣는 약, 눈이나 태양혈(太陽穴) 혹은 이마에 붙이는 약, 코로 들이마시는 약, 김을 씌고 씻는 약 등의 다양한 처방이 실려 있으며, 부은 것을 찔러 터뜨리거나 예막(翳膜)을 금침(金針)으로 긁어내는 방법, 군살을 집게로 집어 올리고 뜸을 뜨는 방법, 구리 숟가락을 달구어 지지는 방법, 이물질을 빼내는 방법 등 외과적 요법이 등장한다.

물론 이들이 모두『은해정미』만의 독창적인 치료법인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난실비장(蘭室秘藏)』을 언급한 것 외에는 처방의 출전(出典)을 밝히지 않았으나,『보제방(普濟方)』,『보제본사방(普濟本事方)』,『증치준승(證治準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곳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그 내용의 정오(正誤)와 상략(詳略)을 비교해 보면 『은해정미』가 이들 문헌의 내용을 발췌하고 요약하여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서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도 많은데, 노감석(爐甘石)을 제련하여

만든 단약(丹藥)의 광범위한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음단(陰丹)과 양단(陽丹)을 조제하고 배합하는 방법이 뒷부분에 실려 있고, 각각의 병증 조문에서도 여러 비율로 배합한 단약을 점안약(點眼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3.1.4.3. 실용안과서(實用眼科書)의 면모

『은해정미』는 총론과 각론을 갖추되 병증(病證)의 분석과 치료에 주안점을 두었다. 각각의 병증마다 다수의 치방(治方)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병정(病程)과 치료의 단계별로 처방을 바꾸어가며 적용하기도 하였고, 병명을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외증(外症)에 따라 방약(方藥)을 선택하는 요결(要訣)을 제시하는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경험이 녹아 있는 실용 임상서적의 면모를 보인다.

### 3.1.5. 고찰

『은해정미』는 전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정연하지 않고,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 등 혼란스러운 면을 보인다. 앞뒤가 모순되거나 의리(醫理)에 비추어보아 의심스러운 곳도 간혹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은 거듭 필사(筆寫)하고 내용을 보충해 왔기에 생겨난 것으로, 뒤집어보면 이 책이 꾸준히 활용되고 전파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안과 전문 실용서로서 변증(辨證)과 시치(施治)를 고루 갖추고 그 내용이 매우 곡진하며, 독창적인 치법(治法), 치방(治方) 및 외과적 요법 등 특수한 치료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전통 안과의학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엿볼 수 있는 문헌이다.

작성자 김혜일

< 참고문헌 >

来 雅庭. 《銀 海精微》成书 年代及作者考. 河南中医. 1988年04期.

高健生. 《銀海精微》成書 年代考. 中國 中醫 眼科雜志. 1996年04期.

徐又芳 主編. 中醫 五官科名著集成. 北京. 华夏出版社. 1997.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科學出版社. 1998.

楊士瀛 等. 仁齋直指(外四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袁學淵. 祕傳眼科七十二症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9.

朱櫨, 滕碩, 劉醇 等. 普濟方.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9.

## 일러두기

1. 이 번역은『中醫 五官科名著集成』(华夏出版社, 1997)에 收載된『銀海精微』(이하 ‘集成本’)原文과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1999)에 收載된『銀海精微』(이하 ‘四庫全書本’)原文을 기준으로 하였다. 참고) 集成本은 清代 醉耕堂本(1867)을 底本으로 하고 明代 書林鼎發堂本(鼎本)을 主校本으로, 上海江東書局本(江本)을 參校本으로 하여 张瑞賢, 潘麗華 가 點校한 것이다.
2. 이 번역은 原文의 상세한 校勘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원문 표기는 集成本을 우선으로 하고, 문장의 정합성이 의심되거나 誤記로 생각되는 경우에 四庫全書本과 대조하였다.
3. 集成本과 四庫全書本의 표기가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주석으로 밝혔으며, 번역은 文義와 醫理에 비추어 더 타당한 쪽을 따랐다.
4. 集成本의 校勘 내용 중 참고할 만한 것은 각주에 ‘(集成)’으로 표기하여 인용하였다.
5. 하나의 주석번호에 集成本 校勘과 譯注를 함께 단 경우에만 ‘(역주)’로 표기하였고, 그 외에 따로 밝히지 않은 것은 모두 역주이다.

6. 誤謬로 의심되거나 文義가 명료하지 않은 곳은 本書 내의 문장 및 다른 醫書를 참고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出典을 찾을 수 없거나 명확히 고증할 수 없는 경우 그대로 남겨두었다.
7. 原文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는 주석에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원문은 가급적 그대로 두고 번역문도 원문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단, 문맥을 크게 해치는 오류라고 판단되면 원문과 번역문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바로잡은 내용을 번역문에 직접 반영하였다.
8. 下卷의 <안과상용처방(眼科常用處方)>은 원래 제목이 없는 부분으로, 내용에 의거하여 편의상 명명한 것이다.
9. 번역문에서 한글과 漢字를 병기할 때는 () 안에 한자를 넣었고, 풀어 쓴 내용 뒤에 원문표기를 덧붙일 때는 ( ) 안에 원문을 넣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번역문에서 간혹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은 곳이 있다. 예) 養血 → 양혈 / 凉血 → 냉혈
10. 주석에서 書名은 『』로, 本書 및 다른 서적의 篇名은 「」로 표기하였다.
11. 폰트가 없는 글자는 ‘推广免’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12. 원문과 번역문에서 小字注文는 <>로 표기하였다.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은해정미 銀海精微

원저자 : 미상

국역 : 김혜일, 김종현, 박수현

해제 : 김혜일

편집 : 문진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초판) 2014년 12월 10일

(2판) 2016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고 역사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박상영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4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